

THE MISSILE

1962年 8月 25日 印刷  
1962年 8月 31日 發行

月  
刊

# 미사일

1962

9

特輯

우리들의 實踐을 沮止하는 것

나의 初年兵時節

유니폼 周邊

座談會

중이파괴기 명량한 생활



第 17 號



참모총장 공군중장 장성환

7대 참모총장(七代參謀總長)에 장성환 중장 취임(張盛煥中將就任)  
 지난 8월 1일 신임 참모총장에 장성환 중장(張盛煥中將)이 취임하  
 였다.  
 전 참모총장 김신(金信) 장군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었다.  
 그리고 참모차장에는 박원석(朴元錫) 준장이(8월 2일) 참모부  
 장에는 장지량(張志良) 준장(8월 6일)이 각각 취임하였다.



참모차장 공군준장 박원석



참모총장 공군준장 장지량

상(上) 동 이취임식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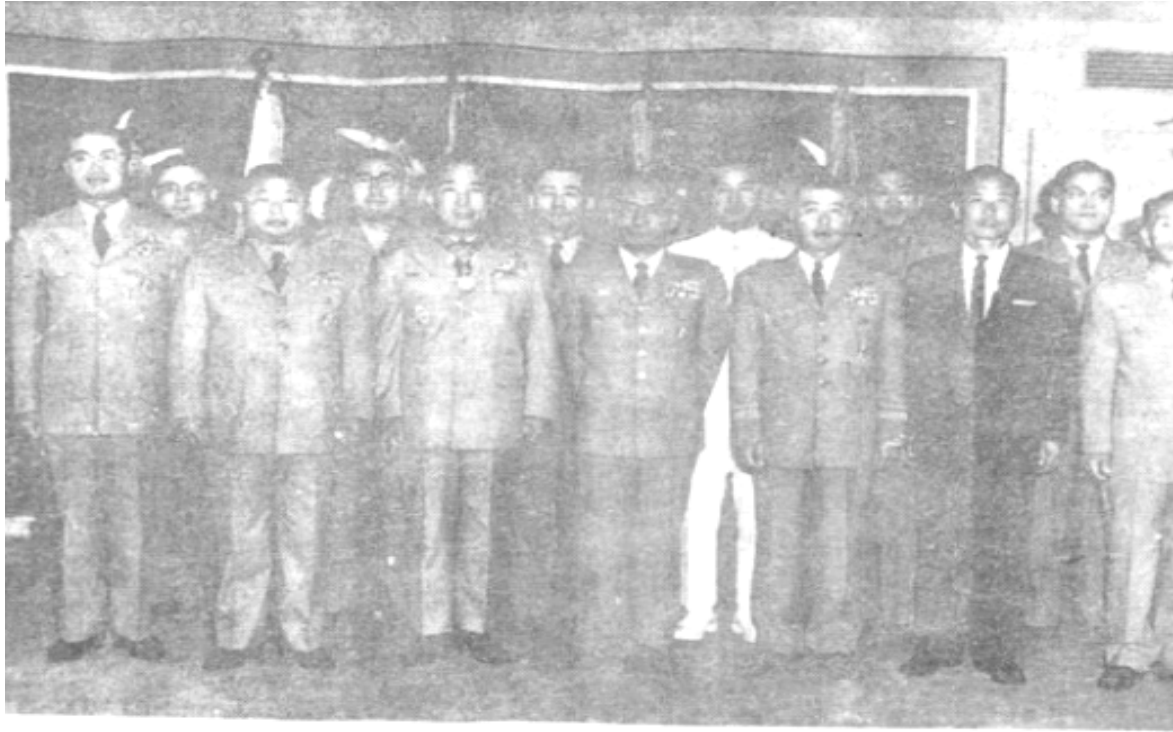


하(下) 지휘권을 이양받는 장참모총장(좌)





상(上) 박의장과의 기념촬영(신고후) 하(下) 내외 기자 회견 광경(8월 22일)  
<중앙(中央);장참모총장, 향좌(向左) 박참모차장, 향우(向右)  
장참모부장>





|                        |  |
|------------------------|--|
| 월간(月刊) 미사일 17호 차례      |  |
| 표지 그림 · 문학진            |  |
| 자(窓) 컷 · 우경희           |  |
| 목차 켄 · 우경희             |  |
| 내용 켄 · 백영수 이순재 우경희 이희세 |  |

|                                   |                          |            |
|-----------------------------------|--------------------------|------------|
| △ 화 보 △                           | ◇ 참모총장 이취임식(參謀總長 離就任式)   |            |
|                                   | ◇ 김내각수반 공본순시(金內閣首班 空本巡視) |            |
|                                   | ◇ 내무반 생활의 점묘(點描)         |            |
| 취임시(就任辭)                          | 공군중장 장성환(空軍中將 張盛煥) 2     |            |
| ☆ 이임시(離任辭)                        | 공군중장 김신(空軍中將 金信) 4       |            |
| 권두논문(卷頭論文)                        | 민주주의의 역정                 | 김기석(金基錫) 6 |
| 민족의 평등 주권의 평등 대륙 간의 평등 인종의 평등 이것이 |                          |            |
| 참되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설파(說破)! |                          |            |

|                                       |                        |
|---------------------------------------|------------------------|
| 미국핵전략(美國核戰略)의 기본구상(基本構想) (핵 전략서적의 해설) | 외지(外誌)에서 박 병 일 역(譯) 32 |
| ☆ 군축(軍縮)을 위한 현실적인 길 (하(下))            | P. 부라켓트 43             |

|                          |                         |        |
|--------------------------|-------------------------|--------|
| 특 집                      | 우리들의 실천(實踐)을 저지(沮止)하는 것 |        |
|                          | 비실천적(非實踐的)인 사고(思考)에 관하여 | 손명현 11 |
| ☆ 타성(惰性)과 실천(實踐)         |                         | 박술음 13 |
| ☆ 우유부단(優柔不斷)의 성격(性格)     |                         | 김덕보 15 |
| ☆ 판단(判斷)의 오류(誤謬)와 실천(實踐) |                         | 김석환 16 |
| ☆ 이론(理論)과 계획(計畫)의 결함(缺陥) |                         | 노현호 18 |
| ☆ 무계획(無計畫)에서 오는 것        |                         | 배민홍 19 |
| ☆ 의지박약(意志薄弱)에서 오는 것      |                         | 유덕천 21 |

|                          |             |
|--------------------------|-------------|
| 월남전(越南戰)의 성격(性格)과 과제(課題) | CE 리메이 34   |
| ☆ 소련진단                   | 외지(外誌)에서 36 |
| ☆ 모스크바와 행렬(行列)           | 외지(外誌)에서 37 |
| ☆ 세계(世界)를 움직인 책들⑨        | 오병수 84      |
| 생쥐와 인간(人間)               | 임희섭 78      |

|               |                              |  |
|---------------|------------------------------|--|
| 좌담회           | 을 말하는                        |  |
| 좋은 분위기 명량한 생활 | 사회 · 대위(司會 · 大尉) 민재익(閔載翼) 23 |  |

|                                     |                                   |                    |
|-------------------------------------|-----------------------------------|--------------------|
| 〈장병 페이지〉                            | 신병생활 점경(新兵生活 點景) 만필(漫筆) . . . . . | 하사 이규식 108         |
|                                     | 위반카드 (수상) . . . . .               | 병장 백만길 111         |
|                                     | 하늘 시화 . . . . .                   | 병장 정해심 109         |
| 우리부대(部隊)의 자매부락(姊妹部落)을 말한다 . . . . . |                                   | 항공본창(航空本廠) 72      |
| 나의 초년병 시절 . . . . .                 |                                   | 후라이 보이 광규석(郭圭錫) 81 |

|                                             |             |    |
|---------------------------------------------|-------------|----|
| ☆ 「까짓것이즘」의 병폐와 그 해소책<군내현상(軍內懸賞) 가작논문(佳作論文)> | 소령 김승로(金乘老) | 88 |
| ☆ <투·포> 백형인씨의 경우                            | 편집실         | 41 |
| 유니폼 주변(周刀) 멋·조풍연(趙豐衍) 꿈·추국희(秋菊姬)            |             | 68 |

|        |                       |        |
|--------|-----------------------|--------|
| 미사일 교실 | 민주주의 원리 세미나 <민주주의>    | 김낙봉 55 |
|        | 공산주의 세미나 <공산주의>       | 이동현 62 |
|        | 생활경제 A · B · C <생활경제> | 최호진 59 |
|        | 포도주 이야기 <생활과학>        | 이종진 66 |

|                            |             |    |
|----------------------------|-------------|----|
| ☆ 영화 지상감상 뉴른베르그 재판         |             | 85 |
| ☆ 린드버그의 성공 (항공발달사⑥)        | K · 나이트 83  |    |
| 선량한 사람들 (내가 만난 잊을 수 없는 군인) | 박영준 88      |    |
| 가을과 9 · 28과 나              | 박희주(朴喜柱) 99 |    |
| 텔레비존과 텔스타 진신위(陣信衛)         | 김기점(金基漸) 9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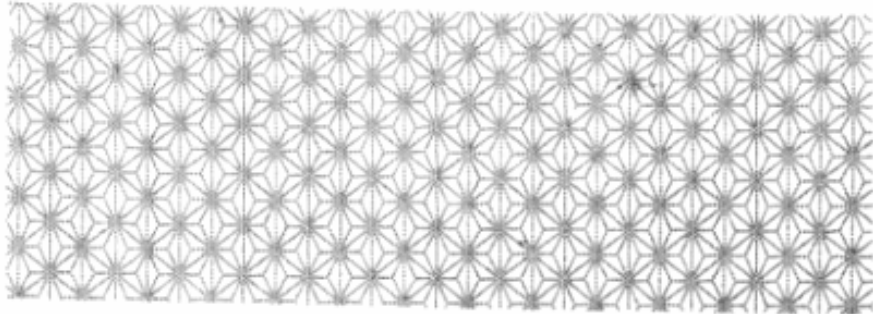
|             |                     |             |
|-------------|---------------------|-------------|
| 나를 움직인 책들 ① | 나를 구해준 「짜라투스트라」     | 권영대(權寧大) 44 |
|             | 쇼와 톨스토이의 작품들        | 민병태(閔丙台) 45 |
|             | 위대한 교훈 이순신전서(李舜臣全書) | 송대순(宋大淳) 46 |

|        |                   |                       |
|--------|-------------------|-----------------------|
| 수필     | 가을하늘의 서정          | 고정기(高廷基) 74           |
|        | 담배                | 이하운(異河潤) 75           |
|        | 화초(花草) 이야기        | 이현구(李軒求) 76           |
|        | 호박꽃(화 · 문(畫 · 文)) | 김영주(金榮主) 82           |
| 시      | 채송아               | 박남수 79                |
|        | 소녀상(少女像)          | 고 은(高 銀) 90           |
| 創作     | 우정                | 김이석(金利錫) 101          |
| 소설 번역  | 조용한 살인(殺人) 하(下)   | 로이 · 카로울 유기영 역(譯) 104 |
|        | 전략                | 권정식(權禎植) 27           |
| 현대의 방향 | 신앙                | 손우성(孫宇聲) 29           |
|        | PR                | 홍 천(洪 泉) 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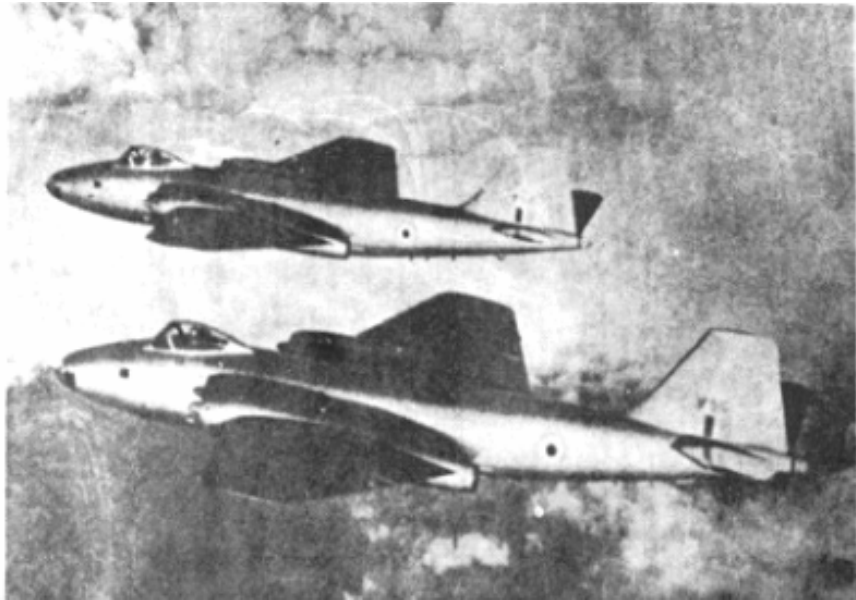




Migage III A전천후전투기(불)(全天候戰鬥機(佛)) — 불란서(佛蘭西)의 전위적(前衛的)인 요방기(邀幫機)로 1958년 5월 12일 취항. 최대속도 마하 2.05, 작전상승한도(作戰上昇限度) 82,000 ft, 항속 거리 1,850마일.



Canberra B 경폭폐기(영)(輕爆廢機(英)) — 1949년 5월 13일 취항한 영국(英國)공군의 중추적(中樞的) 경전술폭격기(輕戰術爆擊機). 최대속도; 40,000 ft 상공에서 44,000파운드의 중량으로 470 노트. 항속거리 3,155마일. 실용상승한도(實用上昇限度) 48,000 ft.



## 공무원윤리강령(公務員倫理綱領)

### <목적(目的)>

본강령(本綱領)은 공무원의 도덕적의무를 강조하고 공무원으로서의 덕성(德性)을 함양하여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충실히 복무하게 하는데 있다.

### <윤리강령>

1. 공무원은 애국정신으로 근면성실하게 봉사하고 나라와 겨레의 발전에 최대한의 충성심을 발휘한다.
2. 공무원은 국법준수에 솔선하고 질서를 존중(尊重)하여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한다.
3. 공무원은 현명한 판단과 고상한 인격으로서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신속정확하고 슬기롭게 직무를 처리한다.
4.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5.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역민(國民)의 수임자(受任者)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한다.
6. 공무원은 화목단결(和睦團結)하여 직장의 분위기를 명랑하고 평화롭게 조성한다.
7.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권폐적(權廢的)인 풍조를 물리치고 관범적(棺範的)인 가정을 이룩한다.

##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패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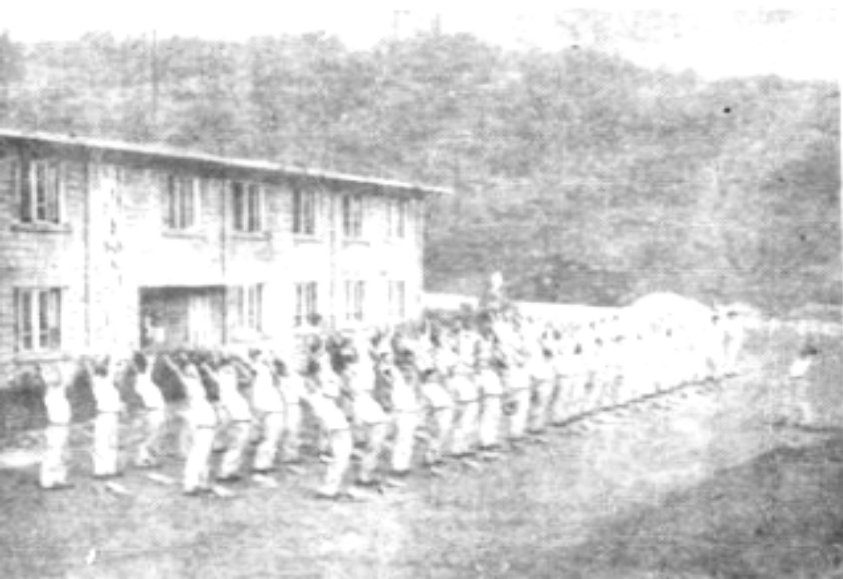
여기 청정한 젊음과 푸른 꿈을 조국의 하늘에 불살으며 보람 있는 나날을 즐거움으로 누벼가는 생활의 보금자리「공군내무반」이 있다.

상경하애(上敬下愛), 인화천결(人和閭結), 엄정한 군기를 오히려 자랑스러운 생활원리로 실천하고 있는 이들 내무반원들은 언제나 고락을 같이하는 한 가족이요 믿음직스런 전우다.

# 공군내무반원들의 생활

## 내무생활의 점묘

글—상병이석환(李錫煥)  
사진—하사한상열(韓相七)



### 광한생활



↑ 7. 레크레이션



↑ 6. 내무반장 회의

각종 현대적 시설을 구비한 우리들의 내무반은 우리를 한층 명랑하게 해준다. 그중에도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기 위한 회의실이나 끊임없는 지식의 샘이 되고 있는 도서관, 텔레비전, 바둑, 장기 등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오락실, 항상 시원한 물을 뿜어주는 샤워장 등은 훌륭한 우리 내무반의 캐비닛. 침대 등과 함께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 3. 세면장과 샤워장





# 좋은분위



↑ 8. 도서관



↑ 9. 오락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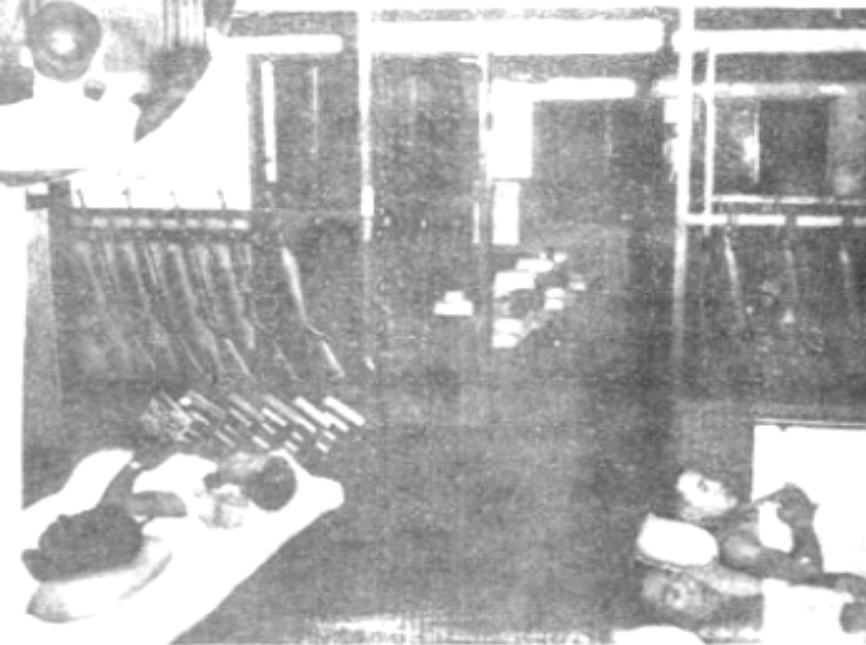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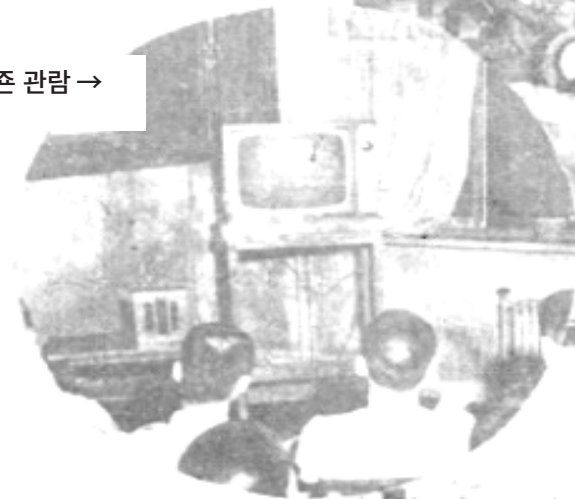


↑ 10. 식당



↓ 11. 면회실

13. 텔레비존 관람 →



↑ 12. 취침

여기서 우리는 그날의 피로를 풀고 내일의  
과업을 준비한다.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지식에의 갈증을  
해결기 위해 독서도 하고 토론도 한다. 때로  
는 텔레비존에 눈을 돌리기도 하고 > 병장  
과 바둑의 승부를 겨루기도 한다. 그리고 자  
기의 신변을 정리하기 위해 바느질(?)도 하  
고 집에 편지도 쓴다.

↓ 5. 신변정리



↓ 4. 배구시합



그러나 명량한 내무생활의 으뜸  
가는 요건은 아무래도 인화와 단  
결이다. 격의 없이 주고받는 다정  
한 말속에서 우리는 따뜻한 분위  
기를 느끼며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인생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음을 언제나  
감사하고 있다.



컬...우경희

미 사 일

제 17 호  
1962

발행처 · 공비본부 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 공군대령 주정호  
인쇄처 · 공군교재창  
인쇄인 · 공군대령 김석환

## 취임사 (就任辭)

공군참모총장(空軍參謀總長)  
공군중장 장성환(空軍中將 張盛煥)



외무국방위원장각하(外務國防委員長閣下) 하국방부장관각(下國防部長官閣) UN군사령관 「멜로이」장군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이 식전(式典)에 임석(臨席)하시어 빛나는 자리를 베풀어 주심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한히 감사하는 바입니다.

도리켜 보건데 작년에 성취한 5·16혁명은 국제정의(國際正義)와 민족적 양심에 입각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국가안전보장과 자립경제건설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거족적 진군(舉族的 進軍)의 결기(契機)를 마련하여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이 사명을 완수하려고 매진하고 있는 차제에 김신장군(金信將軍)과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됨을 장병과 더불어 섭섭하게 생각하며 아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김장군께서는 공군창설 이래 열렬한 애국심과 투철한 항공정신(航空精神)으로 우리 공군의 육성발전(育成發展)에 전력을 경주(傾注)하여 찬란한 업적을 이룩하시었으며 더욱이 총장임기중(總長任期中)에는 작전지단권(作戰指揮權)의 일원화(一元化)를 위하여 작전사령부를 설치하는 한편 전천후요격기대대(全天候邀擊機大隊)의 창설로 전력증강을 꾀하고 동양굴지(東洋屈指)의 항공정비보급창(航空整備補給廠)을 준공하시었으며 반공사상의 고취와 정신무장의 강화로 임전태세(臨戰態勢)를 하시는 등(等) 혁명대열(革命隊列)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눈부신 활약은 전장병의 존경과 국내외 요로(國內外 要路)의 많은 칭송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비록 김장군께서 공군을 떠나신다 할지라도 그 업적과 고매한 인격은 우리의 귀감으로 길이 빛날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의 중책수행(重責遂行)에 성공과 행복과 영광이 있을 것을 전장병과 더불어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공군은 건군 이래 역대참모총장임(建軍以來 歷代參謀總長任) 및 전장병의 애국애족(愛國愛族)하는 봉사와 희생으로 조국창공(祖國蒼空)을 방위하며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현대화된 공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김장군의 뒤를 이어 부덕한 소관이 공군참모총장(空軍參謀總長)의 직에 취임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나 한편 현시국(現時局)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참모총장의 임무와 책임이 막중함을 재삼(再三) 느끼며 미력(微力)이나마 장병들의 애국심의 뒷받침을 받아 자신의 열과 성의를 다하려고 결심하는 바입니다.



현금(現今) 국제정세는 목유(自由)와 평화를 수호하여 인류의 무한한 진(震)을 이룩하려는 자유진영의 굳은 결의에 도전하여 세계를 적화(赤化)하려는 공산진영의 횡포로 긴장이 조금도 완상(緩湘)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괴뢰(北韓傀儡)는 지금도 끊임없이 전력을 강화하고 재침(再侵)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가재건이란 민족적과업이 수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변(一便) 국방 일변(一便) 경제재건이라는 지상목표(至上目標)는 우리 세대가 완수해야 할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하며 여기 국방의 일익(一翼)을 담당한 공군의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현대 과학이 급속히 발달된 오늘날 항공분야의 과학 또한 가속도적(加速度的)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 및 장비상(裝備上)의 우열은 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관건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견지하며 우리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주우방(民主友邦)과의 긴밀한 유대와 적극적 협조를 꾀하는 한편 어느때든지 부하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까.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여기에 본관(本官)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통솔방침(統率方針)을 지시하면서 이에 적극호응하여 공군발전을 성취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개입에 영광을 가져오도록 힘써 주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는 협동단결해야 하겠습니까. 승리를 위하여 힘을 합(合)해야 한다는 원리는 지금까지 내려온 공군의 오랜 전통으로서 제관(諸官)이 물질면에 앞서 갖추어야 할 요소는 정신과 태도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인화단결(人和團結)하여 총력량(總力量)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주하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직무에 대한 헌신으로 애국심을 발휘해야 하겠습니까. 직업적 봉사를 통하여 직무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 봉사정신만이 우리의 주권과 자유를 수호하고 우리의 통일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이와 같은 정신을 밑받침으로 기술 및 행정의 과학적 관 운영(管 運營)을 통하여 전투력(戰鬪力) 배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계문명의 발달에 따라 이를 종합하고 운용하는 최종적인 핵심체는 인간임을 깊이 깨닫고 제분야(諸分野)의 관리운용 방식을 연구발전 시키도록 힘써야 하겠습니까.

끝으로 오늘 영광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공군의 발전과 국가를 하여 일신(一身)을 바친 하늘의 용사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오늘까지 시종일관 우리 공군의 육성발전(育成發展)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 앞에 그리고 국방부를 위시(爲始)한 육해군 해병대 및 미공군 UN군사령부의 헌신적인 지원과 협조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장병들의 보다 나은 분발로써 공군의 전통과 정신을 받들어 신성한 국방사명과 국가재건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는 여러분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62년 8월 1일

## 이임사 (離任辭)

전참모총장(前參謀總長)  
공군중장 김신(空軍中將 金信)



외무국방위원장각하 국방부장관각하(外務國防委員長閣下 國防部長官閣下) 「멜로이」 장군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친애하는 공군장병과 더불어 오늘 이 식전(式典)을 가지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本人)이 천학비재(淺學菲才)의 몸으로서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이내 상사 선배 내외친지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장병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좌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임기간중(在任期間中) 중책을 다하기에 진력할 수 있었음을 무엇보다 감사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로서 본인이 20개성상(二〇個星霜)에 걸친 군문(軍門)에서의 조종사 생활을 끝마치게 된 것을 돌이켜 보니 기간(其間) 전장병과 같이한 사활선상(死活線上)의 고락이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본인의 머리속을 스쳐 가고 있어

깊은 감회를 금할 길 없습니다.

회고하건대 공산적(共產敵)의 불법남침으로 6·25전란이 발발하여 가진 민족수난의 역경 속에서도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고 비록 짧은 역사 속에서나마 역대총장(歷代總長)의 헌신적인 공헌으로 우리 공군은 오늘날 조국방위의 일익(一翼)을 담당할 수 있는 현대적 전술공군으로서 그 기틀을 굳건히 하여 왔음을 마음 든든히 여기는 바입니다.

더구나 4·19혁명후부패(四·一九革命後腐敗)와 혼란한 국가민족 존망의 위기에서 5·16혁명으로 구국제민(救國濟民)의 민족적 전기(轉期)가 마련된 새 역사 창조의 혁명대열에서 전장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은 포결(團結)과 인화(人和)로써 확고부동(確固不動)한 군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국가재기(國家再氣)의 민족적 과업수행에 다소나마 이바지할 수 있었음을 생각하여 그 영예 길이 간직하려 하지만 한편 본인의 능력과 노력이 미흡하여 보다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에 만유감(萬遺憾)없었는가가 다만 염려될 뿐입니다.

우리 공군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술공군으로서의 전투력을 배양하고 자유수호를 위해 반공전선의 최첨단(最尖端)에 서서 여하(如何)한 적침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공태세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게 된 것은 오로지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의 불타는 애국심과 불굴의

민주주의의 역정(歷程)

민주주의의 새로운 단계를 위하여-

김기석(金基錫)  
★학술원회(學術院會)

1(一)

서양의 중세는 교회정치, 제사정치(祭祀政治)의 시대였다. 로마 교회가 놀라운 권위로 현세의 세력 위에 군림하여 사람들의 생활과 관심을 한결같이 내세에 향하게 했다. 현세가 아니고 내세, 지상이 아니고 천상, 정치가 아니고 종교, 세속이 아니고 금욕……이렇게하여 사람들은 현세의 생활을 이방의 표랑(漂浪)으로, 내세의 생활을 고향에 돌아간 생활로 생각하여 오로지 마음을 사후의 세계에만 두었었다.

그랬는데, 교회의 권위와 기반이 흔들리고, 새로 일어나는 도시들이 생활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고학부흥(古學復興)과 지리상 발견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눈앞에는 지상생활의 새로운 수평이 열렸다. 오랫동안 위로부터의 권위에 눌러 오던 개인은 비로소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며 자기의 느껴온 감정과 생생한 맥박에 돌아 왔다. 부풀어 오른 가슴, 시원한 대기(大氣), 검은 대지, 봄빛을 가득 안은 아지랑이와 푸른 하늘……중세의 오랜 구속에서 풀린 새로운 개인은 여기에서 한없는 힘과 희망과 꿈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렇게하여 생명의 크나큰 융솟음이 흐르기 시작했다. 모든 권위와 구속을 박차고 산줄기 줄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푸른 계곡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 가지고 놀라운 기세로 내닫기 시작했다. 산언덕을 돌고, 돌을 깨뚫고 바다로 향하여 내닫고, 시냇물 하나 하나가 여기에 합세하고, 풀과 나무가 푸른 빛을 여기에 던져 줄기찬 형세가 대지를 흔들고, 장한 물소리가 하늘에 찬 것이었다.

민주주의는 이같은 근세적 생명의 대분류(大奔流)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개인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을 존중한다. 개인과 인격과 평등……이 세가지는 민주주의의 기본 신조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신조는 1517년 루터가 일으킨 종교 개혁에서 그 영명(英明)한 싹을 받아 가졌다. 지금와서는 민주주의가 정치상 또는 사회상의 하나의 체제처럼 되어 있거니와, 본래는 정신의 하나의 방향 또는 태도인 것이니, 여기에 체제와 태도를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영현(英玄)함이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깊이 역사에 연결되고, 또 그자신 하나의 역사적인 과감한 행위이다.

투지가 그 바탕이 되었음은 물론 국방당국을 비롯해 육군 서군 일해병구(陰軍 激軍 一海兵獸)의 뜨거운 흙도(愾導) 및 협맥(協脉) 그리고 미국을 위시(爲始)한 우반(友叛) 공군의 아낌없는 물심양면에 걸친 절대적인 성원의 힘이 뒷받침하여 왔음을 재삼(再三) 느끼며 본인이 재임기간중(在任期間中) 여러분이 보내주신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거듭 내심(萊基)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쁘고 믿어온 사실은 본인의 후임으로서 막역한 전우이며 전 장병의 존경과 신망을 한 몸 에 지닌 장성환(張盛煥) 장군이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장장군은 6·25전란 중 방공 구국전선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나눈 전우일 뿐 아니라 공군초창기부터 우리 공군의 중진간부(重鎭幹部)로서 중추적 역할을 다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참모차장(參謀次長)으로 공군의 운명을 본인과 더불어 지니기에 진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장장군의 이러한 탁월한 지휘통솔력(指揮統率力)과 온후한 덕성 아래 전장병이 전심포결(全心團結)하여 보다 획기적이고 훌륭한 내일의 공군 발전이 이룩될 것으로 굳게 믿으며 또한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공군장군(空軍將軍) 여러분!

본인이 이 자리를 빌어 몇마디 부탁 드리고저 하는 것은 현금(現今)의 국내외정세를 지시(茫視)하고 공산괴뢰(共產傀儡)가 침략의 야욕 밑에 공군력 계속 증강하기에 광분(狂奔)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적의 공중기습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투작전용병(戰鬪作戰用兵)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기(戰技)를 가일층(加一層) 연마 함으로써 일기당백당천(一騎當百當千)의 불보다 질적인 전투력강화에 발진(發進)하여 줄 것과 또 하나는 군(軍)은 국가민족의 영원한 안녕복지(安寧福祉)와 국토방위의 성스러운 대업을 위해서만이 존재하며 군을 위해서는 개동인(個同人)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대의를 위하여는 의연히 소아(小我)를 버릴 수 있는 희생정신의 주인공이 되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장병여러분은 5·16혁명으로 우리 국가와 민족이 새로운 삶의 보람찬 역사적인 시점에 서 있다는 자부심과 각오를 견지하고 여러분들에게 부과된 군의 사명과 국가재건이라는 일신양역(一身兩役)의 막중한 임무를 잠시도 잊지 말고 혼연히 공지일체(空地一體)가 되어 이제까지 쌓아 올린 값지고 훌륭한 업적을 더욱 닦고 빛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平素)」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린 군대는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는 옛말을 되새겨 평소에 실전과 같은 훈련을 거듭해 국가의 부름에 언제나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역군(役軍)이 되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제 정(情)드린 군문(軍門)을 떠나 장병 여러분과 몸은 헤어질지언정 마음은 항상 태극표식(太極標識)의 은익(銀翼)에 몸을 실고 조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하여 힘차게 나르는 젊은 보라매들과 같이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미력(微力)이나마 장병 여러분과 더불어 혁명과업완수에 분골쇄신(粉骨碎身) 진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인은 전투와 훈련을 통하여 생사고락(生死苦樂)을 같이하다 애석하게도 순국산화(殉國散華)하신 선배전우의 남기신 공(功)을 높이 기리어 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과 장병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길이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떠난 후에도 내외귀빈 여러분께서 우리 공군의 육성발전(育成發展)을 위하여 배전(倍前)의 배려와 끊임없는 협조로써 성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공군장병 여러분의 건투와 여러분 가정에 복된 앞날이 있으시기를 빌면서 인사(人事)에 대(代)하는 바입니다.

1962년8월1일



역사를 뜯어고치고 역사를 바로 영도하는 것이 아닌 한, 자기를 민주주의 또는 그 운동으로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근세의 민주주의는 중세에 대한 반향, 그 부정(否定)으로 출발했다. 서양 중세를 이끈 정신이 내세주의(來世主義)였다고 하면, 여기에 바뀐 것은 현세주의(現世主義), 거기에 군림한 것이 로마 교회, 봉건제도였다고 하면 새로운 세력은 어린. 왕실과 신교주의 교회, 그리고 상업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많은 왕실 신교주의신파(新敎主義新派), 근대 도시들이 생겨서 이것들이 자라나 민족 국가, 각국 국교회(國教會), 산업주의, 문명으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먼저 권력을 잡은 것이 왕실 또는 왕권으로 해서 오랜 동안의 지긋지긋한 교권에 눌렸던 백성들의 가슴이 채 풀리기도 전에, 영란(英蘭)의 왕실을 위시한 여러 나라의 왕실들이 절대 왕권을 휘둘러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1642년 영국에서는 국왕 찰스 1세의 전제에 항거하여 크롬웰이 지도하는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찰스 1세가 처형되고 공화정이 실시되었다가 다시 왕정이 복귀되었다. 1775년 미 식민지에서 영국 본토에 대한 독립전쟁이 일어나 76년 7월 독립을 선언, 77년 독립군의 승리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성립을 보기에 이르렀다. 미 독립전쟁에 참가했던 불란서 군대가 본국에 돌아와 신대륙의 소식을 전함에 따라 1789년 불란서 혁명의 폭발을 보아 혁명의 커다란 기운이 전 구라파에 번져나갔다.

영국 혁명과 미국 독립과 불란서 혁명……이 세가지 역사적 사건은 근세 민주주의의 불멸의 탑으로서 특히 미국 독립선언과 불란서의 혁명당시의 인권선언은 민주주의 근본신조가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대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동서의 인심에 많은 영향을 끼쳐 오고 있는 것이다.

불란서 혁명 이후 수많은 나라에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수립되었으며, 자유와 평등과 우애를 존중하는 정신과 풍조가 놀라운 형세로 오르기 시작했다. 유럽의 여러 왕실들이 왕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귀족이나 승려(僧侶)를 누르면 누를수록 이 왕권에 연계된 상업주의, 서민주의는 놀라운 발달을 이루어 여기에 근대과학을 그 총포와 함대건조(艦隊建造)에 이용한 유럽 열강의 융창(隆昌)을 보기에 이르렀다. 18세기 이후의 서구사(史)는 이 유럽 열강의 쟁패(爭霸)의 역사로서, 다른 한편 유럽대륙이 다른 대륙을 누른 유럽 팽창사(膨脹史)이기도 한 것이다.

이 유럽 열강의 융창은 그 아래 많은 그늘을 가져왔다. 피압박민족(被壓迫民族), 농노, 공장노무자, 빈민굴, 백인에게 팔리고 혹사되는 흑인 노예…… 이들을 누르는 강대국이나 자본계급이나 백인종은 그 조직된 권력과 법 체제를 가지고도 이 요원의 불길같이 일어나는 놀리는 자의 반향을 마구 꺾어 버릴 수는 없었다. 민족 해방운동, 노동운동, 노예 해방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衡平運動)이 세계의 여러 곳에서 일어나 19세기는 분명히 혁명, 반향, 해방, 투쟁의 줄기찬 계속 이었다. 민주주의는 불란서 혁명이 그 관성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시초였던 것이다. 불란서 혁명의 표어인 자유와 평등과 우애가 그대로 민주주의의 정신으로서 정치와 사회와 문화, 그리고 인간의 심령 속에 나타나지 못한데 민주주의의 다하지 못한 패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2(二)

근세 자연과학의 발달에 따르는 기계의 발명과 공장제도(工場制度)와 생산을 증가시키는 과학적 기술은 아닌 게 아니라 생활수준의 놀라운 향상을 가져왔다. 빈곤이 지상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이 희망은 각 개인이 자기의 권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민주주의 신조에 의하여 한층 더 제고(提高) 되었다.

그러나, 공장가의 광경은 이 희망을 완전히 부셔버렸다. 공장가의 광경은 한층 더 심한 비참과 공상을 노정(露呈) 할뿐 이었다. 빈농(貧農)들의 곤경(困境)은 과학과 기계의 힘에 의하여는 해결되리라는 신념 때문에 누구나 이것을 바로 들여다 보려고 하지 않았다. 가난은 번창(繁昌)의 한 복판을 골라 가면서 꺼리는 양 싫었다. 변화로운 대도시인 런던, 베를린, 파리, 뉴욕 같은 불야성(不夜城)에 빈민굴이 생기기 시작했다.

공장과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 운하와 철도부설에 종사하는 임금 노동자, 수부(水夫), 항만노역자, 농부들 중의 품팔이 군들은 그 받는 보수가 극히 적었다. 거기에 몇 해씩 만에 돌아오는 불경기가 휩쓸어 소시민, 중농(中農)들이 파산되면서 이들이 모두 빈민 계급에 굴러 떨어지는 것 이었다. 이렇게하여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쫓겨나는 공포속에 휩쓸려 그날 그날의 가족의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기아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었다.

공장 노동자와 광산 노동자들의 생활이 자꾸만 비참 속에 굴러 떨어지고 대도시에 빈민굴이 전염균의 무더기처럼 번져 나가는데도 정 부에서는 공장입법(工場立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불란서에 1848년 노동자들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해에 파리의 노동자들이 자유주의자들과 동맹하여 국왕을 내어 몰고 불란서 제2공화국을 세웠다. 이 제이공화국에 있어서 노동자들은 선거에 참여하는 권리를 얻기는 했다. 그러나 그들은 투표하는 권리 이외의 것을 얻으려고 했다. 그들은 이 투표권을 사용하여 항구한 일자리를 얻고 사회주의 프로그램에 의한 더욱 개선된 노동 조건을 쟁취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1848년 파리에서 일어난 노무자들의 지도자는 젊은 변호사 루이 블랑(Louis Blanc)이었다. 그는 정부가 먼저 공장과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것을 나중에 노동자 손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생각하기를 노동자 자신이 마땅히 공장을 운영하고 그 이익을 노동자들끼리 분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통 선거권이 보장(保障)되지만 하면 여기에 의하여 자기의 프로그램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국과 미국에 있어서 노동조합들은 사회주의에 전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보다 나은 임금과 보다 개선된 노동조건을 원했다. 불란서에서는 노동조합이 산디칼리즘(syndicalism)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운동은 혁명에 의하여 자본계급의 전복을 바랐으나 정당이나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고 노동자들의 사보타지나 총동맹 파업에 의해서 이것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독일에서는 1875년 독일 사회민주당이 결성되었는데, 그들은 무력혁명에 의한 방법을 좋지 않게 생각했다. 독일에 있어서의 황제의 권력을 부정하면서 이들 사회민주주의 자들은 사회개혁을 서둘렀다. 그들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하여 의회의 대다수를 점령하고 공장을 자본가로부터 몰수하고, 이것을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영국에서는 노동자들과 온건과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하여 1902년 노동당이 결성되었는데 그 뒤 이것이 점점 자라나 제일차 대전후에는 자유당에 대신하여 사회개혁의 전위대가 되었고, 제2차 대전후에는 의회를 통하여 사회주의 프로그램을 추진시키는 주도 세력이 되었다. 근세 구주문명(近世歐洲文明)이 낳고 그 자신 해방하지 못한 것이 둘이 있으니, 하나가 무산계급, 다른 하나가 피압박 민족(被壓迫民族)이다. 국제노동운동과 민족해방 운동과……이 두가지 운동은 근세 유럽 문명이 닿은 것이면서 실상 거기에 의하여 스스로의 목이 졸리는 노끈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피압박민족(被壓迫民族)의 문제는 서력동점(西力東漸)의 거센 바람과 함께 생긴 것이거니와, 유럽이 근대국가 형성과 산업 혁명에 의하여 자기 스스로의 힘을 길렀을 때 이미 구라파 안에 그 종자를 뿌린 것이 었다. 피압박 민족은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니, 구주열강(歐洲列強)에 눌리는 구주(歐洲)와 그 밖의 피압박 민족일 것이다. 전자를 눌린 대륙이라고 불려도 좋을 것이다. 애란(愛蘭)과 체코와 폴란드의 경우는 전자에 속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경우는 후자에 속 한다. 피압박 민족 또는 지역으로 우리들은 애란, 체코, 폴란드, 인도, 중국, 한국,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중동, 동남아시아의 여러 민족과 지역을 들 수 있다. 이 여러 민족들이 불란서, 영국, 화란을 위시한 구주열강에 눌리어 그들의 종이 되고 시장이 된 것이었다.

애란(愛蘭)이 칠·팔백년에 걸쳐, 인도(印度)가 삼백년에 걸쳐 영란(英蘭)의 기반을 벗어나기에 힘썼다. 중국은 구주열강(歐州列強)의 합세된 힘으로부터, 한국은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혹은 백년, 혹은 40년을 줄기차게 싸워 내려 왔다. 제2차대전 종전과 함께 많은 신생 국가들이 생겼다. 인도, 파키스탄, 실론, 월남, 한국, 인도네시아, 사이프러스, 말레이, 라오스 그밖에 아프리카의 수많은 신생독립국가들……세계지도는 역사가 있는 이후 처음으로 여러 모양의 빛깔로 칠해진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증가된 국명(國名)과 그 지도상에 나타난 빛깔만으로 피압박민족의 해방이 성취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도리어 강대국의 형태, 피압박 민족의 양상이 바뀌진데 지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주(歐州)안의 애란(愛蘭)과 구주(歐州)밖의 중국과 한국이 침략자의 강압을 물리치기 위하여 오랜 동안의 피투성이 싸움을 한 것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 정신을 굳건히 지켰고, 또 이것을 전진시킨 귀중한 기록이 되는 것이다.

구주 열강의 제왕주의 으로의 항진(抗進)이 그들에게 눌리는 많은 피압박 민족 및 지역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저들의 제왕주의는 결국 저들의 탐욕, 이기주의(利己主義), 우월감의 국가적 형태인 것이니, 그 인간성, 그 인생관이 근본적으로 개변(改變)되기 전에 민족과 민족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 심지어 대륙과 대륙 사이의 참된 평등이 있기 어려울 것이다. 민족의 평등, 주권의 평등, 대륙의 평등, 인종의 평등……이것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표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인종으로 눌리고 대륙으로 눌리던 유색인종과 그들의 대륙이 일어섰다. 아시아 사람의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의 아프리카가 되면서 여기에 침략자로서가 아니라 어진 이웃으로서의 구라파 사람을 섞었을 때 현세기의 민주주의가 그 올바른 유상(流床)을 흘러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三)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들은 자기의 권리와 권익을 주장하는 것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만 있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는 없는 줄로 알고 있다. 개인의 경우고 민족의 경우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는 다음의 세 가지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과 봉사와……자유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평등이 없는 곳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봉사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개체의 . 자유와 개체와 개체 사이의 평등과, 그리고 전체에 대한 봉사와……민주주의의 이 빛나는 정신이 오늘에 이르러 다시 고양되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혁명은 이 같은 참된 민주주의를 한반도와 아시아대륙, 그리고 널리 세계에 퍼기 위한 최고 최종의 혁명인 것이다.

## 우리들의 실천(實踐)을 저지(沮止) 하는 것

### 특 집



◇타성(惰性)과 실천(實踐)

◇우유부단(優柔不斷)의 성격(性格)

◇판단(判斷)의 오류와 실천

◇이론(理論)과 계획(計畫)의 결함(缺陷)

◇무계획성(無計畫性)에서 오는 것

◇의지박약(意志薄弱)에서 오는 것

비현실적(非現實的)인 사고(思考)에 관하여

## 뒤떨어진 우리생활 과학으로 재건하자

<제8회 과학전람회 표어>





## 비실천적사고(非實踐的思考)에 관(關)하여

손명현(孫明鉉)

☆고려대학교수

주어진 제목 「비실천적 사고(非實踐的思考)」라는 말에 의하여 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사고」 따라서 「실효(實効)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하 다소(多少)의 소견을 진술하여 보려고 한다.

우리는 이 우주의 근원적인 사실로서 생(生)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때로는 역사상에 생을 기피·저주하는 염세주의라든지 혹은 허무주의 같은 사상이 일부 인사들에 의하여 창도(唱道)된 일도 있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상은 「생(生)」이라는 우주적인 큰 사실의 사이 사이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거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가 「생(生)」에 대한 외경(畏敬)을 도덕과 종교를 비롯한 모든 인간영위의 대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생(生)을 유지하고 그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 - 이것이 모든 인간영위의 근본동기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생(生)은 진공(眞空)속에서나 일개인(一個人)만의 생(生)으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타물(他物) 혹은 타아(他我)와의 상호관계 혹은 교지(交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체와 환경 - 이 환경은 자연환경일 수도 있고 사회환경일 수도 있다 - 과의 상호관계, 상호교섭에 의해서만 우리의 생(生)은 영위되고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가(史家) 「토인비」가 그의 역사관(歷史觀)의 원칙으로서 환경으로부터의 도전(challenge)과 이에 대한 주창(主讎)의 응답(Response)을 말하고, 이 도전과 응답의 상이성에 따라 상이한 민족문화 내지 문화원이 형성된다고 하고 있음은 올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點)을 구체적으로 예설(例說)하여 보자, 보통 동양문화와 서양문화는 각기 특징을 달리한다고 한다. 전자(前者)는 직관적이고 후자(後者)는 논리적, 전자(前者)는 종합적이고 후자(後者)는 분석적, 전자(前者)는 정적이고 후자(後者)는 동적 등등(等等). 또 같은 동양문화라 하더라도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을 비교하면 서로 다른 점이 있고, 서양문화 역시 그렇다. 왜 그렇게 달라진 것인가. 환경의 도전과 주체의 이에 대한 응답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양 혹은 아세아의 사회와 서양사회의 중심인 구라파(歐羅巴), 특히 그 문화의 발상지인 지중해 지역을 비교하여 볼 때, 전자(前者)는 대륙성 기후이고, 후자(後者)는 해양성 기후이다. 대륙성 기후에 있어서는 우량이 고르지 못하여 한발(旱魃)이나 홍수가 일어나기가 일수다. 이에 반(反)하여 해양성 기후에 있어서는 우량이 고르고 따라서 큰 한발이나 홍수가 일어나는 일이 없다. 결과 전자(結果 前者)에 있어서는 농경에 필사(必要)한 치수작업(治水作業)이 국가적 규모의 대사(大事) 업(業)되고 이 사업의 지휘권을 장악한 자 - 그것이 전제군주이다 - 의 권력이 일절대적(一絕對的)이다. 이에 반하여 해양성 기후의 지역에 있어서는 농경을 함에 있어서 지배자의 권력에 의존(於存)함이 없다. 따라서 전자(前者)에 있어서와 같이 그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다. 그 결과 전자(前者)에 있어서는 전제군주 하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무시되고, 후자(後者)에 있어서는 그것이 신장되어 민주주의적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이 발달 된다. 소위(所謂) 아세아 사회의 정체성의 근본원인도 이러한 점에 있다 하겠고, 위에서 열거한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상이한 제 특징 근원적으로는 이러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같은 동양민족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민족성의 한 결합으로 지적되는 사대주의적 근성도 민족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사세부득기(事勢不得已)한 처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륙의 거대한 침략적인 세력에 인접하고 있는 약소국가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대(事大)는 하기 싫어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 우리는 「토인비」에 따라 인간의 생(生)과 문화가 유경(遺境)의 도전에 대한 주체의 응답에 의하여 영위·형성됨을 과거를 기초로 하여 밝힌 바이지만 과거는

이미 주어진 사실로 종든 그르든 어찌 할 수 없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이때 이곳의 현실이요, 이 현실을 통하여 더 좋은 미래를 창조하는 데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 및 이 과거에서 유래한 현재, 현실은 다양다종(多樣多種)한 문제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체에게 도전 한다. 이 문제, 도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사고는 실천적, 생산적인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현실과 유리(遊離)된 것이며 따라서 비생산적이라 고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여 보기로 하자, 해방 후 우리는 자유를 구가하였고, 정치를 비롯한 각 부문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지도원리로 삼았다. 자유와 민주주의만 형식적으로 실시되면 선진국의 대열에 끼게 되리라고 믿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와 반대로 해방 후 얼마 가지 않아 심지어 「일제시대만 못하다」 「해방을 도로 물렸으면 좋겠다」 등등의 말이 나오게 되고, 자유와 민주주의는 방종과 무질서와 전제와 억압(抑壓)으로 전화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올바른 경우와 도리가 통하지 않게 되고, 사악과 폭력만이 도량하여 국가의 운명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 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비현실적, 비과학적 사고방식에 연유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무릇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서구인에 있어서는 자유와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 수천년 동안 그들의 혈육화(血肉化)하고 있는데 반(反)하여, (Democracy라는 말 자체가 원래 그리스어고 Demo는 민중이, Cracy는 지배 한다는 뜻인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말이라도 기탄없이 하게 된 것은 해방 후의 일인 것이다. 이렇게 일천(日淺)하기 때문에 자유는 즉 자율이요, 스스로 자각하여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며, 자각, 자율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엄격한 자기책임을 상반한다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는 것으로 그릇 생각하였던 것이다. 대로(大路)를 내왕(來往)하는 것은 무인(務人)의 자유다. 그러나 이 자유를 향수(享受)하려면 교통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함이 없이 각인이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내왕한다면 좌충우돌, 사고가 빈번 할 것이고 자유는 자기 자신의 묘혈(墓穴)을 파는 결과밖에는 초래치 않을 것이다. 다음 민주주의를 반성하여 보자 초특징(超特徵)은 무엇보다도 다수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다수의 교양과 양식(良識)이 어느 정도의 것인가 하는 점에 민주주의 성패의 관건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직도 문맹이 상당한 수에 달하고, 신문도 읽는 사람보다 읽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가 아닌가. 이런 민중에게 일정한 연령이상은 일대일로 선거권을 부여한 결과 어떤 사람에게 투표해야 할지 분간을 못 할 정도이고 그저 반장이나 통장 혹은 경찰의 지시대로 하거나, 혹은 금품에 매수되거나, 혹은 씨족관념(氏族觀念)에 좌우되어, 권영술책(權影術策)과 금력(金力)과 권력이 도량하는 터전이 되었을 따름이고, 이렇게 하여 당선된 자의 안중에는 국가민족의 번영과 운명보다도 일신일가(一身一家)의 영달(榮達)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가. 이러한 자들이 무슨 입법을 하고, 무슨 정치를 한단 말인가. 이미 수천년전 공자가문 말씀에도 악독한 정치는 호랑이나 이리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공산침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부패와 무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의 일부는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릇된 견해, 우리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 직시함이 없이 그저 덮어놓고 외래의 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만사가 잘 되려니 하는 안이한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현실, 환경의 문제, 도전에 대한 주체의 응답, 해결이 적당치 못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비실천적, 비과학적, 비생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비로서 「지도적 민주주의」나 혹은 「행정적 민주주의」니 하여 후진국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가 논의되게 되고, 선거에 있어서는 부패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후보자의 적격심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국가공영제가 계획(計畫)되고 있는 것은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여하간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아무리 불품 없고 허다한 결함과 후진성을 내포하고 있자 하더라도, 허다한 국토 허다한 민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토, 이 민족의 일인으로 태어난 이상, 「잘났어도 내 낭군, 못났어도 내 낭군」이라는 의식에 투철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생을 일보라도 향상시키는데 각기 맡은 바 직장에 있어서 전력을 다하는 외 우리의 진정한 생(生)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각하에서만 진정한 의미의 실천적인 사고, 생산적인 사고가 싹틀 것이며, 이에 의하여 민족, 국가의 당면한 문제해결에 노력할 때, 고유한 민족문화가 형성되고, 이를 매개로 하여 나아가서는 세계문화에 공헌하고, 우주적 생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될 것이다.



## 타성(惰性)과 실천

박술음(朴術音)  
☆취문중고교장

### 1. 이론과 실천에 관하여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하는 일에는 양면이 있다. 즉, 이론의 면과 실천의 면이다. 이론이라 하면 다만 경험이다. 개개의 사실에 관한 흠어진 지식이 아니고, 그것들을 법칙적, 통일적으로 이해시키는 종합적인 원리적인 인식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실천적, 타당성의 검증을 떠나 순수이성에 의하며 순 개념적으로 짜여진 논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실천이라 하면 일상생활과 하는 일에 있어서 목적의 구현을 위하여, 실제로 행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하는 일에는 이론과 실천의 면이 있다. 이것은 마치 사물에 현상과 실제의 면이 있고 현실과 이상의 양면이 있는 것과도 같다. 그렇다면 이론과 실천은 그 어느 것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까? 그러나 이것은 그 어느 것이 반위라고도 속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각인의 견해에 따라, 하는 일의 자예(自禮)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르겠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학적 성공이라는 분야에서는 올바른 이론적 근거 밑에서만 그 성취가 가능한 것이요 만약, 이론에 오류가 있다면 아무리 실험과 그 성공에 위한 노력과 실천이 있다할지라도 그 일은 성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비하여 도덕적 분야에는 전자와 그 성질에 좀 다른 바가 있다. 도덕이란 원래 개인의 자각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의지로서 행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의 본의는 결코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있는 것이다. 이론이 필요하다면 것은 오직 실천을 위하여서만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아무리 고상한 이론이라 할지라도 실험(實驗)함이 없으면 그 이론은 관념의 유희에 불과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할진대 이론과 실천의 양자중(兩者中) 결정적인 우위여하(優位如何)는 말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는 할 일의 성취를 위하여서는 이론과 실천의 양전(兩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삼 인식하여야 하겠다.

### 2. 실천을 저지는 여러 가지의 요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론과 실천이 양전하여야만 하는 일은 성취될 것이다. 이제 이론의 면은 제쳐놓고 실천의 면만을 보기로 한다. 실천의 면에서도 우리들의 실천을 저지하는 요인에 국한하기로 한다. 실천이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겠으나 이의 실현화는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 이것은 우리들의 실천을 저지하는 요인이나 많기 때문이다.

#### (1) 경험과 능력의 부족

인간생활에 있어서 경험같이 긴급한 것은 없다. 즉, 사람과 사람사이에 혹은 사람과 외계와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의 온갖 사회적 실천이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고 사람이 외계를 변혁함과 동시에 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이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의 실천을 저지하는 큰 요인이 된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지능검사라든가 적성흥미검사, 인성검사와 같은 각종 표준화검사를 실시 한다. 그 목적은 물론 피검자(被檢者)의 각종의 능력, 적성의 경향성, 흥미의 방향, 인성여하(人性如何) 측정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자신에 대한 공정한 객관적 평가를 하게 하기 위하여서라 하겠다. 세계를 뒤흔든 현대의 전쟁영웅, 나폴레옹은 「불능이라는 말은 바보들의 사전속에서만 볼 수있는 한낱의 어휘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였다고 하나 그러나 사람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불가능한 것이 많다. 따라서 우리의 능력으로 보아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실천하지 못할 것이 있다. 즉 무능력은 또한 우리의 실천을 저지하는 요인이 된다.

#### (2) 자율성(자유의지)의 억압

자율성(자유의지)이 억압(抑壓)된다는 것은 우리의 실천이 저해되는 것이다. 자율성이라 함은 각인의 의지 자유에 근거한다. 자유의 근원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의지에 있고, 의지는 자기원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자기원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말은 즉 자기의의지에 의하여 행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의지는 자유로워야 하고 우리의 실천이성이 명령하는 바를 그대로 구김살 없이 실천해야 한다. 만약 다 소라도 실천이성의 명령의 권위가 손상되는 제삼자의 역력이 가해진다면 곧 자율성이 억역(抑壓)을 당하고 이것이 우리의 실천을 저지하는 바 심(甚)할 것이다.

#### (3) 좋지 않은 환경

이 좋지 못한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천을 저지한다. 대(大?) 우리의 생활환경은 이를 구성하는 요인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다. 두 개의 중요한 요인은 물적 인자와 심적 인자다. 이에 의하여 자연적 환경과 정신적 환경으로 나누이고 정신적 환경은 다시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 등으로 분류 된다. 이와 같은 모든 환경들 속에 좋은 환경들은 우리의 실천을 도와서 성취하게 하는 것이다. 자연적 환경이나 사회적, 또는 문화적 환경을 막론하고, 좋지 못한 것들은 우리의 실천을 저지한다. 인간의 문화적활동을 영위하는데 부적당한 자연적 환경과 더불어 낙후성을 띤 문화적 사회적, 환경이 얼마나 우리들의 올바른 실천을 저지하고 있는 것인가는 넘쳐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사실상 우리의 실천을 저지하는 요인들 속에는 자율성의 억압, 경험과 능력의 부족, 좋지 못한 환경 등 외에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 있으니 그것이 타성이라는 것이다.

### 3. 특히 실천을 저지하는 타성에 관하여

#### (1) 타성의 성격

타성이란 오랫동안 굳어진 버릇이다. 이것을 관성이라고도 한다. 타성을 한층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물리학에서 쓰는 분성(타성)의 정의를 인용하여 본다면 관성은 『물체가 그 운동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이다. 작용하지 않을 때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언제까지나 정지하며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등속도운동을 계속하는 성질이 있다』(뉴턴의 제1법칙 또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타성은 물리에서의 뜻과는 약간 다르나 근본을 따지고 보면 차이가 없다. 이 글에서 말하는 타성도 오랫동안 동일한 행위를 반복함으로 해서 굳어져 몸에 박이고 만 버릇 즉 습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상용적으로 좋은 행위를 하여 몸에 붙은 좋은 관습은 의미하지 않고 대체로 좋지 않은 행위의 반복으로서 몸에 붙은 좋지 않은 게으른 버릇을 뜻한다는 것이다. 자고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고도 한다. 좋은 습관을 몸에 지니는 복된 일이요, 악한 습관성을 가진 자는 불행할 것이다. 악하고 게으른 버릇(타성)은 우리의 진취성과 행동력을 감하고 앞날의 발전을 막는 것이다. 이러한 타성은 어떻게 하여 형성되었을까?

#### (2) 타성이 형성되는 원인

ㄱ, 욕구불만에 대한 적응기제(적응력)를 못 가질 때에 자포자기에서 타성은 형성된다. 사람은 모두 어떤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욕구에 대한 불만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이 곤란한 때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적응기제(적응력)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적응기제에는 여러 가지 종류와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이 적응기제는 정서적 긴장의 완화나 제거위한 보호책 되는 것이며, 물리적 환경이나, 타인이나 자신과 대처하는 방법인 것이다. 환경적 상황에서도 오는 외부적인 것과 개인의 정신적 상태에서 오는 내부적인 두 가지 있다. 그 중의 외부적인 것에 대한 욕구불만은 불가피한 것이고, 내부적인 욕구불만은 욕구충족에 대한 무능에서 오는 것인데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는 외부적인 욕구불만보다도 더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것이 심한 경우에서 행동이상과 동시에 정서적 긴장이 심각하여지고 이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됨에 따라 심각하였던 긴장상태는 점차로 이완되고 긴장과는 반대로 무감동상태(無感動狀態)로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포자기의 상태로 이것이 장기간 계속되는 동안에 드디어 타성이 되고 마는 것이다.

ㄴ, 자아의식과 자기목적의식의 부족 내지 불분명에서 타성은 생긴다. 고대, 그리이스의 철인,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고 외쳤다. 참으로 고금을 통한 금언이다. 우리가 자기자신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나 자신을 나 스스로가 잘 모를 때 나는 남을 알 수 없고 나와 남을 동시에 다 모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무위무능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나 자신에 대한 의식과 나 자신의 존재목적과 존재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기의식과 자기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자기 앞날에 대한 지표가 서 있으리라도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사람에게 자기생활태도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이 있을 리 없다. 이와같이 무반성한 생활태도 속에서는 오직 좋지 못한 타성이 생길 따름이다.

#### ㄷ, 의지부약(意志薄弱)한 곳에 타성은 깃든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도 있거니와 참력이 약하거나 소모되면 병균의 침입을 받고 신체에 병이 생기고 의지력은 약화되고, 불건전한 정신상태로 된다. 물론 선천적으로 의지부약한 자도 있다. 이러한 때에 타성은 깃든다.

#### (3) 타성을 극복하는 길, 타성을 극복하는 길은 타성이 이루어지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ㄱ, 욕구불만에 적응기제를 마련하도록 할 것. 사람은 누구나 모든 것이 가지는 결핍한 상태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대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거나 대내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거나 간에 완전한 욕구충족은 있을 수 없는 이상 우리는 욕구불만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가져야 하겠다. 이는 물론 각 사람마다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또 경험과 처하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차이가 생길 것이다. 파스칼은 말하였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 라고 천부의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그 불만한 욕구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충족시키지 못한 욕구는 적당한 적응기제를 마련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 ㄴ, 자아의식과 자기목적의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 ㄷ, 신심을 단련하고 강력한 의지력을 기른다.

#### ㄹ, 태만심을 경계하고 근로정신(勤勞精神)을 양양한다.



## 우유부단의 성격

김덕보(金德寶)

☆공보부(公報部) 기획조정관



우유부단은 실패의 근원이다  
(Indecision and delay are parents of failure)  
-칸닝(Canning)-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서는 흔히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는 현상이 발견되곤 한다. 그러면 「우유부단한 성격」은 어떠한 성격을 뜻하는 것인가. 어휘 그대로 해석을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마음이 부드럽기(柔) 때문에 내심(內心)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성격을 말한다.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의 실현가능한 방안을 상상하고 그 하나하나의 방안에 대하여 장점과 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가면서 최종적인 결론(내심의 결단)을 유도하는 것이 결단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결단의 과정에 있어서 좀처럼 결론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성격을 지칭한다. 그런데 우리가 「우유부단」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좀 더 넓게 해석하여

결단의 과정을 거쳐서 내심의 결론을 유도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나 그 내심의 결단을 외적인 행위로서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결단의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개성의 차이에서 오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을 수 있는바 그 첫째는 사색을 즐겨하는 이지적인 현상론자(사색인)의 형으로서 논리적이고 정밀한 사고의 과정을 통하여 마음의 결단을 얻는 형이며 그 둘째는 깊은 사색을 즐겨하지 않는 현실적이며 세속적인 유형(행동인)으로서 어떠한 사태에 직면하여 사물에 대한 직관으로 내심의 결단을 얻는 경우이다. 「우유부단한 성격」은 전자의 형에서 많이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우유부단한 성격」은 어떠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인가.

손오병서에도 「용병할때에 가장 큰 해는 유예하는 것이고 삼군의 재앙은 고의에서 온다」(용병지해(用兵之害) 유예최대(猶豫最大), 삼군지재(三軍之災) 생어고의(生於狐疑))라고 한 것과 같이 일반사회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군사회에서는 「우유부단한 성격」은 가장 기피하여야 할 성격임을 말할 필사조차도 없다 그렇다고 하여 「우유부단」과는 대립적인 개념인 『용단(勇斷)』만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욱 아니다. 부드러움(柔)과 단단함(剛)을 겸하여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유하되 약하지 않고 강하되 폭(暴)하지 않으면 가히 유능한 지휘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유부단한 성격」이 항상 손실만을 가져온다고는 할 수 없다.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을 보거나 재앙을 면하는 예도 볼수 있다. 즉 관매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을 현시세로 처분할 것인가? 혹은 더 기다려 보았다가 물가가 오르면 처분할 것인가? 앞으로 시세가 폭락하지나 않을까? 하고 망설이고 처분을 유예하고 있을 때에 물가가 폭등하였다고 하면 「망설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득을 보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두 대의 빠-스가 정거하고 있는데 어느 빠-스를 이용할 것인가를 결의하는 동안에 한 대는 출발하고 나머지 한대에 부득이 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바 먼저 출발하였던 빠-스가 도중에 전복하였다고 하면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하여 의외로 재앙을 면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극히 우연한 것이며 투기적인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얻은 반사적인 이익의 하나이지 결코 의도하는 바의 일적(日的)이 달성하였거나 목적달성을 위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의 반사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하면 항상 우리들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첫째로 「우유부단한 성격의소유자」는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며 「인간과 인간과의 결합」속에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는 절대적인 것이며 매우 중대한 것으로 다루어 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 항상 불투명한 사람, 밝인지 혹은 죽인지 분간을 못하는 불분명한 사람들을 우리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람이 생활하여 나가는데 있어서 명백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좋은 처세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둘째로 「우유부단한 생활」은 간단한 사건을 더욱 복잡화시키고 수습할 수 없는 사태에까지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 대무적인 예로 햄렐(Hamlet)의 성격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선친의 복수를 하려는 내심의 결정은 쉽게 이루어졌으나 이를 즉시로 작동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신은 물론 왕인 「클라디우스」왕비 「게르트루드」를 비롯하여 일곱명의 사망자를 낸 비극을 초래하였다는 것은 비단 작품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며 우리들의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우유부단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한은 성공할 수 없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데는 반드시 결단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군산으로의 상륙을 권유하는 제 부장들의 의견을 일축하고 「아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적의 생각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인천상륙작전(仁川上陸作戰)을 감행한 「맥아더」장군의 경우이다.

1915년 8월 3만의 대군으로 불란서에 침입하는 도중 질병으로 병력의 삼분의 일을 잃고 5배의 병력을 가진 불란서군과 충돌하였을 때 사병과 함께 밤을 지새면서 군의 사기를 형천시켜 전쟁을 대승으로 이끈「헨리」5세의 경우처럼 용단이 가져오는 힘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반면에 민족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주(州)의 수도 「세라예보」에서 「오오스트리 황가리」의 황태자 「프란츠 · 펠디난드」의 부처를 저격함으로서 세계 제1차 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류의 비극을 초래케한 세비아의 청년 「카르필로프린쥘」의 결단과 같이 악 영향을 끼쳐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또는 순전히 감정적인 결단에 의하여 부하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유리한 육전을 피하고 해전을 택한 「안토니오」가 유명한 「악티움해전」에서 적인 「시—자」에게 대패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判斷)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라고 결단을 내리고 곧 행동을 취하게 되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과연 그것이 목적을 달성하였느냐의 문제는 능력 이상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의미의 「우유부단한 성격」 즉 실패의 근원이 되는 인간의 이러한 성격은 여하(如何)히 극복할 수 있겠는가?

첫째로 내심의 결정을 쉽고 간명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잡념이나 사색으로서 내심의 결정을 지연시키고 혼란을 야기시키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행동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심의 결단을 얻는 것도 어려운 일임을 인식하고 되도록 간결하게 그 과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내심의 결단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의지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자기가 직관적으로 판단하였거나 혹은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 판단하였거나 간에 자기의 판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물론 정당한 일을 아는 것 보다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고금의 진리이기는 하지만 역시 인간의 의지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굳은 의지력의 배양은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마음의 수양이 필요한 것이다.

벤그송의 「사색인으로서 행동하고 행동인으로써 사색하라」는 말은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자기의 행동을 명확하게 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즉 일을 할 때에는 열심히 하고 놀 때는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스스로의 몸가짐을 명확하게 하는 습관을 드리면 자연히 우유부단한 성격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기에 우리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꾸준한 노력으로서 습관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유부단한 성격」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고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 판단의 오류와 실천

김석환(金石桓)

☆공군대령(空軍大領)·교재창장(教材廠長)

사람의 정신기능은 현재(지각), 과거(기억) 만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상상)도 예상하고 현재의 사실을 넘어 서서 그보다 앞으로 나아가 사실을 변작(變作)하고 구조를 바꾸어 곧 창작을 한다.

우리들의 정신력을 기능적관점에서 크게 나누면 대체로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흡수력·관찰하고 주의를 집중 시키는 능력.
2. 보추력(保推力)-기억하고 상기하는 능력.
3. 추진력·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
4. 독창력『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예견하고, 성장시키는 능력.

이들을 더 간추려 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분석하고 비교하고 선택하는 판단력.
- (2) 구현하고, 예견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독창력.

우리들의 주위환경에는 기상에서 취침시까지 초년시대에서 사망할 때까지 언제나 비판과 판단의 연습과 필요에 쫓기고 있다.

### 판단이란 무엇인가?

브렌타노(F. Brentano)는 말했다. 『판단은 판단받는 사태가 사실이며 진실인가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이다. 단정이다. 주장이다. 이것에는 판단자의 확신 또는 신념이 포함되어 있다. 판단에 있어서의 확신은 단순한 감정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주장하는 의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어느 일을 조각조각 분해하고 이것을 비교하고, 취사선택하고 그 결과에서 얻은 것을 하나로 종합해서 결론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판단이란 과거의 경험에 입각하여 비교와 식별로서 가치를 공식화하는 것이며 또는 사실을 분석하고 그것의 중요도를 계량하며 비교하고 어느 것을 버리고 남은 요소를 모아서 결론을 내는 것이다.

우리들이 자기가 더욱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들은 완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다.

좋고 나쁜 것의 판단에는 그 대상에 대하여 깊은 지식이 필요하며 판단력은 당신이 얼마만큼 이에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지휘관의 정확한 행위결정은 정확한 결심에서 우러나오고 정확한 결심은 판단에서 나오며 정확한 판단은 주도한 적시적절한 경찰에서 각종 정보를 종합하는 사색에서 생긴다. 정보를 종합하는 사색에서 정확한 판단이 생기게 되려면 정보의 종합은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비판적 노력과 독창적노력은 분석과 종합을 필요로하는 점에서 비슷하며 판단은 상상력을 궤도에 올려 놓는데 도움이 되며 상상력은 판단을 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 그릇된 판단의 요소는?

희망적관측, 잘못을 알면서 자기의지로서만 고집하는 것, 잘못된 선입관, 편견, 독단, 감정에 사로잡힌 태도,

공포, 탐욕, 지나친 우월감, 당파적

인 충성심, 인종적 또는 계급적편견, 논리적으로류, 이들은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인 것이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결점에 대해 장님을 만들고 증오는 미운 사람의 결함을 사실이상으로 과대시하게 한다. 이러한 색안경으로 사물을 보아서는 바른 파악과 판단이 있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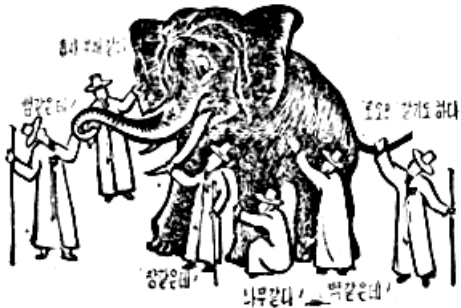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한다. 사물의 판단을 70%이상 감정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 둥근 원을 볼 때 어느 사람은 달로 본다. 어느 사람은 소전으로 본다. 어느 사람은 시험답안지의 0점으로 볼 것이다. 이와 같이 사소한 것만 보더라도 자기의 과거경험이나 현재있는 상황에 감정을 투영하여 생각하게 된다. 정이 격하면 합리성을 구수(驅逐)되고 높아지면 이성은 저하된다는 것을 더욱 명심하여야 한다.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가장 주원인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 관찰의 잘못

둘째 : 증거의 선택방법의 부적당, 다수(多數)한 사례중에서 정당한 견분을 채택치 못한것. 전조, 해몽, 예감 이 맞는 것만 마음에 기억하고 맞지 않는 것을 간과해 버리는 것들이다.

셋째 : 어느 하나의 설명만을 비판없이 받아 드리는 것. 그러나 외의 같은 유력한 또는 더 유력한 설명이 있는 것을 고려치 않는 것들이다.

### 여섯장님과 코끼리



어느 사물에 대하여 사고하고 판단하는데 선입감, 편견, 흥분된 감정, 편중된 주관은 우리들의 마음의 창문을 막아 장님을 만들고 오관기능에서 시각을 빼앗긴 장님이 되어 손으로 더듬어 촉각으로만 사물판정의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이 결과는 사실을 전반적으로 파악 못하게 된다.

장님이 된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여하히 사고하더라도 판단은 그릇되며 그릇된 판단에서 세워진 행위결정은 더욱 큰 잘못된 결과를 가져와 실천을 저지케 할 것이다.

편견과 선입관은 너무나 생활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자칫하면 간과하기 쉽다. 마음속의 편견이나 선입관은 말로 표현할 때보다 명백치 않다.

마치 색맹이 색을 감별하지 못하는 것 같다. 편견과 선입관은 다만 그 형태를 바꾸었을 뿐 근대과학과 과학적논리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의연히 맹위를 발휘하고 있다.

보통 보는 바와 같이 감정이 이보다 강하게 작동하는 한 이를 근절 할 수 없다.

감정이 이성속에 들어박히거나 희망이나 이상이나 공포감의 영향을 받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만큼 사고는 왜곡된다. 이것이 곧 편견이며 어느 종류의 논리적(보다는 비논리적) 소산을 동반하는 독특한 심리이다. 또한 미리서 결론을 갖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작용으로 보면 사고 하는데 있어 어느 종류의 증거를 무시하고 일부분만을 과대평가하거나 최초부터 일정한 결론으로 이끌려고 하는 강렬한 의향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바르게 판단하려면

바른 판단을 내리는 방안으로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事項을 들 수 있다.

- ① 목표, 방침, ② 원리원칙, ③ 경험 ④ 감각이 4가지를 건전한 결정을 하기 위한 판단의 요소로 활용할 것
- 논리적 방식에 숙달케 할 것

이렇게 하면 어려운 문제의 급소를 파악하게 되며 확실한 논리는 확실한 결정을 의미한다.

판단에 있어 강력한 「지레대」의 역할을 하는 것은 논리방식이다.

직관이든가 어느 다른 비논리적 방식으로 판단을 하였으면 논리적 수단으로 옹호하여야 한다.

3. 판단하려는 사태를 진단할 것

진단은 언제나 사실과 조작된 허위를 구별하는 것이다. 사실을 취급하는데 정확하여야 하는 것은 과학적 정신의 최상가치의 하나다. 바르게 진단하려면 「말」이나 어느 다른 상정을 써서 표현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4. 판단하려는 사태를 분류하고 분석할 것.

분석은 문제를 분해하고 이것에 포함되고 있는 주요한 요소—복잡한 여러가지 조건을 분명한 간결한 『이것인가 저것인가』의 문제로 환원시켜 준다. 목표를 더욱 구체화할 단계에서 없어서는 아니될 활동이다. 분석을 하게되면 관념연합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따라서 상상력을 배양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5. 논증을 시험한 다음에 판단을 할 것

판단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단계이며 자기비판, 타인, 선배의 비판 어느 것도 좋으나 사람은 누구나 편견이 있고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므로 가장 정확한 것은 논증의 시험이다.

6. 될 수 있는 대로 토론할 기회를 가질 것

우리들은 토론하는 사이에 편견을 수정하고 또는 강조하기도 하고 또는 선입관을 자각하거나 더욱 주장하기도 한다. 의논하며 다투고 논증을 시험하는 사이에 효과적인 사고가 배양되고 편견이나 선입관이 자각된다.

7. 『디렘마』에 부딪혔을 때 먼저 이것이 정말 『디렘마』인가 확인할 것.

2개의 내용이 다른가 잘 검토하거나 한번 백지로 돌려놓고 다른 좋은 해결책은 없는가 검토하라.

8. 판단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열거할 것

『노오트』를 하면 우리들의 사고는 명확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요소를 질서 있게 배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므로서 판단은 주관적인 것에서 객관적인 것으로 변할 수 있다. (끝)



### 이론과 계획의 결합

노헌호(盧憲鎬)  
☆내각사무처기획조정관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것이 공적인 것이든 사사로운 것이든 간에 어떠한 사업을 실천단계에 이끌어 가기 위하여서는 이론적인 뒷받침과 치밀한 계획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현대인에게는 하나의 상식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겠다.

민주주의 사회제도는 그 근본을 합리주의에서 구할 수 있으니만큼 사람들의 행위는 점차 합리화되고 또한 이른바 과학적 관리방법이 널리 보급된 금일(今日)에 있어서는 전세기적(前世紀的)인 낭만성과 즉흥성은 우리들의 실천과정에서 배척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는 혹은 각자의 특이한 개성에 따라서 또는 근본적으로 현대의 합리주의사조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있다는 견지에서 배격 하므로써 계획성(計畫性) 있는 실천을 싫어하고 감정적 영향에 좌우되어 임기응변적인 생활을 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은 각자의 생활관이 결정하는 것이니 개인적으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실을 자초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논외로 할 수 있지만 공적인 위치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의 책임하에 있는 사무를 이론적 기초나 계획적 구상이 없이 각자의 성격대로 자행한다면 이의 결과는 단지실천 당사자의 개인적인 손실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전체에 손해를 가할 것이며 더구나 그것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납세자인 국민에게 까지 해를 끼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론적인 뒷받침이라 할 때의 이론은 어디까지나 실현적 타당성이 있고 널리 지지를 받고 있는 통설적인 것 을 말하며 부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치는 편파적인 이론이나 주관적인 입장에서 채택 지지하는 이론을 내세울 때는 이것 역시 위험한 것이라 하겠다.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이론상의 혼란에 합입되었을 때는 거기에 관해서 명백히 확립된 정설(定說)이 없는 이상 사계(斯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쟁을 거친 후 주류적인 이론을 채택함이 타당할 것이고 결코 개인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지배되어 곡론을 취하는 우를 범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론적배경을 구함에 있어서 순수히 학술적으로 오리지널한 이론이 실제의 실천 단계에서는 저어 되는 수가 성성(性性)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정치적 경제적 법적 제현상에는 순수학술이론과 일치될 수 없는 텔리케이트한 문제들이 허다하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때 정치나 경제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나 국가이익을 목표로 전개되는 만큼 이러한 경우 단순히 이론의 노레가 되기보다는 현실적인 국가이익추구를 위한 융통성있는 조치가 회구된다고 할 수있다.



이러한 때 현실적 요청에 부합하도록 이론이 부분적으로 수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론의 본질적 체계를 손상하지 않을 때는 이론 자체의 수정을 가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인 국가적 요청과 이론상의 문제가 끝까지 상극될 때에는 이론의 조작보다는 현실적 국가이익을 과감히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확립된 이론을 도외시할 정도의 중대한 국가이익은 과연 누가 판단 결정할 것인가. 이것은 집권자의 사심 없는 애국심과 건전한 판단력 그리고 그와 같은 판단을 지지호응해 주는 국민의 여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독재적인 집권자가 이론을 무시한 집행을 집행할 때 언필칭 국가이익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을 보면 이론의 자의로운 유강도 또한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적당한 열거가 될지 모르나 현하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제3공화국의 헌법심의 도상에 발표되는 각종 논쟁은 학술적인 이론에 고집되어 현실적인 국가이익에 손상을 가져오는 내용도 왕왕발견된다. 이러한 경우는 국민의 여론을 오도하기 쉽고 국제적으로 의혹을 사게되어 실천과정에 결함을 가져올 수 있겠다.

다음에 실천과 계획과의 관계는 설계도와 건축물의 관계와 같이 원인결과가 밀접한 것으로 계획이 실천에 미치는 영향은 전술한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초월할 만큼 지대한 것이다.

실천을 위한 계획은 철두철미 완전무결해야 하며 치밀한 배려를 요한다. 계획은 실천과정의 최후단계까지 수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미확정상태의 부분은 실천도중 보완기로 하고 계획은 미완성 상태에 둔 채 실천에 착수 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하고 소홀한 사고태도이다.

이러한 경우 실천과정에서 보완기로 한 계획부분이 제반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과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을 때 총체적인 실천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또한 계획은 실천과정의 실정을 완전히 파악한 연후에 수립되어야 하며 실천과정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그 실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화려한 계획도 실교과정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몸에 맞지 않는 옷」에 불과한 것이다.

계획이 탁상공론에 그치는 경우는 예를 들 필요도 없이 허다하다. 따라서 실정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주어진 제여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분석하여 계획수립에 이용해야 한다.

다음에 계획은 융통성 있게 수립되어야 한다. 즉 계획시기와 실천 시기는 시간적으로 다르니 만큼 계획사항이 그대로 실천되기는 어려움으로 약간의 사정변경은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최초계획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융통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켜 놓으면 계획의 본질이 변경될 수 있으니만큼 적동성의 범위는 되도록 축소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물론 계획자와 천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융통성의 범위를 다소 확대시켜도 계획자의 의도가 일관하여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사업의 성과에는 지장이 없겠으나 계획기관과 실천기관이 상이한 때에는 가급적 융통성의 범위를 좁히고 집행기관에게 재량을 주지 않음이 사업에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유익한 것이다.

집행기관에서는 계획기관에서 융통성이 부여된 부분에 대하여 변경된 사정에 따라서 수정을 가 할때는 집행자의 주관적 의도에 좌우됨에 앞서서 사업자체의 중국적인 목표를 향하여 계획자와 실천자가 공통적인 이념의 지배하에 설 때 양자간의 견해의 차이가 조절될 것이다.

우리들의 실천을 저지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실천자의 능력 의지 실천을 위한 경제적 물질적 시간 적동 제요소가 다 경시될 수 없고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나 본제가 말하는 이론과 계획의 결함은 그 갑에서도 시원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인 것이다.

시대가 진전되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금일 우리 주변의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든 사업은 과학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과학적 사고방식은 무엇보다 사업의 기초를 이루는 이론형성과 면밀한 계획성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 무계획성(無計畫性)에서 오는 것

배민홍

☆산업은행조사부장

설정된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체계의 예정을 계획이라고 개념지운다면 목적의 실현을 위한 행동에는 반드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계획이 합리적인 것이라면 계획에 입각한 행동이야말로 목적구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쉽사리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일개인이던 혹은 어떤 조직이던 간에 그것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에

는 그 목적 실현을 위한 계획이 있는 것이며 그 목적은 계획에 의하여 합목적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 하여 과언이 아닐 줄 안다.

말하자면 존재하는 곳엔 반드시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는 곳엔 계획이 있으며 하나의 『타겟』은 계획에 의하여서 합목적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명제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은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며 양적으로 표현된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몇 개년계획이라든지 혹은 OO계획이라고 형식화되지 않고 그리고 계수(計數)로 표시된 것 아니라도 일정목적은 우리의 행위에는 그 목적을 가장 합리적으로 달성코자하는 욕망 뒷받침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계획은 표식화되지 않은 개념적이며 추상적인 계획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완수를 위하여 국가의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5개년계획은 우리의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동원, 배분하여 염원하는 바의 자주경제의 확립과 경제력의 증강을 신속히 성취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은 누구나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다. 제나라 경제의 변영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기도하는 이와 같은 경제계획은 오늘날 세계 각국이 거의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른바 동남북지역은 물론 중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이태리나 일본에 있어서 그리고 선진국인 불란서, 화난, 캐나다 등의 제국에 있어서도 마련되고 그 실천을 위하여 온갖 정력을 경주하고 있어 이들 여러 나라의 경제정책은 아 경제계획에 의거하여 수립되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제계획은 그 나라의 경제적 기반 이라던지 문화수준 지리적조건 사회 제도 등에 의하여 특이한 바가 있는 것이지만 장래에 있어서 소망되는 경제의 자태를 목표로서 설정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하여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부 · 기업 · 국민의 노력과 수단을 계량화한 경제정책의 총체로서 인식하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기업 스스로의 책임과 계획에 의하여 운행되는 경제상태를 최선의 것으로 보고 정부는 「하게하라 그리고 가계하라 그러면 경제는 스스로 조화를 취하면서 커 갈 것이니」하는 자유 방임 주의적 입장에서 경제철학으로서의 오늘의 경제를 다룰 수 없게 된 데서 경제의 계획화와 그에 의한 성장시책이 요청된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예산을 일정기간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계획표라고 규정하는데 이와 같은 재정수입과 지출의 계획화로서 국가살림을 가장 합리화할 수 있는 데서 이와 같은 예정계획표가 필요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오늘날 각종기업에 있어서의 그 운영의 계획화는 『툼·마네이지먼트』의 가장 중사한 업무가 되고 있으며 생산계획, 판매계획, 구매계획 혹은 자재계획등 기업관리의 각 부문마다 계획화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Operation Research 이론, Feedback 계리론, Servo mechanism 이론, Simulayion 이론 등, 다각적인 자연과학적 수법의 적극적 도입에 의한 계획의 정밀화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인 시장의 협애화(狹隘化), 신제품의 계속적인 출현, 기업 간의 그리고 국제간의 치열한 경쟁이란 중첩하는 애로(隘路)에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밀화된 계획에 의한 기업 활동의 계획화가 긴요(緊要)한 때문이다.

이처럼 계획이 중요시되고 계획화가 목적달성을 위하여 간절(懇切)이 요청되는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러이 이것이 문제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우리들의 사고양식과 행위와 그리고 관리가 무계획적이라고 지적되고 또 스스로 자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구인의 사고태도나 행위를 가리켜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대해서 동양인의 그것이 비합리적이고 서구인의 그것이 구체적인데 대해서 우리의 그것이 추상적이라 함은 우리들 스스로도 자인하는 바다. 이와 같은 우리의 생활태도는 우리를 둘러싼 역사적, 사회적 조건하에서 양성되고 그러한 풍토속에서 우리들의 생활태도의 무계획성이 배양되고 습성화 되어 온 것은 자명한 이치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목적을 합리적으로 구체화시킬 어떠한 원칙에 따른 계획성의 흠여(欠如)는 일적 달성 과정에 있어서 허다한 손실과 낭비를 결과할 뿐만 아니라 계획 그 자체의 성취조차도 좌절시키는 결과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 한국적 기질의 비합리성 · 추상성에서 연유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계획에 있어서의 비합리성과 추상성은 그 계획을 한낱 개념적인 사념의 영역에 머물게 하며 실리를 수반치 않는 계획이 되며 이것은 결국 무계획과 동일(同一)의(義)가 되는 것이다. 계획으로서의 구체성과 실천성이 결부되지 않은 계획은 우리가 말하는 계획이 아니며 포말처럼 그저 이러났다는 거지는 계획은 무계획과 같은 것이다.

계획은 실천에 있어서의 경제성을 말하는 것 인만큼 무계획은 낭비를 낳는다. 목표를 향한 실천과정이 완전히 계획화 되고 그 계획에 따라 진행 되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그 목표의 구현에 있어서의 경제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최소의 비용에 의한 최대의 효과라는 경제원칙은 경제사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모든 생활 규범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왕에 높은 이념을 지닌 허다한 계획들에 접하여 왔다. 경제부제 몇 개년계획이니, 재정안정계획이니, 전원개발 5개년 그리고 십개년계획, 혹은 산림녹화 몇 개년계획이니 이루 헤아릴 수 없으리 만큼 많은 계획들을 보아왔다. 마치 점멸하는 계획 속에서 살아온 감조차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여건의 격변이 있기는 하였으나 산림은 아직도 헐벗은 채로 있어 팔프용재(用材)의 부족은 당장 신문용지의 생산을 괴롭히며 국민의 환지두(歡智斗) 총력을 기울여서 막 5개년 경제계획이 착수되는 이 때에 있어서 새삼 전력의 부족이 생산활동을 조해(阻害)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계획이 지녀야 할 일관성과 그 실천상을 도외시한 계획은 그 계획일까? 아무리 고상한 것이라 하여도 계획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며 때로는 무계획보다 못한 계획일 경우조차 없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새 나라를 이룩하려는 숭고한 새아침에 서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너무 많으며 그 일 또한 벅찬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개개인의 생활과 사고에서부터 크게는 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걸쳐 계획화 와 계획에 입각한 행동 어느 때 보라도 소중하고 긴요하게 요청되는 소이(所以)가 있는 것이다.

기관의 최고관리층으로부터 시정의 일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이 계획화되고 그것이 어김없이 달성되는 계획화된 사고와 행동이 요청되는 것이다.

## 의지의 박약에서 오는 것



유덕천(柳德天)

☆재건국민운동본부지도부장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의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행동에는 반드시 어떠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도달 하는데는 행동의 계속이 있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행동의 계속은 노력없이 될 수 없는데 이 노력은 시간의 장단이나 강약에 불구하고 우리의 처음 뜻을 굽히지 않고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일이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백절불굴이라는 말로 우리의 실천을 계속하고 그 목적에 도달한 결의를 표명한다. 이것을 우리는 의지가 굳건한 것이라고 말한다. 뜻이 좋은 것도 귀한 일이지마는 만난을 배제하고 그 뜻을 성사할 수 있는 의지 없이는 한낱 공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굳은 의지는 단련 없이 있을 수 없다. 쇠 가운데는 강철이 가장 굳고 좋은 쇠다. 그러나 보통 쇠가 강철이 되기까지는 무수한 단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몇 번이나 불무에서 녹히고 또 두들기이고 한 결과가 강철인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경지에서 괴롭을 참고 이기고 한 경험을 쌓지 않고는 의지력이 생기지 않는다.

짐승중의 왕인 사자는 새끼를 낳으면 높은 단애절벽에서 떨어뜨려 다시 어미를 찾아올라와야만 젖을 먹여 기른다고 한다. 시간과 투쟁의 경력을 쌓지 않고는 의지력은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어린 아기를 기르는데 어미의 젖이 너무 풍족해서 배고픈 경험이 없이 자란 아이는 성장한 뒤 의지력이 박약하다고 한다. 사람은 출생하는 그날부터 생존을 위한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이 투쟁이 곧 사람의 생존의 힘을 길러내는 시간이다. 오늘의 투쟁없이 내일의 승리와 행복이 있을 수 없다. 보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호화스럽게 성장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견디어 내지를 못하는 법(法)이다. 마치 온실속에서 가꾸어낸 화초와도 같이 따가운 햇빛이나 강한 바람을 만나면 별나게도 잘 시들어진다. 우리의 받은 교육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체련이다. 일부러 난경을 만들어 가면서 또는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것을 이겨내는 훈련을 받는 것이다. 삼복더위에 그늘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견딜 수 없는데 고산준령을 찾아서 등산하는 것은 인내심을 기르고 의지를 강하게 하는 간단이다. 그러한 육체적인 간단에서 오는 부산물로서 정신적인 연마(鍊磨)를 받게 되는 것도 귀한 교육이 되겠지만 그보다도 자연환경이 적당한 단동을 쌓기 좋은 정도의 성장환경이 되면 가장 이상적일것이나 그런 이상적인 환경은 있기 어려운 것이다. 날 때부터 빈곤에 시달리면서 각고면려(刻苦勉勵)하며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역사에는 호화스러운 가정에서 성장하여 역사를 공조한 사람들보다는 빈곤과 불우와 싸워서 이긴 나머지 위대한 사람이 된 분이 더 많다. 역경과 싸워서 얻은 것보다 훌륭한 지식은 없다. 나는 늘 말하기를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가난이라는 그 귀한 경험만은 살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시간을 견디고 이기면 인생은 무난하게 돌파하는 것이다. 강한 군사를 말한 때 백전노졸(百戰老卒)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 전투의 경력없는 강병은 있을 수 없다. 전투의 경험에서 군인은 투지가 길러지는 것이다. 인생의 행로는 늘 경탄할 수만 없는 법이다. 기복이 있고 심산유곡(深山幽谷)과 태산준령도 있다. 그 어느 장벽을 뚫지 못해도 인생은 막히우고 마는 것이다. 이 장벽은 우리들의 의지력 길러내는 좋은 재료가 된다.

인류사의 첫 페이지에 실려 있으면서 민족적으로 가장 큰 수난자인 유대인들을 보라. 기원전 오천년의 역사를 가졌고 이천년의 망국의 역사를 가졌다. 그 망국의 역사는 세계의 각처를 유랑(流浪)과 핍박으로 엮어 놓았다. 그들의 조상의 땅에서는 송방(送放)을 당하고 민족은 있으면서 국토와 주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처절한 박해를 당하고도 아직도 남아서 그들의 국가를 이루고야 말았다. 그들의 수난사를 다 그릴 수는 없어도 이차전중에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의 멸종을 하기 위하여 그들의 가진 최대의 과학력을 다 이용하여 대량살해를 했다. 구라파에 있는 육백만중에서 이십오만이 남고 다 살해를 당했다면 그들의 수난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일이다. 살해가 절정에 달했을 적에는 그들의 동족이 이십오만이 남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인 하나님의 성서에 말한 것과 같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식하고 번영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종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유업인 팔레스타인의 복지를 찾아 모여서 그들의 나라를 세웠다. 이천년 이전에도 그랬지마는 그들의 이천년사는 피의 역사였다. 그들의 피는 중앙 아세아와 구라파의 전역에 물들어졌고 그 대가로 조국을 찾았다. 나는 그들의 수난기를 읽을 때 인간이란 그렇게도 모질고 견디는 것일까 또는 그들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강인성일까 하는 의심조차 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제의 삼십육년의 핍박도 견디기 어려워 많은 지식인 중에는 일본인에게 동화되고 심지어 오늘에 와서는 일본에 잔류하는 사람 중에 조국도 잊은 양 귀화를 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천년의 유랑생활과 박해에도 아직 그들의 머리속에 조국이 남아있어 기회를 만나 그것을 재건했다고 하면 그들의 의지력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오늘 우리 민족의 생활역사에는 일찍이 없었고 민족의 생리에는 맞지 않는 공산주의를 우리의 주의인 것처럼 공중을 하고 공산주의의 종주권을 가진 소련방을 그들의 조국인 양 생각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이 두 가지는 너무도 심한 차이를 가진 대조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강한 유대인의 의지를 길러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원전에 그들 유대민족의 주변에는 전부가 다신교를 신봉하고 있는데 반하여 오직 유대민족만이 일신교인 하나님을 숭배해온 것이 그 민족 수난의 원인이 있었다. 사위에 있는 잡다한 종족들이 다 유대민족만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면초가였었고 따라서 독립을 유지하기조차 곤란했던 것이다. 그리스도 당시에도 로마제국의 영토였었고 그 뒤 회교도들에 의하여 유린당하고 영국의 식민지로 변하고 하여 제2차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의 가는 곳마다 박해와 반대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단결하여 싸웠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자처하면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2차전후에 그들의 조국은 이천년만에 광복을 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의지력에 앞서야 하는 것이 신념이다. 어떠한 일이든지 결의에 앞서 충분한 연구, 관찰, 검토비판을 한 다음에 사리의 판정을 정확하게 하고 반드시 해야 할 정당성을 느끼면 신념으로 의지를 굳게 하여야 한다. 신념이 없는 인생의 행로는 나침반이 없는 항해와 같은 것이다. 신념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 개성을 살리고 활동의 양식이 되어 의지를 강하게 함으로 성공적인 실천을 보게 된다. 실천은 인생의 기록이다. 생각과 그 생각을 나타내는 말만으로는 자취가 남지 않고 인생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 이 실천이 인생을 현실화할 수 있고 인류의 역사는 실천의 기록인 것이다. 실천이 적은 기간의 인류의 역사는 가치 없는 것이었고 그 생활은 순차 했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의 생활이 빛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실천이 적었고 민족이 지향하는 목표가 정확하지 못하여 신념과 의지의 박약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는 안일한 것을 즐긴다. 그러나 안일의 계속은 안일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무감각해지게 되고 또 안일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노력과 수고 가 있는 다음에 오는 안식이야말로 안일을 맛보게 되고 심신의 휴식을 가져오게 된다. 안일은 정신의 긴장을 풀어 버리고 인생의 목표를 흐리게 한다. 그러므로 안일한 사람은 의지가 박약하여 노력을 회피하고 실천을 꺼리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을 타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마치 아편과도 같은 작용을 하게 되어 무위무책한 사람을 만들고 만다.

또 우리는 젊은이로서의 겸손하면서도 큰 희망을 가져야 한다. 포망이 없는 사람이란 살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세상에는 젊은이들이 포망을 잃고 그들 자신이 아무데도 쓸데없는 사람처럼 자포 자기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많다. 우리의 안목을 멀고 넓게 돌려보게 되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까운 젊음을 허무하게 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희망이 우리를 찾아오는 법은 있을 수 없고 우리 자신들이 내가 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곧 자아의 창조요 능동적으로 사회에 보내는 협조인 것이다. 내가 거할 곳 내가 마련해야 한다. 내 거처를 남이 마련해 놓고 나를 맞아가기를 기다리는 행운만을 바라는 사람이 살길은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의 젊은 노력은 이 희망을 만드는 데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희망에 나를 싣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 되고 의지가 되어 실천에 옮기는 것이 곧 우리의 생활이라야 우리의 값어치가 나오는 것이다. 이 노력이 크면 들수록 우리는 위대해지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인생은 기쁜 것이 될 것이다. 신념은 노력을 노력은 단련을 단련은 의지를 의지는 자아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 적자에산 외상지옥







## 좋은 분위기 명량한 생활 내무반 운영을 말한다

일시·····8월 6일 14시  
장소·····본부정훈감실(本部政訓監室)

**사 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서 내무반 운영에 관한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보다 더 건전하고 명량한 내무반 생활의 운영,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하고있는 내무반 생활의 상황 등—기탄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서 떠들석 했던 최일병 사건은 내무반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한 관심사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 서 느낀 점도 없지 않겠는데—

**이준교** 최고학부를 다닌 사람치고는…좀 실망했습니다. 물론 근본적 원인은 당자의 인간성에 있겠지만 내무반의 분위기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점도 자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박훈상** 소속 상관을 통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봅니다. 또 어쨌든 그러한 비극이 있었다는 사실은 내무반에도 책임이 전연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박 연** 공사교에서는 그러한 사고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사 회** 어디, 여러분들은 내무반 생활의 명량화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요?

**이준교** 저이들은 신병이 오면 그들의 신상조사를 세밀히 합니다. 가정환경 사회생활의 경험 등을 조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습성이며 개성을 알아 거기에 기초해서 내무반 공기에 빨리 습득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군에 오면 군대사회에 따라야 하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도 최일병의 경우는 그가 가진 지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 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며 자기개성에 맞지 않더라도 이에 적응코자 노력하는 것이 참다운 지성인이 아닐까요. 인간은 사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자유일 테지만 그러나 사회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가 가진 바 지성이 사회에의 적응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옳은 지성이라 할 수 없겠죠. 본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정태진** 본부라고 생각하면 모든 규정이 엄격하게 지켜진 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공포감을 가집니다. 물론 그것은 그런 편이지만 그래서 신병이 오면 우선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쳐 가며 1, 2개월 동안은 먼저 내무반의 분위기에 젖도록 하는데 힘을 씁니다.

**박세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령 세면장을 사용하는 방법 등 내무생활의 초보적인 규정 같은 것을 설명해서 익히도록 하구요…

**김준규** 11전비단에서도 신병에게는 우선 분위기에 젖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행단의 편제와 창설이래의 전통 등을 아르게 줍니다. 편제와 같은 것은 마땅히 알아야 할 사항이겠지만 전통 같은 것은 우선 비행단 전체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 회** 내무반 생활에 잘 못 젖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예를 몇 가지…

김준규 그건 그 사람의 습성, 개성 때문이 아닐까 봅니다.

**김기홍** 10일 내지 5일 만에 반원회를 열어서 영내자끼리의 문제는 영내자끼리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반원회에는 회장, 회장고문을 두어 의론해서 해결하도록 합니다. 기압에 있어서는 저이들은 개인 기압을 피하고 한 사람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전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에서 단체적으로 주지요. 신병에게는 군대생활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켜 주기 위하여 처음 1개월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외출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사 회** 제제방법은?

**김기홍** 짧은 시간, 반에 필요한 일을 시킵니다.

**박훈상** 군풍기 관계 통계를 보면 가장 위반자가 많은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단속도 철저히 합니다.

**사 회** 그런데 너무 단속하거나 제제가 강하면 영내자의 정신생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겠는데 여기에 대 한 방안을 생각해 봅니까.

**김기홍** 저이들은 문화써어클을 만들어서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데 동시에 그것은 또 위안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달에 한두번씩 콩쿨대회를 가져서 긴장된 분위기를 자유롭고 명량하게 합니다.

**한대현** 내무반장은 군대에 있어서 조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술선수범해야 하겠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열이나 작업에 있어서도 술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처리에 있어서 먼저 민주주의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억압적인 수단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압이 내무반 분위기를 우울하게 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정신적인 부담을 크게 하니까요.

**박훈상** 꼭 외출해야 할 경우등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내무반장이 외출을 상신하여 줍니다. 그리고 위반자에게는 대대 전원 앞에서 벌을 줍니다. 제초작업이나 청소를 시키지요.

**한대현**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이해하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지시를 할 때는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하며 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복종, 이런 것이 이해심 없이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시행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의 최일병 사건도 이해한다는 훈련의 부족이 빚은 비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 회** 그러한 방법의 구체적인 예는?

**한대현** 처음 신병으로 전입되면 처음은 두려워하니까 먼저 그러한 공포감을 제거해 주는 방향을 취합니다. 부드럽게 대해서 내무생활을 설명해주고 이제부터 군대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해줍니다. 그리고 2, 3주일간은 어떠한 부담을 주지않고 견학을 시켜 우선 내무반 생활에 융합되기를 기다립니다.

**박세철** 군대사회도 사람이 모여있는 특수한 집단이란 것 외에는 일반사회와 다름이 없다는 점, 그러니까 군대사회는 일반사회의 연장이며 군대 아닌 다른 사회에서도 그 사회에서 지켜야할 규정이 있으며 누구나 그 규정을 준수함으로서 만이 그 사회에서 생활 할 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군대사회에서는 군대의 규정을 충실히 지켜나가면 된다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내무반 생활에서 지켜야할 규정을 알기쉽게 설명해 주곤 합니다.

**이준교** 저는 매월 한달동안의 내무 계획표를 미리 작성합니다. 가령 오락회, 토론회, 독서회 등을 만들어 건전하고 명량한 분위기를 조성시킵니다.

**한대현** 신병이오면 신병환영회를 엽니다. 약간의 술도 마시고, 그래서 상호간의 인간성을 이해하며 상호간의

| 참 석 자         |       |          |
|---------------|-------|----------|
| 하 사           | 김 준 규 | (11 전비)  |
| "             | 김 기 홍 | ( " )    |
| 하 사           | 박 연   | (공 사 교)  |
| "             | 한 대 현 | ( " )    |
| 하 사           | 이 준 교 | (106 전대) |
| "             | 박 훈 상 | ( " )    |
| 하 사           | 정 태 진 | (공군본부)   |
| "             | 박 세 철 | ( " )    |
| 사 회 민 재 익 대 위 |       |          |



한대현



하사



박 연



하사



김기호



하사



김준규

하사



독특한 기질을 이 자리에서 아는 동시에 이해하도록 합니다. 또 흥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것이 상호 이해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정태진** 인간적인 상호관계에 있어서 군대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가령 반장이 대신으로 일을 하고 그를 외출시켜 준다는가 하면 누구나 고맙게 생각할 것이며 서로 신뢰감을 가지게 되고 내무생활이 명랑해질 것입니다.

**박훈상** 같은 내무반원끼리의 금전거래는 절대 금물이겠어요. 그것도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빚을 진다는 것은 더욱 조건이 나빠요. 그런 것이 도망의 원인이 되는 수도 있을테니까요.

**박 연** 먼저 젊은 사람으로서의 패기를 가지도록 지도해야 하겠읍니다. 빚을 진다 도망을 한다 그밖에 불미한 일이 있다는 것은 젊은 사람으로서의 패기가 없기때문에, 말하자면 마음의 줏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의욕적인 사상을 가졌다면 그러한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패기와 의욕을 가지도록 지도하고 각자 책임 한계를 설정해서 그 책임완수에 노력하도록 유도합니다.

**정태진** 아까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 너무 긴장시키고 정신적 부담을 과중하게 해서는 별로 득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일 할 때 하고 놀 때 논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시간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과 후의 계획을 시간적으로 정해서 6시 반까지 정돈,



박세철



하사



정태진

하사



박훈상

하사



이준교

하사

8시 반까지 운동, 그 후는 취침시간까지 자유시간을 줍니다. 텔레비전을 구경하든, 독서를 하든, 각자의 자유입니다. **한대현** 그 점에 있어서는 자량을 하나 합니다. 우리 사관학교에서는 아무도 간섭을 할 수 없는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6시에서 8시까지는 완전 자유입니다. 이것은 권태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교** 그것도 참 좋습니다. 단결정신을 양양하는 데는 내무반 대항 운동경기가 매우 효과적이더군요.

**김기홍** 그런데 저이들은 현재 다섯시에 일과가 끝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일곱시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이용을 못하고 있지만 점호 후 완전 휴무입니다. 요즘은 텔레비전 푸로에 재미나는 것이 많아서 모두들 즐기고 있지요. 내무반장은 7시 반에 인원을 확인해서 보고합니다.

**사 회** 자유시간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길 때는 자칫하면 혼자서 생각에 잠기기 쉽고 고독에 빠지기 쉬운데 개인 특기를 살리고 또는 단체적인 뜻이 있고 재미있는 모임 같은 것 어떨까요?

**이준교** 그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 이틀테면 노래자랑 같은 모임을 가지지요.

**박세철** 영농반, 운동반, 문예반, 연예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농반에서는 가령 양돈, 양계 등 각각 소질에 따라서 입회합니다. 또 각 반마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정태진** 본부에는 내무반 자치회 조직이 있습니다. 군기처, 운영처를 두고 다음으로 영농부, 체육부, 정훈부 등을 둡니다. 각 부에는 각자의 소질에 따르는 전문반을 둡니다. 가령 영농부에는 축산반 양잠반을 둔다든가 정훈부에는 음악반 연예반 문예반을 둔다든가 또는 체육부에는 농구반 축구반 정구반 배구반 등을 둡니다. 특히 영농부는 제대를 앞둔 병에게는 의무적으로 입회시켜 교육을 받게 합니다. 영농에 관한 지식은 누구나 다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매부락과 연락해서 실습을 하기도 하고……

**박 연** 제 생각으로는 자매부락을 좀 가까운 부락과 맺었으면 영농실습하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정태진** 그렇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매부락을 실제로 활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사 회** 자매부락을 맺는 목적은 빈한한 벽촌을 돕자는 것이므로 부대 근처는 곤란하지요. 이제 말한 본부의 조직체 같은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으로서도 효과적이겠고 정서적으로도 유익하고. 다른 부대는?

**한대현** 본부와 비슷한 조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이들도 영농교육을 위해서 자매부락을 실지로 답사한 일이 있습니다.

**사 회** 그런 활동을 함에는 경비 문제가 상당한 애로를 가져오겠지요?

**정태진** 애로가 많습니다. 용지 같은 소모품의 원조가 있었으면 좋겠읍니다. 경비문제는 운영처 재정반이 노력하고 본부 사령님께 협조도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내무반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 지식을 혼자만 가질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 . 가지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예반에는 영어를 숙달한 자도 있는데 이틀테면 그 사람한테서 영어를 배우고. . .

**사 회** 장병들이 만든 도서실은 없나요?

**박세철** 본부에는 2년전 부터 도서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책이 없어지고 그래서 필요한 책을 장교단 등에서 좀 회사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한대현** 자료를 얻기 위한 독서는 부대 도서관이 있어서 불편이 없지만 문제는 독서하는 시간이지요. 일정한 썬어를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읍니다.

**정태진** 순회문고에는 참 좋은 책들이 많더군요. 그것을 어떻게 재순회해 주면 좋겠읍니다.

**사 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순회문고 가 폐지되었읍니다. 다시 한번 상신해 보지요. 그밖에 내무반 생활의 명랑화를 위해서 의견이 있으면…

**박 연** 지휘관과 내무반의 접촉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좀 유리되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정태진** 지휘관 직접교육을 제외하고는 기회가 적읍니다.

**박세철** 내무반장에게는 언제나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지휘관에게는 그렇지 못하지요.

**정태진** 여러 가지로 반원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명랑화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가령 저는 18명의 반장입니다만 그들에게 「내가 만일 반장이라면」 하는 입장에서 내무반 생활의 계획을 작성시켜 그것으로 그들의 의견을 살려주곤 합니다.

**사 회**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았읍니다. 오늘은 이만 끝이겠읍니다.

(P31에서)

반공구호 중에서 백미의 것이라고 보아 집니다. 대개가 공식적인 「스로—강」만 보아오고 외워오다가 이 「스로—강」이 나왔을 때 그냥 입 끝으로 외워 버릴 수 없는 저의와 함축성이 심금을 치고 울리는 바가 있었읍니다. 물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던 반공 구호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을 때 의미만을 찾는 일반 대중에게는 선뜻 납득이 안갔을런지 모릅니다만 생소하여 오히려 그들의 반공의식을 새삼스레 되살릴 수 있었고 「인테리」의 「브레인」을 자극할만한 뼈마디가 있었다는것, 펍 호감이 가는「스로—강」이었읍니다. 간접PR로서 성공한 예증들이라 하겠읍니다.

이밖에도 PR에 관해서는 그 요건이라든가 방법, 효용에 대해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분야가 처너지로서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PR에 직접, 간접으로 종사하는 이들의 숙제로 돌릴 수 밖에 없읍니다.

요는 오늘날과 같은 선부의 시대에는 PR의 방법론 여하에 따라서 현대인의 생활과 감정이 좌우되며 나아가서는 일국의 정책에 성패를 결과 지우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순시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무원 전원이 PR요원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 현 | 전 | 략 |
|---|---|---|
| 대 |   |   |
| 의 |   |   |
| 방 |   |   |
| 향 |   |   |

1  
 현대의 전략의 방향을 모색해 보라는 것이 편집자의 요청이다. 이것은 현대인들은 어떠한 전략 사상을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뜻과도 상통하는 것이라고 보며 표현을 달리한다면 현대인들은 전쟁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자신의 장래를 어떻게 기약해야 할 것인가라는 말이 될 것이다. 전쟁의 도구인 무기가, 급진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변천하고 세계의 질서와 정세의 변천으로 전쟁의 성격도 변화하였기 때문에 현대의 전략은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군사적인 제요소를 총망라한 전 국력을 적과의 상대적인 관계 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우방 동맹국의 관계요소도 포함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본고(本稿)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현대의 무기체계와의 관계에서만 고찰하는 국한된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자고로 전략 사상은 전략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항상 무기관계와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유지해 왔다. 즉 전략 사상에 따라 무기관계가 발전되기도 했고, 새로운 무기의 출현으로 전략사상이 변천하기도 했다. 해전에서 의 대함거포(大艦巨砲)의 사상이 십만톤급의 군함을 설계하게 했고 항공기의 급진적인 발달이 항공모함 지상주의의 사상을 낳게 한 사실이 좋은 실증이라 하겠다.

2  
 현대의 무기체계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가공」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현대의 전략 폭격기 또는 일기의 「미사일」이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의 위력이 제2차 대전에서는 참전국이 사용한 폭탄의 전량보다도 크고, 유사 이래로 인류가 사용한 전 「에너지」량 보다도 크다거나, 「미사일」은 이러한 초대위력의 탄두를 싣고 30분 이내에 대륙을 횡단할 수 있다는 것 등은 이미 상식화한 진부한 이야기이며 미국과 소련 두 나라는 각각 전 세계를 파괴하고도 남는 절대량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소유한 전력을 무제한으로 사용해서 싸우는 전면전쟁에서는 미, 소 할 것 없이 전멸할 것이라는 데서 「공포의 균형」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이것은 미, 소가 전략구인 핵무기를 무제한 사용하는 전쟁이 발발하면 세계의 소멸이 아니면 상호의 자살을 초래한다. 이 경우에 입는 피해는 공격측이나 수세측에 대차가 있을 수 없음은 물론, 교전국, 중립국의 차이도 북반구 남반구의 차이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양국의 지도자가 「히틀러」와 같은 미친놈이 아닌 이상 쌍방은 심히 자살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전면전쟁은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통칭 공국무기라고 불리어 온 열핵탄두와 「미사일」의 결합체는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가져왔으며 이 「공포의 균형」은 억제전략을 탄생시켰다.

억제전략 또는 억제론이라고 불리우는 이 전략론은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상을 조건으로 하고「현상유지의 의사와 능력」을 전제로 한다. 현상유지의 의사와 능력이 문제시 되는 이유는 현상의 변혁은 전쟁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현상유지의 의사가 필요하며 현상을 견지하려는 의사가 충분해도 「일(一)능력」에 결여되어 있다면 외부와 내부로부터 가해지는 역력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고려 되기 때문이다. 선제공격은, 억제와 현상유지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조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억제론은 전쟁의 억제에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가지지 않고 있다. 단지 막연하게 인류의 절멸, 역사의 종말이라는 양상으로만 설명하고 비록 생존자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죽은 사람을 선망할 상태일 것이라는 식의 자포자기적이며 체념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 억제론은 전쟁의 억제에 실패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극히 비관적이어서 미혹한 감이 없지 않지만, 인간이 「공포의 균형」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상의 중압 때문에 많은 지지와 공명을 받고 있는데 이 억제전략의 문제점은 어떻게 억제하느냐의 방법론에 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보다 무조건 강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강력해지려는 노력이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니 평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대립과 긴장의 원인이 상호 간의 불신에 있으니 어느 한 쪽이 「깰디」와 같이 무저항주의를 발휘하여 신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 계속적으로 개발되어 가는 무기체계로 인하여 「자살전략」 또는 「절멸전쟁」이라는 생각이 점차 희미해져 감에 따라 「공포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즉 이때까지는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의 체념상태에 있었던「미사일」의 방어 가능성이 엿보임에 따라 전면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만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계산하면서 미, 소 양국은 새로운 군사적인 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격렬한 경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소련이 작년 9월 1일에 일방적으로 대기권 내 핵실험을 재개한 것이 새로운 경쟁 시대에 돌입하는 신호였다.

그 후 「마리노 프스키」 소련국방상은 작년 11월의 소련 혁명기념일에

『소련은 「미사일」 요격문제를 해결했다』고 호언하였고, 「후르시초프」는 금년 3월 16일에 『요격이 불가능한 무적의 「로켓」을 완성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하면서 마치 소련이 새로운 경쟁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위에라도 선 것처럼 주장했다. 소련 수뇌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그것을 실증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사실의 제시가 없었고, 또 억제라는 것이 다분히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실 이상의 것을 상대방에게 과시하는 것이 전술로 되어 있느니 만치 소련의 선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드릴 것은 못 되지만, 만약에 어느 쪽이든 간에 100%의 확률을 보장할 수 있는「미사일」 요격 무기를 만들었다면 자국은 조금도 상하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압도적인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또 쌍방이 공히 「미사일」 방어무기를 완성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질 수 있다면 군사적으로 결정적인 우위에 설 수 있으리라는 것도 명백하다.

미국이 지난 4월 25일부터 재개한 대기권 내 핵실험에서「미사일」을 진입로 상에서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아가스」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초고공 실험을 실시한 것이나 「나이키·제우스」(Nike Zeus) Anti-missile missile 을 실험한 것이다. 「미사일」 요격 무기를 먼저 가짐으로써 새로운 패 자가 되려는데 그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새로운 군사적 우위를 획득하려는 의욕상 및 사실상의 유동장제(流動狀齎)는 「허만·칸」(Herman Kahn)의 속칭 「수폭전쟁가능론」에 자극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허만·칸」 박사는 그간 RAND Cooperation(미국)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현재 Hudson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는 전략연구가인데 그는 작년에 「열핵전쟁에 관하여」(on thermonu-clear war, princeton university pess, 1961) 라는 저서를 발표하였다.

그는 이 저서에서 『핵전쟁이 자살행위라고 해서 광기의 지도자만이 이것을 일으킬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시킨 다음, 최근의 과학은『한 나라의 지도자가 광기 아닌 정기로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핵전쟁이 최상의 것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모른다』고 전체하고, 『핵전쟁의 결과는 일반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적절한 사전대책만 되어 있다면 전후의 환경은 무척 짧은 시간 동안에 전 전의 수준에까지 복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다시『핵전쟁은 핵무기의 위력이 절대하기 때문에 제 일격을 가하는 측이 당하는 측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유리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제일 격을 가하는 측은 자기가 선택한 시간에 자기가 선택한 방법과 전술로써 상대방을 공격할 수가 있지만 수세 측은 제 일격에서 받은 피해의 잔존공격력을 가지고 반격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선제 공격측 은 충분한 경계태세 하에서 제 이격을 방어할 수 있어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시간을 주어 서 대피를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즉 선제공격은 반격으로부터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도 있고 피해의 복구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기의 지도자가 아니라도 선제공격을 가할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억제론이 전쟁부정에 가까운 사상이라면 수폭전쟁가능론(水爆戰爭可能論)은 틀림없는 전쟁공정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기체계의 급격한 발달이 「공포의 균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낳게 하여 거의 전쟁의 의미가 상실되어 가려던 단계에서 다시 전쟁의 의미를 소생시키는 사상의 대두로 지금 이 현실은 유동상태에서 저미(低迷)하고 있다고 하겠다. 환언(換言)하면 전쟁의 의미가 상실되었다는 사실이 전쟁의 요인을 발본해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3  
 이상으로「힘」의 절대화가 이것을 사용하는 전쟁행위는 그 자체가 전쟁목적을 부인 내지는 조해 한다는 데서 군사력의 가치를 전쟁의 수행력이 아니고 전쟁 자체를 억제하는 방향에서 찾으려는「억제론」과, 핵전쟁이 절멸전쟁(絶滅戰爭)도 자살행위도 아니므로 필요할 때는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한정된 희생으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폭전쟁가능론」의 골자를 소개한 것으로 하겠는데 이것이 현대 전략의 방향을 시사하는 주요 이론이며 대표적인 사상이다.

일부 인사들 간에는 미국은 「케네저」행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민방위에 큰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지난 3월 30일 「산데이·이브닝·포스트」지에 발표된 바 「미국이 대소 선제공격을 가 할른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주는 미국평론가 「울소프」씨의 「케네디」 대통령 회견기사 등으로 미국의 전략이 후자 즉「수폭전쟁가능론」의 방향으로 수정된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감돌고 있는 것 같다. 이 기사 내용에 관해서는 백악관 공보비서「사린저」씨의 해명도 있었으니 여기에서 평론할 필요는 없고 미국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했느냐는 것은 더 두고 보기로 하되 전략의 선택은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군산주의자들은 세계체제의 욕망과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자유 세계 또한 이들의 노력을 저지하려는 결의에 변동이 없는 현하(現下)의 정세가 계속되거나 격화되고, 동, 이 양 진영은 다 같이 자국과 자기 진영의 유사 이래의 파괴를 방지하려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떠한 전략사상과 전략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는 경솔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중대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느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만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허만 · 칸」 박사의 계산에 의하면 미국이 하등의 민방위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핵전쟁을 맞게 되면 일억육천만명이 죽고,



**현대의 방향**

여기에서 받는 경제적 과정의 회복에는 100년이 걸리지만, 만약에 사전 대비만 충분하다면 희생자의 수를 일천만 명까지 감소시킬 수 있고, 경제적인 회복도 5년이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는 다 같이 전쟁의 요인을 소멸시킬 수 있는 동기를 잡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길망정 전쟁의 피해가 크니 못 하겠고 적으니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전준비가 없으니 전쟁은 하지 말자, 또는 대책이 충분히 강구되었으니 전쟁을 하자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전 세계가 충분한 사전대책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의 생명이 죽어가고 인류의 문명이 또 전으로 후퇴하는 것을 알면서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인간은 잔인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인간이 앞으로 계속해서 「공포의 균형」이라는 살풍경(戩風靄)한 분위기 속에서 전쟁에 대한 공포에 전율을 느껴야 할 것인지, 핵전쟁이 절멸 전쟁도 자살 전쟁도 아니니 필요하면 핵전쟁도 불사한다는 만용을 견지하고 군비의 확장과 경쟁에 광분해야 할 것인지, 혹은 긴 장래를 전망하면서 명석하고 현명한 절지를 발휘하여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의 판단은 제자 제위에게 일임할 수밖에 없다. 이들 전략의 진가는 역사만이 평가할 것이다.

## 신앙

손우성(孫宇聲)  
★성균대학교수

신앙의 세계는 현실 생활의 세계 속에 침투하여 인간의 정신생활 속에 생명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싶다. 신자, 무신자, 무신론자 그리고 신자 속에도 각 종교 또는 종파에 따라서 신앙에 관한 해석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인간 전체에 공통되는 점은 사람은 현실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며, 그 현실을 떠나서의 인간에 필요한 무엇이 신앙의 영역이다. 나는 형식상의 신앙을 갖지 않았으며 전에는 무신론자로 신의 존재를 공박함에 쾌감을 느껴본 적도 있었다. 지금이라고 나는 신의 존재를 긍정함이 아니다. 물론 어느 종교의 신자들이 그렇다고 믿고 있는 신을 그대로 긍정하라고 한다면 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신

은 사람이 만들어 불현 이름이며 사람이 생각하는 신은 언제나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현실계 너머의 존재이며 더 나아가서 말하면 신은 존재라는 말로도 그 속성을 설명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어느 방법으로도 설명이 아니 되는 존재인 바에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말이다. 왜냐면 인간이 신을 파악하였다면 그 파악한 정도에서 인간이 신을 지배함을 의미하니 그것은 신이라는 개념에 반한다. 그리고 인간은 직접 파악되는 현실 너머에까지 생각이 미쳐서 현실 밖에서 현실을 보아서 조절하며 어느 정도 지배할 능력을 가졌으니, 인간 자신이 그 정도에서 그 신성을 자기에게 가지고 있다. 신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이 보통의 사고방식으로 보아서 그 이치가 해명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을, 안 것과 같이 취급해서 거기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능력을 말한다.

신앙은 항상 미신과 결부 된다. 미신이라면 이성으로 판단해서 사실 아닌 것이 확실한 일을 사실이라고 믿으며 그 그릇된 확신 위에 다른 행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미신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사람이 생을 영위하기에 과다한 노력이 필요한 인생에 불필요한 노고와 제약을 첨가하여 사회의 생활 전반을 침체 속으로 이끌어 간다. 그러나 인생의 현상은 이러한 단순한 이치로 풀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명백한 미신이라도 거기 신앙 정신의 바탕이 있으면 미신 자체에 심오한 의미를 부쳐서 여기 강렬한 신념으로 찬 생명력이 늘어나서 생활 자체를 아름답고 보람있게 만들며 탁월한 문화까지 창조해 낸다.

신념의 힘은 무섭다. 신앙은 인생의 앞길에 희망의 큰 불길을 밝혀서 생명 자체의 힘을 복돋아 준다. 물론 미신과 신앙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실천에서 이 두 가지는 분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결합 되어 있으며 속 중의 경신성은 되려 형식적 이해가 용이한 미신의 중개로 신앙의 굳은 신념을 얻으며 문화의 실질적 향상에 뒷받침한다. 한국의 문화는 고대 사찰과 그 유적을 제하면 거의 보잘 것이 없다. 그런데 승려들의 설명을 들으면 대부분이 미신적인 설화에 그치고 그 속에 깊은 의의를 찾아볼 거리가 드물다. 불교는 미신이 거의 주체를 이루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싶다. 한국의 가장 오랜 문헌이라는 삼국유사부터가 미신적인 설화로 충만한 것을 보면 어떻든 불교는 고대부터 미신과 밀접하게 결합 되어 있었고 그 미신이 문화형성에 큰 역할을 맡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는 미신이 문화를 창조한다고 믿어서는 아니 된다. 예술적 가치는 문화의 척도를 정한다고 볼 것이라면 한국의 불교 문화는 신라 이후에 일보의 전진이 없었고 점차 퇴락의 내림길만을 밟아 온 것은 결국 신앙의 본질이 미신으로 기울어지며 진지한 사고의 노방이 둔화한 까닭이라고 보아야 할 일이다. 한국의 대사찰은 전부가 신라시대의 창건에 의하며 그것도 인력을 움직이기에 힘든 심산유곡에 축조되어 있다. 과학지식이 빈약하던 고대에 그만한 물자를 움직일 능력을 가졌었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 발달된 과학지식을

누렸었음을 의미하며 인간에게 그만한 사고와 실천능력이 있었다면 그 바탕이 되는 판단능력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면 신라시대의 청명하던 승려들이 황당한 미신을 그대로 믿으며 그것을 신앙의 본체로 삼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들은 볼 것은 보고 있었다. 불교의 심오한 사상에 법열을 누리며 이해력이 박약한 속중에게는 미신의 효과를 이용하여서 자기들의 깊은 기쁨의 껍데기나마 대중에게 논아 주었던 것이다. 아마도 그 뒤의 승려들은 신앙의 사상과 방편의 미신을 분간할 사고력이 없어서 불교사상 자체에 퇴화를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신앙은 미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미신이 결코 신앙은 아니다. 중세 기독교에도 미신적 요소가 풍부하니 그 바탕의 심오한 사상이 신앙의 정열을 일으켜서 찬란한 종교문화를 일으켰던 것이다.

철학사상이 말하는 바, 인간이 파악하는 현세라는 것은 불확실한 인간의 감각이 느껴져 받는 허황한 구조인 현상병이라고 보며 실지의 존재계는 파악할 길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종교사상이 현세를 무시하며 초월계를 찾는 사상과 부합된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현세가 허황한 것이라면 거짓말로 꾸며낸 미신도 현세의 사상만한 진실성은 가진 셈이니 거짓말이 거짓말로 아니 되며 신앙가의 사상의 본질은 항상 초월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세에 관한 일은 진실이건 거짓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든 인간은 현실 즉 현세에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생의 안일을 요구한다. 그러나 생명의 유지에는 항상 상당한 노고가 수반되며 설사 상대적인 안일을 얻어도 인간의 욕구는 한이 없으므로 현세는 인간에게는 언제나 고통으로 머무른다. 이 고통을 면하려는 의욕은 미신에 희망을 두게 되며 사색의 탐구로 현세에 행복의 달성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하게 되자 자연 현세는 불완전한 세상이니 불완전에 대해서 당연히 있어야 할 완전한 세상을 내세에 두게 되며 직접 감각으로 파악하는 물질적 세계의 너머에 정신의 세계를 세워놓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호의를 가져고 해석하면 신앙은 인간 정신의 필연적 요구이다. 왜냐면 인생의 모든 일은 상대적이며 단편적 으로는 어느 곳이나 법이나 길이 보이는 듯 싶는데 법과 법 길과 길 사이에는 그 전체를 일관하는 규범이 보이지 않는다. 인생의 일도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러러 우주를 살펴보면 주야 사시의 변천이나 성신(星辰)의 운행에 일사불란의 엄격한 규율이 있다. 그러면 이 우주의 규율을 세워놓은 창조자가 당연히 상정되며 따라서 모든 일이 혼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현상도 일관한 법이 있어야 한다. 인생은 고탐다. 고탐은 징벌이다. 징벌을 받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어느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 전체를 옯하는 어느 초월자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자연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빈약하던 고대인에게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일만이 충만하여 있으니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초월자의 존재를 직접 느꼈다. 이것은 원시적인 소박한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인지가 발달됨에 따라서 신앙의 영력이 약화된 것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인지가 신앙을 불식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면 인생의 모든 현상은 영원히 상대적이다. 상대가 있으면 절대가 있어야 한다. 절대 없으면 상대란 말부터 의미가 서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사상은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본다. 그들은 직접 절대자를 찾아서 그의 지배를 받았다. 유태교나 기독교나 회회교나 유일신의 관념은 고대인의 직관이 얻은 인간으로서 생각해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사상이다. 신은 절대요 선이요 진이요 완벽이며 모든 것이 불완전한 이 현위의 대극이다. 다시 말하면 신은 온 인류의 정신이 조화로 향하여 통일 되어야 할 초점이다. 이 초점에의 동경이 바로 신앙심이며 것은 동시에 윤리 사상의 요구로 합치된다. 기독교 국가의 신자들이 경신 사상과 도덕을 혼동함은 이 때문이다. 다만 신앙이 종교의 형식으로 추상에 의한 한 고정된 사상을 이룰 때에는 사상과 사상들 사이의 마찰로 되려 인간의 길을 벗어나서 여러 폐단을 일으켜 왔다. 그 때문에 무신론자들의 비난이 일어났다. 상대적 존재인 인간은 절대로 절대자인 신에 연결을 취할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 신은 없다고 하여도 무방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무신론 자체가 종의 신앙임을 잊고 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사람의 길을 찾는다. 그것은 사람이면 어느 형식으로건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PR

홍 천(洪 泉)  
★공보부문화선전국장

근래에 와서 전달이니 선전이니 또는 공보로 불리우는 말들은 마치 일상 여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원피스」니 「투피—스」니 혹은 「타이트」니 하는 말 만큼이나 유행되어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PR이라는 말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현대사회의 운명적인 현상으로 「크로즈 옯」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까지 비상한 관심과 연구심을 촉구하게 된 이 PR 이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현** PR에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거리이기도 합니다. 흔히 정부에서는 「PR활동을 전개한다」느니 「농어촌에 대한 PR를 강화한다」 혹은 「PR 사원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명제를 내걸고 실제로 이 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 흔히 우리가 요즘 세대를 가리켜 선전의 시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국가정책으로부터 개인의 사소한 의사에 이르기까지 「컴뮤니케이션」 기구를 통한 선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의** 특히 민주국가사회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방** 일찌기 동양사회는 숨기는 미덕(?), 호소를 모르는 병어리의 냉가슴 때문에 개발보다는 침체, 발전보다는 낙후를 가져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향** 정치에의 무관심이나 위정자의 횡포와 발생케 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이 모르고 국민의 의사가 국가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중세의 봉건사회나 근세의 절대군주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일 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공산국가가 일삼는 선전은 감언이설과 과장허세로 가득 차 있어서 선전의 진의를 여지없이 손상시키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오늘날의 선전은 현대인의 생활과 감정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선전시대에 있어서는 민주국가의 시민들은 그들의 판단에 호소하여 오는 무수한(국가적, 사회적, 개인적)호소를 자신이 판단 평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무릇 선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하고 선전을 거부하던가, 고스란히 믿어버리든가, 스스로의 예민한 판단에 의해서 평가할 줄 아는 태도들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흔히 무조건하고 선전을 혐오하거나, 반대로 속속들이 믿어버리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가령 권 위주의 체제하에서 살아온 이들은 일시에 밀어닥친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의 풍조가 미치고 있는 개방적이고도 진취적인 영향을 경원하고 꺼려하기 때문에 자유 사상에 대한 계몽이나 선전을 전적으로 불신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연인 그대로의, 이를테면 사상의 굴레를 모르는 사람들은 선전에 아무런 비판도 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드립니다.

가령 여기에 어떤 가혹한 행위가 있었다고 합시다. 우선 사진반이 달려오고—라디오가 방송을 하고—신문이 보도하고—찬사가 높아지고—영화화가 되었을 때, 이 사실은 분명 전국 방방곡곡에 전파되어서 만인을 감동시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혹한 행위가 「매스 ·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졌다는 사실 때문에 이를 가혹한 행위로 보지 않으려 드는 선전 부정자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혹한 행위가 선전이 된 때문에 부정이나 탄 것처럼 착각하는 고루한 사고방식, 이러한 사고방식은「가혹한 행위」는 숨겨져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인識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이따금「저—나리즘」이 범하는 사실의 왜곡이나 과장마저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일반 대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선전의 다양성과 신축성을 배려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PR의 사명이 발생하는 연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일반의미론의 한 권위자인 「S · I · 하야가와」씨는 인류 대부분의 공통적인 약점으로서 무의미한 말에서 영향을 받기 쉬운 것, 웅변적으로 열을 넣어서 말한 것을 믿기 쉬운 경향, 사실에 의하여 생각하는 것보다 표어에 의하여 생각하기 쉬운 것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인류의 약점인 동시에 PR의 발생 여건이기도 합니다.

만인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 신문의 대량구독, 「텔레비존」과 「라디오」등은 현대의 「컴뮤니케이션」 기술의 영향을 받는 나라에 있어서 때로는 무의미한 말을 가지고 몇백만이란 사람을 일거에 동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PR활동은 자연, 의미를 강조하는 직접 PP방식과 무의미한 말을 가지고 「에필」할 수 있는 간접방식으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가령 열변이나 표어 「포스타」같은 것은 비교적 감수성이 민감치 못한 대중을 일깨우는데 꽤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인테리」층에 있어서는 그런 열이나 강조만으로는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선전의 역효과를 나타내기 일수입니다. 다만 이들에게는「유—모리스」한 「아레고리」나 논리적인 확증만이 그네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만사에 비판적이고 「아이로니」나 「짜타이어」만이 그들의 관심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에 있어서의 선전은 절대로 간접 PR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필자는 대중에게 무의미한 것이 때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다는 말을 했습니다만 단순하면서도 「윗트」가 숨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부입니다. 대중이 그 속에서 제멋대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심상을 요동시킬만한 언어 감각의 손독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6 · 25 동란시에 배수의 거리 부산시 일대에 이런 「포스타」가 나붙은 적이 있습니다. 노인이 수건을 이마에 걸끈 동여매고 정면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너는 이 전쟁에서 무엇을 하였느냐」는 표어가 붙은 그림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꽤 단순해 보였습니다만 피어린 전란을 겪고 있는 수난의 민족에겐 폐부를 찌르고 간장을 서늘게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포스타」앞에서는 누구나 반성과 가책과 분발을 촉구하지 않고서는 못 배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5 · 16혁명 직후에 나온 「간접침략을 분쇄하자」는 「스로·강」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허다히 나붙은 (P26으로)

## 해설



## 미국의 핵전략의 기본구상(基本構想)

— 그 배경과 몇가지 전략서적 —

### 핵 전략론의 배경

작년 5월, 케네디 대통령이 강력한 새로운 민간방위계획(民間防衛計畫)을 실시할 때 전 국민에 대한 텔레비존 방송에서 『미국인은 각자가 처자를 위해서 「셸터—」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호소하면서 무서운 열핵전쟁(熱核戰爭=原水爆戰爭)에 대비해서 각 가정단위로 방위할 것을 경고하자 전 미국에는 셸터(대피호)소동이 일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셸터—라는 것은 원 · 수폭의 직접 피해를 방지하는 「보라스트·셸터—」(폭풍 대피호)가 아니 고 폭심(爆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 뒤에 오는 무서운 방사성 강하물(放射性降下物) 즉 죽음의 재를 방지하자는 방사능 대피호를 말하는 것이다.

폭풍 대피호는 중요도시에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주 정부나 자치단체가 건설하는 튼튼한 것이고 케네디 대통령이 말한 방사능 대피호는 각 가정이 지하실이며 뒷 울안에 간편하게 만드는 가족 대피호인 것이다.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빌리면 2차 대전이 일어나면 거의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대피호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미국인들의 실리적인 사고방식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고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가능한 방법을 다해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쁜 생각일 수 없다는 것이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군인들의 이와 같은 실리적 현실적인 사고는 미국의 유력한 전략가들에게도 반영되어 핵전쟁 전략수립의 기본방침과도 관련이 깊다.

사실상 미국의 유력한 전략가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핵전략」에 관해서 예의 조사하고 연구하여 분석 검토한 결과 「장래의 핵전쟁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것이며 전면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인류의 전멸은 아니며 반드시 승 · 패가 있는 것이니 우리들은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노력으로써 이겨야 하며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견해를 세웠던 것이다.

### 핵전략의 기본적구상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미국의 핵전략 이론은 소련에서도 거의 같은 의견을 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다각적으로 그 전략태세를 연구하고 있다. 이 소련의 핵전략 이론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정평이 있는 소련 군사연구가 「레이몬드·가 르토프 박사의 저작 『핵 시대의 소련전략』(1958년 프레카-?간)이 이미 4년 전에 다음과 같은 중대 경고를 함으로서 식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이다.

「소련은 원·수폭 전쟁에서도 필승을 기하여 가령, 그 군사력과 인구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경우라 할지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굳은 결심과 그들이 믿고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최신키의 제트 폭격기(전략공군)와 대륙간 유도탄(ICBM)과 중거리 로켓보(IRBM)과 잠수함 발사용 미사일 등에 의한 초기의 전략적 공격은 미·소 양국과 양 진영의 중요 동맹국을 황폐화할 것이다. 그러나 상호적(相互的)인 대 파괴는 결코 양자가 함께 패망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핵전쟁의 파괴적 단계에서 약한 나라, 또는 준비가 없는 나라가 지게 되는 것이다. 」

이와 같은 현실적인 사고방식은 미국 정부와 군부의 「핵전략」의 기본구상이 되었다. 이 기본구상은 지난 2, 3년 동안에 발전되고 강화되어 신문이나 세론을 크게 움직여 마침내는 작년의 대피호 소동까지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에서 각 가정이 대피호 소동을 일으키자 어느 공산주의자는 아이젠하워 정부보다 더 보수적인 케네디 정부라고 욕질을 하면서 진보적임을 자처하는 케네디 정부가 대피호를 장려함은 기괴천만인 정책이라고 했지만 「어떠한 국가도 그 최고의 목표는 살아서 보다 잘 살겠다는 것이다. 소련의 병력은 소련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 무기다」라고 설파한 「가르토프」박사의 소련 전략론에 관심을 가진다면 케네디 정부의 그와 같은 대비는 당연하고도 남는 바가 있지 않겠는가. 하바—드 대학의 「헨리 · 킷신저」교수의 유명한 저서 『핵병기와 외교정책』(1957년 하·퍼 사간)도 또한 학자다운 신중한 이론으로써 「한정전쟁에 한해서 핵병기를 전술적(戰術的)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시인하였던 것이다.

### 새로운 전략론의 전개

지금으로부터 3년전(1959년) 6월, 미국 국회의 상하합동

동남아의 울창한 밀림지대와 험악한 산악지대를 배경으로 「기습과 도주」의 게릴라전법을 전매특허처럼 사용하는 공산주의자들에 대처하는 자유진영의 군사력은 기계화된 화력과 기동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나머지 별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듯하였다.

이제 베트남에서 자유월남군을 지원하고 있는 미군은 여러가지 현대적인 장비와 새로운 전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대(對)게릴라전법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 글은 미공군참모총장 C. E. 리메이 장군이 미공군의 「Airman」지 7월호에 기고한 글을 옮긴 것이다.

<사진은 노획한 월맹군(越盟軍)의 무기>



오늘날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군사문제는 폭도 소탕전인 것이다. 폭도소탕전이라는 것은 즉 공산세력을 침투시켜서 암살, 납치 및 게릴라전 등을 통하여 합법적인 정부를 반복하려는 침략을 분쇄하는 것이다. 베트남이 이의 전형적인 예인 것이다.

베트남이 당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문제의 일면은 베트남의 국가적 성격 및 국민에 관한 오래되고 뿌리 깊은 것이다. 또 하나의 다른 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공산주의자들이 이러한 베트남의 오래되고 뿌리 깊은 문제들을 이용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베트남은 현재 기록된 이천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다수의 소수민족을 만들어 냈다. 그것이 오늘날 베트남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일면인 것이다. 이러한 소수민족들은 종교, 관습, 이상등을 달리하여 서로 반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수민족들은 그들의 재래 관습사회의 독립을 회구하여 왔으며 공산주의자들은 독립이라는 이들의 오래된 회구를 이용하여 왔던 것이다.

베트남의 지형은 전 국토를 좁은 해안평야지대와 높은 산악지대로 갈라놓았으며 북에는 레드강 삼각지대의 쌀산지가 있고 남에는 메콩강 삼각지대의 쌀산지가 있다. 산업을 뒷받침하는 석탄 및 광산자원은 북부에 집중되어 있다. 국토의 절반 가량이 울창한 밀림으로 덮혀 있으며 교통기관은 보잘 것 없이 빈약하다. 대부분의 교통기관은 운하와 연안의 해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불란서가 인도지나 반도를 통치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불란서는 이곳을 1954년까지 일백 여년간이나 지배했으나 이곳의 전 주민을 통치하지는 못했다. 불란서에 대한 베트남인의 반항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었으며 그들의 이러한 반항은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베트남인들의 독립의욕을 크게 북돋우어 주었던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베트남에서 이러한 오래된 문제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공산주의자들이 무력을 가지고서 군림하게 된 계기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치독일이 불란서를 점령하자 불란서의 비치정권은 주축국에 협력했으며 인도지나의 불란서정권도 비치정권에 보조를 맞추었고 비치정권의 협력으로 주축국의 하나인 일본이 베트남을 점령했다. 일본에 의한 5년간의 점령 기간을 통해서 베트남에서 일본에게 반기를 든 주요단체는 공산주의자인 호지명이 영도하는 게릴라 집단이었던 것이다. 항일운동을 통해서 민족운동의 주도권을 그들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했으며 독립을 회구하던 베트남 민중의 지지를 획득했던 것이다.

전쟁의 말기에 닥아들면서 불란서가 재차 연합군에 의하여 탈환되자 일본은 베트남의 불란서정권을 해체하고 전 베트남을 지배하는 그들의 괴뢰 정부를 세우고는 독립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일본에 반항하던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소위 「베트남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 위원회의 방사능 분과위원회에서「만약, 전면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어떠한 피해를 입을 것인가?」라는 중대한 문제를 내건 공청회(公聽會)가 열렸다. 이 공청회에서 미국의 1급 과학자,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내의 주요도시 70과 군사시설 233과 원자력 시설 21, 합계 244개소에 대하여 1일간 1메가톤 내지 50메가톤의 수소폭탄 1발 내지 2발, 합계 263발이 한꺼번에 투하 명중된다면—」이라는 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여 미국민을 놀라게 하였다.

즉 눈 깜박할 사이에 전 미국 인구(일억칠천만)의 3분의1 이상에 해당되는 오천만이 사망, 2천만이 폭풍과 화재와 복사열(輻射熱)에 의해서 중경상을 입을 것이며 전 미국 가옥의 반수에 해당하는 2250만호가 완소(完燒) 또는 대파할 것이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위기도 근본적으로 개선된 바 없고 미국군부의 핵무장과 미·소의 핵 미사일 경쟁은 더욱 더 심해졌을 뿐 완화된 징조는 조금도 없다. 이와 같은 정세를 배경으로 최근 미국에는 권위 있는 전략서 적이 다수 출판되고 있으며 내용이 딱딱하고 어려워서 우리나라 같으면 전문가나 읽을 책임 데도 미에서는 일반 국민이 이러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의 하나의 예로서 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학 출판부인 프린스턴대학 출판국에서 출간된 몇 권을 여기에 소개해 보기로 한다. 프린스턴 대학은 군사문제와 국제문제의 연구로서 유명하며 미국에서 넷째의 오랜 대학이고 동 출판국은 5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주로 시국적인 전문서적 외 출판에는 1류 민간출판사와 다름없는 유력한 존재이다.

1,하-만 · 카안 저(著)『열핵전쟁론』(1961년)

이 책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출신의 저자(물리학자)가 미국의 저명한 란드총합(總合) 연구소에서 12년 동안이나 원·수폭전쟁의 본질과 양상과 그 대책을 연구한 귀한 저작이다. 미국 군부의 간부를 위한 특별연속강의의 집대성(集大成)이다. 전권 650페이지의 무게 있는 서적이다. 이 저서 속에서 그는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제 8차대전까지 소상히 기술하였고 1960년 후반의 대위기와 1957년까지의 미·소의 군사력과 전략태세를 면밀히 추론하여 핵시대에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과 각오를 밝히고 있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 전 미국에 걸친 50도시를 기습공격 받을 경우 민간방위가 전연 없을 경우는 사상자 구천만, 만약 방사능 강하물을 최소한도로 예방하고 전인구의 70퍼센트의 전략소개가 완료되어 있다면 사상자는 오백만·이천오백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투쟁의 전략」(1960년 간(刊))을 저작한 하바—드 대학교수 토오마스·쉐링씨는 그를 「미국 제일의 통렬한 군사전략가」라 하며 탄복하고 있다.

2,버어나드 · 부로다이 저(著)『미사일시대의 전략』(1959년 간(刊))

이 저자는 「에일」대학교수(國際問題)에서 1946년에 미국 국립 군사대학의 창립위원이 되고 현재, 육·해·공군 각 대학의 고문 겸 강사의 요직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란드 연구소의 주임 연구원이다. 1960년대의 핵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미국이 가져야 할 전략의 전모를 450페이지 속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는 권위 있는 해설서이다. 그에게는 이 밖에 미국 해병학교에서 채용하고 있는 『해군전략입문』 『절대무기』 등의 저서가 있다.

3,그린 · H · 스너이다-저(著)『억지와 방위』(1961년 간(刊))

이 저자는 던버—대학 사회과 연구소의 객원(客員)교수로서 이때까지 미국전략의 디렘마였던 「억지냐? 방위냐?」의 대문제를 합리적으로 통합하여 「국방정책의 최고 목표는 우선 적의 공격을 억지하고 만약 공격이 일어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요령 있게 방위한다」는 새로운 전략론을 전개하고 있다.

4,포울 · 하몬드 저(著)『국방책—20세기의 미철부유(美蜚部識)』(1961년 간(刊))

이 저자는「에일」대학 정치학 교수이며 전후, 다년간에 걸쳐 하바—드대학원, 미해병학교, 컬럼비아 대학 평화연구소등에서 군사문제를 조사연구 하였다. 이 저서는 미국군부의 공정한 조직과 미사일 시대의 국방의 방안을 철저히적으로 구명한 400페이지의 책이다. 아무리 핵 시대에 적합한 대전략을 수립하여도 이를 행사하는 군부의 체질개선이 수반하지 않고는 소용이 없다는 통절한 제안은 군부의 독존적 독선적 행위를 경고하는, 귀를 기울여야 할 가치있는 책이며 민주적 국방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 소개한 것은 프린스톤 대학 출판물(타사 간행의 전략서도 많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한국 같으면 고급장교 이외에는 읽지 않을 군사 전략서가 미국에서는 일반 상업간행물로서 널리 정치가나 실업가, 신문인들에 읽히고 있다는 점, 특히 저자가 직업군인이 아니고 훌륭한 학자가 5년, 10년이 걸려서 연구한 성과라는 점 우리로서는 존경을 금할 수 없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필경 전 국민이 그만큼 국가안전에 대해 관심이 깊다는 것과 고급 군인들이 학자의 의견에 그만큼 귀를 기울여 그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있다는 증좌일 것이다.

(외지(外誌)에서 박병일역)





<리메이 장군>

그 후 일본이 패전하자 그들이 세운 괴뢰정부도 무너졌으며 공산주의자들이 영도하는 자치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1946년 초 불란서가 인도지나에 되돌아오던 당시의 상황은 이러했던 것이며 오늘날의 결과를 낳게 한 원인 중 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는 단 한 가지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다음 아니라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전쟁 장비 및 물자를 입수한 것이다. 그 당시 베트남의 정국은 혼란하였다. 일본인, 베트남인, 비치볼정권, 자유볼정권 및 국부 중국 등 통치자가 연달아 바뀌었던 것이다.

포츠담회담에서는 북부 베트남에서 국부군이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서 국부군은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했으며 불정권이 귀환한 뒤 몇 달 지나서 철수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간에 상당량에 달하는 무기 및 전쟁물자가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으며 이것이 후에 불란서와의 전쟁에 이용된 것이다. 베트남으로 되돌아온 불란서 정권은

공산주의자들과 베트남에 있어서의 두 정권의 위치 및 권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러한 협상은 1946년까지 계속되다가 완전히 결렬되었으며 그때 공산주의자들은 불란서와의 광범위한 게릴라전을 전개할 수 있는 장비와 경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된 베트남 전쟁은 1954년까지 계속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북베트남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베트남에서 전쟁이 시작되자 공산주의자들은 그로부터 5년간을 그들의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소비했다. 공산주의자들이 게릴라전을 계속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주력은 전투원의 모집과 훈련 및 작전과 보급의 근거지를 확보하는데 두었던 것이다. 그들의 주요 작전지역은 북부 베트남의 산악지대였다. 그러던 중 1949년 베트남의 북부국경까지 중공군이 지배하기에 이르렀으며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은 중공에 안전한 피난처와 보급근거지를 갖게 된 것이다.

처음에 불란서는 요새작전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란서의 기도는 요새주위를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므로서 실패하고 말았다. 불란서의 요새작전은 적으로 하여금 기동 및 매복의 전술을 사용케 하였으며 따라서 불란서도 이동작전으로서, 이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불란서군의 우월성은 기계화된 화력 및 기동성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이 불란서군은 도로, 운하 및 평야에서만 우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서조차 적은 도보로 밀림을 횡단하여 목표를 찾고 밀림을 배경으로 공격하며 밀림 속으로 후퇴하여 사라질 수 있었다.

불란서군은 장기간에 걸친 소모전과 보급의 곤난으로 약화되었으며 그들은 대규모로 전세를 정식으로 갖추는 것과 대적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불란서군은 적을 철저히 쳐 부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사진은 귀순한 월맹군을 환영하는 월남군)

그러한 불란서군의 소원은 1954년에 「디엔 비엔 푸」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세는 불란서군의 확신과는 정반대로 불란서군이 패배했던 것이다. 이 전투에서 불란서군이 패배한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의 옳고 그름을 전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 한가지 특기할 만한 중요한 사항은 다음 아니라 불란서군을 패배시킨 것은 게릴라 전술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 전투는 훈련된 정규군으로 된 적과 싸웠던 것이며 적은 실질적인 포병 및 대공포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문적인 보병전술로서 공격했던 것이다. 전투는 몇 달 동안이나 계속 되었으며 공산군은 우수한 후방지원체제에 의한 지원을 받으면서 싸웠던 것이다.

「디엔 비엔 푸」전투에서 불란서 군은 공중엄호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불란서군의 항공기들은 전선에 서 멀리 떨어진 기지에서 출

격하였으므로 전선에서의 체공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이다. 불란서군이 포병의 우위를 빼앗기고 나서는 불란서군의 항공기들은 전선에서 훌륭하게 차폐되고 위장된 적군의 개별적인 목표를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으며 불란서군의 요새를 공중지원하는 수송기들이 얇은 고도에서 보급물자를 투하하도록 하기 위해 적군의 대공포대 공격에 주력하였다. 불란서군의 요새는 전적으로 공중보급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밤에는 항공기에 의한 화력지원이 거의 없었으며 분쇄되어버린 불란서군의 포대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항공기도 없었다.

군사적으로 보아서 「디엔 비엔 푸」의 함락이 그다지 결정적인 것은 못 된다. 그러나 「디엔 비엔 푸」의 함락은 불란서가 제네바에서 회담에 임하고 있는 순간에 된 것이다. 「비엔 디엔 푸」가 함락되므로서 불란서는 정치적으로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과 협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란서는 협상을 통해서 베트남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할 것에 동의하게 되었으며 공산주의자들이 북베트남을 지배하고 베트남 정부가 남베트남을 통치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베트남은 대략 17도선에서 분할된 것이다.

이때까지의 전쟁의 주요한 정치적인 문제는 베트남의 독립이었으며 공산주의자를 지지하던 자들은 자기네들이 진정으로 베트남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베트남의 독립은 허용되었으며 베트남 전쟁의 주요한 정치적 문제는 어느 쪽 정부가 독립된 베트남을 통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UN 감시하에 1956년 베트남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유선거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베트남이 분할되고 나서 약 백만명이 공산주의 지배를 피해 남으로 이동했음에 반하여 극소수의 사람이 공산주의 지배하에 살고져 북으로 갔다. 또한 남쪽에 있는 모든 공산군이 철수하게 되어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사실상 철수했다. 그러나 철수하면서 6만명에 달하는 자유 베트남의 젊은이를 납치하여 갔으며 또한 오천여명에 달하는 열성적인 공산주의자들을 자유 베트남에 잔류 시켰던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들을 장차 조직할 공산세력의 핵심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자유베트남에서 오늘날 준동하는 공산폭도의 상당수는 그들이 철수하던 당시에 북으로 납치하여 갔던 젊은이들인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북으로 납치되었던 젊은이들은 선전원이나 선동원, 또는 게릴라로서 세뇌되고 훈련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훈련을 받은 이들 젊은이들은 자유월남에 잔류한 열성적인 공산분자의 지시에 움직이도록 자유월남으로 밀 파되었다.

자유월남에 대한 오늘날의 치열한 선전은 1955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1957년 중엽부터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무력활동이 점차 증가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활동은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의 일단인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자유월남에서 공산주의자에 대항할 수 있는 모든 권력 기구를 파괴하는 것이다. 테로는 그들 활동의 수단인 것이며 기본전술은 공산주의자에 대항하는 권력 기구에 민중이 반기를 들도록 하는 것이다. 각종의 번복음모 및 반란행위는 보다 많은 수효의 민중이 그들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기구에 반기를 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인 단계는 민중을 정규군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며 이렇게 하므로서 「디엔 비엔 푸」에 있어서처럼 공개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보타쿠나 암살 등의 행동으로부터 대규모 군사행동까지에 이르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폭동의 수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공산주의자들은 천여명의 교사에게 테로를 가하고 학교건물 등을 파괴하므로서 사백여개에 달하는 학교를 폐쇄 하였다.

자유베트남은 아세아지역에서 유수의 잉여식량 생산국이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쌀의 수송을 방해하므로 말미암아 수출이 삼분지 일로 줄어들었다.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술로서는 지독한 고문을 가한 후 학살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정부 관리나 학교 교사를 학살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아내와 어린애까지도 학살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수백을 헤아리는 마을의 지도자를 학살하여 공산주의의 위력을 민중에게 과시하려 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또 하나의 전술은 납치인 것이다. 일단 납치되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고, 가끔 몸값을 치루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설득으로서 공산군을 모집하는 것이 실패할 경우 납치 전술을 쓰기도 한다.

정부 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서 병원 및 진료소 등을 습격하기도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소위 「세」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므로서 그들은 활동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흔히 지주들은 그들의 수확을 파괴하지 아니한데 대한 대가를 공산주의자들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운송회사들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들 회사의 버스나 배가 습격당하는 것이다. 버스 승객이 강탈하는 것은 흔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공산주의자들은 무방비의 민중이나 고립된 관서나 방비가 빈약한 전초진지를 습격하는 것이다.

#### 소련진단(蘇聯診斷)

##### ◇소련 최고회의의 선거

소련서는 최고회의의 선거가 1950년 3월 12일, 1954년 3월 14일, 1958년 3월 16일, 1962년 3월 18일 이렇게만 사개년 「들라스」일마다 도장 찍듯 정확하게 시행되었다.

의회해산이 없으니 의원은 4년간의 임기가 완전보증된다. 야당이 없는 의회니까 해산의 필요없다. 어느정도 신진대사가 있지만, 그들의 상투적 말인 「우리와 같은 박수로서 만장일치」할 권리밖에는 없는 의원의 질은 하등 변화가 없다.

왜? 무의미한 선거를 4년마다 시행하며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는가 그것은 총선거를 한다는 민주적 의복으로 공산독재의 본질을 위장하기 위한 것 뿐이다.

미국의 상원의원 「그린」씨가 『소련서는 선거를 어떻게 하는가 공산당만 입후보하고 각 선거구에서는 일명만 출마한다니 사실인가?』고 하니 「후르시초프」는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의회의원의 40%는 비당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일개의 당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전근로자의 이익을 공산당이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보자 선출은 먼저 근로자의 각 단체가 각각 입후보자를 내세우고 각단체대표자가 최적절한 자를 일명 선출해서 선거인





## 「모스크바」와 행렬

-어느 외교관 부인이 본 소련-

▲ 이 기록은 소련 수도「모스크바」에 주재했던 일외교관 부인의 수기이다.

나의 모스크바 생활은 1년 8개월, 1960년에서 62년 초까지였다.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무언가 생활의 불안을 느꼈지만 주인이 외교관이라 본국에 돌아간다면 이중생활을 하게 되니 그대로 참는 수밖에 없었다.

노어는 「스코리코」(얼마나?) 라는 말과 일에서 백까지의 숫자 밖에는 몰랐다. 우리들이 처음 살던 곳은 시의남면 「레닌스키이·푸로스 켈트」라는 큰 거리의 신개지의 「아파아트」였는데 극히 보통일용품을 사려고 해도 「빠스」로 출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뒤에 「쿠츠조프키이」가로 옮겨다소 편리해졌지만 역시 본국같이 가까운 점포가 없었다.

광, 육류, 소채, 통조림등 양료품점은 꽤 먼 거리에 있었고 그것도 언제든지 살 수도 없었다. 채소나 과일은 북국이나가 할 수 없지만 육류나 계란 등이 절무일때가 많았다. 미리 점원에게 부탁해두어도 별 효과가 없었고 부득이 매일 몇 번이고 나가보아야 했고 다른 불일로 나갈 때도 언제나 보자기를 가지고 다녀야 되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틀림없이 약간의 상품이 들어온 가게 앞이 었다. 소련인도 외출 때나 출퇴근 때 언제나 보자기를 들고 다니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었고 이 보자기 대용의 망대를 소련인 들은 「아보시카」(요행을 바라는 것)라고 하니 그 실정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수도의 일이니 다른 도시는 상상할 수 있었다.

상점은 「아파트」 거리에 있기는 하지만 물건 사는 데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이것은 현금은 상점에 주지 않고 「갓사」(현금수불구)에 가서 품목과 양을 말하고 전표를 받아서 다시 줄을 서야 하는 것이다. 그 원인은 계산이 느리고 「써비스」정신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행렬을 세워놓고도 잡담을 하는 상인, 물건의 유무를 물으면 「니엣트」(없다)라는 말 한마디 뿐이다. 되물어도 귀찮다는 듯 「니엣트」.

흔히 그들이 습격하는 대상으로서는 경찰서나 조그마한 군의 분견대인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들 경찰서나 군의 분견대를 우세한 병력으로서 기습함으로써 무기 및 탄약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의료기관을 습격하여 필요한 의약품을 확보하며 농민을 습격하여 「세」의 명목으로 식량을 약탈하고는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폭동을 주도하는 것은 열성적인 전투원의 핵심분자인 것이다. 전투부대의 정수는 정규적인 훈련을 받은 잘 조직된 게릴라부대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핵심적인 전투부대를 보충하는 것으로서는 수시 전투에 참가하는 전투원들이 있으며 이들은 지구별로 정규장교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경비원, 정치 요원, 선동원, 연락원 및 이의 보조원 등이 있다.

이들 전원은 물론 일반적인 공산조직에 의하여 지원되는 것이다. 정치기구, 정보기구 및 군사기구는 모두 당에 의하여 지배된다. 공산당은 적색분자를 침투시키고 선전물을 제공하며 군사 요원을 처치하고 통신을 하며 금전 및 물자 등을 공급한다.

민중 속에 파고드는 이러한 분자들은 라오스를 통하여 베트·콩으로부터 공급받기도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하는 라오스의 대규모의 정규적인 공산군을 형성하기에 매우 안전한 지역이다.

규모가 큰 정규군 및 민병대는 비교적 소수의 폭도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폭도들은 민중 속에 스며 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 사표한다. 귀국에서는 어떤 선거를 하는지 모르지만 각기 그 나라의 전통과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취하면 된다.』고 하였다.

「후르시초프」도 일당의 존재를 인정했고, 일명의 후보자를 시인했다. 그런데 40% 비당원의 입후보자도 사실은 공산당원이 선택한 것이다.

공산당을 「캄프라췌」하기 위해서 의원의 40%를 비당원으로 하고 남녀평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의원의 40%를 여성으로 하고 있을 때인데 고의로 당원을 내세우고 싶지만 비당원을 내세우고 남자 대신 여성을 세운다. 그러니까 각 지구에서는 이 할당이 끝나기 전에는 후보자가 나설 수 없다.

그들은 먼저 「후르시초프」, 「미코얀」, 「코즈로프」등 당 최고 간부의 누구를 「포노마료프」나 「스피리도노프」등 당중앙위원회 서기 중에서 일인을 골라 후보로 내세우고 선거의전을 시작한다.

그들이 처음부터 의원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 일이지만 할당 끝날 때까지 당에의 충성 표명을 위한 것이다. 「후르시초프」나 「미코얀」은 연방내수증개소에서 후보가 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물론 이것을 일시적 현상으로 할당이 끝나면 공동성명을 낸다.

『각 선거구에서 우리들을 연방최고 회의의원후보로 추천한 것은 우리들에게 신뢰의 표명으로 감사하나 우리는 일 선거구만 택하여야 하므로 당의 지시에 따라 좌기선거구에서 출마운운.』하는 연극을 한다.

그런 반면에는 사기 싫은 물건도 없어진다고 강제로 떠 맡기는 능글맞은 상인이 있다.

가격은 일일이 기록할 수 없으므로 그 정상만 적겠다.

일반적으로 그 종류가 극히 적고 영양가도 없어 보이며 동절에 신선한 것은 거의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값을 말한다면 상품 자체가 조잡한데 비싸기 한이 없고 특히 계란은 있어도 보기만 할 정도로 본국의 몇 배가 되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백화점은 국영으로 몇 개 있는데 그 건물만은 웅대하나 상품은 보잘 것 없는 음침하기 짝이 없어 친근미가 나지 않았다.

가택은 일반 소련인의 것은 보잘 것 없었으나 「아파트」만은 약간 편리하였지만 특수층이 아니면 얻어들 수가 없을 정도이며 집세도 월67「루블」(팔천구백원)이나 물게 되었다(방 셋 부엌 변소).

학교는 교실 부족이 심각해서 의무교육이면서 이부제로 되어있었고 선생은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시간만 되면 퇴근해 버리고 숙제란 한 이름씩 내어주어 아이들이 골치를 앓고 있었다.

그런데 자본주의 나라에서 온 아이들을 「카피탈리스트」라고 하여 적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그 정도는 알 수 없었다. 화제 한 가지 그곳에서 어느 여의가 저술한 기록에 의하면 유물론의 철저한 포로인 그들이 정신과의에 있어서만은 신앙심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는데 무엇인가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없지 않았고 전후 특히 광인이 적지 않은 숫자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가령 문학에 있어서 반발하는 정신과 같이 일반인에 있어서는 질식할 듯한 억제 생활의 반발이 곧 광증으로 변모하지 않는가고 보이어 그들 생활의 일면을 볼 수도 있었다.

그곳의 일 생리학자 「파브로프」는 「프로이드」의 설이 자기학설과 유사하다고 해서 「프로이드」와의 면회를 열심히 희망 했지만 일축되어 버린 사실이 있는데 이 여의는 「프로이드」의 학설을 전적 반대하고 있으면서도 「파브로프」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여의가 돌지 않았나 하고 머리가 갸웃둥거리지기도 하였다.

또 한 가지는 「모스크바」에서 가까운 거리에 「루호비췌」라는 농업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는 그다지 넓지도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영문인지 관리부라는 것이 크게 버티고 앉아 무슨무 무슨 부하에 간부가 234명에 종업원은 27명 인건비가 연간 50만 「루블」이 지출되고 있다. 이들은 매일 책상에 버티고 앉아 전화질만 하고 있어 생산증강을 호령하고 있는데 생산책임제니까 일은 하여야 되고 그래서 자연 생산면은 조잡저질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실정이다. 이것은 농촌 생활에서 빚어진 이야기

그다음은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인테 그리고 육식을 부린다면 값이 싼 것을 바란다.

그런데 열차식당의 예를 보면 너무나 비양심적이다.

폭도들은 그들의 행동현장에서 발견되거나 또는 민중 속에 펼쳐져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발견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중들은 그들로부터 밀고를 할 경우에 암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단될 것이라는 위협에 떨고 있는 것이다.

군부는 폭도를 색출하고 처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외에 유일한 방법은 전 국민을 군부가 통치하므로서 폭도들을 처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더라도 전쟁의 전략적인 목적에서 볼 때 이러한 방법으로는 실패하는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전쟁의 전략적인 목적은 폭도들을 소탕하는 전쟁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전하도록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의 전쟁에 있어서는 파괴한 교량이나, 건물 또는 소각된 차량 등의 수효를 세거나 하는 전과의 측정 방법이나 기타의, 정규전쟁에서 경과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사용될 수 없으며 또한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전쟁의 과제는 폭도들의 활동을 봉쇄하고 민중을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용함을 분쇄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의 전쟁에 있어서는 전과를 확인하는 척도로서 적 선전에 대한 민중의 혐오 적의 패배의 노출, 게릴라의 포위, 적병의 귀순 및 군사행동을 위하여 민중이 제공한 전술 정보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폭도를 소탕하는 전쟁의 주요국면인 것이다. 그것은 민중의 신념 및

그런데 이 연극이 이 연명이라도 입후보자가 있으면 선택의 자유가 있겠는데 그렇지 못하니 소련은 선거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표권만 있고 아니 투표의 의무만 있다.

이 결함을 지적하면 소련 측은 자본주의 국가의 금권의 매수 향응등을 들고 나와 공정한 민주적 선거가 아니라고 우기며 자기들이 부정이 없으니 민주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금권 운운하나 민주적 나라에서는, 여러 출마자 중 선택과 기권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소련과 같이 이미 결정된 후보자가 돈을 쓴다든가 향응을 할 우지는 없을 것이다. 부정이 없을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민주적이라면 가소로운 일이며 소련에 만약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부정선거가 천하 일품일 것은 그들의 매수 착복의 실례는 경제관료의 통폐가 되어있고 「후르시초프」가 농업지도자에게 협잡을 힐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로 알 수 있다.

### ◇3월의 당중위총회

사회주의나라의 농업문제는 극단의 말세기풍경이다. 소련은 근 사십년 계속되고 있는 두통꺼리다.

사회주의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농업생산의 뒤흔어진 것을 극복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후르시초프」의 고민이 여기 있다. 미국을 따라가자는 것이 목표이나 그 결과는 변한것, 「후르시초프」는 쥐새기같이 뛰어다니며 지방농업지도자 의 부정을 적발하지만 그것은 마이동풍장 1961년의 곡물의 목표량인



막시멘크」라는 어느 역의 식당계장은 부하에게 엄격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서어비스」에는 열심이라서 이 급요리도 일급값을 받고 좋은 재료는 소매상인에게 횡류(橫流)시킨다. 여객은 불평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한곳 뿐 아니고 다른 역「리보프」에서도 그렇다. 재료는 횡류(橫流)시키고 검사관이 나타나면 적당히 회물로 삭삭한다. 손님이 취하면 정량을 적게 하고 비싼 돈을 받는다. 「우크라이나」의 상업성은 열차 식당에서「윳카」의 판매를 급하고 있으나「원카」나「크냐」등 간단하게 마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종업원이 밀매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양은 적고 값은 굉장한 고가다. 요리값은 공정이니까 그 양이 적다. 이런 일이 허다하다는 것은「꾸포크」지에 실린 기사 중 서민의 소리에서 들은 화제의 하나다. (김 사 천(金史泉))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제 분야에 걸친 각종 시책이 군사력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문제도 없으며 그렇다고 전혀 군사적인 문제만도 없는 것이다.

정치 및 군사를 막론하고 모든 시책의 전략적인 목적은 민중들로 하여금 폭도소탕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폭도를 소탕하는 정치적 및 군사적 조치의 전략들은 동일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정치 및 군사의 합동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모든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폭도를 민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민중과의 유대를 분쇄하며 보급원을 고갈시키고 항복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기는 용이하지만 실행하기는 매우 곤란한 것이다. 폭도를 민중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흠뿍하고 정확한 전술 정보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있으므로서 폭도를 색출할 수 있는 것이다. 폭도들에 대한 효과적인 군사행동을 함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전술정보가 절대적으로 불가결의 요소인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거나와 전술적인 문제는 민중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민중들은 폭도들의 활동을 정부에 고발하므로써 비로소 폭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왜그러냐 하면 게릴라의 특성은 정규적인 정보수색을 피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항상 민중에게만 알려지고 또 민중에 의해서 제 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중은 그들의 가족이나 마을이 폭도들에 의한 납치, 고문 및 암살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하여야만 비로소 폭도들의 활동을 정부에 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도 소탕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풍부한 추리력, 직업적인 지식 및 기민한 판단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들 지휘관은 민중을 보호하여야 하며 동시에 민중 속에 침투하고 있는 폭도들을 소탕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민중을 이해하여야 하며 그 들 정부의 정치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을 파악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는 전술적으로 성공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전략적인 면에서 손해를 보는 수도 있다. 민중 속에 공포나 적의를 일으키는 전술적인 성공이 폭도소탕하는 전쟁에 민중이 적극적으로 참여 케하는 전략적인 목적을 위한 전부의 몇 년간에 걸친 시책이나 진전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은 왜 베트남에서 싸우는가? 최근 미국의 대통령이 이를 해명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베트남을 원조하는 목적은 베트남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조속히 완전자주독립 국가로서 발전케 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는 또 미국이 베트남을 원조한다는 것은 원조를 통하여 그들에게 미국식 생활양식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미국의 군사정책은 그 둘 국가로 하여금 민주주의적인 개혁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방해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이와 같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자유 베트남을 돕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자유월남에서 미공군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없을 것인가의 여부를 확인 하고저 그곳을 다녀 왔다.

자유월남에는 소규모의 미 공군의 교관 및 훈련부대(訓練部隊)가 근무하고 있다. 그들의 임무는 자유월남군의 훈련을 원조하는 것이다.

94억 프드에 84억 프드 육류 1880톤에 880톤 우유 7840톤에 6250톤의 생산이 있었을 뿐이니 계획의 6·70%에 불과, 그래서 지난 3월 당 중위총회는 이의 결함을 지적하여 시정하기 위해 소집한 것이다.

「후르시초프」가 이 총회에서 제안한 것이 결작이다. 생산우수자는 관리로 등용하고(계급차가 여설)농학자가 실생활과 유리된 연구를 한다고 대로, 그 일례를 들면, 「하리코프」의 수의연구소의 「첼란스키」는 「노동력에 영향을 미치는 말의 운동과 속력에 관한 생리학적 연구」라는 박사논문을 썼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말의 노동력을 규정하는 속력은 걸음의 길이와 회수에 의한 것이 명백한데 그 결론으로서 말의 노동은 말이라는 동물이 직접 참가해야 이용이 된다고 하여 박사호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슨 이익을 농업에 가져왔는가 알 수 없으니 여기 국비를 쓸 필요가 없다고「후」는 주장했다.

그 밖에도 발악적 규탄을 했지만 소련관료의 협잡은 날로 심해지고 농민만 골탕꺼리인 것이다.

한곳에서「후」가 비옥한 토지에 왜 목초를 심었는가고 관리인에게 묻자『곡물이면 안가로 국가에 조달해야 되지만 목초는 조달하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경제적이다』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관리인이 저승차사가 된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곡물과 사료의 증산에 열중하는 것은 당의 입장으로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일반 농민이나 관리인 측으로 볼 때

자유월남에 주둔하고 있는 전미군요원의 수효는 그곳 자유 월남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인원석 백분자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소규모의 미군 교관들은 현재 자유월남군의 훈련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월남의 육군 및 공군은 끊임없이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유월남군은 공지합동작전기구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공중지원의 효과적인 이용방법을 배우고 화력, 경찰, 수송 및 통신수단의 효과적인 사용방법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자유월남의 공군은 레이더 및 통신수단의 사용에 의한 공군력의 통제를 배우고 있다.

현대 장비와 이러한 기술의 활용으로 그들의 전력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전쟁에 있어서는 무기의 비중보다는 우수한 지도력 및 통솔기구의 비중이 훨씬 중요하고 무거운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미군은 폭도 소탕전에 있어서의 미군의 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소 연구소 및 실험소 등을 설치한 것이다.

자유월남에 주둔하는 소규모의 미공군부대들은 자유월남군에게 폭도소탕전에 공군력을 활용하는 것을 훈련 시키고 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자유월남군의 전력은 현저하게 향상되고 있으며 더 많은 이와 같은 미공 군부대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대를 조직하고 전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최근에 후로리다주에 있는 이글린공군 기지에 특수 공군 전투 센터를 설치한 것이다. 이 센터는 G. 프리차드 준장이 지휘하며 폭도소탕전에 대비하는 기술을 훈련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지난간 20년간에 걸쳐 한국, 비올빈, 제이차대전 및 자유월남에서 미군이 쌓은 이러한 종류의 전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그들의 전력을 발전시킬 것이다. 그곳에서는 공중근무자를 훈련시킴에 있어서 이미 쌓은 경험을 살려서 도피, 탈출 및 생존수단을 가르칠 것이며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특수전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난간 몇 년 동안 발전시켜온 기술을 활용하고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미군은 타군 및 연합국 군대와의 협동에 의한 공지합동작전의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것이다.

특수 공군 전투 센터에는 그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항공기가 공급될 것이다. 그들의 임무 중의 하나는 전력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개념, 전술, 기술 및 장비를 연구발전시키는 것이다.

지난날, 미군은 새롭게 요구되는 전력을 형성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복잡한 군수산업 기술에 의존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폭도소탕전에 있어서의 전력은 기술적인 산물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전쟁에 있어서는 경찰, 항법, 통신 등의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어 장비도 알맞게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당면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가 이미 취하여졌으며 조만간 새로운 전력이 발전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급 지휘관이 풍부한 추리력과 직업적인 지식 및 훌륭하고 기민한 판단력을 갖추므로써 방법 및 병력을 종합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고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

특수 공군 전투 센터의 지휘관들은 폭도소탕전에 있어서의 제문제를 이론적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실제 부 닥쳐서 다룰 것이다. 그들 지휘관은 당면문제의 특수성을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유월남에 있어서의 폭도 소탕전 문제에 대해 말했다. 이러한 종류의 전쟁에 있어서는 민중 자체가 전쟁의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전쟁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지구상의 어디선가 항상 계속되어 왔던 것이며 얼마 전 후르시초프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민족해방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 공산주의자의 이념의 일부인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운동을 처음부터 조종한 예는 없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그들 속에 침투하여 지배하기 위해 민족주의자로 자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또는 그것을 정치 권력이 한 진영에서 타 진영으로 옮겨지는 것으로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결과는 민중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공산주의의 전술의 성공을 공산주의에 대한 민중의 지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월남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의 성공은 테로의 위력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용인한다면 법에 의한 지배를 용인하는 거와 다름없이 폭력에 의한 지배를 용인하는 것이다. 폭력에 의한 지배를 용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는 목초를 심는 것이 경제적이고 유리한 사실인 것을 어찌하라.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관계가 일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소련 농업의 극히 모순된 면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중요한 점이기도 하다.

개인 농업이 사회주의 농업으로 되고 농업이 관료에 의해서 지도되고 간섭이 심하면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것은 독재 정치하에서 빚어지는 농업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말이 되겠다. 「후르시초프」는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피하고 어디까지나 위에서 강압적인 지도와 간섭으로서 줄기차게 모순을 헤쳐나가고 하지만 그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목초를 심지 못하게 정부에서 그 파종 품목의 선정에 간섭하고 재배방법 조달사무까지 감독하니 농민은 울며겨자 먹기격이 되고 있다.

「후」는 각 공화국에 농업 조달성(省)을 신설해서 각각 현지마다가 감독지도관을 상시주재시키기로 한 것이다.

작년 「후」는 농업성을 개조하여 국가조달위원회를 신설해두고 이번에는 다시 양자를 합병시킨듯한 농업 조달성을 신설했으니 조령모개(朝令暮改)의 격에 이르러 「후」가 그야말로 초조의 도가니에 빠져서 이리도 저리도 못할 정도로 또 다른 구상을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소련의 농업이 이런 수 저런 수를 써서 어디까지나 목표치의 완수를 꾀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이 내어건 미국의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는 「후」자신도 의심하고 있다. (김사천(金史泉))

## 그 후의 생활

### 한국일보 백형인(白炯寅) 기자의 경우



얼마전 미국에서 발사된바 있는 델스타인공위성은 지금까지 월립의 교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대륙간의 텔레비전 방송을 생방송으로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중계 수단이 발달되고 생방송이 빈현(賓現)된다 할지라도 역시 전쟁이나 천재지변 또는 매일의 사건 현상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한 카메라의 렌즈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카메라맨의 모험심과 투철한 보도의식을 요구할 것이다.

독일광학계의 권위자 「에른스트 · 앓배」가 만들어낸 광학유리를 재료로 하여 1890년 「빠루·루도후」가 만능렌즈를 만들어낸 이후 오늘날까지 왜곡이나 허위를 모르는 스트레이트한 전달자로서 수많은 카메라맨들이 양차대전, 스페인내란, 한국전쟁, 인도지나 전쟁 등 여러 차례에 걸친 전역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쟁의 성인성(聲忍性)이나 불행의 심각함을 리알하게 보도하여 주었거니와 개중에는「라이프」지 등을 통하여 아직도 우리네 기억에 새로운, 1954년 「디엔 비엔 푸」전투에서 촬영하다 지뢰를 밟고 순직한 미국의 유명한 전쟁사진작가가 있는가 하면 지난 겨울 우리나라에서 폭풍설을 무릅 쓰고 대관령의 스키대회를 촬영코 귀사도중 순직한 서울신문의 고박찬갑기자 등 인간사회의 희로애락을 카메라로서 추구하며 최후를 마친 카메라맨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다.

현재 한국일보의 카메라맨으로서 활약 중인 백형인씨도 공군에서 전역 후 한국일보, 사상계사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지난 4·19 당시에는 데모대 선두에서 빗발 같은 총탄을 무릅 쓰고 촬영한 씨의 작품이 국내신문에는 물론 Life 지등 해외지에도 실려 의를 추구하는 한국 젊은이의 패기 넘치는 일을 세계만방에 선양하였던 것이다.

다음의 글은 백씨의 지난날을 간추려 엮은 것이다.

× × ×

군국주의 일본이 소위 「대동아 공영권」의 건설을 부르짖으며 대륙에서 침략의 총뿌리를 마구 휘두르던 1940년대 초기 철부지 소년이었던 나는 일본인 중학교에 다니며 광대무변(廣大無變)한 대륙을 배경으로 마음껏 부푼 가슴을 안고 하늘을 동경하였다. 학교의 글라이더 부원이었던 나는 밤을 꼬박 새워 글라이더를 만들면서 장차 조종사가 될 것을 꿈꾸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일본의 패전으로 부모님을 따라 한국 서북단의 룡향 신의주로 귀향했던 것이다. 그곳 신의주 공업고등학교 기계과에서 학업을 계속하던 나는 친지의 권유로 그 당시만 하여도 소련군의 봉쇄가 허술하던 삼팔선을 월경, 서울에 와서 서울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단신 월남하였던 나에게는 학업의 계속이 여의치 않았으며 하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 신의주로 돌아가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고향으로 돌아간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잔악한 공산주의 테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니 그때 이미 이북전역 방방곡곡에 물샐틈없는 공산당의 치밀한 세포조직이 뻗어 있었으며 적색도당에 의한 만행이 도처에서 선량한 동포의 생명 재산을 위협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공포의 틈바구니에서 나만이 예외일 수는 없었으며 더구나 서울에서 돌아온 나를 가만 돌리가 없었다. 집에 돌아가기가 무섭게 나는 소련특무대에 의하여 체포되어 신의주 형무소에 감금되었던 것이다. 그 곳

조선예비경찰장교를 찾아서



에서 일량월여(一兩月餘)의 모진 학대 끝에 석방된 나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억누르고 그들에 대한 후일의 투쟁을 다짐하면서 자유를 찾아 또다시 삼팔선을 넘었다. 그러나 이번의 월경은 전번처럼 용이하지는 않았다. 북한 전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이 날이 갈수록 잔혹하여져 감에 따라 정든 고향을 등지고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탈출하는 북한동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며 이에 당황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삼팔선 봉쇄를 한층 강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탈출하는 동포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으며 개중에는 저들의 총뿌리에 희생된 수효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에 도착하여 당시 김포비행장에 주둔 중이던 육군항공사령부에서 신병을 모집함을 알고 중학시절부터 창공을 동경하던 나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의 절호의 찬스라 생각하며 병요삼기(兵料三期)로 입대하였다. 그때가 1949년 2월이었다. 그러나 당

시의 보유항공기 현황은 빈약하기 그지 없었으며 기성조종사 외에 새로이 조종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정으로는 매우 곤란하였고, 1949년 10월에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하면서부터는 중학시절의 앨범을 만든 경험을 토대로 나는 공군본부 정보국에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사진기술을 배우고 연마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나의 사진기술자로서의 출발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았던 민족의 비극, 6·25의 한국동란이 북한동포의 혈한(血汗) 위에 건설된 야욕적인 무력에 의하여 도발되었으며 중과부적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기군부대들은 고전에 고전을 거듭하면서 전선을 재정비하고 낙동강방어선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1950년 9월, 국군과 UN군에 의한 인천상륙작전을 정점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그 당시 내가 소속되었던 공군의 정보대는 북진하는 아군과 함께 일면으로는 적정보를 수집하고 일면으로는 괴뢰군 패잔병부대와의 산발적인 전투를 전개하면서 서부전선으로 진출, 신의주를 목표로 평양까지 진격하였던 것이며 그동안의 활발한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나의 사진기술은 연마되었던 것이다.

그 후 현재의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국 전선이 교착되면서 나는 당시



4·19일 경무대(景武臺)앞에서 총탄으로 부상당한 중학생을 부축하여 데리고 가는 대학생<라이프지(誌) 1960년 5월 23일 국제판에 게재>





<4 · 19일 서울대학데모대가 동대문경찰서 앞을 통과할 때 경찰관과 충돌하는 광경 <라이프지(誌) 1960년 5월 23일 국제판에 게재>

대구에 있던 공군본부 정훈감실에 배속되었으며 이곳에서 그때까지는 주로 정보자료수집을 위한 사진만을 제작하던 나로서 처음으로 보도활동을 위한 사진을 제작하게 되었고 사진기자로서의 훈련을 쌓게된 것이다. 그후 1954년 5월, 5년 3개월의 공군 생활을 마치고 상사로서 만기 전역하였다.

처음 전역하여서는 독자적인 기업을 목적으로 군대경험을 거울삼아 사진재료상을 경영하였다. 그러나 소규모의 자본밖에 갖지 못하였던 나로서는 도저히, 대규모 자본주와의 경쟁을 하면서 기업으로서의 채산을 맞출 수가 없었고 주위의 권고도 있고 하여 1956년 11월 민국일보에 입사, 처음으로 사진기자로서의 직업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후 사상계사(思想界社)를 거쳐 지금은 한국일보 사진기자도 근무하고 있다.

× × ×

한국언론계의 일선 사진기자로서 활약하고 있는 백기자는 군대 생활의 추억을 묻는 기자에게 「가장 쓰라렸던 기억은 6·25당시 공산군 YAK-9기가 기총 소사 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무기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굶어오르는 울분만을 억제하던 일이지요. 이제는 그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될 수 없겠지요.」하고는 그 당시를 회상하는 듯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잇는다.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전란중 한국공군 조종사들이 처음으로 백회출격 기록을 세우던 때지요. 정말 그때는 전 공군 장병이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한 순간이지요.」 앞으로 공군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후배에게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느냐는 질문에 겸손하던 백기자는 찾아간 기자의 간청에 못 이겨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글쎄요, 보편적으로 보면 군에서 전역하는 사람들이 자기소지 특기의 유무나 이의 사회적성 여부를 막론하고 도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군요. 장기복무를 마치고 전피(轉彼)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요즘 연금도 적지 않고 하니 농촌으로 가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더구나 그것은 농어촌 진흥이라는 혁명정부시책에도 부합되고 정부 보조도 받을 수 있으니 개인 자신과 국가에 이롭고 일거양득이 아닐까요?

설사 도시에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시민사회의 초년병임을 명심하고 군대 생활을 통해서 터득한 왕성한 책임 관념을 그대로 살린다면 무난하리라 믿습니다.」

군에서 전역 후 1958년 3월 백형인씨는 동향인 최은생 여사(현 이십칠세)와 결혼하여 지금은 슬하에 4세, 2세의 두 여아를 두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삼가 176번지에 거주하고 있다.

신 연재(新連載)

## 나를 움직인 책들



1. 권 영 대(權寧大)
2. 민 병 태(閔丙台)
3. 송 대 순(宋大淳)

## 「나를 구해준 짜라투스트라」

☆ 권 영 대(權寧大)  
서울대 문리대 교수

피가 되어 내 몸속을 흐르고 있는 사상이 있고 인생관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어느 한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닐 것이며 어느 한 권의 책에서 얻어들은 것도 아닐 것이다.

가장 다정다감한 20세 전후를 외국에서 지냈던 탓으로 자연과학을 전공한답시면서 실은 종교와 철학과 문학에 관한 책을 훨씬 더 많이 읽었으며 이들 많은 책에서 얼마간씩이나마 주어 물은 것이 내 일생을 지배하는 줄거리가 되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불행히도 피난 나간 새 그나마 가지고 있던 책들을 몽땅 잃어버리고 서는 다시 장만하지 못하고 있는 터이라 젊었을 시절의 나의 심금을 울렸던 책들을 일일이 소개하지 못함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그 중 한 가지만 적어보기로 하겠다.

그보다 먼저 나의 교육적 배경을 약간 말하여 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귀중한 중학시절을 공립학교에서 추억에 남는 일조차 별로 없을 정도로 무의미하게 지낸 반발도 있고 하여 고등학교는 그 당시 참단을 걷는 자유주의교육을 표방하는 데를 택하였던 까닭에 갑자기 노도(怒濤)와도 같이 밀려드는 신기한 사상과 지식을 받아들이노라고 매일같이 밤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으며 지내다 본즉 때로는 소화불량증에 걸려 「피테」의 「파우스트」를 읽고도 「이따위 쓸데없는 글을 쓰는 위인이 어데 있단」하고 일소에 불이는 따위의 시련기를 거쳐서 비로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사고력을 얻게 되었다.

누구나가 그렇듯이 나 역시 생에 대한 문제로 많은 고민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그러므로 해서 교회에도 나갔고 무교회주의자의 설교도 들어보았고 「트라피스트」 수도원에까지 찾아가는 안절부절하는 지극히 위험한 시기에 읽은 책 중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가 있었다.

그는 「인간이란 동물과 초인 사이에 연결된 하나의 밧줄, 심연 위에 걸려있는 하나의 밧줄, 뛰어넘기도 위태롭고 타고 가기도 위태로워라, 뒤돌아보기도 위태롭고 떨면서 그대로 있기도 위태로워라.」고 경고를 하고 나서 「인간이란 초월하여야 할 어떤 것이다. 그대들은 그리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고 격려를 하고 있다.

「니체」 자신으로 말하면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것에서 보이기 시작한 그의 사상을 더욱 공고히 표현한 것이 이 「짜라투스트라」이며 「초인」과 「권력」에 대한 그 후의 한 층 더 원숙한 작품도 있기는 하나 나 자신에게는 그의 초인사상보다는 이 「짜라투스트라」속에 흐르고 있는 생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의 사상이 몹시 흐뭇하게 느껴졌으며 그 당시의 나의 오뇌를 씻어주는 듯이 가슴 깊이 찌르르 통하는

것을 감지하였고 시인 정종백조의 「사람은 죽어버리면 그뿐이다」라고 한 말과도 어울리어 후련한 심경으로 구원당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 당시의 고등학교 학생들 간에는 과거에 생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하고 허무주의에서 그치지도 못하고 일로자살(一路自殺)로 돌진한 등촌(藤村)이라는 학생의 행동을 몹시 동경하고 찬양하는 풍조가 아직도 남아있었던 때인지라 생에 대한 단념이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수가 왕왕 있어서 「짜라투스트라」에게 구제받는다는 것도 그다지 용이한 일은 아닌 때 이었다.

「너희들은 별레로부터 인간에게까지 걸어 왔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들 중에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별레로 남아있느니라, 그 옛날 너희들은 원숭이였느니라, 지금도 역시 인간은 어떤 원숭이보다도 더욱 원숭이니라」고 대갈일성(大喝一聲)할 때 우리 인간 중에는 과연 초인으로 구원될 자가 몇이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 「나는 일지기 가장 위대하다는 인간과 가장 왜소한 인간을 모두 벗겨 보았노라, 그들은 서로 너무나 닮았으며 가장 위대하다는 인간도 너무나 인간적이었노라, 가장 위대한 인간도 너무나 왜소 하도다」, . 「아아 구역질 구역질 구역질」

이렇게 「짜라투스트라」는 말하고 탄식하고 몸서리치고 있다.

원숭이의 탈을 아직 벗지 못한 인간들! 그리고도 위대하다고 뽐내는 별레만도 못한 인간들! 그들 때문에 「짜라투스트라」는 구역질을 하고 있다.

물론 나에게서는 그가 말하는 「초인」이나 신이 문제는 아니다. 별레의 자손이 원숭이에 까지 진화되는 것만도 끔찍한 일인데 사람에게까지 되었으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우화등전시켜야만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다. 이 세상에 태어난 바에야 제대로 사람 구실이나 하면 그만이지 주제넘게 위인이 되고 싶어서 허우적거리고 안간힘을 쓰는 꼬락서니가 보기 싫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생을 유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해탄에라도 빠져죽느냐 심각한 기로에서 헤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동해 바다 백사장에서 울며 망계와 장난하던 시인 석천진목(石川陳木)과도 같은 울음을 울어도 보았던 것이다.

당장 이 세상에서의 생의 진의도 찾지 못한 주제에 어찌 당돌하게 저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랄 수가 있겠는가. 구약의 위엄도 신약의 박애도 불전의 자비도 통할 리 없었다. 모두가 나에게서는 들어가기 어려운 바늘 명이었다. 너무도 훌륭한 대문으로만 들어가려던 것이 잘못 이었다.

우연히 「짜라투스트라」라는 찌리짜 문으로 넘석하여 본 것이 신작으로 통하는 것을 알게 되어 도리어 어리둥절할 판이었다.

스승에게서 「고민속에 신이 있느니라」고 배웠기에 고민 그 자체를 해결 하려느니 보다 고민을 통하여 신을 찾으려고 도리어 사서 고민을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적도 있었다. 이것이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에 다니며 얻은 소득이었다.

뱀이 목구멍으로 들어갔을 때는 눈을 딱 감고 뱀의 허리동아리를 꼭 물어 끊으라고「짜라투스트타」는 외치고 있다. 오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뱀꼬리를 붙들고 잡아나꾸쳐 보았댔자 뱀의 몸뚱아리가 무사히 뽐혀져 나올 리 만무하다. 그렇다고 그 뱀을 이로 물어 끊는다는 것 역시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를 해결한 것은 아니나 다급한 지경에 놓여있을 때 「짜라투스트라」가 한고비 넘겨준 것은 참으로 천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들이 일생에 넘어야 할 고개는 결코 한둘이 아닐 것이나 인생을 비로소 맛보려는 청년 시절에 지나치게 심각한 고민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불행한 일일 것이다.

인간의 일생에 가장 영향을 끼친다고 할까 또는 늘 머리에 서 떠나지 않는 서적이라고 하면 역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시절에 읽은 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이를 먹는데 따라 새로운 서적이 계속 간행되고 있으나 이것은 대개가 한치나, 두치의 성장을 말하는 축적의 의의에서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것 같다. 어떠한 학자는 현대 많은 책이 「한우충동(汗牛充棟)」의 형용 근대로 출판되는 것은 이렇다 할 결정적으로 좋은 책이 없는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쓸데없는



책이 많다는 말로서 해석하면 그만일 것이며, 실은 모든 과학이나 문학이란 엄격한 의미에서 독창이란 있을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일생에 큰 감명을 주는 서적이란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다. 특히 이러한 각도에서 본다면 저서의 진가는 요새 흔히 신문에 보도되는 소위 「베스트 셀러」에의 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20년 또는 수백년을 두고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다른 학자들도 그렇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나는 나의 전문 서적보다도 문학적 서적에서 더 많은 감명을 받았다. 문학가란 현실 파악에 있어 더욱 명세하고 시대적 전망에 있어 더욱 활발하고 또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방향을 알려주는 데 있어 역사가나 사회과학자보다도 더욱 뛰어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영국의 「버너 드 쇼 우」와 노서아(露西亞)의 「톨스토이」의 작품을 잇을 수는 없다. 나는 「쇼 우」의 많은 저작 중 한정된 것을 읽었으나, 「인간과 초인」및 「알 수 없다」는 소품은 늘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풍랄적(諷刺的)이고 악매(惡罵)에 가까운 말투로

이사람 저 사람을 깎아내리는 논법은 저자 자신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같다. 불란서의 「발작」의 소설 「프란돌의 나무배」에 탄 모든 인간과도 흡사한 사회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죄과를 고백하도록 강요하는 위압을 주는 것이라고 문학가가 아닌 나로서 생각해 보기도 했다. 「쇼 우」의 소품에서 기억되는 구절은 어떠한 노선부 앞에 나타난 인물이 도둑으로 오인되어 「네가 도둑이지?」 「아니, 나는 전혀 다른 사람시오,, 착각이겠지요.」 「무월 그래, 네가 틀림없어.」 (읽은 지 너무 오래기 때문에 대화는 원문에서 기억나는 대로 썼으나 내용만은 틀림없다고 자신한다. .) 물론 욕을 보는 사람은 보통 시민이라면 시민일 만큼, 도둑은 아니다. 그러나 캐고 보면 도둑이 아니라는 확증은 없다. 혼자서 깨끗할 리가 없는 인간과 인간의 사회에서 우리가 지양할 바의 문제가 무엇일까. 「쇼우」의 욕설은 우리에게 역시 중대한 경종이 아닐 수 없다.

「쇼우」에 의하여 욕을 얻어먹은 노인 「톨스토이」도 역시 안타까운 인간이다.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는 「전쟁과 평화」는 「부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의 저지른 책임을 참회하는 정신적 고통을 한 몸에 지니는 초조한 「네프류드」로, 이것은 다시 자기 자신을 색출 「아스타포보」역사의 시체로 변하게 했다. 「톨스토이」의 부모를 읽은 「쇼 우」는 자기 처에게 아해를 열셋이나 넣게 하고 이제 와서는 처를 버리고 행로에서 죽었다하여 제 생각만 하는 철부지 노인네라고 매노(罵詈)했다. 살기 어려운 인간사회를 비록 비위에 맞지 않으나 어쩔게든 「욕질을 밥으로 삼아서라도」 살아 보겠다는 「쇼우」와, 인도주의에서 점점 실망하여 고독으로 돌아가려는 「톨스토이」의 심정은 비록 대조적일 것이나, 이것은 삶을 영위하는 인간으로서 다 같이 없어서는 안 될 태양과 월광에도 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내가 전공했던 정치학 관계에서도 기술적인 것보다는 역시 폭이 넓은 서적이 인상적이었다. 「지레미 뎀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에 관한 서론」과 「토마스 힐 그린」의 「정치의무에 관한 원리」는 이미 언급한 「쇼우」와 「톨스토이」의 대조와도 같이 서로 이론이 상치됨에도 불구하고 그도 이 사회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진지한 학자적 양심을 뚜렷이 해줌으로써 깊은 감명을 가지게 한다. 「뎀담」이 「최대다수인의 최대행복」을 주장하는데 대하여 「그린」이 전체 사회생활을 통한 인격의 완성을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들의 시대적 캔을 초월하여 인간의 목적 특히 학문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반성케 한다는 점에 있어 공통된다고 생각했다.

끝으로 평이하면서도 미려한 문장으로 학생시대의 나를 개발해 준 「마코레」의 논문집과 「제임스 · 보라이스」의 「근대 민주주의」를 들기로 한다. 전자는 역사시 논문으로서 부정확했음은 모르나 그의 비판과 비유는 어떠한 교훈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생각된다. 「유지하려면 개혁해라 함은 역사가 증명한다」는 어구는 특히 인상적이었다. 그와 같은 류인 「썬파이그」의 역사에 관한 평론집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 한 토막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서반아(西班牙) 태수(太守)로부터 「캘포니아」주의 반부(半部)를 불하(拂下) 맡은 위인이 그 후 「샌프랜시스코」 주변에 금광이 발견되자 자기 토지에 불법으로 건축하는 수만(數萬)의 이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쉽사리 끝날 리 만무하다. 너무도 큰 액의 재산인지라 수억에 달하는 소송장에 부칠 인지대를 마련할 도리가 없다. 낙백(落魄)한 나머지 미국 대법원 입구의 돌계단에서 시체로 화한 주인공. 유무상통(有無相通)을 자신에게 역측하는 인생관을 가지는 자에게는 체판의 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지나 않을까. 「제임스 · 보라이스」의 「근대민주주의」는 일종의 교재적(教材的) 고전인 만큼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다만 책이 너무 커서 때때로 오래 읽은 기억이 난다. 다수결이니, 정당이니 하는 문제가 나타날 때 언제나 실마리의 역할을 해주는 만큼 고마운 책이라 하겠다. 나에게 감명적인 책을 소개하다 문외한의 문학평론 같은 문구를 쓰게 되어 자수하여 마지 않는다.

## 쇼와톨스토이의 작품들

☆ 민병대(閔丙台) 서울대문리대교수

## 「위대한교훈 이순신」전서」

☆ 송대순(宋大淳)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고로 영웅전도 많고 다투어 영웅호걸을 마구 만들어내는 야사라는 것이 있어서 젊은이의 부푼 가슴을 태우게 하여 청운의 꿈을 품게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통하여 일치된 경향인 듯하다. 저 「몰르타크」 영웅전이나 위인전기는 누구나 소년기에 한번은 읽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 일생을 좌우할 만큼 커다란 감명과 영향력을 준다고 하겠다. 최근 시청각교육이 아무리 발달하였다 하여도 독서를 통한 인생관의 형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일찌기 나는 성웅 이순신 장군의 전서를 읽고서 참으로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위인임을 발견하였으며 저 악독하였던 일제가 우리의 민족정신을 말살해보려는 무서운 마수에도 불구하고 소위 일인들 자신들의 국사책에 충무공이 해전에서 일본군을 무절렀다는 사실만은 숨길 길이 없었다는 점을 볼 때에 마음 호뭇하였던 사실이 기억에 새롭다.

충무공의 애국지성(愛國至誠)과 커다란 도량은 귀신을 울리는 신묘한 전술, 안으로는 효자요 밖으로는 충신이요, 아래 사람에게는 마치 아버지요, 불의에 대하여는 굽힐 줄 모르는 의기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전서를 근대로 읽어나 갈 때 스스로 느껴지는 대목이 계속되는 것이니 고금을 통하여 이러한 명장 명정치가로 충무공께 비견할만한 위인이 드물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었고 이러한 옛날의 감격은 환도이후(還都以後) 수(數)년



의하여 발표된 월탄 박종화선생의 「임진왜란」이란 창작을 통하여 다시금 지난날을 되새겨 보았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 자신이 깊은 충무공연구가가 아닌 만큼 많은 지식을 갖지 못하고 단편적인 지식에 그치는 것을 못내 부끄러이 생각하는 바이나 워낙 그 전서 자체가 어려워서 그 심오한 데까지를 터득하지 못한 것은 독자도 허물하지 말기를 바란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겠으나 일본의 소위 명치시대의 유명한 일본 해전의 승장 헤이하치로(동향평팔랑(東郷平八郎))이가 해군의 명문인 영국에 갔을 때 영국인이 「넬슨」제독의 위대함을 높이 찬양하는 말을 듣고 동향은 우리 동양에도 그에 못지않은 훌륭한 분이 있다하여 이충무공의 사적을 자세히 설명하니 영국인들이 모두 놀라고 감탄하여 한때 충무공연구 『봄』이 영국 해군에 일어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참으로 통쾌한 마음 금치 못하였다.

이충무공전서 중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하여 가지가지의 일들이 닥쳐올 때에 충무공이 하신 말씀이나 일화가 문득 생각나고 또한 그것이 거울이 되어준 일이 허다하다 하겠으니 이제 생각나는 몇 가지만 적어 보고저 한다.

물론 다 아는 중실 방 것이나 새삼스러히 소개해 보고저 하는 것은 아무리 들어봐도 항상 새롭고 뜻있는 일화요 또한 우리 민족으로서 만방에 자랑할 만한 사실이라는 점과 인생의 수양이라는 면에서도 한없는 교훈을 주는 까닭에서이다.

충무공이 일찍이 전라도의 말단 미직이라고 할 수 있는 목포만호라는 벼슬에 있을 때의 일이다. 당시와 상관인 모군수가 관가에 있는 오동나무 한 그루가 하도 좋은 고로 이것을 베어 올리라고 령을 내렸다. 그러나 충무공은 정색을 하고 이것은 나라의 물건이요, 사사로이 쓸 것이 못 된다고 주장하니 그는 무안을 당하였으므로 끝내 충무공을 경원기피(敬遠忌避)하여 그 직을 그만두게 하였다. 공의 사람됨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일화거니와 나라와 백성의 일이라면 신명을 도한 공의 충성심은 불의에 굴하지 않고 꾀꿇한 지조를 견지하는 이러한 성품과 기개야말로 어찌 만고에 귀감이 되지 않으랴!

임진왜란 당시 이 나라 조정은 당파 싸움이 장렬하여 일본에 갔다 온 정부 사신의 정세보고가 각각 다른 당파라 하여 서로 판이한 의견을 낸 까닭에 정세를 그릇 판단하여 안이한 생각에 잠들은 유신들은 일본의 침략이 없을 것이라는 공론으로 돌아가 무방비상태에 있을 때 오직 충무공만은 치적이 놀라울 뿐 아니라 수군의 육성, 전함의 건조에 힘쓰고 저 유명한 철갑선인 거북선의 구상도 이 때부터였다고 하니 출장입장 그대로 그 선견지명과 백성을 다스리는 솜씨가 후세에 감탄을 자아내게 함은 실로 당연하다 하겠다.

임진란이 터지자 바다의 수호신 이충무공은 왜병의 무리를 바다에서 무찔러 전라도 일대를 주름잡았고 왜군의 수송과 양도를 차단하여 그 보급로를 위협하니 육전에 승승장구하던 왜군도 바다에서만은 충무공의 용명에 눌리고 간담이 서늘하였으며 싸울 때마다 대승을 거듭하여 일찍이 해연사상 유례없는 전승장군이 되셨다. 그러나 이일(李鎰)이라는 이가 공의 제의를 무시한 결과로 전패하셨을 때 그 허물을 벗기 위하여 터무니없는 참소를 하니 공은 마침내 사탈관직이 되어 옥중의 몸이 되셨고 이러한 공의 부채를 틈탄 왜는 새로운 수군통제사원군을 대패시키니 방비없는 바다가 되어 조정은 물 끓 듯하고 다시 공을 불러 이른바 백의종군케 하였다.

지난 날의 통제사가 한낱 병졸로 전장터에 나갈 때 보통 인간이라면 그 심회가 어떠하였으랴. 그러나 공은 허심탄회한 백성으로서 출수하였고 다시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어 대패한 수군을 점호할 때 군사 백이십 명 이요, 전선 십이척이라, 공은 개연히 붓을 들어 장계(狀啓)를 올리되「상유십이(尙有十二), 출사력거전(出死力拒戰), 미신불사(微臣不死), 적적불감모아의(則敵不敢侮我矣)」라고 하였으니 그 기개와 자신 참으로 사람이 아니요, 신이라 하겠다.

전세는 거익호전(去益好戰)하여 우리나라와 명의 연합군은 육지에서 크게 혼(昏)군을 무찌르니 전의가 꺾인 왜군은 패주하게 되었고 또한 저의 나라 총두목인 풍신수길 총두목이 급사함에 즈음하여 회군할 것을 기도하고 명의 수군도독에게 후한 뇌물을 바치고 퇴로차단을 뚫고 무사히 돌아가기를 획책 할새 공은 그 기미를 알고 명장을 설득 위엄으로 놀려 어찌 원수를 그대로 돌려보낼 수 있으랴고 출전하니 저 유명한 노량전 투요, 대첩으로 끝맺을 무렵 공은 명도독을 구원하고 손수 북을 울릴 때 홍탄은 공을 죽음에 이르게 하니 명도독은 선상에서 세번이나 쓸어져 슬퍼하였고 조야가 모두 거성(巨星)가심을 통탄하였으며 공이 죽음에 임하시어도 자기의 전사를 알려 병사를 놀라게 하지 말라 당부하셨으니 듣는 이로 하여금 웃것을 여미게 한다.

충무공사적이나 일화의 가지가지들 들을 때 어찌 감히 범인이 이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마는 우리 세대도 그 어느 세대보다도 험난하고 괴로운 시대를 당한지라 임진란 당시의 곤난을 몸으로 겪는 듯하였다.

그 중에도 625사변 당시 우리 강토 위에서 동족상잔과 국제전의 양상을 띄우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나는 충무공의 애국애족 하던 충성심과 여러 가지 교훈이 되새겨졌다. 임진란 당시 전라도민이 이산을 거듭하여 농사를 전패하고 쫓겨 다니며 굶주림에 허덕이고 적의 농간에도 넘어가는 등 허다한 곡절이 생겼을 때 충무공은 강경한 정치론을 일소에 부치고 백성을 다스림에 인자와 후덕으로 하니 어렵지 않아 백성은 장군 휘하에 모이고 행주천성의 용전과 더불어 전라와 경상도의 장병과 백성이 혼연일체로 적병을 무찌른 사실은 수백년을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백성을 선무하는 철칙이요, 민족 단결의 첩경이었으니 사변을 당한 우리에게 일찍이 커다란 교훈을 내리신 것으로 생각지 않겠는가. 나는 피난 당시의 우리의 모습과 임진란 시의 정경에 대비하여 민어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음을 깨닫고 충무정신의 발휘와 그 정신에 따른 애국도(愛國道)의 실천을 날마다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충무공전서가 나에게 끼친 영향을 생각할 때 충무공이 대성할 수 있는 기틀이 충분하고 그 실력이 대단하였지 <77P로 계속>

## 군축(軍縮)을 위한 현실적인 길 (下)

- 제네바 회의의 군사적 배경 -



PMS 볼라켓트

### 2. U-2 형기의 중요성

한때 미국 U-2 형 비행기의 소련 영공 침범으로 인하여 당시 성숙되었던 평화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동서 정상회담이 결렬되었고 다시금 긴장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제 그 U-2 형기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하려고 한다. 1959년에 미국 민주당 국방위원회는 국방문제에 관한 상세한 연구를 발표하고 미국 통상병력의 증강과 핵타격력의 병력 및 내파양성 무기의 증대를 위하여 『아이젠하워』대통령이 제안한 군사예산(430억불)에 70억 불을 추가(16%)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케네디』대통령은 61년 1월 신정권에 등장하자마자 군사예산 30억불 증가를 인정하고 그해 중에 또 다시 40억불을 추가하였다. 이리하여 59년에 민주당이 요구한 군비 확장 계획은 실행되었다.

오늘날 미국의 계획 중에는 65년까지 고체연료의 『미닛맨』형 ICBM 800기를 지하방호 기지에 배치한다는 1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당의 핵무장 강화정책은 소위 핵전쟁에서는 공격을 가하는 측이 결정적으로 유리하다는 이론에 입각하고 있다.

이것은 『공포의 균형은 불안정하다』고 한 이론과 밀접하게 결부되고 있다. 오늘날 소련은 미국에 대하여 기습 핵공격을 감행케 할 의도와 능력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까지 소련에 대하여 대폭적인 핵우위성을 보지하고 있다는 점 - 이것은 오늘날 워싱턴 당국 자신이 발표하고 있다 - 으로 미루어보아 핵전쟁에 있어서는 공격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이론에 약간의 진리가 있다고 치면 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소련이 아니고 미국이다.

미국의 총합 절전력은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도 소련보다 훨씬 강대하지만 소련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은 매우 위험하다는 중대한 요인이 소련의 태세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 요인이라는 것은 소련 핵기지의 위치가 음폐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U-2 형기가 비행한 주목적의 하나는 소련 핵기지의 위치를 탐색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워싱턴 당국은 U-2 형기의 정찰비행에서 평가할 만한 수의 실전용 미사일 기지는 발견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아이젠하워』미대통령이 핵무기를 적재할 수 있는 B-47 폭격기의 현역기 수 삭감을 시작한 것은 이 정보에 의해서였다고 한다.

소련 『후르시초프』는 물론 미국의 정찰비행이 60년 봄 U-2 형기가 격추된 이전부터 수년간에 걸쳐 계속되어 왔음을 알고 있었다. 예상하건대 소련군 사령부는 미국의 정찰비행에 대비하여 기지의 분산과 음폐에 주력하여 왔다. 소련 당국자로 하여금 가장 당황하게 한 것은 『아이젠하워』대통령이 이와 같은 정찰비행을 미국의 안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정당화한 데 있었음이 틀림없다.

미국의 안전은 미국의 성공적인 기습 따라서 핵공작을 소련 미사일 조직에 가함으로써 보장될 것이다. 이것은 또 미국이 소련 핵기지의 위치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였을 때 비로소 보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군사 목표 우선 제 일격』을 가하는 능력을 갖출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간주 되었다.

60년 후반으로부터 61년 초에 걸쳐 소련군 사령부는 비상하게 우월한 미국의 핵전력을 보고 소련의 최소한 저지력 전력이 적당인가 어떤가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예상하건대 소련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기지의 지리적 음폐성이 급후 서방측의 항공기 및 인공위성에 의한 정찰



또는 스파이 및 반역자의 행위에 의하여 상실되지 않을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공포를 느끼게 되었으며 소련군 당국자 역시 미국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련 핵 기지에 성공적인 공격을 가할 능력을 가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다.

미국의 이와 같은 공격은 예컨대 일억이라는 막대한 인명의 희생을 치룬다 하더라도 합리성이 있다는 미국 민간 순사 평론가의 주장,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대 손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적, 제준비를 조정해야 한다는 미국내의 의론에 대하여 소련이 깊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인 것만은 확실하다.

### 3.『아이크』가 지적한 미국내 사정

그런 것보다도 소련 정부가 특히 염려한 것은 워싱턴 당국, 정책결정 기관의 신뢰성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솔직하고도 경고적인 『아이젠하워』의 다음과 같은 이임 연설의 한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이젠하워』는 그 연설에서『방대한 군사시설과 거대한 군사산업이 결합되었고 이 결합은 미국 역사상 새로운 경험이라고 지적하고 그 전체적인 영향은 경제, 정치 그리고 정신면까지도 - 모든 도시, 주, 그리고 연방 사무소에 파급되고 있다. …정부 기관 중에서 우리들은 군사산업 복합체로부터 좋지 못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아이크』의 용기 있는 발언의 완전한 의미는 『케네디』대통령이 61년 가을 『공산주의에 대한 전면전쟁과 전면승리를 고취하는 자 모든 문제를 미국식 풍류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정력적(精力的)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을 때 더욱 명백히 되었다.

소련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극우 그룹과 초(超)애국주의자의 잠재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케네디』 『아이크』 양 대통령 두 분 다 극우와 싸울 필요를 감독하였다는 사실은 동시에 소련의 군사 계획자들이 미국의 극우주의자들의 존재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위에 선다면 61년 봄의 당돌한 소련정책의 전환배후에 있는 동기의 일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납득되는 이유는 소련 핵기지의 안전성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불안과 강대한 핵 우위를 이용하여 소련의 미사일 조직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그룹이 미국의 정권을 장악하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또 얼마간의 중요성을 띤다고 생각되는 것은 만일 NATO의 군사정책이 현재 그대로 진척된다면 서독이 자국의 핵무기를 보존하고 그 관리권을 장악하는 날이 머지않아 온다는 염려이다. 또 한 1960년 10개국 군축위원회에서 미국이 군축문제를 진심으로 상정하자는 안에 대하여 거부하였다고 소련에 반영된 사실 등은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1960년 2월 소련은 만일 서방측이 군축을 계속 저지한다면 대규모적인 군비 확장을 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항하였다.

이상 말한 것이 소련이 염려하는 점이라고 한다면 1961년 봄에 핵실험을 중지하는데 관한 미영 공동제안에 대하여 소련이 거부한 것은 간단한 군사적 이유에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미영제안을 상세하게 검토하면 국가제조직의 설치내지는 운용이 적어도 일부의 소련 미사일 기지를 폭로하는데 필요하다고 상상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만일 서방측이 대기권 내 핵실험만을 감시할 것에 만족한다면 더욱 소규모적인 사찰 조직으로 가능할 것이며 소련 군사 당국자도 기지 폭로의 위험을 면하는 것으로 납득하고 핵실험 중지 협정이 조인되었을 것이다. 소련이 사찰을 겁내고 거부하는 것은 소련으로서는 미영에 대하여 사찰을 가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반하여 자국에 음폐 해놓은 기지가 폭로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란 장차에 있어서도 매우 어려운 것이다.

### 4. 50메가톤의 경고

소련이 1961년 9월에 핵실험을 재개한 것도 이와같은 부류의 동기에서 오고 있다. 최대 50메가톤의 핵탄두 실험과 그와 동시에 발표된 사정 약 12, 000키로의 ICBM 7기의 태평양실험 성공은 미국에 대한 소련 미사일 정도 및 핵탄두의 위력을 강조한 것이었고 또한 소련의 실전용 배치 미사일이 저지력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소련이 자신을 재확립함에 극히 효과적인 방법이였다. 이와 같은 소련의제실험이 미국에 대한 소련의 실전용 핵 미사일 전력의 상대적 열세를 어느 정도 축소시킨 것은 확실하며 그것은 동서간의 균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 균형에 대하여 말하자면 소련 핵실험의 재개와 50메가톤 폭탄의 폭발은 『케네디』대통령의 극우에 대한 반대운동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50메가톤의 폭발이 소련과의 대결 즉 예방전쟁을 요구하는 극우파의 머리를 뜨겁게 만든 것은 의심할 바 없지만 동시에 소련 미사일이 극소수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보복공격에 의하여 미국에 파멸적인 손해를 주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미국민의 일반 인식이 더 한층 제고 되었다는 것이다.

### 5. 선제공격論자의 기선을 제歷

최근 미 당국자가 미국이 소련보다 핵 전력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열렬히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나 또 미국이 소련의 제2격 능력에 필적하는 제이격 능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련으로 하여금 혹시나 미국 예방전쟁의 입장에 치우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정반대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소련에 대한 예방 핵전쟁이 수천만에 달하는 미국민을 희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 대부분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소련의 비인도적 행위에 의하여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분격의 여파가 전 미국을 휩쓸고 그 압력으로 미국정부가

소련에 대하여 핵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압력은 소련이 군사목표 제 1격 능력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사실상 오늘날 그 능력을 가지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사용할런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것이다. 만일 그러한 사태가 실지로 존재한다면 미국은 기선을 제압하여 소련을 공격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논이 나올 것 으로 생각된다.

미국정부는 이 위기를 천명하고 소련은 지금까지 한 번도 효과적인 군사목표 우선 공격 능력을 가진 바 없으므로 소련에 선제 공격을 감행할 이유는 없다고 효과적으로 제거하였고 또 『케네디』대통령은 소련에 대 핵우위를 강조하므로서 잠재적 선제공격론자의 기선을 제압하였다. 동시에 『케네디』대통령은 민주당이 선거운동 시에 큰 기반으로 한 많은 주장 그리고 민주당의 현행 군비 확장 계획을 옹호하는 수많은 주장까지도 반대하였다. 예컨대 이 수년간에 『CBM 미닛맨』 800기를 장비하는 계획에 정당한 군사적 의의를 발견해 내기 어렵다. 『미닛맨』 800기의 장비는 그 성능으로보아 소련 도시를 10개 이상 파괴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 소련이 미국의 『미사일』 기지와 폭격기지에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할 능력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현재에 있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소련이 순수한 보복적인 핵전략을 채용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큰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 하나는 소련의 경제개발과 서방측과의 경제경쟁에 있어서 유익한 산업 기술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방측과의 경제경쟁에 의하여 최대의 군사적 위험 즉 소련이 지금 당장에 미국을 공격하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으로 인하여 미국이 소련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소련은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련지도자가 만일에 더 빠른 시기에 그들이 군사목표 우선공격 전략의 가능성을 확신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그러한 작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표시 하였더라면 서방측의 소박한 불안 특히 56년의 헝가리 폭동에 대한 소련의 비인도적 행위나, 57년 『스푸트나크』발사로 소련이 기술적 승리를 거둔 직후에 야기된 서방측의 불안은 대부분 완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후르시조프』는 60년 1월에 행한 연설에서 이것을 명백히 하고 기습 핵공격에 의하여 대국의 핵전력을 전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강력한 보복공격은 항상 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은 분석이 군사하게 진실 성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의 군축문제 토의진전의 전망은 어떤 것일까?

양 진영 모두가 엄중한 관리사찰 하에서의 전면적인 완전군축을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는 공식성명에 의해서 완전한 언질을 주고 있다.

즉 제네바에서는 필요한 군축조치와 사찰의 제양상을 포함한 제반조의 복잡하고도 상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전부 토의 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군축을 위한 제반조치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 제조건의 일부에 대하여 - 만일 그것이 군사적 이유에서 미소양국 정부로 하여금 수락할 만한 것이라면 - 그 윤곽이 막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반영될 것이다.

### 7. 군축을 위한 길

상술한 바와 같이 만일 군축이 실현된다고 하면 통상군축과 핵군비의 비축이 병행하여 진척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소련 지상군이 우월하다고 하는데서 일어나는 서방측의 불안은 군축의 제1단계에서 소련 지사군의 병력 수준을 1954년 영불각서에 시사된 바와 같은 낮은 수준 -미, 소, 중공의 병력을 각각 100만 내지 많아도 150만 이내로 한다. - 까지 대폭으로 삭감하므로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영, 독, 불국으로부터 NATO 지상군에 파견된 병력을 고려할 때 소련권의 지상군은 지상기습공격으로 구라파를 침략하는 능력은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 다음 쌍방의 핵무기의 수 그 폭발력 그리고 운반수단의 다양성은 대단히 방대한 것이므로 소규모의 핵군비 조치로서는 심리적 의의는 크다고 하겠지만 결정적인 군사적 의의는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삭감한다면 대규모적인 것 즉 사실상 대국의 핵군비 체제의 성격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로 방대한 것이라야 한다. 대해 단순한 최초의 조치로서 그리고 또 현실적인 군사적 고려까지 합치하는 조치로서는 우대국이 그 핵병력을 순수한 보복만을 위한 낮은 수준까지 삭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메가톤의 핵탄두가 달린 ICBM 100기 이하 - 이것도 역시 1억명 정도를 사살시킬 수 있는 무서운 만력이고 가능하면 ICBM을 20기 또는 그 이하까지 삭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삭감은 건전한 두려움 가진 정부에 의하여 핵무기가 공격 또는 협박의 무기로 서 사용되는 가능성을 즉시로 방지할 것이다. 물론 무책임한 그룹이 손해를 헤아리지 않고 핵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방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군축 이후의 단계에서 핵무기가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하게 없어진다. 우발전쟁 또는 무책임 전쟁의 위험이 항상 실재한다는 것은 대규모 또는 혹종의 급속한 군축조치를 설득하는 이유이다.

미 소 양국이 현재의 전략적 균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상 말한 것 같은 대규모의 최초 조치를 실시하려면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검토를 해야만 한다.

주요한 문제의 하나는 핵 운반 조직의 결단적인 삭감인데 이것은 국제적 검증 하에서 실제적인 파괴로서 실행하는 것이고 동시에 전반적 사찰 조직의 건설을 어떻게 구체화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 고려만을 염두에 둔다면 내생 각으로서는 동서 양 진영 쌍방이 수락할 수 있는 수치가 염출(捻出)되며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한편 비군사적인 고려를 포함하면 문제는 더욱 곤란하게 된다. 왜냐하면 비군사적인 고려가



대국의 국방정책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며 이것은 또한 대국의 군사정책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방대한 양에 정당한 군사적 이유를 두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미국에서는 핵 군축의 결정적인 제1단계에 관하여 군사적 요소만이 지배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미국에서의 군축 장해는 요컨대 작전 상의 군사적 고려에 근거를 두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감정적 고려에 근거를 두고 있는 현실이

점차 농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당면하는 주요한 문제는 여러가지 형태의 정치 경제 그리고 감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량의 핵무기를 보존하는데 의존하고 군축 일반 특히 『케네디』 대통령의 현저한 군축을 목표로 한다는 공약에 반대하고 있는 구류의 정치적 압력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결단성 있는 군축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방문제에 깊이 관계하고 있는 특수한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다.

미소 양국 정부가 준수한 보복능력을 보유하는 상태로 이행하고 과도기간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정치적 현실성 있는 경제계획을 작성하여 발표해야 하는 바 그것은 유익한 조치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의론에서 결단성 있는 최초의 군축 조치에 합의를 얻기 위해서 객관적인 군사적 근거를 찾아내는데 있어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합의된 군축 정책을 구체화하려고 할 때에 있어서 사회적인 지지가 대두되지 않는다면 그 실시를 저해하려는 군축 반대 그룹이 개입하여 올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군축의 대 목표는 군축을 반대하는 의론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 의론과 솔직하게 대결한 경우에 비로소 달성될 것이라고 하였다.

× ×

(김 목 준 역)

## 내가 사랑하는 생활

중령(中領) 이 옥(李 勗)  
〈공본·본부사령(空本·本部司令)〉

아직 초심자의 역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감히 낚시에찬론을 펼치기란 좀 쑥스러운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별 썬 내게서 떼버릴 수 없는 취미고 보면 낚시광이 아니라 해서 한마디 못하란 법도 없을 것이다. 한 주일의 근무에 시달리다가 주말이 오면 그 전부를 낚시터에서 소일하는 습성이 생활화 되었다고나 할까? 당초 내가 낚시에 취미를 들인것은 강태공 모양 무슨 천하를 낚으려고 하는 거창한 포부에서가 아니다. 그저 단조로웠던 사생활들이 탐탁하지 못했다는 것과 거기서 좀 탈피해야겠다는데서였다. 주말이면 집 구석에서 소일하기 일수요 어쩌다 마음이 다가 결과 없는 유흥에 시간을 낭비해 버은지도 수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쌓고 보니 이제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레경마 등의 오락에도 제대로의 장단점이 있을 수 없다. 이른 새벽 미명의 세계를 간기를 마셔 가며 산보삼아 낚시터까지 걸하고 조용하기만 하고 얼마간 수면을 응며 던져보는 쾌감 얼마 후 입질을 하는 낚한 놈이 하늘로 치솟으며 배의 흰 부분이 는 도저히 그 묘미를 모르리라. 파가운 햇살을 받으며 수면에 눈을 정착해 두 먼 지난 한주일의 아귀 다 톱이나 사소한 감정에 이끌려 자신을 잃어버렸던 일 앞으로 닥칠 걱정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잡상들이 말끔히 씻겨 버린다. 마냥 행복감에 도취되기 마련이다. 아마 이 기분에 매력을 느껴 지금까지 즐기는지 모르겠다. 생활에 시달리는 우리들의 환경이고 보면 조용한곳에 정착하여 잠시나마 진실 된 자기의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이다. 다음의 일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긴장된 분위기마저 해소시켜준다.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휴식의 전부를 낚시대와 호심에 파묻는 습성이 해를 거듭할수록 굳어지기 바란다면 과연 이는 부질없는 것일까? 낚시를 물에 드리우고 앉아 있노라면 어느덧 하루해는 서산에 기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엔 회심의 웃음이 떠오른다



현금(現今)에 있어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의 급속적인 발달은 실로 놀랄만한 것이며 각종의 새로운 「매스·미디어」(Mass media)를 등장시키고 있으나 특 주목할만한 것으로서 「텔레비존」(Television)의 출현인 것이다. 이의 현저한 발달이 여러모로 현대인의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 텔레비존과 텔스타 통신위성



김 기 점(金 基 漸)  
〈공군중령·공본공보과장〉

텔레비존은 가장 새로이 출현한 「매스·미디어」인 것이며, TV가 그 실용을 보게 된 것은 이십여년을 경과한데 불과하다. 이것의 세계최초의 정식 방송이 개시 된 것은 1939년이나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비로소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5-7년간에 걸친 TV의 발전은 주목할 만큼 활기를 띤 것이며 1950년에 이 정규방송이 실시 된 나라로서는 미국, 영국, 불국 그 리고 소련 등의 4개국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1955년에 이르러 30여 개국으로 늘었으며 1960년도에 이르러서 급진적으로 그 수효가 증가되어 금일에는 70여국의 시청이 이루어져 한국에도 1956년도 최초로 「텔레비존」방송 <HLKZ>이 개시된 바 있으나 그 후 얼마 안되어 회신되어 중단되었다가 순전히 한국의 기술로서 작년 성탄절을 기해 시험방송을 실시 코 1962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정규방송 을 하게 되었음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TV 시청국의 일원으로 등장하게 되었음은 기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 7월 10일 미국은 전파사상 최초의 TV중계 인공가성 「텔 스타」<Tel star>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TV송수신기술상의 일대 혁명을 가져다주었으며 근간이 중계위성에 의한 TV전신전화의 중계가 성공리에 그 실을 착착 견으므로써 「매스·커뮤니케이션」에 새로운 기원을 장식하고 있는 이때 「매스·미디어」로서의 TV에 관해 고찰함이 무의미하지 아니함을 체감하여 몇 가지 이에 관해 논술 코저한다. 이러한 TV의 급속적인 발달은 그 미치는 영향력이 「라디오」의 7배라고 까지 일컬어지는 「미디어」이고 보면 지금까지 인류생활에 다방면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어 왔음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더욱 가속도로 그 과학적 진전이 예측키 곤난치 않은 현금(現今)에 있어서의 텔레비존의 발달은 그 발전과 아울러 어떠한 특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매스·미디어」로서 다루어질 것인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TV의 발전과정과 특질 그리고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약술코저 한다.

### (1) 「텔레비존」의 발달

TV의 최초의 정식방송을 개시 한 것은 영국이며, 1934년 이래



텔스타 통신위성

BBC에 의해 실험방송이 계속되어오다 1937년에 FMI 방식을 정식으로 채용하여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정식방송을 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텔레비존」도 역시 일조일석에 출현을 본 것은 아니며 그 역사를 간략히 더듬어보면 TV발명의 기술적 기초인 『세레늄』 금속에 광선을 비춰 전기를 발생케 하는 원리가 1873년 영국인 「메이」씨에 의해 발견되었고 1880년에는 주사원리리를 불국인 「루브란」씨가 발견 또한 1884년에는 독일의 「니프코우」씨에 의해 「니프코우」원판의 발명으로 최초로 주사장치를 보아 발달에 큰 의미를 갖는「말코니」 무선전신의 발명이 가해져 거듭 독국인 『부라운』씨에 의한 『부라운』관과 『드 · 포레』씨에 의한 삼정진공관의 발명을 보게되어 기투적인 대 진전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1924년에는 영국인 『셰아드』와 미국의 『젠컨스』는 『니프코우』식 주사원판을 사용하여 처음으로 「텔레비존」실험에 성공하였다.

1925년에 영풍 런던에서 "Radio shadowgraphs"라고 칭하여 TV의 첫 공개실험을 하고 1928년에는 단파에 의한 실험방송을 하였으며 1932년에는 BBC가 『베아드·텔레비존』회사에 지명하여 공개실험방송을 하여 1937년에는 FMI 방식에 의한 정식방송을 개시하였으며 동년에 있었던 『쇼—지』왕의 재판식을 맞아 세계최초의 「텔레비존」방송의 개가를 올렸던 것이다. 그러나 2차대전발발로 전세계적으로 중단되었다가 1946년 이후 재개의 운명을 지닌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1928년에 『펠』 연구소에서 실험방송을 하여 1930년에 이르러 NBC가 실용적인 첫 실험방송을 개시하여 1931년에는 벌써 5개국이 시청방송을 하게 되었다. 1937년 4월 3일에는 드디어 정식방송을 하게 되었으며, 동일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박람회 개최식 실험방송을 함으로써 스타트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역시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타격을 받았다. 1944년에 이르러 다시금 활기를 띄어 대전종결과 아울러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어 1957년도에는 벌써 미국가정의 82%인 약 4,000만대에 가까운 수상기가 보급되었다.

그리고 주목 할 만한 것은 천연색 텔레비존의 발달이며,이의 특허를 얻은 것은 TCA의 『트윅킨』이며 1928년의 일이다. 그런데 이 칼라 TV의 실용적인 발전은 1940년이고 이것 역시 2차대전발발도 말미암아 발전이 조해되었으나 진극적 기업화는 전후인 1947년경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텔레비존」의 발달에 대하여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공헌이 있었으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역시 미영 양국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난번 미국에서의 「텔 스타」,TV 중계위성의 우주진입 성공은 또 하나의 전파사상의 일대혁명이 아닐 수 없음을 특기할만하며 나중에 논(論)급기로 한다.

#### (2) 「텔레비존」의 특징

이러한 급속적인 발전을 보게 된 TV는 그 무엇인가 TV 독자적 특질을 지닌 「매스· 미디어」이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즉 이것은 전파에 의해 영상과 음향 그리고 말의 동시적 전달을 할 수 있는 「매스· 미디어」이기에 인간의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다루는 성질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시간적 단축성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의 특질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순간적으로 원거리를 연결하는 전파는 속보성 동시성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동소성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특히 영화(映畵)와 다른 점은 『받은측』이 영화에 있어서는 특정한 장소(극장등)와 특수한 조건하에서만 볼 수 있으나 TV는 이와 달리 일반성이 지녀지는 것이고, TV영상에 영서의 것과 비해 적으므로 해서 시청자의 반응의 깊이가 적어지는 것을 들 수가 있으며 기록성에 결함이 있다고는 하겠으나 「라디오」

이상으로 현실성이 강하고 박진성(迫眞性)이 풍부함으로써 설득력이 대단한 것을 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식의 집중도가 높아 정서적 감성적인 면이 또한 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TV라 하여도 어느 정도의 결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완전에 가까운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며 「텔레비존」의 특질로 보아 현대인의 대중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님은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점 『이리온』(Lirion)씨는 <public opinion and propaganda>에서 「텔레비존은 미국인생활에 혁명적인 힘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오락적 가치에 겹쳐서 교육과 선전에 가장 유효한 매체가 될 것이다」라고 논(論)급하고 있음을 보아 대중전달의 위대한 수단이라고 하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고 보겠다.

#### (3) 「텔레비존」의 영향

「텔레비존」이 각종 「매스· 미디어」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점차 무거워져 가고 있는 것은 세계 공통적인 경향인 것 같다.

미국에서는 TV가 선거전에 큰 영향력을 가진 바 있어 1960년 11월 대통령 선거전에서 「케네디」와 「닉슨」간의 텔레비존 공개토론은 너무나 유명했었으며 미국에서는 이미 1952년의 선거에서 유권자가 입후보자를 좋아하게 된 동기가 「텔레비존」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신문이 33% 「라디오」가 5%의 비율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도 「텔레비존」 의존도가 58년 5월 선거시 4. 5%인 것이 60년도에는 20. 7%로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으며 영국에서도 59년도 선거가 「텔레비존」선거였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닌상 싶다.

이러므로써 근자에 와서는 미국에서는 『텔레포리티크스』(Tele politics)라는 용어까지 범용되게끔 되었음은 흥미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텔레비존」이 범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든가 「텔레비존」출현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동들이 공부 를 게을리하고 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텔레비존」의 발전과 더불어 제기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으며 더욱이 미영 양국에 있어서 「텔레비존」이 여러모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전술한바 특질로 보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텔레비존」의 발달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현재 단계로서는 이러한 제문제의 정확한 해답은 용이한 것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활발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텔레비존」은 열광적 발전단계에 있으며 급속적인 변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이의 장래에 관해서 정확히 예측코 그 영향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텔레비존」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다방면에 걸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부정치 못할 것이다.

「텔레비존」의 영향에 관해 논급함에 있어 시청자의 경향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조사연구의 결과를 기준해서 시청자의 경향을 분석 검토한 것을 본다면 비교적 저수입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얼핏 보면 수상기가 고가임에 그 소유자도 다액 소득자 층에 많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와는 반대로 미국의 경우는 저액소득자나 중급정도의 소득자라는 점은 충분히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교적 저액소득자가 대단한 수상기의 구입자일 뿐만 아니라 극히 열심히 시청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보면「텔레비존」시청자가 「라디오」청취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하강함에 따라 증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텔레비존」이 비교적 연령이 젊은 층 사람들에게 어떻게 있는것이 유달리 나타나고 있고 특히 10세미만의 아동들에게 많은 관심꺼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텔레비존」시청의 경향은 여성 층이 많다는 것이다. 1947년 CBS 보고에서는 너무나 대조적인 비율로서 남성 층이 많았으나 그 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점차로 여성 층의 시청자가 급진적으로 증대해 가는 경향을 보면 남성층을 능가할 기세인 것과 「텔레비존」이 야간에 있어 압도적인 인기를 찾고 있음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각종의 가사연구 결과, 정도의 차는 있을망정 「텔레비존」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성원을 보다 더욱 가정에 집중시키고 그 連대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것은 가족의 행동을 기본적인 점에 있어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므로써 「라디오」나 기타「매스· 미디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 (4) 텔스타 통신위성과 TV

「텔레비존」의 발전연구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온 것은 미영 양국이있음은 기술한 바와 같거니와 미국은 지난 7월 10일「텔스타」(Tel star)통신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세계전파사상 또 하나의 이 대혁명을 가져왔다.

미국은 이번「텔스타」호 발사성공에 앞서 여러가지 우주개척의 인류평화 이용을 위한 과학적 기술연구에 전력을 다해오고 있거니와 특히 1960년 8월 12일 한국의 국립항공우주국(NASA)이 처음 발사한 통신중계위성「예코」일 호의 과학적 업적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으며 지난 5월 중에「텔스타」의 발사 예정이었던 것이 바로 7월 10일 성공의 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텔스타」호의 우주궤도진입 성공은 「텔레비」송수신기술상에 획기적인 공헌을 마련했음은 물론 미국의 전신전화회사(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Co)가 오래 전부터 계획중이던 TV의 대륙횡단 중계 실험은 그 간 실시해오던 「마이크로」과 (직선파)를 이용 하지 않고서는 장거리 송수신은 불가능했던 전파능력을 일약 백여 배로 확대 활용해 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러므로써 이번 「텔스타」통신중계 위성은 인공위성을 중계소로 하는 전파중계망수립을 세워 앞날의 TV와 전송사진 「라디오」전신 전화등의 송수신을 더욱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길을 마련했다고 보겠다.

그런데 이번「텔스타」호는 한 과학 소설가의 「아이디어」(Idea)에 의해 창안된 TV의 우주중계방식이 미국의 ATT에서 채택되자 백만불이 소요되어 NASA의 손을 빌어 「쏘아-델타」(Thor-Delta) 3단계 로켓으로 쏘아 올린 것이다. 미국의 「벨」전화연구소에서 제작된 「텔스타」호는 지구와의 최고거리 약 4, 800KM 최저 약 960KM 높이에서 선회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지구 일선회소요시간은 일시간 56분이며, 그 수명은 약 2년으로 추산하고 있고 직경 86. 4cm정도량 56. 7kg 15, 000개의 부속품을 실은 동위성은 타원형이고 표면에는 태양광선을 전력화하는 56, 000개 태양전지로 물려 쌓여 있다.

이번 「텔스타」호 발사 성공까지에 소비된 총액은 육백만불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것이 우주를 이용하는 거대한 민간전신사업으로 완전한 「네트워크」(Net work)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억불의 거액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텔스타」위성에 의한 중계로서 최초의 「텔레비존」송수신의 성공은 물론이려니와 비공식 전화 중계도 성공적이었으며, 「텔스타」위성을 이용한 대륙 간 중계는 이미 미영불 등 국제적인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단 일개로서는 실험적 TV 중계에 그친다고 보겠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기술발전이 있다면 전 세계의 중계가 이루어질 것은 쉬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한편 최초의 인공위성에서 『달』로켓, 금성로켓, 유인인공가성등(有人人工衛星等)으로 언제나 정치적인 선전도구나 전쟁 무기로서 유아독존적인 허풍을 세상에 떨어 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온 소련은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통신위성 같은 실용위성(實用衛星)의 발전과 개발에는 무

(P 112로)





## 민주주의 원리 세미나 - 민주주의사회의 사명 -

김 낙 봉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푸로레타리아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사회 뿐이며 「푸로레타리아 독재」는 그 불가결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민주주의자는 오직 민주주의사회만이 푸로레타리아 해방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임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르느바 「푸로레타리아」독재 및 그것에의 잠정적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의 정체는 바로 공산당의 독재인 것이다. 그리고 공산당이라는 것은 각국에 있어서 인민에게 책임을 지을 수가 없거나 인민이 그 책임을 강제할 수 없는 자립자존적 단체로서 내부적으로는 간부독재의 정당이다. 그뿐 아니라 소련이외의 각국 공산당은 궁극적으로 소련공산당 정치국 지배 밑에 있는 것이며 공산당은 국제적 조직으로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조국은 소련인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후르시초프는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에다 절대무유의 존재이며 유일한 진리와 정의의 보지자(保持者)이다. 공산당의 이러한 실체에 눈을 돌려보면 공산당의 독재란 지방적으로는 각위성국 공산당 지도자의 독재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련 공산당의 정치국 또는 그 지배자인 후르시초프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푸로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은 원래 모순된 말이다. 독재라는 것은 극소수자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니 푸로레타리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自治)밖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치하고라도 그들이 말하는 「푸로레타리아 독재」의 실체를 볼 것 같으면 극소수의 독선적 광신자에 의한 푸로레타리아에 대하여 아니 보다 넓은 의미의 인민대중에 대하여 강제되는 독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성공된 공산주의사회에 있어서 틀림없는 명명 백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푸로레타리아 독재」로서 과연 푸로레타리아는 해방될 수 있는 것인가?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 체제의 실지로 설사 푸로레타리아의 생활정도가 다소 향상되었다고 치더라도 - 현실은 모두가 이와 반대지만 - 양심의 자유가 박탈되고서 해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것도 해방이라고 한다면 쇠사슬에 묶여 있거나 감옥소에 들어가 있어도 다만 맛있는 음식을 얻어 먹기 때문에 해방된 것이라고 하는 것과 어디가 다른점이 있겠는가?

인간의 참된 해방은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고서 비로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서 인간은 인생의 목적인 도덕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사회형태다.

민주주의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부정과 불만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부정이나 불만이나 고충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공공연하게 이것을 표현하며 사회 다수인들을 설득하여 그것의 제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인 것이다. 민주주의사회는 확실히 아직도 불만족하고 불완전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개선할 능력은 기본적 자유권이 보장되는데서 일반 민중들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미 해방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이 자기 자신의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자기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죄라고 할 수 밖에는 없다.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자는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즉 자기책임의 원칙위에 서는 것이다.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는 아무리 「혁명」이나 「총명」을 자부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도 「선(善)」이나 「정의」의 독점은 허용될 수 없다. 장차 저들만이 사회정의나 선(善)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독단하고 이것을 폭력혁명이나 그밖에 수단으로서 사회에 강제 하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사회에서 근본정신에 어긋나는 반역행위다.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선(善)이나 정의는 결국에 가서 정치적 자유의 수단으로서 즉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되는 다수의 의지다. 그런 까닭에 민주주의사회는 사회적 정의나 선을 축차적으로 실현하고 있지않는 한 존속될 수 없는 사회인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 이상 다수의 의지의 실현을 저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을 저지한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 사회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되풀이해서 말하거니와 민주주의사회는 정치적 평등을 포함하는 기본적 자유권의 확립으로서 각인(各人)을 저마다 자유와 책임의 주체로 해서 그 구성원

사이에 근본적으로 정의관계를 확립한 것이다. 이것으로서 민주주의사회의 정치기구(政治機構)는 사회 전체의 도덕의지(道德意志)를 실현하는 정의의 거구로 된 것이다. 만약 사회의 양심이 모든 사람에 대한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정의라고 생각한다면(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민주주의사회는 그 다수의 의지에 따라서 사회질서나 생산력 유지라고 하는 더 한층 기본적인 필요에 조응하여 경제적 평등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해 가면서 이 정의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보다 의식적으로 점차 접근하려는 운동을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사회는 기본적 자유권을 보지(保持)하여 민주주의사회로서 머물러 있는 한 차차로 그러나 확실하게 무 계급사회로 전진하는 『명백한 숙명』을 지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만약 어떤 소수자가 오직 독단적으로 정의라고 광신하는 경제적 평등을 이내 실현하려고 한다면 국민에게서 일체의 기본적 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여 전체주의적 독재정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이것을 실현할 길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대중은 이미 단순한 노예적(奴隸的)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가 없는 자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하더라도 노예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 개인주의(個人主義)

개인주의의 의미는 이것을 두 개의 측면(側面)에서 관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나는 사생활상의 윤리로서의 개인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공생활상(公生活上)의 또는 정치적 지배의 윤리로서의 개인주의다. 전자(前者)를 가령 인격적 개인주의라고 부른다면 후자(後者)는 정치적 개인주의라고 불려도 좋을 것이다.

인격적 개인주의의 근본 의미는 각 개인의 인격은 고유하면서 절대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 성장 및 완성은 절대목적으로서 취급될 뿐이지 다른 어느 것에도 이것을 단지 수단으로서 예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윤리적 요청에 있다. 인격이 절대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완성과 이것을 표현하는 도덕생활과는 각인에 고유 하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또한 각인의 개성은 중중되어야 하며 그 행사는 타인의 이와 똑같은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사고의 배후에는 물론 각인은 각자의 복지나 그 달성방법의 가장 적당한 판단자 다시 말하면 각자는 각자의 자유이면서 책임 있는 도덕적 의지의 주체라고 하는 신념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주의는 각자의 인격완성에 지상가치를 두고 이 가치 실현을 위해서 타인과 똑같은 자유의 행사와 양립하는 한 각 개인의 최대한의 자유를 용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있어서 그것은 자유주의와 연결된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같은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에 입각한 그 하나의 분파라고 볼 성질의 것이다. 자유주의는 적어도 다음 두 개의 가정 위에 성립된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소질 또는 개성에 될 수 있는 한 자유롭게 따를 수 있도록 방임된다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나 개인 상호간의 자유로운 경쟁 가운데 전체의 발전이나 공익이 증진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사익의 이기적 추구까지도 그 결과에 있어서는 공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또한 역사적으로 현저하였던 가정은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권력과는 대립관계(국가권력이 증대하면 그만큼 개인의 자유는 삭감된다.)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창의에 의해서 행동하는 활동분야를 최대한으로 보류하기 위해서 국가-정부-권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그 통제나 간섭을 될 수 있는 대로 배격하는 자유주의의 가장 특징적인 주장이 생겨나는 것이다. 지금 이들 가정의 진위를 여기서 타진할 겨를은 없지만 자유주의가 국가권력의 감축을 요구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은 명백히 사회주의와 대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주의는 반드시 사회주의와 대립하지 않는다. 개인주의의 본질은 각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지상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있다. 따라서 만약 국가권력의 증대가 이 목적에 보다 적합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면 적합한 한도 내에서 개인주의는 국가권력의 증대를 환영하면 됐지 그것에 반대할 아무 이유도 없다. 오늘날 서방국가의 일부 사회민주주의는 모두가 전체주의가 아니고 개인주의를 기조(基調)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인격적 개인주의는 요컨대 개인의 무한가치관의 하나의 국면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생활상의 윤리로서 이것과 정반대적인 것으로서 타인의 복지를 무시하는 구속 없는 자의를 의미하는 이기주의가 있다. 개인주의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사회인의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이기주의는 금수적(禽獸的) 자연의 세계관이다. 진정한 개인주의는 인격가치의 평등을 근본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이기주의는 다른 인격가치를 무시하고 이것이 일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만 수단화 하는 것, 즉 불평등을 근본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기주의는 민주주의 정신의 부정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민주주의 신조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못된다. 그런데 개인주의는 왕왕 이기주의라고 하여 배격되었다. 개인주의를 가지고 이기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그릇되고 허위에 가득 찬 개인주의다. 전체주의가

성(盛)하였던 시대에는 전체주의자들은 열심히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그릇된 설교를 거리에서 방송선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릇된 비판의 일부는 진정한 개인주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온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일부는 민주주의의 적이 민주주의를 불신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의로 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또 일부는 인기주의자들이 개인주의의 명목 하에 자기의 이기주의를 침투시킨 것에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 개인주의는 그 본질을 이루는 자타평등의 입장을 잊어버리고 자기와 동등한 다른 인격권을 무시할 때 급세 이기주의로 전락한다. 이기주의자들은 간혹 민주주의적 개인주의의 미명아래 자기의 탐욕이나 잔인성을 만족시켜서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개인주의의 정신은 흡사히 보편적인 이기주의의 정신에 불과한 것 같은 그릇된 인상을 주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적들은 무지 또는 고의로 이 사실을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은 것이다. 우리들은 진정한 개인주의와 그릇된 개인주의 - 이기주의 -를 명확히 식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민주주의의 국가관(國家觀)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개인주의는 개인과 사회 또는 국가와의 올바른 관계의 민주주의의 이론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사회관이며 국가관이다.

이 이론의 요점은 사회 또는 국가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과 개인 상호간의 조직의 총화(總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회 또는 국가는 오직 그 구성각원의 복지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사회나 국가는 일정한 방법으로 조직되는 개인에 의해서 구성된다. 따라서 그것은 그 구성 각 개인과 개인간에 존재하는 관계에 완전히 분석하여 환원할 수가 있으며 이렇게 분석한 뒤에는 계량할만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리하여 사회나 국가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의 목적은 그것을 구성하는 전개인의 목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거꾸로 표현한다면 목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개인뿐이다. 사회나 국가 같은 어떠한 기관도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을 떠나서 그 자체로서는 목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국가나 그밖에 집단의 의지라던가 목적이라던가 세론(世論)이라는 말은 요컨대 언어의 생략적 표현에 불과하다. 어떠한 인간의 집단에 있어서도 그곳에 존재하는 유일의 의지, 목적, 정신, 의견 따위는 그것을 묶어보면 그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 또는 그 과반수의 의지이며 목적이고 정신이고 의견인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사회 또는 구가등의 모든 활동은 그것이 적어도 목적달성에 지향되는 한 존재할 수 있는 유일의 목적인 전개인의 목적달성에 필연적으로 향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사회 또는 국가는 그 구성원의 복지실현 이외에는 아무 목적도 갖지 않고 오직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국가는 개인을 위해서 있으나 개인은 국가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가가 개인을 위해서 있다고 할 때 그것은 현재 및 장래의 개인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으로서 어느 일정시의 현재인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말한 민주주의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국가관은 요컨대 개인의 무한가치관의 국가의 성질 및 기능에 대한 적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무한가치관에 의하면 개인은 독립된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또는 국가의 가치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의 가치 이상으로 클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개인은 절대목적을 이루며 다른 어떠한 목적의 단순한 수단적 지위에도 끄집어 내릴 수는 없다. 만약 국가의 목적이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의 이외의 것 또는 이상의 것이라면 개인은 국가목적에의 수단으로서 취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의 이론으로서의 가치의 역적이다.

국가 또는 그 기관은 오직 개인 또는 그 총화인 구민의 복지 때문에 있는 모든 정당한 정치권력의 원천은 개인에게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입법자 및 행정하는 사람을 자유로이 선택하며 또한 파면시킬 수 있는 각 개인의 권리는 고유한 것으로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운운하는 민주주의의 정치원칙은 서상(敍上)의 개인주의적 국가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민주주의의 국가관은 자명의 진리이며 상식문제로 생각된다. 모름지기 그것은 하나의 가정은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총화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 가정의 복지는 그 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복지의 총화로서 가정은 구성원의 이러한 공동복지를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과 하등의 다른 점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적은 사회에 있어서 진리라면 삼천만의 국가에 있어서도 한결같이 진리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 사회규모의 크고 작음이 하등 이 결론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주의적 국가관에 대하여 지나간 반세기 동안 중대한 도전이 일어났다. 즉 전체주의의 국가관이 그것이다.

전체주의 국가관에 의하면 전체(사회, 국가, 민족 등 전체)는 개인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자신에 독자적 가치를 갖는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로 규정한다. 따라서 전체는 그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목적이나 이해와 달리 이것들에

우위하는 독자의 목적이나 이해를 갖는다. 이렇게 해서 전체는 그 구성원의 목적에 대한 단순한 수단을 이루지 않고 거꾸로 구성원 전체의 목적을 위한 수단을 이루는 것이다. 전체는 그 각 구성원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며 구성원이야말로 전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각 개인은 본래 그 자신에 독립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봉사하고 전체에 통합되며 전체 가운데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서 비로소 그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는 하등 고유한 것이 아니고 전체에서의 할양(割讓)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리하여 전체주의는 개인이 그 자신에게 장절독립의 가치를 갖는다고 하는 개인의 무한가치관을 정면으로부터 부정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이 기초원리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자유, 평등 및 개인주의의 세계관도 당연히 부인하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말해서 전체주의국가의 특징은 국가를 절대화하여 개인의 중요성을 극소화해서 이것을 국가에 아주 예측시키는데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체주의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홍모(紅毛)와 같이 경시되어 개인의 생명이나 권리는 그 안전이 보장될 길 없이 억압되어 개인은 국가의 단순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을 사실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감정이 아주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은 개인권리의 신성이나 인격의 존엄관념이 필연적으로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말하더라도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이념이 되는 개인의 무한가치관이 아주 결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국가와 전체주의국가와의 다른 점은 이러한 관념이나 감정의 유무에 의해서도 결정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푸로테타리아의 독재를 주장하는 공산주의국가도 전체주의국가라고 불리우고 있다. 이것은 이와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국가권력이 절대적으로 강대하여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나 권리가 극도로 경시되고 이것을 존중하는 인격존엄 관념이 송두리째 결핍되어 개인이 국가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전술한 바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공산주의는 독자적인 맑스주의적 계급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서 앞에서 말한 전체주의 국가관은 모름지기 파시스트의 이태리 나치스의 독일 군벌의 일본에 특유한 교리였다. 더욱이 이들 교리를 신봉하고 선전하고 강제하였던 세력은 오늘날에는 해소되어버린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상으로서 잔존할 수 있으며 만약에 또한 진리라고 한다면 다시 세력을 얻지 않으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들 민주주의자들은 나치스적 전체주의의 국가관이 과연 진리나 아니냐를 확인해둘 책임이 있다. 우리들은 개인 무한가치관의 연역에 불과한 개인주의의 국가관이 진리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것에 반대하는 전체주의의 국가관이 그릇된 것이라고 잘라서 말할 수는 없다. 역도 또한 진일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체주의의 국가관이 그릇된 것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 내가 사랑하는 생활

소위 백 완 기(白 完 基)  
공비제33구조대대

첫째로 나는 계획성 있는 생활을 사랑한다. 차분히 예정된 계획에 정성을 다하는 생활은 그 계획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귀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계획이 반드시 구현되거나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 계획실현을 위한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나의 알뜰한 정성과 진실성을 총동원시켜 나에게 정신의 통일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대가와 결과를 바라는 계획은 『마음의 자유상태』를 좀먹어 계획의 노예를 만들고 말기 때문이다. 여기서 결과(Result)보다는 과정(process)에 충실한 생활이 악착스럽지 못한 나의 생리에 맞는 생활이다. 다음에는 여유 여운이 있는 생활이다. 여기서의 여유란 물질적 정신적인 여유를 다 포함하여야 하겠지만 특히나 정신적으로 초조하지 않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고 싶다. 내일 원자탄이 떨어져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유다 여유가 있다고 해서 부지런하지 않거나 나태해질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지나치게 들어내지 않는 여운과 여백이 있는 생활이 마음에 든다. 이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보이지 않는 매력과 잠재력을 풍기는 향기있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대자연의 섭리와 대범에 벗어나지 않는 경건한 생활이다.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달하여 우주여행에 이르게까지 되었다. 할지라도 자연에는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분석불이 할 수 없는 영원 무궁의 신비의 세계가 있다. 또 우리의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사회규범에는 도덕, 복의, 종교, 법률등이 있지만 어쩐지 인간을 조이게 하는 기분을 주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대범한 생활을 들고 싶다. 대범한 생활은 윤기와 적극성 자유자재성의 맛이 내포되어 좋다. 여기서 자연 대범 여유 계획 등이 종합 조화된 생활이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다.





## 생활경제(生活經濟) A·B·C ⑤

- 화폐이론을 중심으로 -

최 호 진(崔 虎 鎭)  
〈경제학박사〉

화폐는 우리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즉 현대경제사회에 있어서 화폐는 인체에 비하면 혈액과 같고 또 기계에 비하면 윤활유와 같은 몫을 한다. 만일 우리의 인체에서 혈액이 없어진다면 인체의 기능은 곧 정지될 것이며 또 기계에 윤활유가 없어진다면 기계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가령 그 기계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지극히 우둔하고 무리하게 움직여 그 기계는 곧 파괴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화폐가 없어진다면 우리의 생활은 극히 불편하게 될 것이고 드디어는 경제사회를 파탄에 몰아넣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겨난 6월 10일에 시행된 화폐개혁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인식되었을 것이다. 화폐개혁에 관하여는 다음 기회에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화폐 이론의 기본문제인 화폐의 뜻과 그 기능 및 화폐의 형태와 근대적 화폐 제도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1

앞서 본바있는 상품의 가격은 상품과 화폐의 교환 비율이므로 그것은 상품편의 사정에 의하여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화폐측의 사정에 의하여서도 좌우된다.

화폐는 그것을 발생적으로 고찰할 때 교환경제가 성립하고 그것이 발전하는 조건이며 또한 교환이 발전 및 생산물의 상품화와 더불어 성립 발달한 것이다. 그리고 화폐의 본래적 기능은 상품교환에 있어서 상품의 측정·표현하는 것이며, 일반적 교환수단이다.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모든 생산물이 원칙적으로 상품이며, 생산자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사회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물과 생산물과의 직접 교환시대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서로 각각 자기가 원하는 생산물을 생산 또는 소유하며 또 그 교환을 희망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리고 각각 교환을 원하는 수량이 일치할 때만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 교환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란 매우 곤란하였다. 여기에서 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교환의 필요가 증대하고 생산물의 상품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각자는 우선 자기의 생산물을 특히 다른 사람이 즐기어 받을 수 있는 특정 종류의 상품과 교환한 다음에 이와 같이 하여 얻은 상품을 매개 수단으로 하여 자기가 원하는 생산물을 얻으려 하였다. 따라서 특정 종류의 상품이 교환 수단으로서 특정 기능을 다하는 직접 교환은 변하여 간접 교환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이와 같은 교환은 모든 생산물에 걸쳐 전면화하게 되자 이와 같은 상품은 다만 약간 종류의 생산물간의 특수적 교환수단이 필뿐 아니라 모든 상품사이에 있어서도 일반적 교환수단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수 상품이 일반적 교환수단으로 되자 모든 상품은 우선 이러한 일반적 교환수단인 상품과 교환됨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일반적 교환수단인 상품은 또 모든 상품 가치가 그것에 의하여 측정, 표현되는 척도로 되었다. 따라서 모든 상품은 특수상품에 의하여 각각 그 가치가 측정되며 그 특수상품의 각각의 분량으로써 존재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것이 곧 이른바 가격을 이룬 것이다.

이상과 같이 화폐를 발생적으로 보면 특수 상품이 교환수단으로 되고 모든 상품은 우선 이와 같은 특수상품과 교환되며 그것과 때때로 비교하게 되자 교환수단인 상품이 가치의 척도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환이 행하여지려면 우선 교환될 상품 상호의 가치비율이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비율이 정하여진 후에 비로소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교환될 상품은 각각 구체적으로는 이질적인 것이므로 이러한 비율은 상품상호간에 직접으로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 상품의 가치가 그것에 공통된 일정한 상품으로 측정 표현되어 간접으로 이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일정한 상품은 그 상품의 가치척도가 된다. 이러한 가치척도는 교환이 모든 생산물상호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행하게 되고 따라서 교환수단으로 하여금 일반적 교환수단이 될 것을 필요로 하게 되자 모든 상품 상호간의 가치 비율이 결정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모든 상품이 그것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각각 가치를 계량하며 일반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척도가 된다. 이것이 이른바 일반적 가치척도이다. 그러므로 일반적 교환 수단인 기능은 일반적 가치척도인 기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이 교환수단 그리고 가치척도가 되었었다. 즉 수피(獸皮), 가축, 현유(現類), 소금 등이 이와 같은 기능을 다 하였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성질상 휴대 및 운반에 편리한 것은 물론 분량적으로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성질상으로는 서로 같으며 또 보존에 견디고 분류 결합에 의하여 변질하지 않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그런데 금속 중에서도 금과 은이 이와같은 등질성, 가분성, 보존성 그리고 운반성 등에 있어서

다른 상품보다 탁월하다.

이상과 같은 기능이 점차로 금에 귀속되고 드디어 그것에 의하여 專有됨에 따라 화폐가 성립되었다. 다시 말하면 가치척도 및 교환수단인 것이 특수 상품에 전유 될 때에 화폐가 성립 것이다. 그러므로 화폐는 일반적 가치척도인 동시에 일반적 교환수단 특수상품이다. 여하튼 교환의 발생, 발전 및 생산물의 교환경제의 성립과 그 발전의 조건이다. 이와같은 의미로 보아 화폐는 경제사회의 일정한 기구 중에서 성립 및 존재의 근거를 갖는 것이다. 즉 화폐는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다.

화폐가 상품가치의 일반적 가치척도인 이상 그것은 상품 즉 그 자신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독일의 저명한 학자 크니이스(K.Kries)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양자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물체 양적인 대소를 측정하고 확정하려면 피측정물과 같은 성질을 소유하는 물체만이 측정의 요구, 측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자연법적 필연성이다.』예를 들어보면 길이는 그 자체 길이를 갖는 측정의 요구에 의하여 그리고 면적은 면적에 의하여서만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여 평량하기 위하여는 그 자체가치를 갖는 상품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도 확실하다.

이와 같이 화폐가 그 자신 상품이며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 상품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화폐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일반적 가치척도로서 모든 상품의 가치를 측정, 표현하는 것이므로 모든 상품의 가치와 상등하다. 말하자면 일반적인 가치의 보유자다. 이점에 있어서 화폐는 다른 일반 상품과 다른 특수 상품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이 성립하는 것은 경제사회의 역사적 기구의 결과이며 화폐인 상품 가령 금과 은의 자연적 성질 그리고 효용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화폐를 금은과 같은 특수한 재화 그리고 효용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 2

다음에는 화폐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① 지금까지 보아온 화폐의 본질에 의하여 알수 있는 바와같이 화폐의 첫째 기능은 모든 상품의 가치척도이다. 즉 모든 상품의 가치는 화폐에 의하여 측정되며, 여러 가지의 화폐분량을 가지고 가격으로서 표시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여러 종류의 화폐 분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분량의 화폐가 단위로 정하여진다. 이것을 이른바 화폐의 본위(本位)라고 한다. 화폐분위 내지 가격의 단위는 처음에는 금속의 분량을 측정하기 위한 즉 중량의 명칭이었었으나 점차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상품가격은 화폐명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게 되었다.

여기서 화폐의 가치척도로서의 기능과 가격의 단위로서의 기능은 서로 관련하지만 또 서로 다르다. 전자는 여러 가지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여 그것을 가격으로서 표현하는데 대하여 후자는 이러한 가격 즉 화폐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폐척도인 기능은 추상적이므로 왕왕 가격 단위로서의 기능만이 보이며 그것이 중량명으로부터 떨어져 단지 화폐명으로 되자 여기에 화폐의 고유가치를 무시하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

② 화폐의 둘째 기능은 일반적 교환수단인 점에 있다. 발생적으로 보면 가치척도의 기능은 교환수단인 기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논리적으로 보면 후자는 전자를 전제로 한다. 여하간 이와같은 기능의 결과로 말미암아 상품과 상품의 직접 교환은 간접교환이 되고 화폐가 그 매개수단인 기능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한번 교환수단인 기능을 한 화폐는 새로운 소유자에 있어서도 다시 상품교환의 수단인 기능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화폐는 상품유통을 매개하면서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옮겨가며 가며 언제까지든지 유통계에 남아있게 되고 소비계에 들어가는 일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은 조마간 소비계에 들어가게되는 일반상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화폐는 소비재·생산재에 대하여 교환 또는 유통재라고 한다.

이러한 기능으로 말미암아 교환행위는 파는 행위와 즉 두 가지의 행위로 된다. 그리고 매매에 있어서 상품의 종류 및 분량에 대하여 교환의 당사자 간에 직접 합의를 요하지 않고 또 반드시 동일한 장소 및 시간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 그 결과 경제범위는 확대되어 간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수급이 맞지 않게 된다. 화폐가 교환수단으로 기능하는 한, 반드시 상품일 필요는 없으나 그것이 현실에 있어야 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일정한 사회에는 상품교환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화폐가 필요한가. 그것은 얼핏보면 그 사회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내에 거래되는 모든 가격의 총화(總和)와 같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동일 단위량의 화폐는 일정 기간내에 단지 일회만이 아니고 몇 회든지 여러 종류의 상품과 교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있어서의 유통화폐의 총액은 처음 교환에 들어간 화폐액보다 훨씬 많게 된다. 여기에서 일정 기간내에 화폐가 상품과 교환되는 평균도수를 화폐의 유통속도라고 한다면 일정한 사회에서 상품유통 때문에 필요되는 화폐액은 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총액을 화폐의 유통속도로써 제한값과 같게 될 것이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용제도에 의한 현금의 절약은 무시하였다는 점이다.

③ 셋째의 기능은 일반적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이다. 화폐가 교환수단으로 작용할 때에는 반드시 판매와 구매가 동시에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와 구매의 각각에 대동하여는 모두 상품과 화폐의 수수(授受)가 동시에 행하여진다. 그런데 교환이 발전함에 따라서 판매가가 상품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그 대가인 화폐액을 일정한

## 내가 사랑하는 생활

중위 조 기 현(趙基鉉)  
〈공본·의무감실〉



신문을 매일 정독하는 일이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읽고 난 신문을 그저 버리기란 내 깔끔한 성미로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래 나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인물이며 기사중 필요한 것을 스크랩 하는 버릇이 생겼다.

처음에는 대단치 않았지만 그것도 몇해가 지나는 동안 이제는 상당한 분량이 되었다. 그중 가장 내가 아끼는 것이 인물사진첩이다. 당초에는 앨범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썼고 사진도 얇전하게 매일같이 정성들여 붙였지만 날이 가는 동안 요령(?)이 생겨 며칠 것을 모아 붙이는 것이 시간상으로는 사진의 배열상으로는 껍데기통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혹 짬이 있어 이 인물 스크랩을 펼쳐보면 여간 재미 있지가 않다.

민완 기자들의 「후렛쉬의 눈」이 잡은 이들 뉴스의 주인공들의 표정들은 그때그때의 정황에 따라 (크로즈업)시키는 부분도 다르다. 그것은 유명한 인물일수록 더하다.

그런데 스크랩을 들출 때마다 아쉬운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인물사진들은 외국인의 그것에 비해 너무 표정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동일한 사진 그것도 부처님의 증명사진 같은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쓰는 데는 딱 질색이다.

하기는 가끔 말썽이 되고 하는 육체파 여우들의 과잉된(?) 표정보다는 아직 나올런지도 모르기는 하지만.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일이 있다. 이러한 때에는 상품과 화폐의 수수는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판매자 및 구매자는 채권자 및 채무자로서 대립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채무자로부터 채권에게 인도되는 화폐는 상품교환을 매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립한 매매관계에 기인한 채무를 결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매관계 이외의 원인으로부터 일어나는 단순한 대차 관계에 있어서도 화폐가 채무를 결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명백하다.

이와같은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최초의 매매에 있어서 화폐는 판권적으로 우선 가치의 척도로서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며 이것을 가격으로 표현하고 또 화폐의 본위로서 채무의 액을 계량한다. 이리하여 화폐가 지불에 제공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적 교환수단으로서 어떠한 상품에도 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가 지불관계를 규정하고 화폐로써 법률상의 지불수단으로 하여 납세·중여 등 가치의 일반적 이전을 그것으로써 할 수 있게함에 그 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여기서 화폐의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에 관련된 신용화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화폐가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할 때에는 채권, 채무의관계 즉 신용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 신용관계를 유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신용증권이다. 신용증권 중 어떤 것은 지불할 화폐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화폐와 같이 유통된다. 수표·어음같은 것은 그것의 주요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신용화폐이다. 신용화폐는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화폐가 아니라 대용물에 불과하다.

④ 화폐의 넷째 기능은 가치의 저장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계의 현실적 불안에 대비하고 또 기업의 확대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가치의 저장을 행한다. 이리하여 저장된 화폐는 경제의 불안을 타개하고 기업의 확대를 위하여 제공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장의 기능도 화폐의 기본적 기능인 일반적 가치척도 및 교환수단의 기능인 일반적 가치척도 및 교환수단의 기능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화폐는 이상 두 가지의 기본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또 특정한 욕망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반 재화와 다른 것이다. 따라서 화폐야말로 부의 가장 중요한 존재형태인 것이다.

⑤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화폐가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폐의 기능도 그것의 일반적 가치척도 및 교환수단의 기능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에 의하여 일정한 사회적 조건 하에 있어서는 화폐가 생산수단 및 노동력으로 전화될 수 있으며 또 이와같이 하여 생산된 상품은 판매되어 이윤과 더불어 화폐의 형태로서 다시 회수되는 과정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⑥ 이상에서 본 화폐의 모든 기능은 어느 일국가내에 있어서의 기능이지만 상품이 발달하고 교환거래가 국제적으로 되면 화폐는 국제적 구매수단 및 지불수단으로 국제무역의 차액을 청산하고 또 사회의 부를 국제적으로 이전하는데 사용된다. 즉 세계시장에 있어서 화폐는 각 국내에 있어서의 특수한 형태를 잃어버리고 다만 상품으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같은 화폐의 기능은 말할 것도 없이 화폐가 일반적인 가치척도로서의 상품이며 또 일반적 교환수단인데 기인하는 것이다.

× × ×



## 공산주의 평화와 평화공존

-공산주의 세미나-

이 동 현(李東賢)

(1) 1949년 4월, 공산주의자들은 파리와 프라그에서 평화애호세계회의를 개최하고 일체의 침략행위와 전쟁선전, 신 전쟁도발의 음모 등에 반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다시 1950 3월에는 스톡홀름에서 동회의 상임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① 원자무기의 금지 ② 그를 위한 국제관리 ③ 최초로 원자무기를 사용하는 정부를 전범자로 처벌할 것등 3항목으로 된 평화서명 운동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다시 625의 전쟁 도발로 세계의 규탄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의 평화애호정신을 시위하기위하여 1950년 11월에는 런던에서 제2차 평화옹호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세계평화를 촉구하는 대UN뎃세지를 발표하였다. 이듬해 3월 소베트 최고회의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평화애호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였는데 그 법에는 「전쟁선전은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하든간에 평화의 사업을 파괴하고 새로운 전쟁의 위협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공산주의자들은 가지각색으로 소위 「평화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평화운동, 평화당, 평화회의, 평화행진 등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평화의 사도요 평화의 광신자들이 아닐 수 없다.

(2) 이렇듯 공산주의 자들은 평화를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자기네들은 소위 국제 평화세력이라하여 평화의 옹호자임을 선전한다.

소련이 침략주이자라는 것은 이미 이론적으로서 사실적으로나 명확하게 증명된 바와 같다(전호 참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면피하게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주의자라고 억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다. 평화를 운운하면서 어떻게 세계의 공산화를 가능케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은 평화에 대한 공산주의적 해석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공산주의자들의 해석으로는 평화는 문자 그대로 서로 화목하게 싸우지 않고 지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또 하나의 언어인 「해방」이란 말이 「자유」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공산화」를 의미하는 말임과 같이 「평화」란 다름아닌 「공산주의의 세계정복」을 의미한다. 그들의 이론에 의하면 공산국 이외에는 세계에서는 부단한 자본가와 노동자, 자본가와 자본가의 투쟁 · 상충이 단단없이 계속되고 있으니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표하고 있는 자본주의국가야말로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고 이러한 위협은 무계급사회의 공산주의가 지상에 실현되어야 살아지게 되고 평화는 이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산주의적 억지논리를 파악하고 보면 앞서 지적한 일련의 평화운동이 기실 인류사회의 진정한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계의 공산화를 위한 운동의 일환임이 명백한 것이다.

그들의 선전문에서 「평화」라는 두 글자를 모두 「공산화」란 말로 대치해서 파악하면 틀림이 없는 것이다. 625의 한국전쟁 도발도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전쟁도발 곧 평화의 유린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곧 공산화)를 위한 일련의 무력적. 시도에 불과하게 된다.

소련전차가 부다페스트시를 휩쓸고 「자유」를 절규하는 시민을 학살한 것도 중공군의 대부대가 티베트를 석권함으로써 긴장상태가 촉발되고 세계의 여론이 들끓어도 그것은 침략이 아니 된다.」공산당의 세계정복을 위한 것이면 무엇이냐 「평화」다.

(3) 1952년 스탈린은 마렌코프의 평화적인 공존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소련은 그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나 그의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어느 누구에게도 강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했다. 또 후르시초프는 집권 이래 국제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긴급한 일이라 하고 이른바 담합에 의한 문제의 해결을 부르짖으며 심지어는 「우리들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은 냉전을 해소시키는 것을 우리들의 신성한 의무로 생각한다.」고 까지 양언하고 전쟁의 배제를 극구 주장하고 있다. 후르시초프는 1959년 이러한 주장이 실천이나 하려는 듯이 「캠프데이비드」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 말끝마다 평화를 내세우고는 아이크와의 공동 커뮤니케에까지 「모든 구제문제가 힘이 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협상을 통한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는 말을 삽입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일찍이 레난에 의해서 선언되어 부동의 공산주의 투쟁 원리로 되어온「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절대로 양립하여 존재할 수가 없다. . . . 이 두 세력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언젠가는 그 어느 한편에서 장송행진곡을 드높이 부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쟁 불가피론은 포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금케 한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다. 그들은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잊은것도 아니고 세계정복의 야망을 버린것도 아니다. 이것은 81개국이나 되는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당면의 국제 정세 및 금후의 평화문제등을 토의하고 참석자들의 관점을 일치시켰다고 하는 81개국 공산정상회담 선언문의 일절을 인용해 보면 더욱 명백할 것이다.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국가 간의 평화공존이나 또는 파괴적 전쟁이나 하는 문제가 오늘 여기 가로 놓여 있다. 그 외에는 어떠한 노선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다. 제국간의 평화공존은 결코 수정주의자들이 하고 있듯이 계급투쟁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국가 간의 평화공존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국가 간의 계급투쟁의 1형태다.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평화공존은 결코 사회주의 사상과 부르조아 사상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적화를 위한 그들의 투쟁이 야욕이 평화의 가면을 쓰고 도사리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침략의 야욕에 가득 찬 적화정책을 평화의 이론으로 도장하려고 하는가?

그들의 노리는 것은 긴장상태를 완화함으로써 대 공산진영에의 경계심을 약화시켜 자본주의 국가 상호간의 불화를 중대시키자는 것이다.

스타린은 일찍이 그의 저서속에서 두 개의 상이한 질서를 가진 세계의 관계를 논하여 「자본주의 제국간의 모순은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간의 모순보다 크다. 고로 자본주의 제국이 쉽게 결합해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실제로 있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첫째 시장쟁패전에서 경쟁상대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희망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모순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둘째 자본가들은 소련과의 전쟁주의 운명에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소련과의 전쟁이 어떤 강국들의 집단이 다른 집단을 압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 그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자본주의자들은 소련의 침략의도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면서도 내심으로는 소련의 침략의도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그들의 침략행위가 계속해서 자유진영에 의해 할 수 없이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자기류의 해석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은 1950년 한국동란이후에 표시된 자유세계의 단결과 힘의 반발로 완전히 오류임이 발견되고 사태는 그가 전망한 정반대로 일전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스탈린은 평화공존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자본주의세계를 평화의 환상속에 도취시킴으로서 전쟁을 회피하고 그동안에 시간을 얻어 소련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자본주의와의 최후적인 일대 결전에 대비하려 하였다.

이것이 후르시쵸프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핵무기 등 궁극무기의 발달로 말미암아 전쟁도발이 공산주의를 포함한 전 인류의 절멸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막다른 국면으로 사태를 유도해 갔고, 이러한 새로운 사태의 발전은 소련으로 하여금 이 막다른 골목에서의 출구를 평화공존정책의 강화에서 찾지 않을 수 없게 하였던 것이다.

평화공존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평화를 유달리 사랑해서 주장된 것도 아니고 세계혁명의 목표를 포기해서 이룩된 것도 아니며 자본주의 진영에 굴복해서 문제된 것도 아니다.

후르시쵸프의 말대로 「우리(공산주의)가 맑스-레닌주의를 포기한 줄로 생각하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바다의 새우가 회파람을 부는 세상이 될 망정 이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선생의 부탁

영국의 부гат집 아들 한 사람이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는 파리에서 유명한 어학자에게 열심히 어학을 배웠다. 그런데 원래 머리가 둔하고 재주가 없는 위인인지라 아무리 가르쳐도 도무지 진보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이러는 동안에 약속한 3년이 지나 런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선생을 찾아가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그 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불문학자로 행세를 하게 되 있으니가 선생님의 은혜가 태산 같습니다. 돌아가면 무엇보다도 먼저 선생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는데 선생님께서서는 무엇을 요구 하십니까?」하고 자기 집이 부자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였다. 선생님 쓴웃음을 짓더니, 「매우 고맙네. 그러면 부탁이하나 있는데 꼭 들어 주겠나?」하고 다짐해 물었다. 「사양말고 말씀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꼭 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말하지. 」하고 말을 꺼낸 선생의 부탁이란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자네가 고향에 가거든 프랑스에 와서 나에게 불어를 배웠단 말을 아예 입밖에 내지 말아주게. 그게 무엇보다도 나를 돕는 일이네. 」

## 포도주 이야기

<과학>



이 종 진(李 鍾 珍)  
☆농박(農博) · 서울대학교수

여름철에는 여러 가지 과실이 많이 나와 과실이 많이 나와 과수들은 지난봄의, 결실을 맺으려고 한다.

이러한 과실로 만든 과실주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자.

과실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그대로 생으로 먹는것만을 연상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중 거의 어디서나 재배하고 있으면서 생식을 제일목적으로 하지않는 과실이 하나 있으니 그 이름은 포도이다. 포도를 만드는 목적은 구라파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주가 된다.

포도같이 술의 원료로서 적당한 것은 없다. 술을 담그는 법으로 본다면 포도주는 단발효주에 속한다. 포도즙에 포도껍질에 자유적으로 붙어있는 효모만 번식시키고 따우기만하면 포도즙중의 당분은 생화학변화를 일으켜서 알콜 즉 술이 된다. 더욱이 포도는 과즙을 얻기가 쉽고, 산이 있어서 비교적 유해균으로 침범되지 않는다. 특히 미개의 인류가 술을 만들때에 이렇게 만들기 쉬운 원료는 따로 없었던 것이다. 술은 음식물과 달라서 취한다는 이상한 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미개인들은 이것을 신이 마시는 것으로서 특별히 했다. 제삿날에는 남녀노소할 것없이 한독에 담겨 놓은 술을 마시고 이상한 여분에 빠져서 신과 상통하는 어떠한 기분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술을 만들 원료로서 포도는 미개인에는 대단히 소중했던 것이다. 인류는 중앙아세아에서 발생해서 점점 지구상에 퍼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초기의 인류 중에서 구라파로 향한 한 종족들이 이동 중에 포도알맹이를 발견하고 포도주를 처음으로 만들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소아세아 지방이 포도의 발생되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포도의 재배와 포도주의 양조는 애급에서부터 그리스로 다시 로마, 이어서, 불란서, 독일, 서반아(西班牙), 포도야(葡萄牙)등 주로 구주(洲)에서 개화된 셈이다. 또 사기에 의하면 포도가 아세아 특히 중국에 들러온 것은 역사가 비교적 얕으며 서한의. 무제때라고 하며 서부지역부터 들어왔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것 은 그 보다 훨씬 후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재배되고 있는 포도의 원산지는 두 곳이 있다. 즉 구대륙의 소아세아지방과 신대륙인 미주의 대서양연안 습지대이다. 소아세아에 기원을 가진 포도는 학명을 Vitisvinifera라고 부르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주로 향하여 이동해간 종족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포도주의 귀중한 원료로써 썼던 것이다. 지금도 포도주의 원료는 주로 이계통의 비니뢰라계포도이며 구라파에서 포도주용포도로서 발전했기 때문에 구주계 포도라고도 한다. 또 하나의 신대륙을 원산지로 하는 포도는 아메리카대륙의 발견 이주가 시작될 때까지 아메리카대륙의 대서양연안습지대에 야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명을 Vitis labrusca라고 하며 그밖에 여러 가지 계통의 것의 것이 있다. 구주계포도와 같이 단일한 계통의 것은 아니다. 구라파 전통을 자랑하는 포도주양조업자들은 미국계의 포도를 쓰지 않는다. 또 한 구주계포도와 미국계의 포도와를 비교해 본다면, 포도주원료로서는 단연코 구주계포도가 좋다. 즉 포도는 향미가 높고 맛이 좋다. 이이야기는 우리 한국에서 포도주생산을 계획할 때에도 대단히 참고가 될 것이다.

불란서의 대표적 포도주 산지는 볼도의 볼도시이고 북미캘포니아주는 북미포도 생산의 약 9할을 독점하고 있고 재배포도는 구주계 포도라고 한다. 불란서의 볼도시, 캘포니아주의 푸레스노시와 우리나라의 기온, 강우량을 비교해보면 한국에서는 여름에 가물고 겨울에도 대체적으로 따뜻한 해에는 포도가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해에는 잘 되지 않고 볼도시나, 푸레스노시는 겨울 기온도 섭씨 5도이상인 데다가 4월부터 10월까지의 대략 섭씨 15도 이상 20도를 상하하고 있고 강우량도 볼도시는 연중량 통해서 약50mm부터 90mm 이내, 푸레스노시는 12월부터 3월까지의 50mm, 푸레스노시는 12월부터 3월까지의 50mm정도였다가 4월부터 11월사이의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상적 조건이 우리나라의 포도재배를 힘들게 만들고 더우기 우량종의 포도재배가 불가능한 최대의 원인이다. 포도주를 담그려면 구주계포도를 쓰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계통의 포도는 구아의 하건지대(夏乾地帶)에서 재배되는 포도이므로 하절에 비가 많이 오면 병충해를 입고 수확이 격감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다온성(多溫性)에도 저항성이 강하고 내병충해성도 강한 미국계포도와 이 계통과 구주계포 도와의 간생종에 의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국 포도 생산은 지리조건이 비교적 좋은 곳으로 극한 되고말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서 우리나라의 포도주의 품질은 저하되기 쉽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재배 양조기술을 업자들이 발전시키고,

병충해예방의 신약의 보급항생물질과 원자력의 원예방면의 진출 등으로써 포도주 자체의 품질향상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류가 처음으로 만든 술은 포도주 같은 단발효주였고, 구주로 이동하는 종족이 도중 발견한 포도술 만드는 귀중재료로서 사용했기 때문에 구주각처에서 구주문화의 발전과 아울러 포도주도 발전해 왔다. — 따라서 포도주는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포도주에 관련된 신화는 상당히 많다.

애굽신화에서는 주신 오시리스가 포도 재배와 포도주양조법을 가르쳐 주었고, 히랍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신이 소아시아 지방을 여행하면서 양조법을 배워가지고 돌아와서 민간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또 헤부라이민족의 전승을 써놓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구약성서에서는 그 창세기에다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천막속에서 잤다」라는 말이 있다. 사조를 더듬어 보면 고대문명이 한참이었던 애굽, 히랍, 라마, 바비론 같은 곳에 포도나 포도주에 대한 조각벽서 등이 많이 있고 또 포도주용 술잔 같은 미술공예품이 있다. 라마에는 회장을 거쳐서 포도주양조기술이 들어갔고, 라마가 태라마제국이 야망에 불타서 판도를 구라파에다가 확대함에 따라서 포도재배, 포도주조도 확대해 갔다. 크리스티교와 포도주의의 관계를 보면 예수께서 포도주는 나의 피니라」한 것으로서도 명백한 바와 같이 참말로 밀접하고 크리스티교가 전구주에 널리 퍼지는 역사는 포도주가 발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세기의 포도주의 번영은 크리스티교승원, 왕후귀족의 보호육성의 덕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이러한 역사과정을 거쳐 포도주는 불란서라는 최적지를 발견하고 이곳에 불도, 불간디, 샴파뉴 등의 명양지를 만들고, 다시 독일에서는 라인, 모젤지방을 포도주의 명산지로서 개화시킨 것이다. 남구라파의 스페인에서는 세리주, 폴도갈에서는 포트와인이라는 각각 특수한 양조법에 의한 포도주가 발달되었다.

다시 시대가 흘러서 서양각국의 식민지획득경쟁이 시작되고, 아프리카대륙, 오스트라리아, 아메리카대륙 같은 곳에 서양 사람들이 이주하는데 따라서 이러한 식민지에서도 포도재배가 시작되어 포도주 양조를 하게 되었다. 북알제리아, 남아프리카연방, 오스트라리아, 카나다, 북미캘리포니아주, 중남미제국같은 곳에서 현재 대대적으로 포도주생산이 되고 있는 것도 식민지시대부터 시작된 것이다. 포도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포도주 이외의 술에서는 분류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도주에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구라파의 거의 전토에 퍼져서, 그 나라 그 나라의 풍토라든가 민족성 같은 미묘한 수이중(差異中)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 키워진 술이기 때문에 제조법에나 향미나 성분에서나 대단히 형태가 다른 포도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화학적 성분을 위주로 해서 분류하여 보기로 한다.

색깔에 따라서 적포도주(Red wine)와 백포도주(white wine)로 나누어 진다. 전자는 적색 또는 흑색의 포도껍질에 들어있는 색소를 술액중으로 옮겨 녹여내서 붉은 빛을 띠우게 한 것이고 백포도주는 주로 녹색포도의 과즙을 발효시킨 것이며 옅은 황색을 띠운다. 이 두 포도주는 양조법에 있어 중요한 차(差)가 있고 그것 때문에 적포도주에서는 붉은 색소이외에 탄닌이 과피로부터 녹아나와서 짙은 맛이 있는 것이 특색이다. 백포도주에서는 탄닌이 과피서부터 녹아나오지 않기 때문에 짙은 맛은 전혀 없다. 이와같은 특색이 중요한 것이지만,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도 명백히 틀린 점이 나타난다. 즉 백포도주에 알맞는 요리는 어패류 등 담백한 흰살의 고기가 좋고 적포도주에서는 붉은 살 즉 짙은 맛이 있는 수육요리가 좋다. 독일의 옛말에도 「흰술에는 흰 고기, 붉은 술에는 붉은 고기」라는 말이 있다. 또 마시는 순서도 백포도주를 마시고 다음에 적포도주를 마신다. 이것을 꺼꾸로 한다든가 한꺼번에 같이 마신다든지 하면 적포도주의 짙은 맛 때문에 혀가 피로하고 포도주의 미묘한 향기를 맛볼 수가 없다. 즉 드라이와인은 포도과즙의 당분이 거의 완전히 발효하여 알콜로 화한 것이고 비중도 0.990내지 1.000부근 것이 많다. 그러나 남아있는 당분은 적포도주와 백포도주에서는 같은 드라이 와인이라도 다소의 차가 있다. 적포도주에서는 남아있는 당분 0.3% 이하지마는, 백포도주에서는 2내지 3%의 유분이 남아있고, 약간 달콤한 것도 드라이 와인으로서 취급된다. 드라이 와인은 보통 식사때에 마시게 되는 것이니까, 테불 와인이라고 부를 때가 많고, 이와 반대로 「스월 와인」은 식사의 전후, 특히 식후에 마실 때가 많으니까, 「디사트 와인」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포도주는 주로 드라이 와인 즉 테불 와인이다. 스월 와인은 요컨대 당분이 10%전후의 단맛이 나는 포도주이지만은 그 제조법은 짙은 농도의 과즙의 발효 도중에 고 알코올분의 부란테를 섞어서 양효를 정지시킨 것, 혹은 드라이 와인에다가 뒤에 농축과즙을 섞은 것 등 가지각색이다.

새마음 새돈으로  
복된 살림 누리보자

1542년에 피자로가 페루에서 죽은 지 1년 후 알바·D·바카라는 스페인의 탐험가가 소수의 호위병을 데리고 오늘날 부라질과 알젠틴 그리고 파라과이 세나라의 국경을 흐르고 있는 파라나강을 따라 탐험여행을 하였는데 그는 이제까지 이처럼 아름다운 강을 본 일이 없었다. 강은 아름다운 꽃밭 속을 누비며 흐르고 란(蘭)이 나무가지 사이로 어여쁜 자태를 자랑하고 밤에는 표범이 물을 먹으려고 강기슭을 어슬렁거렸다.

어느날 강이 유난히 깊고 조용히 흐르는 곳에 이르자 얼마 안 떨어진 전방(前房)에서 무시무시한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서 두려우면서도 배를 타고 모퉁이를 돌아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 그 앞에 커다란 연못이 입을 벌리고 있고 그 위에서 강물이 하늘을 뒤흔드는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고 있었다.

탐험대원(探險隊員)들은 배가 못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재빨리 노를 저어 강기슭으로 올라간 다음 안개 자욱한 못속을 내려다 볼 수 있는데 까지 질척질척한 바위 위를 엉금엉금 기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날은 발견사상(發見史上) 기리 기억되어야 할 날이었다. 더구나 바카와 그 부하들은 그날 백인(白人)들이 이제까지 보아온 어떤 폭포보다도 큰 폭포-이구아스폭포-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140년 동안 <나이아가라 폭포는 1678년까지 발견되지 못하였다> 이 폭포는 그 장대(壯大)함에 있어서 다른 폭포의 추종(追從)을 불허(不許)하였다. 지난번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기에서 대충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경이적(驚異的)인 경치를 보고자 한다면 페루에서 남아메리카의 서해안(西海岸)을 남항(南港)하여 체리항구에 상륙해서 거기서 다시 기차로 안데스산맥을 횡단(橫斷)하여 다음에 배편으로 파라나강(江)을 백기로쭈물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강기슭에 상륙하는 것은 밤중이 된다. 둥근달이 하늘에 걸려있는 밤길을 말을 타고 밀림 속 소로를 16기로 쭈 가다가 말에서 내려 안내인의 인도를 받으며 도보로 절벽을 따라 내려가다 다시 바위에서 생긴 좁은 길을 더듬더듬 아래로 내려간다.

이윽고 공중에 울려 퍼지는 폭음이 들려온다. 이 소리는 앞으로 나갈수록 점점 더 커지며 이내 폭이 몇 키로 쭈이나 되는 무시무시한 심연 옆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분명히 이구아스 폭포 옆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광경이 처음에는 진실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흡사히 거인들의 꿈나라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끊임없이 들려오는 폭음은 바람과 안개를 타고 겨우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

막대한 양의 물이 컴컴한 지평선 저쪽에서 흘러와서 발밑의 거대한 골짜기로 떨어져 간다. 이 강은 부라질의 조용한 삼림 속을 이리저리 흘러 이 높은 언덕바지에 도착하는 것이다. 이 고원의 강은 얼마후에는 저지의 파라나강 큰물결속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알고나 있듯이 이 도정에서 하나의 크라이막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이구아스 폭포인 것이다. 이 폭포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의 송고한 아름다운 다른 어떠한 강도 따를 수 없는 세계의 경이가 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마도 이것을 본 사람은 언제까지나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구아스의 폭포는 이러한 영광을 다하기 위하여 거창하고도 당당히 낙하하여 부서져 흩어지고 있다. 이 폭포는 그 급류를 완전히 수중에 넣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리 곤지지도 않거니와 미친 듯이 설치지도 않은 채 조용히 천 개쭈 헤아릴 수 있는 물줄기로 갈라져 내려가다가 낙하할 장소에 이르면 일시에 힘찬 명령을 받은 것처럼 길이 6천미터의 단애를 따라 장대한 폭포가 되어 환희의 부르짖음을 울리면서 밀의 연못 속으로 뛰어 내리는 것이다.

원시적 들판을 정밤중에 찾아온 우리들은 달빛 어린 이 관경에 눈이 휘둥그래져 경탄하며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았을 때 느낀 감흥을 다시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이구아스는 나이아가라보다 폭이 두배나 넓으며 사방에서 떨어지는 수심은 18미터나 된다. 우기에는 수량이 더 불지만 우리들이 찾아온 때는 홍수기가 조금 지난 뒤였으나 다른 계절에는 수량이 훨씬 줄어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구아스 폭포는 북아메리카의 경이인 나이아가라보다 136년 전이고 남아프리카의 빅토리아보다 343년 전에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폭포 가운데서 가장 알려져 있지 않다. 드·바카가 이 폭포를 발견한 이래 약 200년 동안은 이 근처에 전도소를 설치한 제스이트파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구라파에 전해졌었는데 1740년경 제스이트파 사람들이 추방되고 전도소를 불태워 없앴 다음부터는 이 세계의 경이의 존재는 아주 망각되어 버렸으며 다시금 문명의 햇빛을 받은 것은 겨우 20세기 초엽에 들어서서부터이다. 달빛 깃드린 한밤중에 도착한 우리들은 다음날 인디안의 안내인 -그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드·바카를 안내하였던 사람들의 자손이다-의 안내로 폭포의 탐험길을 떠났다.

<세계경이 순례>

남미에 있는 세계 최대의  
이구아스폭포

하리바톤



우리들은 폭포의 언저리와 벽이 접해있는 곳에 서서 그 전에 스페인의 발견자가 「가루간다·델·디아부로」(악마의 목구멍이라는 뜻)라고 이름 지은 균열을 내려다 본다.

큰 강물이 부서져 떨어지는 광경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또한 커다란 매력이기도 하다. 울려퍼지는 소리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무색할 정도로 더 크다. 그러나 이 폭포는 중턱쯤 되는데서 층층 바위를 내리치고 다시 33미터쯤 되는 두 개의 폭포-그것은 나이아가라보다 15미터 가량 얕다로 나누어진다.

안내인은 폭포 밑바닥 좌우에 바닥돌처럼 접해해 있는 섬에 보트를 타고 가 볼 것을 우리들에게 열심히 권한다. 모든 것을 떠내려 보내려는 강줄기에 엉성한 통나무배를 타고 폭포 연못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철부지나 미친놈의 수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안내인은 몇 번이고 가본 경험자이기 때문에 걱정없다고 말한다.

우리들은 제각기 노를 손에 잡고 폭포위 100미터 남짓한 곳을 물줄기를 향해서 돌진한다. 그동안 자기들의 팔힘이 급류에지지 않기를 빌면서, 그것은 흥분의 독안으로 화할 만한 필사의 싸움이다. 위태롭게도 바위에 부딪칠뻔도 하고 떠내려오는 통나무 토막에 부딪칠 경우도 있다. 우리들은 온갖 힘을 다하여 노를 젓는다. 어떻게든지 저 최초의 섬에 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 . . .

우리들은 이것을 극복하고 바위위로 뛰어올라갔다. 야생의 물「오리가 좀처럼 찾아오는 일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허둥지둥 수풀속에서 날아가 버린다. 인디안은 이 밀림으로 뒤덮인 섬은 큰 뱀들의 절호의 서식처라고 주의를 환기한다. 우리들은 어느 한마리의 방문도 받고 싶지 않은 것 이다. 우리들은 섬에서 섬으로 건너가 거의 폭포의 중앙부에 다달았다. 거기서는 양쪽 기슭까지 각각 1 마일 나이아가라와 같은 폭이 된다. 눈앞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도 없다. 우리들은 그 옛날 드 ·바카가 본 그대로의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이 압도적인 광경을 보았을때 우리들 이상으로 두려움을 느꼈으리라고는 믿을 수 없다. 우리들도 또한 완전히 압도된채 말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이구아스를 대충적으로 말하자면 나이아가라와 같이 마제형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폭포는 나이아가라처럼 막대한 수량이 두갈래로 집중해서 낙하하는 것이 아니고 몇백 갈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폭포 밑바닥에 점재하는 적은 섬들 때문에 몇가닥으로 갈라진 이들 급류는 중턱까지 낙하하다가 바위에 부딪쳐 다시 한 데로 모인다.

몇가닥으로 쪼개진 급류는 제각기 소리를 내면서 흐르고 있는데 그 음색은 저마다 달라서 높고 혹은 얇아 백뢰가 한꺼번에 떨어지는것 같은 소리가 있는가 하면 거미줄과도 같이 가냘픈 멜로디로 들리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일대 교향악이 되고 관현악이 되고 일대 합창단이 되어 유사이래 끊임없이 같은 음악을 이 넓고 넓은 들판에 울려 코라스를 이루고 있다.

우리들은 이구아스의 폭포가 아직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기 전에 방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커다란 행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알젠틴과 브라질 두나라는 이 삼림지대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력의 필요상 발전소라던가 댐이나 동력선을 건설코자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기에는 안개와 이끼로 뒤덮인 거목이 번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서서 달빛에 빛나는 물줄기를 보고 있는 이쪽에는 나이아가라에서 본 것 같은 값싼 호텔이 늘어서고 표범은 사살되고 아름다운 날개를 지닌 날짐승들은 달아나버려 장엄한 느낌은 아주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구아스의 폭포가 아무리 근대화 되더라도 우리들

이 처음으로 달빛 아래서 본 저 자연 그대로의 광휘로움과 자유분방한 거대한 폭포의 모습을 그릴 수는 있을 것이다.

(역자주-1953년 가을 어느 신문사 특파원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오늘날에는 알젠틴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나흘만쯤씩 이구아스행의 비행기가 다니며 비행시간 7시간으로,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으며 비행장 근처에는 현대적인 국영 호텔도 건설되어 폭포 낙하구에 있는 대소의 섬들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 중에 있는데 브라질쪽도 또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160살이나 되는 현대적인 호텔을 건설 중이라고 하니 오늘날은 하리바톤이 갔을 때보다도 훨씬 편리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



<사진은 이구아스 폭포>

× × ×

## 군인과 멋

조 풍 연(趙 豐 衍)

앞으로 이 세상에서 전쟁의 우려가 티끌만큼도 없어졌을 때도 군대는 필요할 것인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류와 인류와의 전쟁이 없어져도, 자연과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교통사고와의 전쟁, 그리고 무질서와의 전쟁은 영구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훈련받고 세련된 집단은 항상 조직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재앙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 훈련받고 세련된 집단, 이것이 군대다. 그때 가서는 군이라는 명칭이 갈릴지 모르며 개념도 달라질지 모르나, 어쨌든 항상 무장되어 있는 힘임에는 지금과 다름이 없으리라.

군대의 특징은 「제복을 입은 사나이들」에 있다. (현대에는 여군이 있으니, 사나이에 한한 것은 아니지만) 제복을 가지런히 그리고 단정히 입은 한 때가 상관 호령에 따라 평소에 같은 동작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유사시(전시)에는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통일된 작전에 쫓아 움직이는 것이므로, 결코 산발적이지 아니다. 그러므로 군대의 미는 집단행동에 있는 것이며, 통제된 행동에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통제를 몹씨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자유를 몹씨 사랑하며 개성을 존중하는 나머지 집단행위의 미란 통제된 미이기때문에 싫다는 것이다. 그는 예를 소련의 스. 포오츠에 든다. 소련뿐아니라, 전체주의국가의 스포오츠에선 「매스·게임」이 율동하게 발달되었는데, 이야 말로 통제된 스포오츠이기 때문에, 개성을 살리는 스포오츠에 비하여 인공적이요, 위압적이라고 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되나, 소련의 「매스·게임」의 성리(性理)가 곧 집단 행위 전체를 규정짓는 것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자유롭고 개성이 각기 뚜렷한 세계에서야말로 그 자유와 개성을 누리기 위해 통제된 부문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는 무정부주의와 다르다. 자유와 개성을 보호하는 통제된 집단이 정부이다.

대개 이상과 같은 논리에서 나는 「군대불멸론」을 들고 나서는 사람이다.

그런데 군대를 구성하는 분자는 말할 것도 없이 각개의 군인이다. 그러면 군인은 군대라는 집단 조직의 한 구성 분자일 뿐, 개성은 없느냐 하면 그럴 수가 없다. 강한 군대는 강한 개성을 지닌 분자들의 구성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의 이치란 재미있는 것이다.

현대전에 있어서 절대적인 무기는 물론 화력이다. 그렇지만 화력보다도 더 긴요한 것은 군인의 사기라할 것이다. 화력으로 대결하는 전투의 시간은 핵무기로 전쟁하는 시대에는 점점 단축된다.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일순에 전투의 승패가 결정될는지 모른다. 이 무시무시한 전투를 안 일게 하는 것이 군대다. 현대의 군대는 공격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방위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수동적으로만 태세를 갖추고 있으면 스스로 적의 공격을 맞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한 장비를 보유해야 된다. 강한 장비에는 군인들의 사기가 보다 위력을 지닌 무기이며 그 사기는 각개 군인의 개성에 의존된다.

그 개성이 평민과 다를 때가 많다. 그 까닭은 역시 「제복을 입은 사나이」라는 틀 속에 한받은 노상 들여놓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호답하고, 강직하고, 어느 때는 눈물겹고 무르다. 여기에 군인의 멋이 깃들이는 법이다. 흔히 군인은 목숨을 초개 같이 아는 듯이 여기기 쉬우나 아무렇게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다. 개죽음도 좋다면 그것은 필경 별거승이가 아니면 강패일 것이다. 군인의 생명관은 첫째 남을 위해 죽는 것이요, 둘째 보람있게 죽는 것이다. 죽음이란 목표가 이렇게 뚜렷하고, 죽는 마당이 이처럼 화려한 데서, 철학이 안 나온다면 거짓말이다.

유모러스한 점에서 평민이 군인을 따르기 어렵다. 그것은 군인이 상인처럼 뒤를 돌아다보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1870년으로부터 1년 남짓 벌어진 독불 전쟁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비스뎀 후작은 황제 뷔르헬름 1세로부터 적전에서 용감히 싸운 어느 병사에게 철십자훈장 제일급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때 그는 훈장 받는 병사를 좀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돈에 궁할 때라면 너는 십자훈장보다도 1백 달라 돈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 훈장은 얼마나 값이 나가는 것이 읊니까』  
하는 병사의 질문에, 비스맑은 대답 하였다.  
『명예 있는 표창이라는 것을 고려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글썽 한 3달타라 가량의 값은 될 것인데』  
그러니까 병사가 말했다.  
『그러하오면 97달타와 훈장을 주셨으면 합니다. 』  
비스맑은 이 병사의 재치에 놀라 웃으면서 양쪽을 다 주었다고한다.  
이 일화는 욕심 많고 기지있는 병사의 장난 같아 보이나 능구렁이가 다 된 정치가 비스맑후작의 경솔한 가지 판단을 일격으로 후려치되 어디까지나 예의에 벗어나지 않고, 그 상사로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는 점에서 후세에 남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곧 군인의 멋의 한 단편이라고 볼 수 없을까  
제1차대전의 유명한 독일의 장군 「한스-콘-헤제라」백작은 어느 때 검소한 평복을입고 기차를 탔다. 그리고는 씨거를 맛있게 피우고 있었다.  
때마침 맞은 편에 앉아있는 정복한 중위에게는 장군이 피우는 씨거의 냄새가 별로 좋게 안 여겨진 모양이다.  
앞에 앉은 이가 유명한 장군인 줄 전혀 모르는 중위는 드디어 참지 못하여 자기 담배갑에서 씨거 하나를 꺼내 주면서  
「여보시오 이 담배를 피워 보시오. . . . . 당신의 그 담배는 도저히 훌륭한 사회에서는 차마 못 피울 거란 말요. 」라고 말했다.  
장군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중위가 준 씨가를 한 개 받아서 자기 포켓에 넣어 버렸다. 그러면서 자기 담배는 연방 피우고 있었다.  
「여보당신 내가 준 담배를 피우라니까. 」하고 중위는 성내어 외쳤다.  
그러니까 장군이 침착하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 훌륭한 사회에 갈 때까지 아껴 피우겠소. 」  
이 얘기에는 중위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아서 더 운치가 있다. 장군이 혼자만 알고 있었고 영원히 밝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장본인인 중위에게는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드디어 장군의 입에서 이 말이 퍼지었다. 중위가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더글라스-맥아더」장군이 본국에 송환이 되어 일본의 군사령부 제일 호텔을 떠나게 되었다. 장군에 시종하던 부하들이 도열해서 전송할 때 장군은 호텔 문을 지키는 젊은 파수병의 눈에 눈물이 괴인 것을 보았다.  
장군은 발길을 멈추었다. 신문기자와 카메라맨이 몰려 들었다.  
「너는 언제부터 파수를 보았더냐. 」  
「1년 5개월째 봅니다. 」  
「고향에 누가 계시냐. 」  
「어머니가 한분 계십니다. 」  
「앞으로도 근무에 충실하라. 」  
「예. 」  
드디어 그 젊은 파수병의 눈물은 뻥으로 펑펑 흘렀다.  
군을 떠나는 최고의 군인이 그의 본거지인 사령부를 떠날 때 말을 건넨 것은 이 신병인 파수병 하나뿐이다. 제갈공명이 쓰러지던 「오장원」에 가을 바람이 불었다더니만 이도 또한 그보다 못지 않은 서글픈 자취를 남겨주었다. 「맥아더 원수와 파수병」폐퇴하는 장군엔 더 할 말이 없다는 멋이 일화에 깃들어 있다.  
군인의 멋 이야기를 늘어 놓자면 시간 있는대로 얼마든지 늘어 놓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군인의 멋에는 한가지 특징이 있음을 일러 두고 나는 붓을 쉬어야겠다.  
그것은 무엇인가. 「제복입은 사나이」라는 전제에서만 그 멋은 사는 것이다. 그가 만약 제복을 벗어난 퇴역 군인일 때는 이야기는 다르다. 엄격한 규율아래 통제된 움직임 속에서 인생의 한 단편을 보여주는 탄력성이 그 멋을 살리고 우리를 감명깊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얘기를 들을 때 언제나 「군복」을 떠나 상상하지는 않는다.



## 군인과 꿈

추 국 희(秋 菊 姬)  
이대 교수

예로부터 군인의 미덕은, 용기라고 보아왔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 적과 대전하여 승리하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만난을 무릅쓰고 적을 격파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용기가 제일 필요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의식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말하자면 전통적 관념이 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군인이라고하면 먼저 용감무쌍한 용기를 생각하게 되지 않는가 한다.  
이러한 전통적 관념을 떠나서 사리(事理)로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용기는 군인의 제일 미덕이 아닐 수 없을 게다. 왜냐하면 타국을 침략하려는 목적을 주로 하여 두어진 군인이건 타국의 침범을 막으려는 목적 다시 말해서 국방의 목적으로 두어진 군인이건 간에 전쟁 혹은 전쟁상태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두어진 것이 군인이만큼 군인은 항상 적과의 대전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평소에 늘 심신을 훈련해야 할 것 이므로 용기는 군인의 미덕이 아닐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용기와 아울러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현실을 면밀하게 연구해나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명백하다. 병서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필승이라 하거니와 적의 객관적조건과 심리적조건 및 정신적 능력을 잘 파악하여야만 적을 격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군인은 항상 냉혹한, 객관적 현실에 유의하여 민감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여기서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군인은 결코 전쟁하는 기계가 아니다. 그도 하나의 humanity를 가진 인간이다. 문화가 고도로 발달됨에 따라 직업이 분화되며 이 분화는 더욱 세분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각자가 가지는 직업에 열달하여 직업인으로서의 유능성을 지니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능한 직업인도 인간이니 만큼 자유롭고 건전한 인간성을 조해하지 않도록 전업도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유롭고 건전한 인간성에는 용기뿐만 아니라 우아와 관용도 속하여 있으며 현실에 밝고 현실에 유의하는 것뿐 아니라 한번 날개를 치면 구만리씩 한숨에 날 수 있는 소위 북해의 대붕새도 생각할만한 상상의 세계를 달릴만한 마음의 여유도 또한 다름 아닌 인간성에 속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사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아마 「군인과 꿈」이란 제목이 나에게 주어진 듯도 싶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그 상당한 부분이 복잡한 암시성(Allusion)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꿈」이라는 말이야 말로 꽤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 싶다. 심리학자 특히 무의식의 연구를 계기로 하여 나타난 소위 무의식학자의 「꿈」에 대한 설명과 해석들을 구태여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도 없거니와 일반적으로 「꿈」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설명은 여기서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다만 꿈에 대한 본래의 뜻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첫째로 수면 중에 마음에 일어나는 심상 혹은 관념의 연속 또는 그것들의 대상이며 둘째로 이러한 심상 혹은 관념들이 일어나는 수면상태일 것이다. 이와 같이 꿈은 각성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고 있는 중에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니만큼 객관적 현실이 아니고 주관적이며 따라서 비현실적이다. 꿈의 이러한 비현실적 성격에서 꿈은 또한 상상이니 공상이니 이상 특히 달하기 어려운 심지어는 달할 수 없는 공상적인 목적 같은 현실성이 적거나 혹은 아주 없는 것을 의미하게도 된다. 꿈이 본래 비현실적 가공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낭만(rama-nce)이란 말과도 통하게 된다. 「로맨스」란 말은 암시성이 많은 말이지만 본제목에 관련되는 의미만을 추려본다면 1, 영웅에 관한 시 및 전설 혹은 설화 2, 일반적으로 모험담, 경탄할만한 무용행위 특히 순정적인 연애 사건 등 전기담 혹은 공상소설 3, 연애 사건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군인과 꿈」이라는 이글의 제목은 「군인과 로맨스」라고 고쳐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는 객관적인 현실을 떠나서 살 수 없으므로 현실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생활에 절대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겠다. 적의 정세를 살피며 내편의 정세를 파악하는 동시에 객관세계의 법칙에 준거하여 멸적의 전략을 세워야만 할 군인에게 있어서 어찌 객관적 현실의 중요성이 경시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인간이 객관적 논리나 객관세계의 법칙에만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그 얼마나 뻑뻑하고 단조롭고 직선적이고 깊이와 여유 없는 메마른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 인간의 생활은 결국 말하는 기계의 작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객관적 논리와 법칙에만 억매인



인간에게는 자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유를 지닌 인간에게만 있을 수있는 신앙생활과 예술도 또한 있을 수 없다. 신앙은 객관적 지식이 끊어지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역설적 이기는 하지마는 객관적 논리와 법칙에 지배되면서도 이것을 넘는 경지에 서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예술도 모든 소재를 자유의 경지에서 자유로이 구성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신앙과 예술은 인간이 객관적 현실에만 집착하는 동안에는 있을 수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신앙과 예술은 군인에게는 한낱 「타부우」일까? 그럴수는 없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대하여 명백한 것이 아니겠는가? 신앙의 강제는 이글의 제목으로 미루어 보아 여기서 더 「타취」할 필요가 없었다. 그 까닭은 신앙은 꿈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은 객관적 논리와 객관세계의 법칙에만 구애되지 않고 또한 자유구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예술은 꿈을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의미에 있어서 비현실성을 배태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군인과 꿈이란 제목은 군인과 예술적인 생활」이라고 고쳐 놓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아온다면 군인은 단순히 전쟁하는 기계가 아니고 나의 인간인 이상 군인에도 다시 말해서 군인의 생활에도 예술성이 있어야 할 것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우선 실제적 사실을 들어 군인생활의 예술성을 증언 해 보기로 하자 여러 종류의 군가와 군인의 취주악은 음악예술 입에 틀림 없으며 군가와 군대의 취주악대의 연주는 음악이라는 예술의 힘으로 군인의 심신을 훈련 혹은 단련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군인들이 대열을 지어 율동적인 행진을 하며 혹은 「쇼」를 일반인에게 보여줄 때의 아름다움. . . . . 이러한 훌륭한 연기는 관중을 모아놓고 연기를 자랑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예술성은 율동적 연기를 통하여 그 연기를 연하는 군인자신의 심신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더욱 단련시키려는데 그 주되는 목적이 있을 상 싶다. 또한 사관학교학학생의 정장을 비롯하여 군인의 정장이라든지 모자 앞이마에 긴술 같은 것을 꼽은 것이라든지는 모두 예술성을 이용하여 엄숙한 기분을 도우려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율동적 연기라든지 의장을 장식한다든가 하는 것은 결코 실전에 직접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닐 게다. 실전만을 표준으로하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들은 일종의 사치일는지 모른다 따라서 현실적 이익에 대하여 비실리적인 것일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실리적인 것 같이 보이는 것이 군인생활에 얼마나 우아를 심어주며 신선한 생기를 돋우어주는 것이겠는가?



역시 군인생활에도 낭만과 꿈이 있어야 한다. 꿈이 없이는 건설적인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 사실상 꿈과 낭만의 예술성에 의하여 군인의 생활은 기쁨지며 폭과 깊이를 가질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뻑뻑하고도 단조로움을 깨뜨린 참으로 자유로운 구상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끝)

### ◇봉사정신

루이·빠스피로는 프랑스 국민이 자랑스로 삼고있는 세계적 과학자로 우유의 소독법 공수병의 면역법 효모균의 발견등 인류는 그의 발명, 발견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구원을 받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학자였다.

만약 그가 자기의 발명, 발견의 특허권을 갖고만 있다면 아마도 그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대부호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욕심이 없고 담담한 그는 드디어 한 개의 특허권도 얻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평생 청빈생활을 감수하여 말하되 「나는 돈을 벌기위하여 연구도 아니한다. 학문을 위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임무는 세계의 인류에게 행복을 주는 것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 우리 부대의 자매부락을 말한다 <1>

공군 대구기지의 자매부락이라고 하면 육동부락이라  
는걸 경북도민은 거의 알 정도로 되어있다.

항공본창편



### 이상촌 건설의 꿈을 안고.....

#### 육동부락의 실태

육동은 대구에서 동남쪽으로 약 백리, 경산까지 육십리 떨어진 산골로서 속칭 경산군의 「울릉도」라고 불리우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해발 627m의 두뫼골이다. 속칭 육동은 행정상 대화, 1, 2, 가적, 용천, 1, 2, 용전, 부일등 칠개동으로 되어 있으며 총 329호에 인구 2074명 이중 대학 졸업자는 단 한 명밖에 없으며 문화시설이라고는 전연 없고 신문은 겨우 초등학교와 동장집 등 5부밖에 들어오지 않고 그나마 제때에 들어오지 않아 516 군사혁명 소식도 약 1주일 후에야 알았다는 곳이기도 하다.

육동부락의 개략적인 약사를 들추어 보면

현 육동은 수백 년전 현재의 선조들이 피난으로 이곳에 입주하여 육개부락으로 형성하였으므로 지명을 육동이라 칭하였다는 것이고, 4247년에 조선총독 부령에 의하여 경산군에 합병되었으며 용성면이라 면명을 정하였다는 것이다.

이곳 고적으로 반용사는 신라 중엽에 창건한 대찰이었는데 수차의 화재로 타버리고 오십여년 전 재건된 대웅전만 남아있다.

다음으로 산업의 현황을 보면 주로 농업이고 특별한 부업은 별로 없으며 농경지는 답 261정보, 전 121정보이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수확량으로는 현재인구의 식량에도 부족할 정도의 어려운 실정이다.

#### 결연식

지난 이월 십일 공군대구기지와 항공본창장에는 이원우 공보부장관을 비롯한 내외귀빈 다수와 항공본창장 및 k2 부대 지휘관과 동민 약 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하였던 것이다.

이날 공군대구기지에서는 탈곡기 7대, 리어카, 구루마 각 2대, 트란지 스타 라디오 1대, 이발기구 2조, 농촌 문고 약 400권 돼지 7두, 이익에도 약품, 시멘트, 학용품등 공군장병들의 정성어린 선물들을 전달하였으며 군의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환자 진료를 하였으며 야간에는 영화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로써 이날을 즐겁으며 한편 동민들은 농악을 올리는 등 읍리가 생긴 이래 이렇게 큰 행사는 처음이라고들 하였다.

이날 식전에서 항공본창 오점석 회장은 앞으로도 힘 자라는 데까지 도와줄 것을 약속하였으며 부락대표 박준장은 공군장병의 정성어린 선물에 보답하기 위하여 동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농촌재건에 더욱 분투하겠다고 답사를 하였다.

결연식을 마친 이튿날 대구 시내 각 일간신문에는 대서특필로 공군대구기지와 육동부락의 자매결연 기사가 보도 되므로써 각 기관의 자매결연에 박차를 가하였다.

#### 지원사항 및 재건상

##### 1. 무료진료

공군대구기지는 결연이후 우선 의료시설이 없어 환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월 1회 무료진료를 하여 주기로 결정하고 매월 군의관 3, 4명과 간호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평균 약 200명의 환자를 치료하여 주는데 계속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학교에 약장과 약품을 비치하고 치료하여 주므로써 커다란 성과를 걷우고 있다. 처음 진료를 나갔던 군의관 말에 의하면 영양섭취도 제대로 못하는데 노동만이 천직인 그들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조로, 신경통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질보다 양으로 자라온 탓인지 위장염이 위염 환자를 비교적 많이 볼 수 있었으며 그중에는 환부에 밥을 바른 환자가 있는가하면 나서 여태까지 양치질을 모르고 살아온 노파도 있었다고 한다. 벌써 6차에 걸친 현지 진료 및 의학계몽으로 동민들의 위생관념이 전에 비해 훨씬 달라졌다는 군의관의 얘기다.

##### 2. 영화의밤

한편 월 1회 순회필름 및 뉴 스피를림을 가져가 야간에 영화상영을 하여 주고 있다. 이때는 동민 거의가 모여 영화의 밤을 즐긴다. 처음 영화를 하였을 때 이들 중 영화를 처음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빨라 보지 못하겠다고 천천히 하라든 그들도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들 한다.

영화를 하기 전 계몽강연회 또는 좌담회를 가지고 농촌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하여 많은 성과를 견우고 있다.

### 3. 넓어진 산길

용성면 소재지에서 육동에 이르는 산비탈길을 추력이 겨우 올라갈 정도의 우차길이였었는데 지난 3월10일부터 10일간에 걸쳐, 다이나마이트등을 사용하여 확장공사를 하므로써 차량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모 인사는차에서 내려 그 험로를 걸어서 산정까지 올라간 사실로 미루어 어느 정도인가 짐작이 갈 것이다.

공군장병들의 흘리는 땀에 호응한 동민들도 연일 험한 산길을 보수하므로써 평탄한 도로가 되었다.

### 4. 저수지 공사

부일, 가척의 저수지 보수공사를 할 수 있겠끔 주선하여 주므로써 금년과 같은 한발에도 육동은 100% 모 내기를 하였든 것이다.

공군대구기지에서 각처에 양수 작업을 협조한바 있지만 자매촌에는 양수작업 등은 하여주지 않아도 일체 한발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 5. 이룩될 애프촌에 풍차

지난 6월부터 애프가설을 위한 현지답사를 하고 애프제작 스피카 구입을 하여 지난 8월10일에 우선 제1차로 100호에 공사를 완료하여 이미 방송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는 327호에 전부 공사를 끝낼 정도로 진행 중이다. 이번공사는 7항로보안단장이 직접 설계와 제작을 담당 하였으며 애프구조는 마이크, 라디오, 전축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능이 우수하다고 한다.

방송은 아침, 낮, 저녁, 방송으로 하루 약 10시간씩 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새벽 5시부터 재건의 노래소리가 메아리치면 동민들과 잠꾸러기 꼬마들도 잠에서 깨어 청소를 실시하고 음악에 맞추어 재건 체조를 한다. 앞서 k2에서는 재건의 노래 재건 체조 등 농촌재건에 도움이 될 레코드판을 구입하여 자매촌에 보낸 바 있다. 낮에는 주로 대구방송국의 직강음악을 즐기고 저녁에는 가족이 모여앉아 호젓한 음악소리가원종일 시달린 몸을 풀어 준다고 하며 어두웠던 외계소식을 들을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다고 하였다.

앞으로 육동부락에 한집도 빠짐없이 스피카를 가설할 계획이며 이 공사가 끝나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도 마이크를 통하여 공지사항 계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며 농촌계몽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직 스피카를 달지 않은 동리 사람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으며 방송되고 있는 동민들은 공군장병의기술을 감탄하고 신기한감과 그들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애프에 밧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8월말까지 풍차를 가설하여 애프에 쓰는 전력은 충당될 수 있게끔 계획하여 공사를 추진 중이다.

### 6. 창고 건립 및 소집조잡

창고 시설이 없어 면소재지까지 약 6km의 산길에 소와 사람의 힘으로 하곡 및 추곡을 운반하는 실정이므로 국고보조를 얻을 수 있게끔 주선하였으며 모든 예술적 지원을 하여 약 60평의 창고와 14평의소비조합창고가 8월말경에 준공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창고가 완성되면 모든 것을 여기에 저장하게 되므로 막대한 노동력과 시간을 절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비조합에서는 모든 생활필수품을 원가로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여 주는 등 공공복리를 위해 이바지 할 것 이다.



### 상호 방문

k2에서는 각 부대 지휘관이 수시로, 정훈관비 정기적으로 월 1회 자매촌을 방문하여 계몽 및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가능한 한 해결해 주고 있다. 또한 자매부락에서도 대표들이 수시로 부대를 방문하며 지난 5월 1일에는 자매부락 부인 약 50명이, 18일에는 용강 초등학교 학생 65명과 학부 형 등 112명이 기지 견학을 한 바 있다.

× × ×

공군대구기지에서는 자매부락 육성을 위한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각 부대 지휘관을 자문위원으로 정훈관을 운영위원으로 결정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육동부락에서도 간부 및 청년회원들이 솔선함은 물론 온 동민이 한 뭉치가 되어 이상농촌 건설의 꿈을 안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볼 때 머지않아 꿈이 현실화 될 것을 확신하며 육동과 k2의 자매관계가 전국적으로 모범 자매촌이 아닐까 생각한다.

(항공본창 정훈관실 제공)

|   |   |
|---|---|
| 수 | 필 |
|---|---|

## 가을하늘의 여정



고 연 기(高 延 基)

★여원사주간

가을은 하늘에서부터 그 계절의 작업을 시작한다. 입추 지나 처서 무렵, 아무리 폭양이 내려 쪼이고, 잔서가 최후의 발악을 한다 해도, 하늘을 우러러 보면 알 수 있다. 아아, 가을이 온다는 것을. . . . .

어느새 하늘은 새 의상을 마련하고 쪽빛보다도 진한 치마를 두르고 있는 것이다. 한 점, 하얀 구름의 무늬는 오히려 또렷하여 입김으로 불어 저쪽 산 모퉁이로 밀어 보내고 싶다. 어느새 하늘은 내가 선 땅덩이 위에서 한발자욱 더 높이 솟구치고 있다. 그리고 뜨거운 햇빛을 반사는 거울처럼 평면적이던 하늘이 어느새 원형의 인자스러운 모습이 되어 우리를 감싸주고 있는 것이다.

어느새 하늘은 세공의 손으로 닦이고 뿔진 구슬처럼 맑아 있다. 티끌하나 없이, 맑은 하늘, 여름 한철의 모진 우리와 번갯불 하여 이 맑은 하늘이 이루어짐인가.

이와같은 하늘을 보고 가을이 옥을 알 듯, 무릇 가을의 역정도 하늘에서 비롯된다. 내가 느낀 가을의 당정의 대부분은 하늘에 어린 서정. 이제 마루 밑에 귀뚜라미 소리를 벗 삼아 내가 느낀 가을하늘의 역정의 연대기를 들추어 볼거나.

내 기억에 남는 가장 어렸을 때의 하늘에의 의식은 식모 등에 업혀서 본 초 가을의 밤하늘이었다. 금빛 모래를 뿌려 놓은 듯 은하수가 흘러있고 반달이 유난히 높이 걸려 있었다. 식모의 등에서 달만 지켜보고 있던 나는 그 달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왜 달이 나만 딸아 와?』하는 물음에 식모는 『아가가 이빠서 따라 오지』하고 시치미를 떼 고 대답해 주었다. 나는 이 대답을 듣고 좋아라 하고 달이 얼마나 큰가 고사리같은 손을 들고 전주어 보았다. 한쪽 눈을 지긋이 감고 전주어 본 달은 내 엄지손가락의 손톱만 하다고 생각했다.

소학교에 들어간 뒤 장난꾸러기 시절의 가을하늘에 대한 추억은 고추잠자리를 쫓던 빗자루 끝으로 본 하늘이었다.

논두렁길과 못가에서 용잠자리와 잠자리를 쫓아 다니노라 여름방학을 보내고나면 9월 새 학기가 들어선다. 이만때가 되면 신작로 네거리에 고추잠자리의 대편대가 나타나 동심을 충동시키는 것이었다. 그 때 우리는 제각기 대빛자루나 싸리빗자루를 들고나가 고추잠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잡은 고추잠자리는 꼬리를 반쯤 찢르고 대꼬챙이를 끼워서 날려보냈다. 그래야만 그 고추잠자리가 장가를 들 수 있다고들 했다. 장가든다는 것이 무엇 인지 알지도 못하는 동안의 소년들의 눈은 대꼬챙이를 낀 잠자리의 행방을 손을 흔들면서 지켜보고 서서 하늘에 서린 가을의 역정을 맛보는 것이었다. 『야 저 하늘 좀봐, 참 푸르지』『그래 가을인걸 뭐』

중학교에 들어간 뒤 느낀 가을하늘은 정구코트에서 본 가을 하늘이었다. 하얀 운동화를 질끈 동여 매고 라켓트를 높이 쳐들어 하얀 공을 써브한다. 이때 뽕하고 경쾌하게 가을하늘에 메아리치는 소리, 그 메아리를 쫓아 고개를 들면 둥근 가을하늘에 하얀구름이 두둥실 떠 있는 것이었다. 이때 본 가을하늘이 안겨다 준 호젓한 충족감은 지금도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차츰 장성하여 여드름 투성이의 얼굴에 이해치도 못하는 철학서를 탐독하던 시절의 가을하늘은 늘 뒷동산의 바위 그늘위에 머물러, 감상과 사색의 거울이 되어 주었다. 고독을 즐기는

소년에게 가을은 더욱 고수해지는 계절, 하늘만이 유일한 이웃이요, 벗이었다. 이 하늘에, 미래의 애인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고 인생이란? 사랑이란? 문학이란? 하는 난문제 해결을 요구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은 마치 가을하늘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우면서도 높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풀릴 듯 풀릴 듯하면서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었다.

625, 전장에서 느낀 가을하늘은 구원의 하늘이었다. 패잔병을 소탕 하면서 복진하던 우리 부대는 ××고지에서 완강한 적의 저항을 받아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다. 일개 대대의 화력으로는 적진을 돌파할 수가 없었다. 사력을 다한 적은 차츰 그 포위망을 압축시키고 있었다. 우리의 운명은 시간문제였다. 우리는 무전기를 들고 한사코 「모스퀴트」(미군정찰기)를 불렀다. 공중지원을 받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모스퀴트」를 부른 지 20분후에 드디어 정찰기가 나타나 시회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지원요청을 받고 셰이버·젯가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십분 후였다. 이때 은익에 서린 가을하늘의 푸름이여, 나는 이 하늘 앞에 들국화를 바치고 합장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 차츰 가을하늘의 여정을 잊고 살아온 것 같다. 시정의 쌀값을 걱정하고 납세고지서의 마감 날짜에 신경을 써야하는 마음에는 가을하늘도 비칠 여백이 없었던가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다.



그러던 차 이 한국의 가을 하늘을 어깨가 으쓱해지도록 자랑하고 그 아름다움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생겼다. 그것은 제작된 미국의 저명한 여류 작가「필·빅」여사를 모셨을 때였다. 때는 11월, 가을이무르익을때로 무르익은 만추였다. 여사를 모신 주최측인 우리는 혹시 날씨가 사나워 지지 않을까 몹시 걱정이었다. 그런데 고맙게도 하늘은 연일 맑고 푸르려 쾌청의 연속, 여사를 모시고 경주 불국사를 들렀을 때, 여사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신라 고도의 하늘을 감탄해 마지않는 것이었다. 나는 대뜸, 『옛말에 여자의. 마음은 못 믿어도 한국의 가을하늘은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고 대꾸 했더니, 여사 이 비유가 몹시 재미있다고 파안하며 다시한번 가을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왕릉숲에는 갈대가 하얀 손길을 흔들고 있었다. 이 가을하늘을 나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 가을하늘아래 가을이 머물고 그 하늘에 계절의 여정은 서리느니, 가을하늘은 내 마음적 고향이다. 이 고향을 잊은 지 오랜 내마음속엔 탁류가 휩쓸고, 하늘에의 향수를 이기지 못한다. 소년시절의 꿈은 비행사 마음껏 하늘을 누비고 헤매는 바람은 이제는 잠자리의 꿈에서나 이루어볼까.



## 담배

이 하 윤(異 河 潤)  
★작가

우리 말에선 술과 담배를 먹는다고 해왔고, 그것이 습관화하는 처음 과정을 배운다고 한다. 배운다는 말은 제법 그것이 어렵고 강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니와, 마신다거나 피운다는 말이 있으면서도 먹는다는 말을 써온 것은 무슨 까닭일까? 술만이 아니라 물을 비롯한 모든 액체의 음료를 먹는다고 써왔다. 일어가 들어오고 영어를 배우게 되자 마신다 피운다를 먹는다에서 구별하여 사용하게 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일어에도 담배를 피운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마신다고 쓰고, 영어에서도 아편은 먹는다는 말을 쓰는것으로 미루워 먹는다는 우리말의 묘미를 찾아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서도 역시 담배의 우열을 맛으로 구별하는 것을 보면 입과 혀와 관계가 깊은 것만은 사실이며, 흡연보다 꺾연이 더 친숙한 것도 기체를 마신다느니보다는 먹는다는 데 실감이 있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담배가 들어온 이래 연기로 피워서 먹기만 했으나 구미에는 씹는 담배와 냄새를 맡는 담배가 있다. 나폴레옹은 옷과 몸에 담배 연기가 배는 것을 꺼리어<냄새>를 맡는 담배를 애용하였과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담배」는 물론 외래품이요 외래어에 틀림없다. 동래나 울산의 「담방구」 타령을 인용하지 않아도 담방구가 담배가 된 것이며 이것은 일어의 「다바꼬」와 통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물론 담배의 원산지는 미 대륙이어서 지금도 버지니아산이 제일로 꼽히는 것은 설명할 나위도 없다. 일어의 다바꼬는 스페인 Tabaco에서 온것으로 밝혀졌거니와 영어의 Tobacco나 프랑스어의 Tabac나 다 대동소이한 것이어서 원산지에 살던 본토 배기의 말에서 받아들였을 것이 틀림 없다.

니코틴이 인체에 해롭다고도 하고 또 중독성이 있다고도 하여 한때 애연가를 괴롭힌 일도 있었으나 그 무비의 매력은 전 인류를 사로잡고야 말았으니 우리 눈앞에 전개된 보급상황은 넉넉히 이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 나라의 풍토도 이 식물의 재배에 알맞아서 상당히 우량한 품질의 엽초를 생산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 이라 하겠다. 나도 담배가 전매로 되기 이전에 농가에서 이것을 재배하여 팔리는 것을 본 유년시절을 회상할 수 있거니와, 선대들이 애완하던 장죽의 아취, 풍류와 실용적 가치에 재삼 탄복을 아끼지 않는 자이다. 문전옥토에서 탐스럽게 자란 있을 따 말린 엽초에 알맞추 가미한 놈을 장죽에 말아담아 유한히 자연을 풍기던 멋이란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권연의 제조는 연초전매 이전의 동아연초주식회사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거니와 내가 사회에 나올 때까지 담배와 인연이 별로 없었던건만 토끼표니 산호표니 칼표니 조일이니 하는 따위의 권련 이름을 아직도 어렵듯이 알고 있다. 양철권련에는 종이 뽀뿌리(물부리)가 열개씩 들어 있었고 또 재미있는 그림 카드가 끼어 있어서 더욱 잊혀지지 않는다. 제물 종이 뽀뿌리가 달린 권련은 한 갑이 스무개비 양철은 열개비가 그때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때는 각초(?)에 인기가 있어서 일어난 줄도 모르고 쓴 것이 유감이긴 하였지만 「기세미」가 그중 구미에 맞는 모양이었다. 나도 방학이 되어 귀성할 때면 의례히 종로 동상전 앞에서 당장에 작두로 쏘아 주는 각초를 할아버님께 선물로 사 가고 하였다. 그 시절엔 담배쌈지도 멋 있는 게 많이 있었다. 기세미 이야기를 하니까「쇠털 기세미」생각이 난다. 요것은 일본인이 만든 각초로서 마치 소털 같은 데서 온 말이거나 고 놈을 역시 왜식공방대에 담아 한 두 모금 빨고는 툭툭 터는 것이 제격인데 파격으로 장죽용에도 간혹 담겨지는 것이었다. 같은 공방대이면서 우리 나라의 그 것은 담배대의 길이가 짧을 뿐, 대통에는 다름이 없었다. 구미인이 애용하는 브라이어의 파이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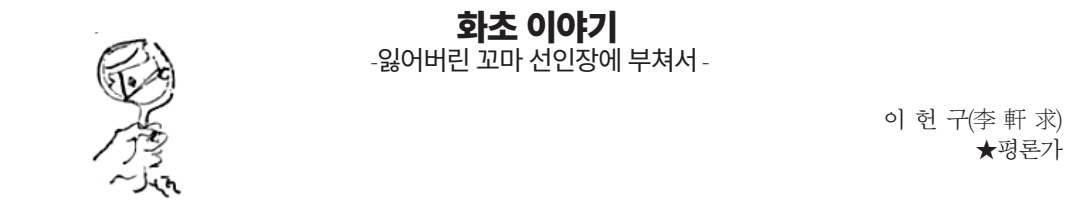
선원들의 전용물처럼 되어 그 이름도 마도로스·파이프로 널리 알려졌거니와 화란어의 Matroos가 일본에 와 전된 것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있다.

파이프로 사용되는 각초와 권연초에 못지않게 엽권초의 인기도 무시할 수 없으니 이 엽권초 시가아(cigar)에서 권연초 시거레트(cigarette)란 말이 생긴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이 시거레트의 처음 이름은 페이퍼·시가아라하여 글자 그대로 종이에 담배를 말아먹게 된데서 유래함은 물론이다. 1832년 애급-토이기전에서 그 기담의 실마리를 잡게 된다. 애급군의 포병장교에 지독한 애연가가 있었는데 한번은 토이기의 대포탄으로 참호안의 꺾연도구가 날아가 버리자 직석에서 대포의 도화용 화약을 찌는 종이를 이용한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전해온다.

그리고 보면 전쟁과 담배와는 자고로 매우 인연이 깊은 것이어서 일선장병의 유일한 위로제인 동시에 사기를 앙양시키는 바 큰 역할을 담당해온 실화는 허다하다. 우리 나라 군가에도 「화랑담배 연기속에. .」란 유명한 구절이 있거니와 이것을 동서고금의 공통된「전쟁과 담배」의 관계가 긴밀한 것을 나타낸 한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짧은 글을 초하면서도 입에는「백양」을 계속해 물고 있다. 역시이 식물이 풍기는 향취와 타오르는 자연은 우리를 저마다의 별다른 세계로 이끌어 가는 모양이다. 그러나 일찍이 나폴레옹이 지적한바 프랑스의 사교계여성이 아닐지라도 담배 연기와 그 냄새를 무조건으로 환영할 여성은 드물 것이다. 옷에 배고 재가 흩어지고, 화재의 위험이 없지도 않은 담배 - 그것은 또 많지 않은 생활비의 침식으로 간주될 우려도 있어서 가끔 단연할 어리석은 생각도 가져보지만 심신의 변화가 있을 적마다, 사색에 잠길 때, 원고를 초할 때, 그리고 일에 격중 할 때, 멀리 길을 떠날 때 이 담배 없이 우리는 과연 무엇과 진정으로 벗 할 수 있을 것인가! 종류도 가지가지 이름도, 가지가지 이루 헤아리고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담배는 온 천하에 미만하였다. 나는 작하의 구주여행에서 가는 곳마다 사서 피운 담배의 이름을 적어본 일이 있거니와, 한 편의 정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통 열개비 아니면 스무개비인데 서독에는 열두개비갑 백이의에는 스물다섯개비갑의 권련이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막론하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끝으로 나는 625당시에 은폐해있던 강화도 어느 농가에서 신문에 말아먹던 엽초줄거리를 생각하면서 담배의 애착을 다시금 느낀다. (1962년 8월)



## 화초 이야기

-잃어버린 꼬마 선인장에 부쳐서-

이 현 구(李 軒 求)  
★평론가

2년전 어느 가을날 내 직장을 찾아 온 졸업생이 조그마한 초분하나를 들고 왔다. 선인장의 종으로 가느다란 줄거리에 해바라기씨 만큼 한 새파란 잎(열매와도 같은)들이 달려 있었다. 보통 선인장이라면 이상한 기형이 아니면 징그러운 정도로 크거나 굵은 것 같은 것들을 상상하기 쉽지만 이것은 아주 귀엽고 손안에 들고 다녀도 싫지않을 정도로 묘하게 생겼다. 대체로 화초재배라는 별취미를 갖고 있는 내가 아니며 더군다나 기화요초를 모아서 가꾸는 그런 고상한 기호도 없는 나이다. 이 지상에 생을 타고난 만물들이 그대로 번식하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는 지극히 멧없는 나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30년전 일본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서울거리를 걸으면서 비록 겨울이기는 하나 꽃과는집이 거의 없는 것을 보고 「꽃없는 서울」이라는 신년호지상에 수필을 쓸 정도로 화초에 - 관심을 가진 나였다. 그 후, 더욱 해방 후에는 거리거리에 화초가 사람하고 또 초화를 기르는 허다한 전문적취미인도 부쩍 늘어서 나 같은 건 적히 이런데 끼일 자격도 없이 되었다. 어쩌다가 조그마한 뜰악이 생겨서 봄철이면 꽃씨와 구근을 심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철을 놓지기도 하고 또 잘 나지도 않아서 얼마 아닌 정원에 공지가 생길 정도이다. 그럴 때마다 나의 태만과 무위를 혼자 탓하기도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지곤 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무성의이기 때문에 화단이나 정원이란 것이 제대로 꾸며질 도리가 없다. 옆집 K선생은 열심히 잔디밭을 가꾸고 화초들이 뻗어 올라갈 울타리를 장만하는가 하면 윗동리의 R선생댁에는 서울서도 자랑할 만 큼한 장미원을 갖고 있다(이 장미재배는 다행히 R선생이 아니라 그 부인의 솜씨로 가꾸어지긴 하지만). 내집 마당처럼 내버려지고 쓸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은 생각 끝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께 다섯 평쯤씩 떼어주어 20평의 정원을 공상해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금년은 그래도 마음을 다시 잡아서 백합 네 송이와 작약 한 그루를 사다가 심어보았다. 그랬더니 백합은 세송이가 말라 시들어 버렸고 작약은 삼기의 「티·비」, 환자처럼 영 맥을 추지 못하고 반은 말아 들어가고 반은 겨우 푸른빛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백합화 한 송이가 피어났다. 온 뜰안이 이 향기로 진동하고 밤에 창을 열고 누우면 스며드는 이 향기에 황홀할 지경이다. 들에 핀 한떨기 백합화가 아니라 뜰악에 기구하게 핀 백합화이긴 하지만 실로「솔로몬」의 영화를 등집치는 향미를 풍기는 것이다. 이렇게 게으른 나에게도 백합은 청순하고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었다. 화초를 이겨하든 고인 연화를 사랑하나는

선현들의 심정은 내 알바 아니로되 나는 잠시 이 향기에 심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R선생부인이 보내준 미장(베리나?) 한 그루가 기이하게도 철홍색으로 피었다가는 지고 또다시 피어나곤 하는 것이다. 나의 메마른 생활주변에 이러한 꽃들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 몹시 영탁할 정도고 감사하기도하다. 고작해야 「채송화」나 봉선화나 나팔꽃이나 해바라기 등 한국의 고유한 생명력도 번식력도 더불어 강한 그러한 화초나 기르는 격이 가장 내 신분에 알맞는 것이리라. 사실은 그런 혼한 꽃들도 내 주변에 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로 자족하는 것이 소인의도 아니면 군자의 예이기도 할 것이리라.

나는 지금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강한 한국재래의 화초들 이름을 올려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생명과 번식에 있어서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한 적은 생명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그 선인장인 것이다. 겨울이면 선인장은 온실이거나 특수한 데서 잘 길러야 과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선물 받은 이 선인장도 그러한 보호없이 찬 겨울을 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그러한 과동대책이 없었다. 생각 끝에 책장 안에 깊숙이 비껴놓고 낮이면 일광이 그 속으로 빛일 정도로 해주었다. 그런데 그대로 얼지 않고 이 작은 생명은 부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금년 2월 어느 날 등한소치로 이분을 남쪽 창가에 놓았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퇴근했다. 그랬더니 그날 밤 상당히 기운이 내려갔다. 이튿날 아침 출근해 가지고 우선 춘한속에 방배 된 이 적은 존재를 발견하자「아차!」하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얼른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구슬알 같이 파랗든 그 잎 파리는 소보록이 얼어서 떨어져 분위에 쌓여있는 것이었다.

나의 부주의는 물론이지만 그래도 꽤 오래 간작해온 시간 속에서 정이 붙은 한 존재에 대하여 죄책과 같은 통감을 느끼는 것이었다. 애처롭기도 하고 아깝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으로 완전히 이 풀의 목숨은 끊어지지 않고 다시 그 야리야리한 가지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이나. 생명력! 그 무서운 추위를 참고 견디어 다시 소생하는 이 적은 존재의 강인한 그 어떤 의욕마저를 나는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는 중 다시 여름방학이 되어서 약 삼주일 만에 직장으로 돌아와 내방을 찾아들어 창이란 창문이란 문을 모조리 열어놓고 그것도 미진해서 물을 떠다가 방내외에 휘 뿌리곤 했다. 그리고 다시 방안을 두루 살피기로 했다. 그랬더니 그 적은 존재인 선인장이 또 축 늘어져있는 것이다. 일주일 한번 정도 물을 주면 그만 이든 이 꼬마선인장이긴 하지만 삼주일이나 밀폐된 썬 내는 그 숨가쁨 속에 갇혀 있던 이 미생물은 고만 지쳐서 나 자빠진 것이다. 그 매서운 추위도 견디어 내던 이 생물이 남방의 그 무서운 더위 일수록 부쩍부쩍 잘아 날 수 있는 선인장이지만 수분의 고갈과 탁열의 밀실에서는 견디어 내지 못한 것이다. 천생 나는 물을 떠다가 줘만에 드는 작은 분위에 넘치도록 가득히 따라놓았다. 실컷 마시고 되살아나라! 이런 생각 속에는 죽어있는 가지만 물이라도 먹여서 보내자! 하는 그런 정반대의 심리작용도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다음날 조금은 생기가 돌더니 사흘부터는 반의 생명은 건져진 모양이다. 실오리같은 가지가 뻗뻗해지고 열매같은 이파리가 매끄러운 비취색을 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 의외의 사실이 돌발했다. 바루 오늘아침 사동이 나와서 방소제를 하다가 이진 다 말라 비틀어졌다고 속단하고는 송두리채 그 꼬마선인장을 쓰레기통에 내버린 것이다. 기구하게 못난 주인을 만나 이 꼬마선인장은 나와 완전히 기별하고야 만것 이다. 풍토와 지질과 기온을 달리한 이방식물이란 이렇게 제대로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발육을 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뼈에 사무치게 깨달았다. 실로 우리가 이방에 가서 본격적인 생을 누리기가 그 얼마나 힘든가! 새삼 느끼게 되었고 그 보다도 아무렇게 굴려도 그 생명을 온전히 지속할 수 있는 지역을 그 오래서 습성풍토 인정이 무의식속에서도 맥맥히 흘러 전승되는 그곳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며 나는 다시 이 나라의 거칠고 어수선 하면서도 제대로 푸르러 가든 내가 사는 강토위에 한가닥 심한 애착을 마음으로 새겨보는 것이다.

-1962·8·17일-

<47P에서 계속>

만 일개무관으로서 북쪽의 변방으로 또는 남해의 일우로 전전하면서 미관 말직에도 안심입명하였다는 사실은 자기의 길을 감에 있어서 초조하지 말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때 하나의 불평이나 불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나의 인생에 불멸의 지침이 되었다고 하겠다.

흔히 대기는 만성이라 하지만 흔히 대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출세에 급급하고 초조하여 매명이나 지조를 팔 때 그 사람은 대성에 이르지 못하거나 세속적인 출세를 해보아도 그것이 길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큰 교훈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저 미국의 명장「아이젠하워」대통령이 소령직 18년을 지냈다고하니 그 인내와 노력 그리고 본분을 다하는 지구력!야말로 대성의 원천이라고 보지 않겠는가, 나는 나대로 충무공정신이 무엇이나 하면 애국애족하는 것 사(私)를 버리고 공을 쫓는 것, 자기본분을 소신대로 꾸준히 해나가는 것,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되 그 죽음이 땅을 아는 것으로 파악대신하고 범인의 생애 이나마 이를 신조로 삼고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할 것이나 끝내 미치지 못 할 것임은 실로 충무공이 만약에 비길 바 없는 성웅인 까닭에 오직 우러러보고 싶은 심정이 우러나올 뿐이다. 정의는 천칙에 의하여 필승하고 중상과 모략은 자살굴혈지행위이며 공사의 분명은 입신지초석임을 알아야 한다.



## 1

「미쉬칸」대학의 「마이어」(N. R. F. Maier)교수는 「생쥐」의 신경중에 관한 심리학적 실험을 통하여 인간의 문제에 관한 의미심장한 시사물을 주고 있다.

쥐는 우선 대(臺)위에 세워지고 대의 좌우 양편에 있는 두 개의 문중의 하나로 뛰어내리는 훈련을 받았다.

만일 쥐가 우측으로 뛰어내리면 그 문이 닫혀 있어서 쥐는 코를 찡고 그물 속에 떨어진다. 반대로 좌측으로 뛰어내리면 문이 열리고 거기에는 접시에 먹을 것이 있다. 쥐가 이 반응에 충분히 익숙 되었을 때 이번에는 상황을 변형시켰다. 쥐가 먹을 것을 구하려면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뛰어내려야 하게 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쥐는 새로운 상황을 몰라서 쫓 때 마다 그것이 코를 찡게 되는 것인지, 식물을 취하게 되는 것인지를 모르게 되어 결국 뛰는 것을 단념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쥐는 이 단계에서 굶주려도 뛰지 않았다고 「마이어」교수는 말한다.

다음에는 돌연한 강풍을 일으키거나 전기자극을 주어 쥐를 강제로 뛰게 하여 보았다. 이때의 반응을 「마이어」교수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동물은 해결치 못할 문제나 상황에 반응하도록 강제를 당하면 어떤 특성의 반응에 고정한다. 즉, 쥐는 다만 좌측 문으로만 뛰어내린 것이다.」쥐들은 결과에는 무관심하고 그것을 계속한다. 즉, 반응이 고착된 것이고, 이러한 고착이 나타나면 그 상황에 적합한 반응을 배울 수 없게 된다. 이번에는 우측문을 개방하여 음식물을 잘 보이게 하고 쥐를 그쪽으로 떠밀어 보았으나 쥐는 굳이 좌측으로 뛰기를 계속했고, 실험자가 무리하게 선택을 강요하자 쥐는 발작을 일으켜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발톱을 상하고 광폭하게 날뛰다가 결국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 상태에서 쥐는 먹는 것까지 거부하고 아무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쥐는 공갈이 꿀릴 수도 있고, 뒷다리를 쥐고 공중에 들 수도 있다. 즉 쥐는 신경좌절이 된 것이다.

쥐를 신경좌절로 이끈것은 쥐의 문제가「해결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많은 사람을 신경 좌절시키고 있는 것은 인간문제의 해결불능의 사태에서 온다는 것이다.』「생쥐」나「인간」이나 어느 한계까지는 대개 같은 반응의 단계를 보인다고 가정할 수 있다.

첫째로 어떤 일정한 문제에 직면하면 일정한 선택을 습관적으로 하도록 훈련된다. 둘째로 상황이 변화하여 선택이 예기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을 알고 크게 충격을 받는다. 셋째로 그 충격, 불안, 좌절을 거둬들이는 동안 그들은 최초의 선택을 고집하여 결과의 여하에는 불구하고 그릇된 선택을 계속한다. 넷째로 우울하게 되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게 된다. 다섯째 외부의 강제로 선택을 강요당하면 다시 최초의 반응을 되풀이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설사눈앞에 목표물이 있고, 방법을 바꾸면 목표를 취할 수 있을 때라도 실패 때문에 미쳐버리고 만다. 이러한 가정은 순전한 과장일까? 불행히도 이것은 공상가의 논리만은 아닌것 같다. 이상의 유형은 개인, 가정,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나 집단간의 관계,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남편의 결점을 고치려고 한 부인의 잔소리가 남편의 결점을 더욱 악화시키고 그에 비례해서 부인의 잔소리도 더욱 심해져서 결국 두 사람의 신경파기를 일으켜 그들의 인생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다.

「정권의 유지」라는 목표물을 위해서 헌법을 몇 차례씩 뜯어 고치고 「우의」「마의」까지를 동원시켜「민의」를 가장하고 「완장부대」나 「삼인조」나, 「무더기표」나, 「울빼미식」「피아노식 개표」나, 후세의 전설이 될 만한「부정한 방법」을 되풀이 하다가 의로운 학생들의 항거에 총탄을 퍼붓던 자유당말기의 독재는 바로「생쥐」의 실험에서 보는 고착반응과 다를 것이 없다. 그들은 정권의 유지가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서 독재와 「정치적 사기」라는 비 민주적 반응양식에 고착되어 결국은 민족앞에 천추의 죄인이 되어야할 파국을 자초한 셈이다.

그 외에도 노자의 관계, 군축을 예워 쥔 강대국가간의 회담 등, 반응양식의 고착에서 오는 인간관계의 비극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고착반응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 2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온갖 과정의 원인이 되는 반응양식의 고착이라는 현상은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소위 제도적지둔(Institutional lag)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제도」란 말은 사

—그 착된 방편에 부끄럼  
과감한 개 혁에—  
**정권과 인간**

★공군중위 임희섭  
林燾燮  
11전비근무



## 채송아

박남수(朴南秀)

세상에 가장 작은 꽃나무가  
땡볕 쬘는 정오에 꽃을 피웠다.  
아침 이슬에 눈을 여는 꽃이다  
저녁 무렵에 밤을 향해 피는 꽃이야 많지만  
이 조그만 채송아가  
명주필의 매끄러운 살결에  
물먹은 빨강, 물먹은 노랑, 아직 마르지 않은 빛갈로  
조그만 형상을 달고 있다.  
햇볕 아래가 아니면 타지 않는 생명을 연소하기 위하여  
양지에 불을 달은 청춘이여  
조그만 조그만 채송아여

회화에서는 『집단적 행동의 어떤 조직된 유형으로서 특정한 문화의 기초적 부분으로 인정된 것』이다. 인간은 불가피하게 자기들의 정력과 활동을 다소간 그들이 소속하고 있는 사회적집단을 통하여 일정한 행동의 유형으로 조직하도록 되어 있다. 어떤 사회적 제도의 존재는 곧 대다수의 사람이 그러한 행동유형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제도는 그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일정한 행동유형에 따라, 행동하도록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며 사람들은 그 유형에서 이탈된 행동(Deviant action)을 함으로써 오는 불안감을 피하기 위하여 대체로 사회적 제도에 동조(Conform)하게 된다. 그리고 제도에 있어서의 특유한 사실은 사람이 한번 거기에 습관이 되면 그들은 자기들의 제도만이 무엇을 할 때에 있어서의 정당하고 적절한 유일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곧 자연법, 이성, 그리고 신의 의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 결과로 사회제도는 완만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그 존재의 필요가 없어진 훨씬 뒤에까지 존재하게 되는 일이 있다. 때로는 그 존재가 유해하고 위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기도 하다. 이러한 남아빠진 제도적 습관이나 형식의 존속은 사회학자에 의하여 제도적 지둔 또는 문화적 지둔(cultural lag)이라고 불리워진다. 이 제도적 지둔은 바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가 되고, 때로는

중대한 사회적 비난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벽은 바로 남아빠진 봉건적식의 잔재와 사대주의의 환풍(懷風)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농촌에 가보면 수천년래의 조상때부터의 유지한 영농방법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은가? 과거 정부의 정책과 행정은 과연 정확한 통계자료에 입각한 과학적인 계산과 실천이 뒷받침 하고 있었는가? 우리의 군 내에서는 작전, 교육, 군수, 인사운영, 병력관리, 행정사무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 구태의연한 방법을 되풀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개혁과 새로운 실험이 기도 되어야 할 분야는 없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면서 과거의 낡은 반응양식에의 고착에서 벗어나「뉴아이디어」의 계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 3

사회학자「머튼」(Merton. R. K)에 의하면 인간이 사회제도에 반응하는 양식 즉 적응의 형태는 다섯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로 제도적 방법에 완전히 동조 하는것(conformity), 둘째로 그 제도본래의 문화적 목표에는 동조하면서도 구 방법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innovation), 셋째로 그 제도 본래의 문화적 목표는 어찌됐건 제도의 껍질, 즉 형식만을 고수하는 것 (Ritualism), 넷째로 그 사회의 문화적 목표나 제도적 방법을 다 같이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것(Retreatism), 다섯째로 문화적 목표나 제도적 방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제도를 거부하여 반항하는 것(예를 들어 이성계의 이조창업) 혹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방법을 배격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것(예를 들어 불란서혁명-Rebellion)의 다섯가지 형태다. 이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문화적 목표 및 제도화된 방법에 대한 이상의 다섯가지 적응의 양식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가?

| 적응의 형태  | 문화적<br>일표 | 제도화<br>된방법 |
|---------|-----------|------------|
| 1. 동조   | +         | +          |
| 2. 개혁   | +         | -          |
| 3. 형식주의 | -         | +          |
| 4. 퇴?   | -         | -          |
| 5. 반란   | ±         | ±          |

우리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법을 조건반사적으로 되풀이만 하고 있을 수 없다. 혁명정부는 바야흐로 형식주의와 무시주의를 배격하고 재건과 개혁에 힘찬 거보를 내걸고 있다. 우리에게는「해결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난제들이 주어져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방식에만 고착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개혁을 거듭하여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어나아가야 한다. 인간은 생쥐와는 다르다. 인간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창조적 지력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끊임없는「뉴아이디어」의 계발. 위험과 실험의 정신. 이것이 또한 진정한「뉴프론티어」의 정신일 것이다.

## 내가 사랑하는 생활



중위 박 만 엽  
☆II전비

토요일 오전, 여름 소나기가 기세좋게 쏟아 내리고 간다. 확 달아 오른 활주로 위는 아직도 더운 훈김이 혈떡인다.

보통 땀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리기 마련이지만 이곳 활주로 위에서는 아래서부터 시작한다. 오전 일과를 마치고 숨을 길게 내쉬며 「나」에게로 돌아온다. 빈틈을 내서는 안되는 항공기 정비, 금속성이 귀를 찌르고 배기캐스가 코를 적시노라면 피로는 온몸을 엄습한다. 푸른 하늘을 바로본다. 비 개인 후의 북한산과 백운대는 또 관악산은 유난히 잡힐 듯 가까웁다. 산은 나를 부른다. 쉬어 가라고 이야기 하자고. ....

어느덧 오후가 되면 나는 이미 산중턱을 오르고 있다. 가까운 길을 몇 만장만 걸어가도 짜증이 나고 힘이 드는데 웬일일까? 산을 오르고 골짜기를 타고 능선위에 서면, 힘은 저절로 솟아난다. 갈증 난 목을 개울물에 사슴처럼 몇 번이고 추겨본다. 목통을 타고 내려간 물은 온 전신에 짜릿한 흥분까지를 느끼게 한다. 숲을 헤치고 이끼 낀 바위 위를 여울을 건너가는 사이에 어느덧 산향은 가까워 온다. 주변을 둘러보지만 아무도 없다. 카메라. 삼만분의일, 지도. 콤포스. 야영을 위한 작은 배낭. 그 속에 몇끼의 식량. 이것이면 나의, 이것이면 나의 주말은 대자연속에서 안락할 수가 있다. 대자연은 약한 심령의 어머니이고 고독한 자의 안식처이다. 누구에게도 밝혀지지 않은 태고적 이야기 자연의 서사시, 바람, 세소리, 별테소리, 시냇물소리가 바로 교향곡이다. 생활이랍시고, 타고난 성격에 배웠다는 취꼬리만한 지식. 그것을 무기로 휘두르고 살던 나를 자연은 기어코 벌거벗기고 만다. 나는 선하고 인자할 수 있게 된다. 『에덴』의 인조처럼 산은 정복하는 것이라고 남들은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저 오르는 것이다. 오르는 것만이 그 진미다. 군무에 시간을 얻기란 좀처럼 힘들다. 그런데도 휴가고 주말이면 주머니와 상의를 한다. 이것은 내 습관이 되고 말았다. 계획이란 일년에 한 두번 그 외는 닥치는대로 떠난다. 좀 무리를 해서라도. 여행, 답사, 등 산, 이를 겸한 남한의 명승고적의 탐방. 이것은 어느덧 나의 가장 사랑하는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다.



## 나의 초년병 시절

후라이보이

곽 규 석(郭圭錫)

누구나 초년병시절에는 군무에 분주다망 하였겠지만, 나도 역시 군악대에 입대하여 초년병시절부터 제대 할 때까지 군악연주출동과 대외적인 일로 타부대의 초년병과는 달리 분주다망 했다. 군악대에 입대하니 나와 공군정훈음악대 시절의 동료들이 벌써 고급하사관으로 복

무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부대장의 위치에도 앉아 있어서 마음 든든하기는 했었지만 한편 계급의 차이가 심해 옛 우정이 깨여지거나 없을까 걱정도 들었다. 아무리 친우지만 군대는 어디까지나 계급이 말한다. 물론 사적으로는 옛 친구이지만 공적으로는 일개 신입대원이라 내무생활부터가 달랐다. 처음에는 언어쓰기부터가 어색하였다. 개인대개인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서로 막말까지 하고 지내왔지만 탄대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는 상급자에 대한 경어를 써왔었다. 이것이 나의 초년병 시절의 한 가지 고통이기도 했다. 특히 군악대는 군기가 엄했다.

원래 기술 하사관으로 입대하였지만 워낙 악기에는 소질이 없고 성악을 전공한 탓으로 나에게서는 일정한 포지션도 없었고 영어회화와 말주변이 좋다는 이유로 연주회때 사회를 맡아 보라 했다. 입대하기 전에도 정훈음악대시절에 사회를 본 경험이 있어 군악연주출동때마다 사회를 담당하였다.

우리 군악대에서는 군악을 많이 연주하였지만 주로 듣기 어려운 크라썹 음악연주도 많이하여 좋아하는 장병들도 있었지만 개중에는 하품만 하고 앉아 있는 장병도 눈에 띄어 분위기를 부드럽게하기 위해 사회중 유모러스한 이야기를 많이 섞어가며, 즉흥적인 코메디도 하였다. 사실 현재의 나의 위치로 이때부터 쌓기 시작한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연주를 하니 음악을 연주하는 우리 대원이나 듣는 장병들도 지루한 줄 모르고 똑같이 호흡을 하며 즐거운 연주회를 갖게 되었다. 이런 후부터는 공군에 괴물이 나타난다고 기빠들 하며 공군에서 콕하사라면 모르는 장병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내 자신이 유명하다고 운운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지만 사실이 그러했고, 이후부터는 각 부대를 순회연주출동수가 찾아져 몹시도 분주히 출동명령을 받았다. 내가 군악대에 입대할 당시 대원 중에는 경음악을 훌륭히 연주하는 jazzband도 있었지만 대장임이 어찌나 경음악을 무시하는지 대외적인 활동은 못 하고 대내에서 모여 취미 정도로 연주하는 것을 들었다.

## 칸나와 호박꽃

글·그림 김영주(金榮注)

뜰앞 장독대 옆에 피어있는 칸나가 팔월의 태양아래 불게타고 있다. 탐스럽고 붉은「칸나」!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노라면 집어 삼킬듯한 그 정열에 심취할 수 있어 삼복더위에 지쳐버린 내 마음은 어느덧 머나 먼 산과 바다로 달리고 있다.

진정 뽀뽀이 떠나 보고 싶은 심회가 새로워 진다.

방만스럽고 고고함이 의지로 뭉쳐진듯 침묵하고 있는 믿음직한 산!

변덕스러운 장난꾸러기처럼 늑실거리는 파도 이랑마다 푸른 전설과 꿈이 깃들어 있는 정열과 낭만의 바다!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생리를 지닌 듯, 산과 바다는 신비로움이 있나 보다.

더위를 잊게 해줄 산과 바다로 가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기에 앞서 허구한 날을 책상머리에 앉아 서필과 싸워야할 신세가 과연 행복인가조차 나는 알지 못한다. 허지만 녹슬어 가는 인생이어든 저 「칸나」

모냥 솟구치는 정열과 욕망을 조용히 불태워 버리기에는 여름이란 이름의 계절이 너무나 무덤고 길다. 인간의 두뇌가 창작해낸 문명의 이기를 찬미하고 있는 동안 오묘하고도 신비로운 대자연의 섭리는 인생에게 얼마나 많은 변모를 가져다주었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은 우주의 진리를 잉태한 모체가 자연이기에 인간은 자연에서 배우고 또 이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인 지언정 거역할 수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기에 인생의 희비애락도 하늘이 주는 모양인 가보다.

여름이 오면 생각나는 일이 있다.

싸리문을 살며시 열고 순박한 시골 소녀의 발랄한 얼굴이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물동이를 이고 울타리를 돌아간다. 울타리에는 간밤의 이슬을 땀땀 머금고 병긋이 웃는 노오란 호박 꽃들이 아침 햇빛에 눈부시게 탐스럽다. 소녀는 꽃송이를 어루만져 보는 듯하더니 이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 얼마나 한국적이며, 정서어린 아름다운 풍경이겠는가?

칸나」와 호박꽃, 마치 인생의 얼룩처럼 대조되는 점이 없지도 않다.

내 자신도 순수 음악을 전공하였지만 레디오나 레코드에서 들려오는 켄트 음악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경쾌한 리듬은 우리 군대생활을 하는 장병들에게 들려주면 얼마나 큰 위안이 될까하고 경음악을 증오하는 대장에게 군악대에서는 정식으로 대외적으로 켄트 음악을 연주할 것을 간접적이거나 건의 해보았다. 그러나 그다지 신통한 대답을 얻지 못하던 중 우리 공군참모임들과 미 공군고문관들과의 연회석상의 경음악악단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때부터 정식으로「켄트밴드」를 조직하여 연주를 하여 대 환영을 받아 대장임도 몹시 만족했던 모양이다. 그 후로는 일사인조 그랜밀러 스타일의 수잉 밴드가 활개치기 시작하여 각 기지의 연주활동에 나갔고 나도 마네져 겸 사회 그리고 Jazz song 까지 부르는 초년병이 되었다. 그 중 제일 우리 켄트밴드를 가장 환영해주던 분들이 빨간 마후라의 일선 조종사들이었다. 우리는 쉴 사이 없이 연주활동을 했다. 심지어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까지 스윙음악을 연주하였다.

물론 군악연주도 하였지만 이부푸로에는 으레히 켄트 밴드의 연주를 하여 가는 곳마다 많은 환영을 받았다. 특히 삼군군악연주회때에는 우리 공군에서는 재미있는 사회의 켄트 음악으로 타군군악대보다 이채로운 푸로그램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다.

쓰다 보니 군악대 자랑만 늘어놓은 것 같은데 그 반면 나에게서는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 언제나 새로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신곡 악보가 필요했다. 이럴때 마다 찾아간 곳이 미8군군악대와 Special service section 이었다. 시간있는 대로 찾아가 그들과 친분을 맺고 새로운 악보를 구하기에





노방했고, 하다못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필요한 약기부속까지 얻어오고 쓰다남은 패기까지 얻어와 부대에서는 서양거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슴깊이 사무친 일은 강릉 전투비행단의 연주회 때의 일이다.

서로가 오래간만에 만나 우리를 반겨하던 조종사 ○명이 우리가 사병위안연주회당시 악(惡)기류관계로 순직을 하여 그 뉴스를 듣고 차마 소리가 나지않아 연주를 중지하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대구에서 어느 비오는 날 사랑하는 대구아가씨와 우산을 받고 가다 헌병에게 끌려간 일도 있어 스타일을 완전히 꾸긴 일도 있었고 군풍기강조주간때 계급장을 핀으로 꽃았다는 이유로 영창에 24시간 구류당한 일도 있었다. 꺾하사 얼굴이 넓은 탓인지 영창에서도 선임입창자들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아 호강하고 나왔다. 이것은 나의 초년병시절애기이다. 초년병시절에는 우리 부대에서는 연령이 많은 편이라 동료들이나 선임자로부터 대우도 받았지만 단체 기합에는 용서할 여지없이 호된 기합도 많이 받았다. 이거야 군대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 또 내가 제일 기뻐던 일은 계급특진을 하여 까다로운 영문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게 되던 때였다.

여하튼 이와 같이 초년병시절부터 제대할 무렵까지 만 4개년 동안에 연주출동은 천문학적인 수자이고 그 동안에 수집한 신곡 악보만도 5백곡을 넘었다. 군악대에 남겨 놓은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나의 자랑이기도 하다. 제대한지 7개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공군을 만나면 나의 집안 식구를 만난 것 같이 반갑고 우리 집안에서만 공군출신이 세 명이나 된다. 나 후라이보이에게는 언제나 공군과 같이 호흡하며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 일생에 잊혀지지 않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공군이다.

『남의 농담이나 점잖은 즐거움을 무시무시하고 까닭모를 억압이란 것으로 바뀌버리고, 사랑의 근저에 관악을 우아 가운데 악의를, 자녀로서의 애정가운데 근친상간을 관대한 행위 가운데 비행을 각각 들추어 내 보이고서는 게다가 아버지에게 대해서 아들이 억압된 증오를 품고 있는 것은 정당한 인간의 유전이다』고 했을 때, 심리학의 문외한에게는 프로이드가 인류사상상 가장 홍취를 깨뜨린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이드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전적으로 달라지게 된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1950년에 44살로서 최초의 주저인 〈꿈의 해석〉을 내고 거기에 심리학에 있어서 그의 기본적인 관찰과 개념의 거의 전부를 들어 내었다.

이 보다 초기의 저술인〈히스테리의 연구〉에서 이미 그는『성적불안이 신경증 및 정신신경병의 병원학에 필수인 요소이다』고 밝혔던 것인데 이것은 정신분석 이론의 기초의 하나이다. 그 후 수년간 그 저항, 추이, 유아기성욕, 불유쾌한 기억과. 유상과의 관계, 방위기제 및 억압 등의 개념을 만들어 냈다. 그는 정신병학과 정신분석학을 구별하고, 정신분석은 신경적, 정신적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개인의 치료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적응되지 않는 개인이 생기는 것을 현대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착란의 징후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커다란 공적 중의 하나는 무의식의 발견이다. 사람의 마음을 병산에 비기면서 그 9분의 8은 물속에 들어 있다고, 즉 의식의 태반은 무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는 보고 있다.

그 덮혀진 표면아래에 개인이 남에게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알지 못하도록 숨겨두고 있는 동기, 감정, 의지가 있다. 그의 심리학에 있어서는 무의식이 최고의 존재이고, 의식작용은 부차적인 지위에 끌어 내려져 있다. 프로이드는 개인의 정신활동을 세계의 단계로 분해하는데 그 셋은 이드(ID)-쾌락 동기에 따라서 구하는 무의식적 정신 에네르기의 원천, 본능적 충동과 자아(Ego)와 초아(Super-ego)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이드」로「이드」의 영역은 우리의 개성 가운데서 어둡고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부분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근소한 지식은 꿈의 연구와 신경증적 징후의 형성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다」고 말한다.「이드」는 「동물적인 과거에 뿌리박고 있는 원시적, 본능과 충동의 중심이고 본래가 동물적이고 성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의식적이다. 「이드」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 체질 속에, 고정된 것 일절을 포함한다.』또 맹목적이며 무자비하고, 그 유일의 목적은 욕망과 쾌락의 충족에 있다. 토마스·만의 말처럼『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선 악도, 도덕도 아는바가 없다.』새로 태어난 유아는 『이드』의 체현이다.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따라서 차츰 「이드」

에서「자아」가 발전한다. 순전히 쾌락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고,「자아」는 현실원칙에 따라서 지배된다.「자아」는 그것을 둘러 싸고있는 외계를 느끼고 있으며 「이드」의 무법스러운 경향은 사회의 법칙과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억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자아는 「이드」의 터무니없는 요구와 외계의 제어와의 사이에 있는』 조정자이다. 그런 까닭에「자아」는「이드」의 충동의 검열자로서의 소임을 맡아하며, 현실의 상황에도 적응시키고 징벌을 피하는 것 혹은 자아보존이라는 것도 모두 이러한 억압 역할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아와「이드」와의 갈등 속에서 개인의 성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신경증이 발전되는 것이다. 끝으로 정신활동과정의 제 삼의 요소인「초아」가 있다. 이것은 크게 정의해보면 양심이라 말할 수 있다. 이「이드」와「자아」와「초아」가 잘 조화되어 있을 때 개인은 정상적이며, 행복하다. 그러나 만일「자아」가「이드」에게 이 법칙을 깨뜨리는 것을 허락한다면「초아」는 고민, 죄악감, 그 밖의 양심의 발현을 보게 된다.「이드」의 모든 충동은 그가 '말하는 리비도(Libido)라는 정신적 에네르기의 형을 취해서 발현하는데 일절의 인간의 문화적 업적 즉 예술, 법률, 종교 등등은 이 Libido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꿈은 억압된 원망의 ‘ 변형된 달성』이며 『항상 내적 갈등의 산물』이며, 『수안의 보호자』이기도 하다. 꿈의 세계는 무의식 「이드」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으며,「자아」와「초아」의 검열을 벗어나기 위해 명료하지 않은 상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예컨대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이름의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할는지 모르며, 또 차 시간표의 혼돈으로 기차를 놓치고 말았다면 그것은 원래가 그 기차를 타기를 원치 않은 것을 뜻한다.

집의 입구의 열쇠를 잊었거나, 집에다 두고 온 남편의 경우 가정에서 불행하거나 아니면 집에 돌아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착오를 연구함으로써 정신분석학자는 무의식의 미로 속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1939년 9월에 구두담으로 죽은 프로이드에 대해 어떤 학자는 평하기를『과거 60년의 변화와 발전은 하등 프로이드의 업적, 또는 영향을 경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무의식의 영역을 열어 놓았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해서 거기에 도달하는가를 보여 주었다. 그의 착상과 개념의 대다수는 그 후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 후계자들에게 의해 수정되었지만 그들이 정신병학을 위한 신약을 썼다면 프로이드는 구약을 썼던 것이다. 그의 업적은 기본으로 남을 것이다』고 했다.

(오 병 수)

지그문·프로이드  
꿈의 해석  
Sigmund Freud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 <세계를 움직인 책들 ⑨>

「상대성이론은 그 저자에 의해서 수학적 언어로 제시되었고,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는 그 이외는 다른 어떤 용어으로써도 표현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이론을 통속어로 번역해 보려는 어떠한 시도 속에도 반드시 몇 가지의 추측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베에토벤의 제5교향악을 섹스포온만 가지고서 해석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조오지·W·그레이는 말했으나, 아인슈타인의 우주의 특색의 일부만은 암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수세기에 걸쳐서 공고히 확립 되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환상적인 세계이고 「범인이 소화하기에는 괴상한 음식」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믿을 수 없는 개념을 우리들은 받아들이도록 요구된다. 즉 공간은 구부러져 있다. 이점 간의 최단거리는 직선이 아니다. 우주는 유한하면서도 한계가 없다. 평행선은 굽기야는 마주친다. 광선은 휘어져 있다. 시간은 상대적이고 모든 장소에서 일정하게 측정되지 않는다. 길이의 측정치는 속도에 따라서 변화한다.

우주는 구상이 아니고 원통형이다. 운동하는 물체는 크기는 줄어 들지만 질량은 증가한다. 누구나 다 아는 넓이, 길이, 높이라는 세 개의 차원이외에 제4차원-시간-이 덧붙여진다. 아인슈타인 혁명은<운동하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관하여>라고 하는 30면의 논문이 독일 의 한 잡지<물리학연보>에 발표 되었던 1905년에 시작되었다. 그의 나이 26세때의 일이다. 이 논문에서 종전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 물질과 에너지를의 개념에 대한 도전문이라고 할 특수 상대성 이론을 공표하였던 것이다. 이론의 기초는 2개의 근본적인 가정위에 세워져 있다.

첫째는「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상대성 원리>이다. 그 원리의 주지된 실례는 움직이고 있는 배 또는 열차이다. 창을 어둡게 한 열차의 승객은 조금도 동요가 없으며, 속도감이나 방향 감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아마도 열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운동을 상대적으로-즉 다른 물체와 관련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크게 말하면 비교의 대상이 될 만한 천체가 없으면, 지구의 운동도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빛의 속도는 광원의 운동과는 무관계하다」는 것이다. 매초 30만킬로미터의 광속은 우주의 어느 곳에서도 장소, 시간, 방향과는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를테면 빛은 달라고 있는 열차 내에서는 열차 바깥에서와 똑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다. 어떠한 힘도 빛을 빠르게 할 수 없고 느리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전자가 그것과 거의 근사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어떠한 것이라도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실제로 빛은 전자연계에서 유일의 일정 불변의 것이다. 의심할 것도 없이 아인슈타인의 개념 가운데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전통적인 신조에 대해 가장 큰 동요를 끼쳤던 것은 아마도 시간과

상대성일 것이다. 한 사람의 관측자에 의해서 상이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두 현상은 제일의 관측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다른 관측자에게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그는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이 광속이상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면 상대성이론에 의해서 인간은 그 과거를 도로 찾을 수 있으며, 그의 탄생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운동하는 유성은 모두 제각기 시간의 체계를 갖고 있으며,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은 느껴질 것이다.

우리 들은 모든 물리적대상이 세 개의 차원을 갖고 있다는 사상에 젖어 있지만 시간도 역시 공간의 차원이며, 공간은 시간의 차원이라고 아인슈타인은 주장한다. 시간과 공간은 상호의존하며, 항상 변화와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우리들은 시간을 제4의 차원으로 하는 4차원의 우주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물체의 길이나 질량도 속도에 따라 다르게 된다. 광속의 5분의 4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길이 천피트의 기차는 그 속의 승객에게는 천피트 그대로지만 정지하고 있는 관측자가 이 열차의 통과를 주시하는 경우 600피드로 줄었을 것이다. 1미터의 막대기를 매초 26만 킬로 미터의 속도로 날게 한다면 그 막대기는 50센치미터로 줄어 들고 말 것이다.

지심의 자전은 그 원주를 약 8센치미터나 감소시키는 기묘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 질량도 변화한다. 속도의 증가에 따라서 물질의 질량은 커진다. 광속의 86%로까지 빠르게 한 물질입자는 정지하고 있을 때의 2배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실험이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원자 에너지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그가 제기 한 E=mc<sup>2</sup> 이라는 이 공식은 세계사를 구분 짓는 역할까지 했다. 그 의미는 에너지는 질량 X 광속 X 광속과 같다는 것이다. 만알 반(半)푼드의 물질중의 에너지를 전부 이용할 수 있다면 TNT 700만 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리 하여 원자시대는 막을 올린 것이다. 그는 특수 상대성이론을 발전시켜 후년에 중력장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일반상대성 원리를 수립하고 천체의 제현상을 풀어내었다. 그러나 버트란드·러셀의 말처럼 「아인슈타인이 무엇인 가 놀라운 일을 성취 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가 성취한 것이 무엇이였는가 아는 이가 극히 드물다.」아인슈타인의 우주론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12명밖에 있지 않다고도 말해질 정도이다. 그런대로 그가 발전시킨 이론은 평평적인 것이며, 그의 업적은 바넷슈. 호프만이 결론하고 있듯 「모든 시대를 통해서 진실로 위대한 과학자들 사이에다 그를 자리 잡게 하며, 곧 뉴턴 및 아르키메데스와 같은 자리에 앉혀 놓을 만한 불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그리하여 「20세기의 물리학은 어디를 보더라도 천재 아인슈타인의 지을 수 없는 각인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알버트·아인슈타인 저

### 상대성이론

## 명작영화 지상감상 뉴른베르그 재판

Judgment at Nurnberg



이 영화를 만든 크레이마 감독은 관객에게 생각할 만드는데 이다. 뉴른베르그 재판도 이러한 생각하 는 영화로서 제시되고 있다. 문제에서 관객으로 하여금 생각하

1948년, 나치의 발상지인 뉴른베르그에서 열린 독일 전쟁범죄인 재판에서는 게링이나 쾰팅스등 A급 전범자가 재판되었지만 이 영화는 이같은 A급 재판이 끝나고 B급 전범자를 재판하는데 관련된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 4명의 피고를 재판하는 이 영화는 A급을 재판하는 것과 다른 의미로서 여러 가지 의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의 주역은 재판장인<헤이 웃드>재판장이 되어 있다. 재판장을 주인공으로하는 영화란 거의 없다.

이 재판을 끝내고 고향인 미국의 시골로 돌아온 <다니엘.헤이웃드>는 그 재판의 회상기를 썼는데 이 책이 당장에 베스트 셀러가 되고<아바·만>이 TV드라마로 만들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다. 여기에 착안한 <그레이마>가<아비·만>에게 영화각본을 의뢰하였다. TV전 영화 이권 이것이 연극인 확손이 가해져 있음은 물론이다.

영화의 휘스트 씬은 스펜서·트레시가 분장한 헤이웃드 판사가 뉴른베르그 비행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8 개월 동안의 재판을 마치고 판사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비행장으로 향하는 차에 오르는 씬이 라스트가 된다. 즉, 헤이웃드판사가 뉴른베르그를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후에 판결을 내린다- 이것을 기록적인 수법으로 묘사한 것으로. 영사시간은 3시간 40분이 걸리나 평론가들은 조금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흥미와 감동으로 끝까지 볼 수가 있었다는 평이다.

헤이웃드판사역의 트레시는 조금도 분장을 하지 않았다. 주름 살로 구겨진 트레시의 연기는 어디서나, 훌륭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더욱 빛을 낸다. 정녕 그가 아니고는 헤이웃드라는 판사역을 그처럼 멋있게 해낼 배우는 없을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평범한 시골 재판소의 판사인 다니엘 헤이웃드 상처하고 홀아비 생활을 하는 다니엘·헤이웃드- 정치적 압력에도 결코 굽힐줄 모르고「재판은 정의」라는 신념을 관철하는 재판관 헤이웃드 뉴른베르그의 독일인도 미국의 산골짜기의 미국인도 사람으로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헤이웃드- 교수형이 된 독일의 어느 장군의 아내로서 귀족출신의 아름다운 미망인에 존경과 애정을 느끼며 유럽의 전통의 잔조(殘照)와 여운(餘韻)에 약한 아메리카인 헤이웃 드- 등등 이러한 헤이웃드판사의 성격과 심경과 생활과 신념이 보통 얼굴 그대로 연기하는 트레시에 의해서 남김없이 정확히 부각된다.이 헤이웃드역은 매우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재판관으로서 정의와 신념의 인격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풍부한 표현력을 가진 연기가 아니고서는 실패하기 쉽다. 더욱이 법정장면은 판사는 가만히 앉아서 듣는 자의 역할이므로 보여 줄 만한 연기는 없다. 검사와 변호인 그리고 피고의 연기 장소이다. 감독은 이 3자를 크로즈·오프로 엮는 사이에 트레시의 구겨진 심각한 얼굴을 크로즈·오프 해주므로서 법정은 엄숙한 분위기로 보여주는데 성공하고 있다. 법정의 주인공은 재판장이며 재판은 재판장의 책임하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긍정케 하는 트레시의 마스크의 위대함을 여지없이 보여주며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식의 법복에 비해서도 오히려 엄숙한 재판장의 마스크가 더 위엄을 보여주는데 낫다는 점을 보여 주기도 한다.

변호사역으로 맥시미리안·셀을 등장시켰다. 그는 탁월한 체스추어와 격렬한 변론을 전개하여 관객의 시선을 모은다. 헤이웃드는 평범한 시골 출신의 노골 판사인데 비하여 로루프 변호사는 세계적인 법률학자 야닝의 제자이며 젊은 수재 변호사로 등장한다. 실제의 로루프 변호사는 경험이 많은 장년의 대가였다고 알려져 있다. 로오렌스·오리베리와 후랑크·시나트라가 이 로루프 변호사역을 자원했으나 30세의「헨삼」청년배우 셀을 선택한 것은 프로듀서 로서의 크레이머의 탁월한 눈을 증명했다 할 것이다.

피고의 한사람이 되어있는 은사 야닝을 무죄로 하기 위하여 열변을 토하는 젊은 법학자 로루프·변호사로서 일거에 이름을 날려 보려는 청년 변호사 로루프·피도 눈물도 없는 검찰관을 보기 좋게 물리치고자 열변을 토하는 젊은 로루프 자신을 잃고 풀이 죽어 앉아 있는 은사 야닝



의 심경이 이해 안되는 로루프는 그러나 게르만 혼에 불타고 있다.

이 영화는 상영시간 194분 중 130분이 법정씬이다. 그러면서도 이 법정씬은 영화 이상의 씬을 보여준다. 완전히 헤이우드 재판장이 되어 버린 트레시, 완전히 로루프변호사가 되어버린 그의 평생의 연기록, 장래의 연 기록까지 미리 이 로루프에 쏟아 넣는 것처럼 정렬적인 심각미를 발휘하여 격렬하게 검찰관에 대어든다. 그의 열변은 정말 그가 온사 야당을 구출 하려는양 넘치는 기백을 폭발하여 하나의 장관이라는 것이다. 그런 가하면 한편으로는 물을 끼 었은 듯 조용한 어조로서 사람의 가슴을 파고든다. 이 애로큐슨은 센의 단정한 헨섬 마스크의 매력이 기묘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평자들은 말하고 있다.

법정 씬은 카메라 앵글을 특이하게 설정하고 있다. 로루프를 중심으로 파노라믹하게 회전시켜 피고석, 재판장 석, 로루프, 검찰관을 돌아서는 다시 로루프로 돌아와서 셀로 하여금 영웅으로 만들어 낸다. 이 씬에서 센의 마스크는 앞, 뒤, 옆 할 것 없이 여러모로 나타나는데 모두가 성공하고 있다.

나치의 사법상 야당은 버어드·랑 카스타—다. 그는 세심한 분장으로 등장한다. 그는 피고석에 앉아서 거의 말이 없다. 쏘는 눈동자, 다문 입이 말이 없이 연기 효과를 요구하고 있다. 몽고메리·크리프는 나치에 의해서 단종(斷種) 수술을 강요당한 정신 박약자로 등장한다. 그는 침착성을 잃은 제스처어으로써 정신 박약자를 리얼 리틱하게 성공한다. 검찰관의 로으슨은 리차드·워드마크다. 그는 검찰관으로서 정치적 압력으로 최후까지 분투하지만, 보람을 얻지 못하는 역할을 끝까지 멋있게 해낸다.

야당외에 3명의 전쟁범죄자는 모두가 특이한 마스크를 가지고 있다. 누가 보아도 변질자로 보이면서 영화가 크라이막스에 가까워지면 효과를 발휘한다. 나치를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한 제작자의 의도일 것이다.

마레네·디이트리트가 늙은 미망 인으로 등장한다. 주름살 하나 없는 그의 분장은 오히려 괴물처럼 보이는 것이니 크래에마(감독)가 구라과의 귀족을 현대의 괴물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하나의 익살이 있기도 한다.

문제는 이 영화가 뉴른베르그재판을 어떻게 결론 짓는가이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는 처음에 말한 그대로 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결론은 내릴 망정 전 인류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우(?)는 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 ◇줄거리

끝으로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차대전 후 뉴른베르그에서 독일 전범의 재판이 개시되고 있었다. 이미 나치의 수뇌부재판은 끝나고 사람들의 관심도 희박해졌지만 이번의 재판은 나치에 참획한 법률학자를 재판하는 것으로 걸보기에는 흥미없는 재판이 있으나 내용은 광신적인 1급 전범의 구경거리 재판보다도 깊은 의미와 문제가 잠겨있는 재판이었다. 미국 메인주의 시골에서 오랫동안 판사직에 있던 다니엘 ·헤이우드가 재판장으로 임명되었다. 피고 4명은 모두가 나치정권의 재판관이고 그 중 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법률학자 에른스트·야닝 전 사법상이었다.

검사 로오슨대령은 히틀러에 영향하여 법률을 개혁하르으로써 국민을 공포속에 집어넣어 학대한 책임을 준렬히 규탄한다. 이에 대하여 야당을 존경하는 그의 제자 독일인인 로루프는 격렬히 반박하여 그에게 죄가 있다면 전 독일국민이 죄인이 될 것이며 야당이 사법상에 앉은 것은 나치 정권의 횡포한 법률을 가로막아 국민을 그 횡포에서 다소라도 구하자는 뜻에서였다고 주장한다.

우생법(優生法)의 회생이 되어 단종을 당한 피타아손은 검찰관측의 증인으로 등장하나 로루프의 반대심문에 의해서 유전적인 정신박약자로 전복되고 문제의 우생법도 나치 독특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채용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 유태인으로 부터 호감을 샀다는 이유로 처형된 이레네·호프만도 검찰관측의 증인으로 등장되었으나 검찰관이 제시한 포로수용소의 기록영화로서 도리어 반증되고 말았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이미 냉전의 정조가 보여져 독일인 의심증을 좋게 하기 위하여 미국의 고관으로부터 재판의 판결에 압력이 가해져 왔다. 헤이우드판사는 감연히 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의외로 생각될 만큼 준엄한 판결이 1949년 7월 14일 하오에 내려졌다. 단지 한사람,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야닝만이 헤이우드를 재판관으로서 태도를 격찬하는 것이다.

(1961년도 작품)

#### ◇제주도 곳에 따라

노(魯)나라에 베로 신을 잘 찌는 사람이 있었다. 또 그의 아내는 관에 소용되는 흰 비단을 잘 찌는 여자였다. 어느때 이 내외는 남방 월나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나섰다.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네들이 그 곳에 가면 반듯이 가난할 것이요.」 「어째서 그렇소?」

「베로 만든 신은 발에 신는 것이요. 그런데 월나라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요. 비단 관은 머리에 쓰는 것이는데 월나라 사람들은 맨머리로 다니요. 그러므로 그곳에는 그러한 제주도 소용이 없지 않겠소?」

## 까짓것이즘

## 의 병폐와 그 해소책

-인간개조론에 부쳐서-

군내현상논문  
입선가작

소령 김 병 로(金 秉 老)

★교재창

오랜 세월을 두고 이 나라를 통치하여온 소위 양반들의 행패는 종당이 양 같이 유순한 백성들의 「얼」에 굴직굴직이 얼룩을 지어 놓았다. 양반뿐이 아니라 시세의 추이에 따라 거침 없이 밀려닥치는 외세의 농간 또한 약하다 약한 이 민족을 굴욕의 구렁텅이로 함입시키고 말았다.

만것은 말고라도 이조오백년사를 별견하고 가까이 왜치 삼십유여년간의 천황을 회고할 적에 오늘과 같은 형상으로 결과한 이 민족성의 소종래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무거운 돌밑의 풀이 돌의 중압으로 인해서 아주 기형적인 성장을 하듯이 외세와 양반에게 눌린 민족의 천성도 점차 비틀어지고 꾸부러지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민족성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이 무거운 중역에서 풀려야 했던 것이다.

서상한 관점에서 본다면 8·15의 해방은 의당이 민족성의 발육에 일대 전환기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당위성과는 무한 사태만이 전개되는 가운데 16년이란 귀중한 시간이 흐르고 말았다. 당초에 이렇다할 훈련도 준비도 없는 이 민족에게 주어진 해방이란 진귀한 선물은 혼란과 더불 어서로 뜯고, 할퀴고, 저미고하는 싸움의 계기가 되었고 박래의 경박한 풍조와 퇴폐한 사조가 침식하는 기연이 되었다. 저마다 지도자요, 너와 나면 정당인데, 나라꼴이 될 턱이 없고, 남의 것을 무턱대고 훔내 내노라 황새 걸음을 하니 무엇이든 배겨날 도리가 있었겠는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못처럼 돌의 중압에서 벗어났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맑은 공기와 자애로운 태양빛을 흡수해서 남과 같이 자연스럽게 자랄 자세를 갖춰야지 추태가 웬 말이나 말이다.

정부수입으로 약간 정신을 돌리려는 계제에는 6 ·25가 터졌고, 적비와의 전운 3년은 전쟁외의 모든 일이 정체되지 않을 수 없었던 시기였다. 휴전 후 4·19까지의 6년 유여는 자유당의 망발로 잃어진 시간이었고, 민주당의 집정 1년은 자유당의 전철에 무능을 합쳐서 밟은 숙맥 같고 위험천만한 시기였다.

이렇듯 이 민족은 등에 업혀서 못살게 짓누르든 역력에서 벗어났음에도 자연스럽고 생생하게 자랄 수 있는 민족고유의 철학을 형성하기는커녕 여전히 혼돈과, 착종과 암흑 속을 분류하면서 16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물론 미미하게나마 구석구석 민족의 정기가 꿈틀거리고, 특히 6·25를 통하여 가룩한 뜻들이 시현되지 않은 배 아니지만이 모든 것이 권력과 금력앞에서 용을 쓰지 못했다.

혁명정부가「인간개조」를 외쳤을 때 모두 공감하고 동조한 것은 그것이「참」이었기 때문이었다. 입때까지 구석에서 그늘에서만 부담(浮沈)하든「참」이 눈부신 각광을 받고 그 모습을 뿔뿔이 들어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곡을 얻은 판단이나 시책이 그대로 환영되는 세상을 우리는 비로소 만난 셈이었다.

「인간개조」는 과연 긴급한 이 민족의 지상과제이다. 혁명이 이제 제3단계에 돌입하였고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활발히 그 실천과정에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걸으로 들어난 성과에만 만족하기 전에 아직도 효기리이즘이 운위되어야 하는 우리의 내적 동향을 직시하여야 할 줄 안다. 효기리이즘이 상존하는 이 민족의 병적인 성격의 뉴앙스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민족성의 저류를 이루고 있던 해묵은 독소가 그렇게 단 시일내에 해소될 수는 없다. 개인이 영위하는 어려운 일의 결과가 국가적으론 손실이 될지라도 자기개인에게만 패익한다면 서슴참고 단행할 사람이 우리에게 주변에서 근절된 것은 아니며, 천재를 당했지만 당국의 구호의 손길이 뻗치니까 기화로

스스로 회복할 사념에서 멀어지는 사례가 엄존하는 현실에서「인간개조」란 과제는 상급도 우리에게 어떤 거리감을 주고 있는 것 같다.

필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이 민족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까짓것」이란 관념과 그것이 내포한 독소를 해소하는데서 얻어 볼까 한다.

「까짓것」이란 말은 우리가 일상 가볍게 그리고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쓰는 말이지만, 이 말은 확실히 이 민족성의 병적인 부면을 개괄충칭하는 것 같다.

방임과, 회피와, 적당주의와, 무료와, 무사는 어긋난 처지에서 허덕이든 민족에게 것들 수 있는 제2천성이면서 우리는 이의 표현을 까짓것이란 말로 해 왔다.

「까짓것 내버려둬!」

방임이다.

「까짓것 안 할테야!」

회피이다.

「까짓것 될 때로 되겠지!」

적당주의.

「까짓것 아무것두 싫어!」

무료다.

「까짓것 그렇게까지 할 것 없어!」

무사주의다.

이렇게 예시하자면 번노할 지경이지만 「까짓것」이란 관념은 우리네 마음속 깊이 뿌리를 박고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 들고 있다. 가공할 독소가 아닐 수 없다.

「인간개조」에 못지 않게 간접침략을 분쇄하자는 문제가 크로즈엮되고 있지만 이 문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까짓것」의 독소를 해소할 적에 비로소 완전히 해결된다고 본다. 「까짓것」의 독소가 없어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입때까지 세상사를 무조건 백안시하고, 의의 없는 것으로만 보든 눈이「까짓것」의 독소가 없어지면서부터 아무리 적은 일 이라도 뜻이 불고 신중하게 되고, 정력을 경주하게 되니 틈이 있어야 침략이 들어 올게 아닌가?

「까짓것」독소의 해소는 이 민족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따라서 장래할 모든 행복을 위해 필연코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본론에 이 문제를 논하기로 한다.

「까짓것」의 독소를 해소시키는 방안을 사명감과 자제력 두 가지로 논해 본다.

## 1. 사명감

먼저 한 가지의 예를 들겠다.

노아대홍수때의 이야기이다. 방주에 있던 노아가 밖의 소식이 하도 궁금해서 가뒀든 날짐승 중에서 가마귀란 놈을 밖으로 날려 보냈다. 물론 밖의 소식을 가져오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가마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홍수때에 죽어서 떠다니는 썩은 시체들을 섭렵하기에 바쁜 가마귀는 주인인 노아의 목적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따위는 까맣게 잊고 말았다. 오늘은 이 시체 내일은 저 시체로 전전하면서 썩은 맛에만 도취되어 있었다. 노아는 기다리다 못해 가마귀를 단념하고 이번엔 비둘기를 보냈다. 비둘기는 앓을 곳이 없었든지 곧 돌아왔다. 그리고 7일후에 다시 보냈을 땐 지체 없이 갑납나무잎 사귀 하나를 물고 돌아왔다. 노아는 물이 들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였다.

이 예화에서 취할 것은 물론 가마귀와 비둘기의 사명감의 차이이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가마귀를 추하고, 썩은 것을 좋아하고, 호전적이고, 떠들기 좋아하는 날짐승으로 생각하고, 비둘기는 정결 코, 슬기롭고, 책임감이 왕성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로 간주하지만 그런 그들의 천성이나 외양을 생각키 전에 우리는 두 동물의 이 예화에서 취한 사명감을 검토해야 할 줄 안다.

가마귀는 질식할 것만 같은 방주에서 놓이는 순간부터 벌써 사명따위에서는 멀리 떠나 있었다. 자유롭게 시체를 전전하는 생활이상을 생각지도 않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달랐다. 사명감에서 시종한 비둘기의 행동은 가마귀의 그것과는 전혀 그 류가 달랐다.

인간의 생활도 크게 봐서 이런 두가지 유형으로 갈리우지 않는가 생각한다.

썩은 고기를 즐기는 유형? 우리네 주변에 얼마든지 많다. 혁명정부에서 그 토록 내핍생활을 강조하지만 아직도 밤이란 장막이 내리기만 하면 그 그늘을 방패삼아서 못하는 것이 없다. 환락가마다 술이 넘치고 퇴폐한 노래와 율락녀들의 교성이 불협화음을 이루는 가운데 밤이 깊어간다. 튀어나온 배를 안고 유들스러운 얼굴로 까마귀모양 밤의 거리에 군림하는 육괴들이 그곳에서 무슨 술수를 꾸미는지 불분가지이다.

얼마 전 부정경관들이 파면을 알리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4·19때 5·16때에 부정을 행한 자의 향로를 똑똑히 보여주었는데도 술선해서 부정을 막아야 할 경관들이 아직 이 모양인가 해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민족의 양심을 억누르고 있는 이 부정예의 탐심은 어느 세월이나 자취를 감출는지... 허나 우리의 주변에는 결코 썩은 고기의 추종자만이 서식하는 게 아니란 사실에서 우리는 낙망해서는 못 쓴다. 비둘기처럼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다.

결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썩은 고기의 유혹을 분연히 뿌리치고 삼순구식의 곤경을 극복하면서 조지를 지켜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연면히 흐르는 이 문명의 참된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열악의 생활을 본체 않고 꾸준히 연구에 몰두한 사람도 있다. 모름직이 현하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문명은 이런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정인 줄로 알며 이들에게 의해서 문화의 흐름이 우리네 세대를 통과한 자국이 남게 되리라 확신한다.

## 소녀상

고 은(高 銀)

1

네 이름을 잊어버렸구나.

나는 늙어서 웃는다.

한 다발의 봉선화 꽃을 보아도,

꽃물드린 손톱에

내 손이 부끄러웠던 옛날,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 당장에는 쓸쓸하고 무미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는 민족과 거리를 초월해서 공명하고 동조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참”일때 저 아프리카의 정글속에서 또는 뉴욕의 변화를 극한 도심지에서 우리에게 공명하고 동조하는 자가 있다고 믿어서 틀림 없으리라.

얼마전 세계를 비등시킨 뉴스의 주인공 그렌중령의 10회나 연기되었든 우정7호가 지구의 궤도를 향해 발사되는 순간 미국시민은 길가든 여인네는 길가에 쪼구리고 앉아 함장기도를 올리고 남자들은 걸음을 멈추고 모자를 벗고 숙연히 머리를 숙였는가 하면 집회소에 있던 남녀들은 모두 동작을 멈추고 눈물이 글썽이 고인 눈으로 서로를 한참씩 쳐다보았다는 신문보도를 읽었다. 미국시민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떤 판곳에서도 이 순간만은 숙연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으리라 믿어진다. 웬가? 사명을 수행키 위해 생명을 도하고 결연히 우주비행을 떠나는 인간 그렌의 숭고한 정신에 감복되어서이다. 이것은 누가 시킨다고 한 일이 아니요. 인간심정의 자연발로요「숭고한 정신」에 대한 적나라한 인간자세이다. 때문에 무궁한 값어치를 내포한다. 우리들이 모두 지실하다 싶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위인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무릎 꿇고 함장기도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다. 만약 있었다면 그것은 강요에서였을 것이다.

조국과 원 자유세계의 영예를 어깨에 지고 우주개척의 선행자로서 생명을 도한 장도였기에 남을 끌어앉힐 힘이 유로된 것이다. 아마 그 장엄을 극한 순간에는 그렌중령 자신도 비할 데 없는 비장한 심경이 되었으리라 추측된다. 까짓것,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한번 해보자 식의 적당한 생각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적당히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주변에 궁그르는 한 톨의 돌도 길가의 한 포기의 풀도 결코 적당히로 봐 넘겨서는 안 된다. 그렌중령의 경우처럼 사명이란 게 어마어마할 수도 있지만 아주 적은 사명도 있을 수 있다.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말이 있지만 적은 사명을 수치 못하는 사람이 보다 큰 사명을 수한다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새삼스러이 재검토하고 상찰해서 아무리 근소한 일이라도 적당히나 까짓것으로 해법하는 일없도록 해야겠다.

이상으로 사명의 숭고함을 개술한 셈이지만 그럼 그토록 숭고한 우리네 사명을 여전히 발견하고 또 실천하느냐의 문제를 이제부터 간략히 논해야겠다. 또 예를 하나 들자.

다섯살짜리 만득독자를 재워놓고 옆에서 신문을 뒤적이든 노경의 아버지가 신문을 밀어놓고 자는 아들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도 귀여워서였다. 한참 장난치다 잠든 아인이지라 얼굴엔 얼룩이를 그리고 코언저리에는 질펀히 코가 나와 번져 있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깨물고 싶도록 귀엽기만 했다. 그런데 갑자기 애가 벌렁 일어나 앉지 않는가? 기겁을 하면서 아버지는 아이를



오늘 네 몸의 울음에 물들었구나.  
 이다지도 새로운 얼굴의 거울 속이었을까.  
 나는 아쉽고, 비는 맺고 바람이 분다.  
 네 귀밑의 숨털들이 떨리는 것  
 내 모른다. 나는 떠나야 하고  
 너의 아지랑이와 같이 우는 부끄러움,  
 나는 모르고 떠나야 한다.

2

나는 돌아와서 있다.  
 이제 떠나지 않고 저 저녁 구름을 바라보고 뗏새들이 잘 때 잠이 든다.  
 너는 어디로 가서 홀로 말하느냐,  
 내 목은 재채기에 잠을 깨이고 흐르는 이름, 흐르는 이름,  
 어둠 속에서 너와 나의 숨이 닿느냐.

들어 안았다. 아이는 부산히 눈을 부본다 꿈에서 놀랜 모양이라 여기고 아버지는 안도의 숨을 내 쉬었다 아버지는 어느새 아들과 농을 치고 싶도록 마음이 녹여졌다. 그래서 빠르게 눈을 뜨는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 눈은 왜 있는지 아니?」

의외라는듯 아버지를 반히 치켜보든 아들이 생각났다는 듯이 하는 대답, 「뜰라구!」

아버지도 아들의 의외의 답변에 놀랐다. 그리고 또 한번 묻고 싶었다. 「그럼, 코는 왜 있지?」

「뜰라구!」

이번엔 아들은 대뜸 이렇게 답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불쑥 하는 답이 신기해서 아들의 코를 문득 살폈다. 물론 누런 코가 드나고 있더라는 이야기이다. 하찮은 우화의 한 토막이지만 여기서는 다섯살짜리의 애교로 웃어만 넘길 수가 없다. 얼핏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사명을 바르게 깨닫기란 그리 용이하지가 못하다.

눈이 보기 위해 있어야지 단지 뜨기 위해 있다면 어긋난 판단일 것이요, 코도 냄새를 맡기 위 있어야지 코 풀기 위해 있다고 인식하면 빗나간 판단인 것이다. 우리는 늘 지성인임을 자처하고, 옳은 판단에서 행동한다고 자부하지만 자신사명을 그릇 판단하는 수도 있다. 만약 코를 풀기 위해 있다는 판단으로 코의 사명을 그릇 인식하고 콧구멍을 막아 두었다가 풀 때만 연다면 그 사람은 냄새라는 것을 모르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사명애다 준용해 본다면 그 가공할 결과에 모골이 소연해질 것이다. 썩은 시체를 쫓는 일이 진정한 사명인 줄 알고 그를 위해 노력한다면 역류에 주행하는 것으로 노심만 했지 무공일 것이며 그 보다는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악의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런 사람은 썩은 고기를 그것인 줄 알면서 쫓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필자는 사람은 자기를 부단히 천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적나라한 자신을 파지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을 다시 한번 훑아 볼 때 상상외로 크낙한 비밀이 두터운 베일을 쓰고 묻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격이다. 또 오늘까지 해맑든 마음이 밤 사이에 구름이 아니 낀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부단히 헤집어야 자아를 옹게 판단할 것이며 자아를 옹게 파악해야지 자신의 사명을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의 신체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래도 뭔가 해야же끔 생겼지 가만히 있게 되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지지를 모르고 맹목으로 움직이고 썩은 고기를 섭렵한다면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팔다리 무진한 보고처럼 캐기만 하면 얼마든지 지혜가湧출하는 두뇌정열에 팔딱이는 심장 등 일할 준비는 늘 갖춰져 있는 데 과연 무엇을 할꼬?

옹게 사명을 자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방법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상술했지만 부단히 자신을 천착하면서 환경과 입지조건은 물론 종횡으로의 사적고찰까지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일을 발견한다. 사명을 발견한다

다음, 이렇게 해서 일단 사명이 결정되면 모든 기회와 여건이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동원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가 삶을 영위하노라면 기복이 없을 수 없겠지만, 우리의 위가 건전할 적에 어떤 음식이든 잘 소화해서 완전무결한 배설물을 내듯이, 우리의 생활도 건전히 영위하므로써 모든 기회를 포착 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온갖 기회가 사명을 위해 바쳐지는 생활! 여기는 틈이 없다. 틈이 없는 생활에「까짓것」의 독소는 기식치 못한다. 우리는 현재 군인이란 신분에 있지만 자신의 뚜렷한 사명감만 있다면 아무리 고되고 지난한 환경이라도 수월히 넘을 수가 있을 것이며 자신에게 유익하고, 국가에 유익할 수 있는 병영생활이 되리라고 본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을 수하는 한 과정으로서의 군인생활에 권태도 환멸도 개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까짓것 다음 달은 제대할 텐데!」로 적당히 소일은 안 된다. 엄연한 인격으로서의 개체가 상관이 무서워서만 일한다는 건 더 없을 수치가 아닌가?

## 2, 자제력

우선 예화 하나를 들고 본론으로 들어 가기로 한다.

미국의 어떤 대학경내에 우거진 숲이 있었다. 이 숲속에 많은 다람쥐가 살았는데 어느 때부터가 학생들이 던져주곤 한 과자나부랭에 맛이 붙어서 다람쥐들은 그만 자활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되었다. 나무에 아무리 많은 열매가 맺혀도 그것을 따먹기보다 학생들이 던져주는 과자를 기다렸다. 불로소득에 맛을 붙인 셈이었다. 학생들에겐 큰 짐이 아닐 수 없었다. 돈도 돈이었지만 방학 때도 당번이 남아야했기 때문이었다. 하여간 다람쥐들은 학생들의 품에 안겨서 제답지 않게 비굴한 애교를 떨게 되었다.

주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부에 대해선 대고한 자신이 없지만 자체(Selfcontrol)를 논하는데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아 들었다.

다람쥐 뿐만 아니라 우리네 인간들도 불로소득 즉 공짜는 무던히 받힌다. 특히 우리 민족은 그러하다는 뜻에서 공짜이면은 양젓물도 먹는다는 속담까지 있지만 이 이야기에 비위가 거슬린 사람도 꼼꼼이 생각하면 자신의 어느 한 구석에 그런 관념이 있음을 부인치 못 하리라 생각된다. 민족으로 따지더라도 우리 민족만이 더하다는 척도는 아무데도 없는 것이다.

세상에 유혹이 많지만 공짜의 매력 이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도 적으리라. 우리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이나 써커스단의 야수 따위도 따지고 보면 공짜의 매력 때문에 자제력을 잃고, 그 생활수단을 송두리째 사람에게 판 징글맞은 아첨꾼들이다. 소나 말 그리고 사자나 벌 같은 등치가 등직한 것들이 공짜에 길들어서 천부의 야성에서 떠나 유들스럽게 인간의 학중에서 농간당하는 것을 볼 때에 대견함도 신기한 느낌도 모두 사라진다.

사람도 한가지이다. 자기를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고, 잠산초 모양 바람의 방향 따라 흔들리는 사람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딴 것은 말고 구정권하에서 알랑거리든 관료배들의 소행만을 보드래도 이 민족의 근성에 아첨하는 본성이 적잖이 깃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그렇게도 자기의 속아지를 속속들이 남에게 바칠 수 있을까 싶게 그네들은 상전에게 굴신아첨했다. 바치다 모자라면 거짓말로라도 상전의 보비위를 하려들던 그네들이 아침은 세계무대에 내놓아서 조금도 손색이 없으리라 여겨진다. 물론 이들의 말로가 어디로 귀착되었냐는 지실의 사실이요 그네들의 인격은 타기할 것이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이런 경제적 사례만으로 이런 문제가 발본색원되겠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4·19와 5·16 두차례의 혁명이 그렇게도 민족정기를 다잡혔는데도 아직 우리의 주변에는 자기를 파는 자가 있다 자기의 일절을 남의 수중에 넘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다. 비근한 예로서 우리들 출퇴근자들이 퇴근시에 과당히 주고 받는 막걸리 타령에 그만 미혹되어서 자체를 잃고 늦은 밤거리를 취태로 추태를 부리는 일이 곧 그 일종이다. 하루의 스케줄 없는 막걸리추념으로 나섰다는 사실이 벌써 자기를 유혹자에게 판 것이요, 대포 한잔이 수 십잔이 되어서 곤드레가 되는 것도 창녀보다 못한 추한 행동이다. 자기를 술 에다 팔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창녀는 천시할 줄 알지만 그보다 몇 갑절이나 더 추한 자제력을 잃은 인간 즉 자기를 파는 인간은 천시할 줄 모른다. 아니 도리어 자기를 팔아 영달한 인간을 선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언어도단은 예다 쓰라고 만든 말이라.

물론 창녀도 추하다. 허나 그녀들은 육체는 팔망정 자기(정신)는 팔지 않을 수가 있다. 육체보다도 자신은 송두리째의 자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더 중하지 않을까?

자제란 힘들다. 그러나 자체 없이 제구실은 못한다. 동물이건 인간이건.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자기가 조종하기 위해 심혈을 경주해야 한다. 자체는 말의 뜻대로 자신만이 할 수 있다. 사명에 부합되지 않는 일은 자체하는 것 이 당연할 것이다.

혁명은 이제 제3단계에 돌입했다. 기술했지만 혁명 후 짧은 시일에 성취한 업적은 실로 막중하다하겠다. 허나 앞으로 할 일이 더욱 많고 또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들 인간의 힘을 기다리기 때문에 초미의 급선무는 인간의 올바른 자세인 것이다. 이것 없이 어떤 일도 제대로 성취될 수 없었기에 본론에서는 까짓것 이즘의 병폐를 논하고 또 그 독소의 해소책을 제시해서 인간개조의 기운에 자하고자 했다.

간접침략을 막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리에 수행하여 이 나라의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라면 우리는 사명감에 불타고 자기통제에 열을 내어 틈 없이 짜여진 생활로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는 길만이 『참』이요, 공명 받을 길이며 당면과제에 부응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끝)

## 린드버그의 성공 -항공발달사⑥-



K · 나 이 트

1927년 여름은 세계항공사상 위대한 전환기의 하나가 되었다. 울티상 비행의 성과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으며 대서양 단신행단의 성공은 미국의 자랑꺼리가 되었다.

찰스·린드버그가 밤 하늘을 타고 파리에 내렸을 때만큼 미국사람들을 광적인 환희로 들끓게 한적은 없었다. 키가 크고 서글서글한 이 젊은이가 캘리포니아주 썬디에고에서 뉴욕으로 날아왔을 때 출발준비를 거의 끝내고 있던 다른 참가자들은 그의 존재를 아주 잊었을 정도였다. 그는 육군에서 비행훈련을 받은 다음 항공편 수송에 종사한 일이 있었으며 낙하산 강하를 몇차례 한 경험도 있었다고 하나 걱정가로서 아무리 보아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미숙한 비행사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참가 비행사들은 모두가 자기자신들 문제에 골몰하고 있었고 린드버그 자신도 사고성이 없는 사람이었다. 신문은 과묵하다는 말 이외에 그를 형용할 적당한 말을 찾아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해 봄 2월, 3월, 4월은 이 경쟁에 승리를 거두는데 알맞은 때라고 들 전망하였다. 북극비행을 해치웠으며 조직적인 재능이 풍부한 바드 중령은 특제의 횃카 삼발기에 최신식 설비를 만재하고 조종사 두사람 정비사 한사람 거기다 자기자신도 항공사로서 탑승한다고 하는 성공에 의심할 여지없는 계획을 세웠다. 경험이 풍부한 해군비행사 노엘·데이비스와 H·S·우스터도 미국연대라고 이름지은 다발 키스톤형 복엽기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대기하고 있었다. 횃크도 새로운 비행기로 다시한번 비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쿠라렌스·첸바렌은 강인한 배랑가기를 가지고 벨트·아고스타와 공동 시험비행에서 체공 51시간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다. 단발인 「스피리트·오브·센트루이스」나 린드버그는 이와같은 화려한 천군만마의 명비행사들과 그들 애기 앞에서는 극히 희미한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라이트 형제가 초기의 많은 곤란과 싸워서 드디어 그것들을 극복한 것과 같은 불요불굴의 정신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돈은 없어도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마음씨와 꾸준히 세부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열성으로써 한눈도 팔지 않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전심하고 있었다. 거의 매일같은 쉼트루이스—시카고 사이의 우편수송으로 그는 겨울철의 악천후에도 거리낌 없이 이 비행하여 불시착이나 종종 일어나는 기계고장을 아무스럼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혼자서 캄캄 한 밤하늘을 나를때도 많았는데 그러 한때는 냉정하게 잡념도 없이 자기의 장래를 생각하고는 하였는데 비행사 생활을 그만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는 그에게 있어 흡사히 최초의 글라이더를 건조하기 까지의 라이트 형제의 오랜 세월의 준비시대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결행할 것을 굳게 결심한다음 변통성없는 쉼트루이스의 실업가들이나 은행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비행을 위한 원조를 부탁하였던 것인데 그의 생각하는거나 계산이 상당히 간결하고 요령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린드버그를 신뢰하여 15000불을 꾸어주었을뿐 아니라 그의 계획에 대하여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계획목적에 가장 적당한 것은 단발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비행기를 썬디에고의 라이안 항공기회사에다 한대를 주문하였다 도중에 착륙하는것 같은 것이 아주 불가능한 장거리 도양 횃단비행에서는 전방시계를 희생하더라도 굉장히 큰 연료 탱크를 조종석 전방에 장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는 라이트제 성형엔진이 3, 600마일 거리를 비행중에 소비할 개소린의 양을 면밀히 계산하여 사전에 엔진의 적정한 소비량을 계정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중요시하고 있던 무선기나 분도기 안락장비같은 부속품에 관해서는 아주 생각조차 안하였다.

비행기가 라이안사의 설계기사 도날드·홀의 열성적인 협력 아래 만들어지고 있는 사이에 린드버그는 그 당시 얻을 수 있는 온갖 자료 문헌을 찾아 항법을 충분히 공부하였다. 그가 만든 대서양 횃단 대권공로에 흥미를 가졌던 근처 해군항공기지 장교들은 부정기항공의 조종사였던

이 청년을 초청해서 아직 실제로 비행은 하지 않았지만 독창적인 비행 계획을 설명하는 강연회를 가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동안 동해안에 있었던 몇 조의 경쟁자들의 출발이 머지않았음을 알리기 시작하였기때문에 린드버그의 출발이 그들보과 늦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많았다. 그러나 잘 실행되리라고 생각하던 모든 계획은 그 뒤 연달은 사고나 동료들끼리의 불화로 중단되기 시작하였다. 버지니아에서 시험비행을 하고 있던 아메리칸·리존호는 추락되어 데이비스와 우스터는 한몫 죽었다. 바든의 횃카기도 첫 번째 시험비행에서 대파하여 바드 중령도 팔이 붙어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후로이드베니트는 바든의 보조조종사였는데 이 사고로 무선기사와 더불어 중상을 입었다. 횃크의 비행기는 폭발사고로 없어졌다. 콜럼비아호로 나를 예정이었던 첸발렌과 찰스·레바인은 보조조종사와 항공사를 몰색하다가 뜻이 맞지를 않아 헤어졌다.

뒤늦게 경쟁에 참가한 노련한 불란서의 사루루·난제셀과 후란쑈아·코리 두사람이 조종하는 백조기는 뉴욕을 향해서 파리를 출발하여 구라파대륙을 벗어난 직후에 소식이 끊어진채 그후 드디어 영원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린드버그가 캘리포니아에서 쉼트루이스에 들림으로써 대륙횃단 신기록을 수립하기까지 대체로 비행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은 바드가 조종하는 콜럼비아호 뿐이었다. 더구나 대서양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서 언제 개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린드버그는 카티스 비행장 격납고 속에 애기를 집어넣고 한번만 단시간 나른 다음 나침반을 검사하고 손수 라이트·엔진 회사의 도움으로 발동기의 마지막 분해조제를 하였다. 그는 주위 사람들과 거의 말을 거는 일이 없었는데 그의 신상을 생각해서의 무모한 비행을 중지하도록 설득한 사람도 있었다.

드디어 미국 관상대의 제임스·킹볼 박사로부터 대서양의 천후가 호전되었다고 전해지고 5월20일 아침부터 겨우 안개가 개이기 시작하였다.

린드버그는 이 기회에 염원의 비행을 결행할 결의를 굳게 하였다. 연료를 만재하고 한숨도자지 않은채「스피리트·오브·센트루이스」에 탑승한 린드버그는 물에 찬 비행장을 용약 출발하여 먼동이 틀 무렵 가랑비 나리는 속을 사라져 갔다.

홀륭한 선견지명과 기술에다 행운도 도와서 그가 정비한 엔진의 컨디슨은 33시간에 걸친 전 비행 중 순조로웠고 비행계획대로 비행을 계속하였다. 이룩한 지 12시간만에 미국대륙의 최후의 지점 뉴펀드랜드 섬의 센트존 상공을 통과하여 그야말로 예정대로의 코스로 구라파에 기수를 들렸다.

북대서양은 최악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산페미 같은 구름과 짙은 안개 때문에 비행기는 높은 고도로 나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밤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었다고 그는 후일 술회 하고 있다.



린드버그는 어선을 발견하고 있는 힘을 대해서 불러보았으나 아무 응답도 없었다.





첼발렌이 애용한 베랑카제의 콜럼비아호

수마와 싸우면서 이따금씩 수통물로 입을 적시며 졸음이 오는 것을 피하고자 식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18시간 후에는 대서양 한복판에 도달하여 짙은 안개속에서 맹목비행을 계속 하였다. 28시간을 경과하였을 무렵 그는 어설픈 척을 발견하여 그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하면서「아일랜드는 어느 방향이냐」고 물었으나 응답이 없었다. 32시간이 경과한 후 그는 영 불해협을 횡단하여 드디어 불란서에 도달한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구라파 대륙을 보았던 것이다. 앞으로 한 시간이면 파리에 도착한다고 해서 나머지 연료를 염려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는 샌드위치 봉지를 펼쳤다. 이 지루하고 괴로운 비행 중 최초의 식사였던 것이다. 파라핀 포장지를 조종석 창문으로 버리려고 하다가. 그는「샌드위치 포장지가 나의 최초의 불란서에 대한 접촉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자 그것을 조종석 한쪽구석에 뚝뚝 문쳐서 끼어 놓았던 것이다.

탐조동의 도움을 받아 불지지에공항에 착륙한 순간 이제까지 외로운 심정이 날아가버릴 만한 열광적인 환영에 휩싸였다. 그의 도착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은 열광해서 그와 비행기 주위로 쇄도하였다. 그들은 감격한 나머지 비행기를 부술 정도로 흥분되어 있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파리 착륙의 뉴우스를 들었을 때의 기분은 라이트 형제의 최초의 비행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일반 시민에서부터 고급 항공전문가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무명청년이 계획대로 완전하게 이 곤란한 비행을 해치운데 대하여 그저 놀랄 뿐이었다.

이렇게 린드버그가 성공한 다음 용장한 대양횡단비행이 몇번이고 행해졌으나 그때처럼의 감격과 흥분을 불러 일으키지는 못하였다. 난제 셀과 코리의 희생을 마지막으로 대서양 횡단비행에는 이미 그와 같은 참사는 자취를 감추었다.

첼발렌의 비행계획은 드디어 레비안이 콜럼비아호의 보조조종사가 될 것에 동의하여 겨우 집안싸움이 끝났다.

그러나 첼발렌은 단독으로 횡단비행을 해서 성공을 거두어 독일땅 아이레스벤의 발에 착륙하여 2주일전에 린드버그가 수립한 비행기록보다 300마일이나 더 비행한 기록을 남겼다.

한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에 많은 차질을 일으켰던 바드의 아메리카호에 의한 비행이 감행되었다. 바드와 아고스타 두 사람이 조종하고 보조조종사인 번트·바루헨과 무선기사 조지·노빌이. 탑승한 아메리카호는 대서양상에서 최악의 천후에 부딪쳤는데 그것은 육지상공에 들어서서도 계속되었다. 이 악천후는 파리를 완전히 물바다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웃의 여러 나라도 대부분을 물바다로 만들었던 것이다.

탑승원들은 안전한 착륙장소를 찾아 호우속을 얼마 안 남은 연료를 걱정하면서 헤메었으며 심상치 않은 소리를 내고있는 3대의 엔진에 신경을 쓰면서 비행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바루헨은 비행기를 산더미 같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위에 성공적으로 착수시켜 탑승원 네사람은 고무보트를 타고 놀만디 해안에 다달았다.

그 때는 일반의 관심이 구라파에 집중된 형편이었기 때문에 육군의 횡카기가 6월28일에 캘리포니아 주 오오크랜드에서 하와이까지 무착륙비행을 하였으나 바드가 대서양 횡단 비행중이기도 하여 전혀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하와이에의 해양횡단거리는 린드버그나 바드 또는 첼발렌의 양상 비행거리 보다도 길었을 뿐 아니라 태평양상의 하나의 적은 지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구라파 대륙을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우수한 항법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2주일 후 민란조종사인 어네스트·스미스는 항공사인 에모리·부론테와 더불어 소형 단엽기 트라베랄호로써 같은 비행을 하였으나 도착하였을 때는 해안에 있었던 몇그루 나무 너머로 간신히 착륙 할만한 연료밖에는 남기지 못하였다.

태평양횡단비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파인애플 왕이라고 불리우는 큰 부호 제임스·들은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의 비행경쟁에 15, 000불과 10, 000불의 두개 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비행은 도중에 섬이 없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무착륙 횡단비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현상경기에 16명의 응모자가 있었으며 아홉 사람의 남자와 한사람의 여교사가 여기에 참가하여 생명을 잃었다.

참가비행사들 가운데는 기술적으로 미숙한 사람도 있었고 필수장비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황해서 참가예정자들 가운데서 여덟 사람을 출발 중지 시켰다. 이 경쟁은 8월16일에 일제히 출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경기였다.

1번기는 이륙하자마자 축전지고장으로 되돌아 왔다. 2번기는 이륙할 때 이미 대파되고 3번기는 짐을 너무 실었기 때문에 이륙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4대만이 출발하여 금문교를

넘어서서 열은 안개 속을 사라져 갔다. 아트·고벨과 윌리엄·데이비스가 탄 우라룻크호와 마틴젠센과 폴·슈루터 대위의 아로하호 두 대만이 무사히 하와이에 도착하여 상금을 획득하였다. 다른 두 대는 소식불명이 된 채 오랫동안 수색이 계속되었으나 파편조차 발견할 수가 없었다.

실은 아로하호도 자칫 잘못하였으면 행방불명이 될 뻔하였다. 젠센은 항법에는 아직 백지였기 때문에 안내역으로서 슈루터 대위를 고용하였던 것이다. 이 해군대위는 비행기와 간편한 항공관측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체나 추측으로 비행하고 육분의에만 의존하는 형편이었다. 추정으로서는 육지가 보여야 할 새벽녘이 되어도 전연 육지가 보이지 않고 가도 끝없는 바다뿐이었다. 연료탱크 배후의 기체 뒷 편에 있는 거추장스런 좌석에서 그는「육분의로 정오의 태양 고도를 측정할 때까지는 틀렸어!」라고 젠센을 향해서 소리쳤다. 조종사는 서서히 내려가는 연료계의 바늘을 바라다보며 한군데를 선회면서 슈루터가 비행기의 위치를 측정하여 나침반에 따라 나를 수 있는 11시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었다. 그들이 호이라 비행장에 착륙하였을 때는 한잔 정도의 연료가 남았을 뿐이었다.

1착을 노린 여러가지 시도에서 몸소 체험한 가장 귀중한 것은 완전한 준비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장비나 기술과 인쇄심이였다. 이것이 없이 장거리비행을 한다는 것은 상금이나 자기의 이름이 신문에 크게 실려지는 것에 아무리 매력을 느낀다 하더라도 실로 바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사실이 제시되어도 일착의 영예를 얻으려는 욕망은 비행사들 마음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았다. 파란 많은 1927년 말까지 또 하나 세계일주비행을 꿈꾸는 데 박차를 가한 장거리비행이 시도되었다. 윌리엄·부룩크와 슈레이 두 사람이 조종하는 스티븐제 데트로이드호는 크게 떠들지도 않고 특히 이렇다 할 선전도 없이 대서양을 날라 구라파 대륙과 아세아를 횡단해서 동경에 도착하였다. 소형기의 태평양 횡단을 미친 수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의 압력으로 태평양의 횡단비행은 단념하였으나 그 때까지 12, 295마일을 날랐던 것이다. 1931년이 되자 크라이드·팜본과 휴·한돈 두 사람이 같은 정도의 규모의 비행기로 이륙 후 차를 버린 채 일본에서 위싱턴주 웨거키를 향해서 날랐다. 그리고 북쪽으로 시베리아 연해와 아류산 열도를 지나 아라스카를 거쳐 무착륙비행을 한 끝에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하였다.

넓고 끝없는 바다와 수천마일이나 떨어진 작은 섬 이외에 중계지도 없는 중부 태평양 횡단에는 정 확하고 완전한 항법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연안 방송국의 무선설비도 그 당시는 불안전하여 비행기용 송신기나 수신기의 기능도 전혀 믿을 만 한 것이 못 되었다.

그러나 젊은 비행사들에게는 다시없는 도전의 해이기도 하였다. 1928년 6월초 오스트라리아 사람인 킹스포드·스미스와 찰스·우름 두사람은 삼발기 남십자성호로 서캐리포니아주 오크랜드에서 지구 의하측에 있는 오스트라리아의 부리스벤까지 비행하였다. 방향측정에는 항공사인 하리·라이안대위와 무선통신사로 있는 제임스·위나의 두 미국사람이 당하여 뒤편 많은 하늘을 계절풍에 까불리면서 비행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도중 하와이와 휘지군도에 들러 8일이나 걸려 전항정을 극복하였다. 그것은 시종 무선으로 지상과 연락하면서 행한 최초의 장거리 비행으로서 후일 장거리 비행의 모범이 되어 민간항공운영에는 빼놓을 수 없는 오늘날의 무선통신 연락시대의 선구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무선기에는 항공기의 발달과 보조를 맞추어 그 당시 부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다.

1929년 11월 바드, 발켄, 해롤드·준, 아슈레이의 네사람은 휘드제 삼발기로 남극상공을 비행하였는데 전세계 사람들은 단파방송으로 이 탐험의 성과를 이미 수분 후에는 알 수가 있었던 것이다.

바드가 사용한 후로이드·베네트기는 휘드회사가 제작한 것으로서 횡카제의 삼발기와 상당히 닮은데가 많았는데 나무와 천으로 된 횡카에 비해서 금속제이며 독일의 설계기사들의 생각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구조에는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후 차차 알미 합금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지주나 철색을 둘러친 복엽기 대신에 두꺼운 날개를 한 단엽기가 판을 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휘드기에 사용된 물결형의 금속 외판은 점차로 반질반질한 평면의 저항이 적은 것으로 바뀌어져서 속도 증가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다.

시대가 발달하여 설계자의 기술이 고도해짐에 따라 기체구조 가운데서 저항이 많은 부분을 적게 하는 경향이 나타나 강착장치를 기체나 날개 안쪽에 집어넣고 이착륙할 때만 끄집어내서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부레이크 역할을 하는 하익이 널리 채용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륜식 대신에 삼륜식 강착장치가 보급되어 이 착륙의 조작이 상당히 용이하게 되었다. 그중에는 엉터리로 무책임한 것도 있었으나 대담하고 참을성 있는데다 과학적 세련을 받은 많은 비행사들은 속도의 향상을 위해서 도전하고 선구자적 활동으로 많은 곤란한 문제 해결에 힘썼다. 그들의 많은 공헌으로 여객수송용 항공기는 크게 개선된 것이 만들어지게 되어 성능도 착실해졌다.

세계의 속도기록은 1923년에 알·윌리엄이 만든 시속 266마일을 비롯해서 그로부터 끊임없이 상승을 계속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1924년에 보네중사가 시속 278마일, 1932년에는 제임스·R·드릿틀이 시속 294마일,

1933년에 제임스·R·웬텔이 시속 304마일, 1934에는 불란서의 레이몬·테루모트가 시속324마일, 하워드·휴스가 1935년에 시속 352마일을 날랐다. 그러나 그 후는 독일이 점차로 진출하여 1937년에 헬만·분스타가 시속 379마일, 1939년에는 후릿츠·벤텔이 시속 469마일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도시간이나 대륙간 혹은 세계일주 같은 장거리를 고속으로 나르는 것이 후랑크·호쿠스, 로 스코·타나, 하워드·휴스같은 사람들과 여류 비행사로는 루스·니콜즈, 아메리아·이아하트, 자크린·코쿠란같은 사람들이 피하는바 되어 기록은 자꾸자꾸 갱신되어 갔다.

세계일주비행은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 1931년에 윌리·포스트는 항공사로 있는 해롤드·갯터와 록키드의 단발기인 위니·메이호로 세계일주를 8일만에 해치워 2년 후에는 포스트 혼자서 먼것번의 기록을 꼭 하루 더 단축한 기록을 세웠다.

1938년에 이르러 하워드·휴즈도 네사람의 탑승원과 함께 록키트 쌍발기로 전향속거리 14, 791마일을 4일도 채 안 걸려 일주 비행을 하고 포스트의 기록을 대폭으로 깨트렸다.

아메리아·이아하트여사가 1928년 월마·쉴쓰루쓰와 더불어 웨투스의 트레팻씨만에서 베리항까지, 또한 1932년에 아일랜드의 런던데리까지 단독으로 횡단 비행을 두번 실시하여 일약 유명해지자 이내 얼마후에는 파리에서 뉴욕에의 최초의 동쪽으로 도는 대서양횡단 비행을 불란서 사람 듀돈누·고스트와 모리스·베론트 두 사람이 감행하여 서향의 맞바람에도 불구하고 37시간만에 뉴욕에 도착하였다.

이보다 앞서 헤루만·케일 대위와 군타·폰·휴누헬트 남작 두 독일사람은 아일랜드 태생의 보조조종사 제임스·윅쓰모리스와 더불어 뉴욕을 향해서 더블린을 출발하였으나 무시무시한 역풍과 안개로 괴로움을 당하던 끝에 고스트가 뉴욕까지 날르는 데 걸린거와 같은 정도의 시간을 허비한 끝에 라부라돌의 구리니 섬에 불시착하여 기체는 대파 되었다.

한편 린드버그는 사람의 눈을 끌지 않는 실용적인 장거리 항공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평장히 견실한 연구적 비행을 항공공업이나 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었다 1927년에서 28년 겨울에 걸쳐 그는 애기 스피리트·오브·센트루이스호로 9000마일 이상이나 날라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여러 섬들을 일주하면서 공중으로부터 이 지역을 조사하였다. 또한 그는 사랑하는 아내 안·모로·린드버그와 같이 록키드 회사제 저익단엽기로 북쪽을 도는 동양행 비행을 하였다. 이들 부부는 카나다 사람들도 살지 않는 황무지 상공을 거쳐 하드슨만을 따라 포인트·바로와 노—무에 이르고 거기서 다시 캄작카 연안을 남하해서 중국과 일본으로 비행하였다. 이와같은 비행을 위시해서 북극양을 횡단하여 영국으로 비행한다던가 서쪽으로 나아가 남아메리카에 이르는 비행 따위로 그는 많은 것을 조사하여 그가 고문으로 있던 판·아메리칸 항공회사에 굉장히 유리한 보고를 갖어 왔다. 극적이었던데 비해서 비교적 눈에 띄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는 1928년 하버트·윌킨스와 칼·벤·아이루손이 행한 아라스카의 포인트·바로에서 부터 스픽츠·베루겐에 이르는 북극횡단비행이 있다.

아이루손은 조용하고 도 빈틈없는 비행사로서 북방비행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카나다나 아라스카의 에스키모들과 섞여서 용감히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행부대의 적인 극지의 특유한 자연의 횡포를 잘알고 있었다. 윌리·포스트와 유명한 유모어 작가였던 윌·로자스 두 사람이 1935년 8월 포인트·바로 근처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극지비행가 단체의 창립위원의 한 사람인 유·쿠릇손은 그들의 시체를 고국으로 공수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미국 항공부대는 1939년부터 4년간 이 북대서양의 돌출부에서 한냉천후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이들 극지비행가들의 대중적이지만 실용적인 비행에 관한 지식이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이 입증되었다.

1930년대의 후반은 상업 항공회사가 적극적으로 노선확장을 꾀한 시기였다. 선구자들이 많은 시험비행을 통해서 개선된 기계가 구입 되었으며 또한 여객의 안락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상 위안설비나 식사의 제공을 개시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신의 무선기를 탑재하기 시작하였다. 미국본토 상공은 간선과 지선으로 된 항공로망이 급격히 발달하였다.

이와같은 항공망의 확대에 대하여 판·아메리카 항공은 당시 여러 외국으로 가는 해외항공로를 전문으로 해서 설립된 미국유일의 항공회사였다. 실제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가는 족족 자가용 무선통신이나 여객설비를 갖추면서 판·아메리카의 선구자들은 중앙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제국까지 남하하는 공로를 연장하고 그것에 반전해서 태평양을 횡단하여 중국에 달하는 공로를 개척하였다. 1935년에는 웨이크, 미드웨이, 괌 및 비올빈을 거쳐 홍콩에 이르는 공로를 설정하여 마틴제의 차이나·쿠릿파호가 정기여객수송을 개시하였다.

이 미국항공회사가 남미행 항공로로 구라파의 항공회사와 경쟁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불란서나 독일은 미국의 우위성에 도전하려고 일어섰다.

1939년 9월 독일군의 포랜드 침입으로 대전이 발발 하였을 때 미국 항공부대에는 두 사람의 우수한 지도자가 있었다.

1938년 오스카·웨스트오바가 비행기 사고로 죽은 후에 헨리·아놀드 대장이 육군항공부대의 사령관이 되고 또한 39년 3월에 존·타워즈 중장이 해군항공부장에 취임하였다. 두 사람이 다 오랫동안 미군 강화를 위해서 애써온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 다

재능이 있는 인물이었다. 전에 밋첼를 비롯한 항공장교들은 미국의 항공 세력은 세계열강의 제5위나 6위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평한 적이 있는데 이와같은 지론은 그다지 미국국방정책에 고려되지 못하였다. 타워즈와 아놀드 두장군은 약체화된 공군력을 빨리 재건하기 위해서 재삼 의회에서 강조한 끝에 인원 및 항공기 정비용 예산을 획득하였다.

미국은 이 약체화된 공군을 급속히 증강하는 데 필요한 요소 즉 자원이나 공장 설비, 기술, 노동력을 갖추고 있 었다. 세계에서 최초로 항공기를 만들고 항공기술을 높은 수준에까지 끄집어 올린 미국시민들은 긴급사태에도 부응해서 다시금 열강의 수준에 달할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 선량한 사람들

◁내가만난잇을수없는군인▷

박 영 준(朴 榮 濬)

1·4 후퇴때 대구서 피난 사리를 하는 동안 나는 공군본부 정훈감실에서 발행하는『코메트』와『창조 다이제스트』의 편집을 맡아본 일이있다.

그래서 정훈관계의 장교는 물론 공군전체의 장병과 꽤 많은 접촉을 할 수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공군 장병은 대부분이 지식층이어서 군대 생활에서도 군대 냄새를 별로 풍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군기가 문란하다는 뜻은 아니다. 군기를 준수하면서도 공군장병들은 인간적인 냄새를 보다 많이 풍긴다는 뜻이다.

당시 정훈감으로 계시던 서중령 현재 정훈감으로 계시는 주대령 그 당시 정훈차감으로 계시던 김경수 교수 그리고 최중령 정대위등 정훈장교들 모두가 모두 교육자적인 인간미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일년 이상 근무를 하는 동안 나는 그들이 부하 장병을 기압 주는 일을 보지 못했다.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때였지만 그들은 장병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문화적인 방법으로 정신적인 뿌리를 튼튼히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 당시 나는 사천 수원 양구 등 전투 비행장예를 가보았다. 당시는 젯트기가 아니라 무스탕으로 전투를 했지만 전투기의 조종사들도 어찌면 그렇게 조용들 한지 몰랐다.

대개 조종사하면 군인 가운데서도 가장 성격이 거친 사람들과라고 말 말한다. 나는 그것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조종사야말로 언제나 위험한 전투를 하기 때문이다. 전투는 고사하고 비행기를 탄다는 것부터가 위험한 일 이니까. 적의 고사포망을 뚫고 적진 위를 날아야한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어떤 군인보다도 조종사가 정신적인 불안을 많이 느낄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자연 거칠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그러나 직접 조종사들을 만났을 때 나는 그렇게도 부드러운 군인들이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당시 대위였던 현재의 P중령 같은 분은 그 때 벌써 수천 시간의 비행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적진 폭격을 몇 차례나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얼굴을 대할 때 그리고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에게서 조종사라기보다 선배와 같은 인상을 받았다. 얼마나 침착하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랐다.

내가 듣기에는 조종사는 위장이 약해지기가 쉽다고 했다. 공기가 희박한 높은 공중을 날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양분을 누구보다도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육체도 쇠약해 보이지 않았다. 다들 건강했다.

조종사의 성격이 거칠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것과 같이 조종사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벨트를 채우고 조종간을 잡으면 그 순간부터 비행기와 한몸이 되어 다른 잡념을 가질 수 없다」고 하던 P중령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자기라고 하는 개성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비행기와 생명을 같이하는 조종사는 언제나 정신적으로 긴장되어 있다. 그 긴장 속에서 조종사들은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정신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나 아닐까 생각한다.

P 중령은 또 말했다.

「전투를 끝내고 진지로 돌아올 때 삼팔선만 넘으면 모든 산천이 다 고향만 같지요. 고향이라는 생각이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

높은 상공에서 고향을 내려다 보며 즐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조종사들로 하여금 영원한 향수의 소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닐지.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란 인간적으로 인간미를 돌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는 마음의 서정을 가질 수 도 있다.

P 중령뿐 아니라 여러 조종사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다. 비행도중 자기 고향 하늘을 날을 때는 그냥 지나가지를 못한다고 즉 저공비행을 하여 몇 바퀴 선회를 하거나 비행기 날개를 흔들며 고향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야 만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멋진 일이며 얼마나 멋진 정신인가?

P중령이 그 뒤 결혼을 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가정 생활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의





## 가을과 9 · 28과 나

박 희 주(朴 喜 柱)

이제 또 구월이 온다—

구월이라면 필경 가을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가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게는 매해 이 가을을 느끼게 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한 슬픈 영상이 되새겨지곤 하는 것 이다.

한 병사의 얼굴—

◇◇

1950년9월28일 이를 테면 9·28의 수복을 나는 서울 정릉 골짜기에서 맞았었다.

그날, 9월28일 새벽—

시내에는 벌써 U. N군이 진주했다는 이야기였지만, 이튿날, 그러니까 9월28일 새벽녘까지도 정릉 골짜기는 적치하였다.

연이어 산을 넘어 날아드는 포탄이 골짜기 골짜기에 작렬했고, 그런 속을 흐트러진 대열의 괴뢰군 패잔병들 이 줄을 이어 퇴각의 행렬을 짓고 있었다.

어렸던 탓이었을 게다, 나는 연거푸 터지는 포탄에의 공포도 있고 산비탈의 한길가에 나가 서서 그들 퇴각의 행렬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지친 얼굴들이었다. 찢어진 흙투성이의 군복에 걸레쪽처럼 너털너털 해진 군화.

모자도 없는 머리는, 몇 번이고 깎질 못해 덩수룩이 훔날리고 있었고, 그에다 양상히 드러난 광대뼈에 쾡하니 파여진 눈망울은 꼭이 해골 그것 이었다.

더구나 그런 얼굴이 햇볕에 그을어 새까맣게 타 있었고, 온 얼굴에서 땀방울이 줄줄이 솟고 있었다.

걸고 있다기 보단 쫓기고 있다는 것이 옳겠지만, 아무튼 그들의 걸음걸이는 허공을 밟는 듯 불안한 것이었고, 금새 풀썩 주저앉을 것만 같은 그런 지쳐빠진 것이었다.

난 신기한 눈으로 그런 지친 행렬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때 었다.

그 대열 속에서 한 병사가 불쑥 내 앞으로 다가왔다.

『애!』

기껏 열 여섯이나 일곱 쯤 되었을까. 붕대로 감은 오른팔을 걸머지고 있었고, 그 붕대 밖으로 검으터한 피가 흥건히 드러나 있었다.



가정생활을 걱정했던 것이다. 비록 인간적으로 탓할데가 없는 P 중령이지만 부인에게 대하여 혹시 과격한 행동이나 하지 않을까 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한 애처가를 본 일 이 없을만큼 그는 부인을 사랑했다. 『오끼나와』같은 먼 곳을 비행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반드시 부인을 데리고 나가 외식을 한다. 부인과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작으나마 선물을 사 준다.

그 뒤 P 중령은 미 공군학교에 가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말을 들었다.

어떤 나라 사람에게도 뒤떨어 짐이없는 우리의 공군이다. 누구보다도 용감한 하늘의 용사지만 그들이 지상에 내린 뒤에는 선량한 군인이요, 선량한 남편인 것이다.

「코메트」를 편집하고 있을 때였다. 「코메트」에 실리기 위하여 당시 공군의 여장교 K 중위와 L소위의 대담회를 가진 일이 있다.

K중위는 지금 제대를 하여 한국 유일의 여류조종사로 활약하고 있지만 L소위는 조종사가 아닌 여자 장교였다.

L소위는 그 대담이 있는 뒤 얼마 안 되어 급서했지만 대담회에서 그 두 여자 장교와 대담을 할 때, 『하늘을 누가 제압하느냐가 전쟁의 승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여성들도 하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어요.』 하던 말을 기억한다.

하늘을 무조건 동경하는 여자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날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여자는 비교적 적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자 장교는 하늘에 대한 정열을 가지고 있었다. 선각자적 존재 같았다.

현재 공군 여자 장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여자들에게 하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정열을 갖게 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높은 공중에서 하늘과 같이 넓은 시야

그을어 새까매진 얼굴이긴 했어도 그 얼굴엔 아직 애똥 티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겁에 질린 눈길을 보내고 있는 내앞으로 다가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애, 너나 물 좀 주렴.』

난 일순 망설였다. 괴뢰 병사에게 물을 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나 난 주리라고 마음먹었다. 행하니, 십리나 파여들어간 그의 눈동자에 서린 애원의 빛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나는 아무런 위험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이었다.

『저기 샘물 있어요』

◇◇

떠주는 맑은 샘물을 정신없이 몇 모 금이고 연거푸 넘기고 난 그는, 물에 서 입을 떼고 잠시 숨을 돌렸다.

『아, 시원하다』

이런 소리에 이내 그는 하늘을 쳐다 보았다. 그 하늘이 까맣게 높았고 그리고 푸르렀다. 가을의 하늘이 었다.

그 순간 얼굴을 일그렸다. 그리고는 걸머진 오른 팔을 안듯하며 주저 앉았다. 격동이 오는 모양이었다.

『애…….』

그의 목소리는 잦아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 마주앉아 그의 얼굴을 들여다 보았다. 안타까운 얼굴이었다.

『나…병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나……?』

병원—

하기는 정릉에도 병원은 있었다.

그러나 병원은 있었어도 약이 없었고, 그리고 의사가 없었다.

나는 그렇게 대답하는 길밖엔 없었다.

『병원은 있지만 의사두 없구 약두 없을 거예요』

그 순간의 그 소년 병사의 얼굴. 나는 그 얼굴을 잊을 길이 없는 것이다. 그토록 실망의 어두운 그늘이 그려지던 그 얼굴을.

그러나 잠시 후, 엄습했던 격동이 사라지자, 그는 일어섰다. 비오듯 하던 포탄도 어느새 멎어 있었다. 그는 내 손을 낚은 한 손으로 잡으며 이야기 했다.

『고맙다. . .』

그리고는 그 지친 다리를 끌고 조그만 오솔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었다. 몇 번이고 파아란 하늘을 쳐다보고 쳐다보고 하며 그리고 이때 난 혼잣말 하듯, 입속에서 중얼거리는 그의 이런 얘길 들었다.

『이제 몇 발자국이나 더 걸을 수 있을까. . .』

◇◇

그 후, 정릉골짜기에서 전쟁이 멀리사라진 후, 나는 산골짜기에 널린 그들 괴뢰군의 시체를 처리한다는 인부들의 뒤를 따라, 구경을 나선 일이 있었다. 그리고 골짜기 끝머리에 후줄근히 널려 있는 그들의 시체 가운데서 한 어린 병사의 시체를 보고 놀랐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며칠 전 푸르게 퍼진 가을하늘을 몇 번이고 쳐다보며 조그만 오솔길을 지친 다리로 걸어나가던 그 병사였다.

누렇게 들뜬 얼굴에 죽음이 그려있었지만, 그러나 그 얼굴에서 나는 이제 아무 것도 나를 괴롭힐 수는 없노라는 그런 행복, 아니 안도의 표정을 보았다.

역시 그때 입 속에서 중얼거렸던 대로.

『몇 발자국이나 더 걸을 수 있을까. . .』

그렇게 몇 발자국이 세상을 더 건지 못한 것이었다.

나는 그 어린 주검을 우두커니 굽어보던 눈결을 하늘로 옮겼다. 역시 푸르른 가을 하늘이었다.

◇◇

그 후로부터 가을을 느낄 때마다 나는 그 어린 병사의 얼굴을 그려보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지에 끌려나간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어린 아들을 기다리고 앉았을 어떤 농부의 얼굴을 그리게 된 것이다.

속에 살면 사람은 역시 좀더 큰것 을 바라보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작년 여름인가 한다. 대천 해수욕장에서 P중령을 만났다. 나는 그가 결혼한 부인과 같이 온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부인이 아니라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왔었다. 부인은 임신중이어서 같이 올 수가 없었다고 한다.

수영복도 입을 수 없는 늙은 어머니를 해수욕장까지 모시고 온 중령을 볼 때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일이었다. P 중령은 그 늙은 어머니를 즐겁게 헤드리기 위해 어머니를 바닷가에 까지 모시고 나와 자기의 수영을 보여 드리고 있었다.

비행기를타고 공중을 날으는 자기의 모습을 물속에서 보여주는 것이었다.

순수한 마음 또는 천진한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P중령은 멋진 수영으로 바다 속을 헤엄쳐 나가며 어머니에게 손을 흔들곤 했다. 어른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보였다.

역시 하늘을 날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대전에 있는 동안 그는 꼭 어머니 옆에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며 꼭 어린이에 같이 어머니를 따랐다.

넓은 것을 보고 높은 것을 보며 사는 사람은 순정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순정적인 사람으로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없다.

나는 공군의 장성들과 가까이 할 기회가 별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인간성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몸과 정신을 단련시킨 그 분들에게 호기심이 적지 않다.

그 들은 모두가 육지만을 걸으며 사는 사람들과 어딘가 다른 점이 있을 것만 같다.



소 설

우정

김이석(金利錫)

바로 얼마전, C 마을에 우체국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곳은 본시 철로길에서 오십리나 떨어진 두메 산골 벽촌이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봄부터 마을 뒷산에서 형석이란 희광석이 나기 시작하자, 갑자기 많은 광부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광석을 나르는 추력도 줄창 그치지 않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나니 자연 장사꾼도 모여들어 닷새에 한 번씩 장도 서게 되었고, 학교와 지서도 생겼고 이번엔 또 우체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체국은 동구 앞에 있던 산당을 뜯어 고친 아주 훌륭한 건물이었습니다만 그곳에서 일을 보는 사람은 단 세 사람이었습니다. 즉 국장 한분과 사무원 한분 그리고 우편배달부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편배달부는 본시 삼십년동안이나 옛장사를 해 온 강편이라는 영감이었습니다. 그 영감이 우편배달부로 전향한 것은 하도 오랫동안 가위질을 해가며 옛 사라고 목청을 돌군일에 싫증이 난 때문인지도 모르지요. 하여튼 그는 그만큼이나 오랫동안 이 마을 저 마을로 옛을 팔러 다녔으므로 누가 어디서 산다는 것은 웅하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편배달부 치고서는 아주 적임자였습니다.

그 곳은 워낙 사람이 드문 산골이고 또한 우체국을 개설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물은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루에 기껏 많다는 날도 오십통이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대개는 광산 사무소에 가는 것이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가는 우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산사무소에 들러 우편물을 뭉치로 던져 주고나서 학교와 지서에 가는 신문이나 배달해 주면 그날의 일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배달부에 비하면 국장과 사무원의 일은 더욱 한가한 편이었습니다. 우체국에는 한종일 있어도 전보나 환 같은 것을 하러오는 사람은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끔 우표나 파는 것이 사무원의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코맹맹이 소리는 하나 자기 얼굴엔 대단한 자신을 갖고 있는 만큼 손거울을 꺼내 들고 여드름 짜는 일도 그에겐 큰일이었습니다. 저금을 맡아보는 국장의 일은 더욱이나 한가했습니다.

가설이래로 여태까지 저금을 하러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는 몸이 비대한 때문인지 회전의자에 앉아서 하품을 켜는 일이 무엇보다도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저금이 없어서야 되겠다구, 오늘은 권유를 좀 나가 봐야 겠군」

말인 즉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품만 켜고 앉아있을 뿐으로 그것도 역시 창설이래로 한번도 엉덩이를 들 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도 한가한데 우체국에 갑자기 난처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곳서 이십리나 더 들어가 있는 산 속에서 짐승을 잡아가며 혼자 살고 있는 박편이란 포수 영감이 신문을 보기 시작한 때문이었습니다. 이야말로 우체국서는 큰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박편 영감에게 매일 신문을 배달해 주자면 왕복 사십리 길을 걸어야 되니—

그들은 이 문제로 긴급회의를 열고 신문을 매일 배달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토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나서 우리가 국가의 우체사업의 사명을 맡은 이상, 어떠한 곤난을 무릅쓰고라도 국민의 요구를 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문은 웅당 매일매일 배달해 줘야한다고 결론을 내 렸습니다. 그러자 뒤이어 사무원이 일어나서 코맹맹이 소리로 국장의 말에 지지찬동을 한 후, 거기에 덧붙여 더우기나 신문은 다른 우편물과도 달라 그날 그날 배달되지 않으면 의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르긴 해도 배달은 자기의 일이 아니므로 그들은 그런 말도, 태연히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작 그 신문을 배달해야 하는 강편 영감으로서—

그러나 그 장본인 강편 영감도 그 일엔 별로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박편영감이 어렸을 때 부터 같이 자라난 죽마지우이므로 누구의 우편물보다도 그의것만은 꼭 배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결국 박편 영감에게 가는 신문은 다음날 부터 매일 배달해 주기로 되었습니다.

그렇다해도 신문 하나를 배달해 주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사십리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결코 쉬운 노릇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나 그 길은 몹시 사나운 산골 길이었습니다.

강편 영감은 얼마동안 그 길을 다니다 못해 하루는 박편 영감을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여보게 이 사람, 내 생각을 해서 제발 그 신문 좀 그만 두게나.」

그러자 박편 영감은 깜작 놀라며, 「이 사람이 자네가 제발 내 생각을 해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게」

하고 오히려 그 편에서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강편 영감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 그의 심정도 알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산속에서 혼자 살려니 오죽 쓸쓸 하려구, 그런 사람에겐 신문이 오직 하나의 즐거움일 텐데 그 것마저 보지 말라니 그건 정말 내가 너무했어.」

강편 영감은 친구의 심정을 그렇게도 몰라준 것이

부고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동안은 아무말 없이 박편 영감에게 꼬박꼬박 신문을 배달해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신문 한부를 배달하려고 매일 매일 몇 십리를 걸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생각해볼수록 어이가없고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다시 박편 영감을 붙잡고 사정하 다시피다

「여보게 이 사람, 친구지간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혹사할 수 있어」

「그건 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그제 혹사지 뭐야」

「내가 무슨 혹사를 시켜서」

「그래 신문 한장을 배달하기 위해서 매일 사십리를 오르내리게 하는 것이 혹사하는게 아니구 뭐야」

「아 그 말인가 그 말이라면 난 듣지도 않겠네」

박편 영감은 애써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러지 말고 제발 내 말을 좀 들어 주게나」

「글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데두」

「내가 이야기 하겠다는 것은 자네에게 신문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이런 산속에서 신문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이런 산속에서 신문두 없이야 정말 어떻게 살겠나, 그러니 말야, 내 신문을 모았다가 닷새만에 한번씩 배달해 줄테니 그렇게 합세나.」

하고 강편 영감은 의론조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편 영감은 여전히 천부당 만부당 하다는 얼굴로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어요.」

드를 생각없이 대통에 담배만 담고 있었습니다.

「이사람아 닷새가 멀다면 그럼 이렇게 합세나, 사흘마다 한번 씩 배달해 주기로…」

「싫어.」

「아니 사흘마다 배달해 준다는 데두 싫다는 거야?」

「아— 싫다는데.」

「자네가 그렇다면야 하는 수 없지, 그럼 이렇게 하지. 하루건너 이틀에 한번씩… 이거야 물론 자네도 싫다지 않겠지?」

「그것 두 싫어.」

「뭐, 그것 두 싫어?」

강편 영감은 그만 기가 막혀 확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박편 영감은 눈 하나 깜작하는 일 없이,

「응, 싫어.」

여전히 그 한마디로 담배만 뽕뽕 빨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보니 강편 영감은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 았지만 그래도 말만은 온순하게,

「자네처럼 친구 사정도 몰라 줘서야 어떻게 살겠 나.」

「그건 정말 내가 할 소릴세, 자네처럼 몰인정해 서야.」

「이 사람아 내가 몰인정 하다구? 그래 자넨 내가 신문 한 장을 배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한번이나 생각해 보고서 그런 수작인가.」

「그래서 자네 내가 얼마나 목을 길게 뽑구 신문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한번이나 생각해 보고서 그런 소릴 마구 떠버리는 거야?」  
「물론 생각했지. 생각했기에 여태까지 그 고생을 하며 자네에게 매일 꼬박꼬박 신문을 배달해 준 것 아닌가. 그런데 그걸 이틀에 한번 씩 하자는 데 두 싫다구?」  
「이 사람이 자네가 그런 생각이었다면 여태까진 지켜온 우정을 왜 앞으론 계속할 수 없다는 거야. 제발 그런 소린 말어.」  
「그러니 자네 고집대루 신문은 매일 배달해 줘야겠나?」  
「물론이지」  
「이들의 한번두 정말 안 되겠어?」  
「물론」  
「이녀석아 뭐가 물론이야, 네녀석이 그런 배짱이라면 나도 생각이 있어」  
강편 영감은 더 참을 수가 없어 화를 발작했습니다. 그러자 박편 영감은 뚱해진 얼굴로,  
「이 사람이 그건 또 갑자기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긴, 우편배달부를 그만하는 한이 있어 두, 뗏구석엔 영 올라오지 않을 테니 네 녀석은 꿈이나, 뗏돼지나, 하구 살다 죽으라는 거지.」  
배알 듯이 말하고서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을 결심으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강편 영감이 배달하다보니 남은 것은 박편 영감에게 가는 신문 한장 뿐이었습니다. 그걸 보니 눈앞에는 신문을 기다리다 못해 실로 멍청하니 앉아 있을 박편 영감의 얼굴이 자꾸만 버려졌습니다. 강편 영감은 생각다 못해,  
「이왕 배달해 주던 것이니 오늘 하루만 더 배달해 주기로하지.」  
하고 매일, 다니던 그 산골길을 다시 터볼터볼 찾아 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어떻게 된 일인지 신문을 갖고 가면 토방마루에 앉아서 기다리다 별쭝거려 웃어주던 박편 영감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엔 뒤통간이라도 갔나하고 생각해 봤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슨 불일이라도 생긴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신문만 넣어주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강편 영감은 어제 일이 약간 궁금한 채 그레 오늘 하루만 더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집을 다시 찾아 갔습니다. 그러나 박편 영감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어제 배달한 신문만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강편 영감은 급기야 가슴이 철렁 했습니다. 이 놈 두상이 사냥을 나갔다가 혹시나 짐승에게 잘못이나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머리에 번개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아침부터 박편 영감의 일이 걱정되어 배달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랴부랴 그의 집으로 달려 갔습니다. 그러나 박편 영감은 그날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필시 짐승에게 잡혀 먹힌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어 눈물이 마구 쏟아 졌습니다.  
—그래 그레 내가 그 녀석에게 신문 배달을 못해 주겠다는 말만 꺼내지 않았어도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 생각을 하면 더욱 원통해 전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그의 집을 다시 찾아가자 박편 영감은 전날과 다름없이 토방에 걸터앉아서 늘 웃는 그대로 웃음 별쭝별쭝 웃고 있었습니다. 강편 영감은 반가운 생각 보다 화가 먼저 앞서는 대로,  
「이녀석아 어딜 가던 간다고 말이나 할 게지 남을 그렇게 걱정시키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러나 박편 영감은 여전히 별쭝거리는 웃음으로  
「자네가 안 온다기에 난 너머권 산으로 사냥을 갔었지.」  
하고는 뜰에 잡아다 논 뗏돼지를 가르켜,  
「오늘은 저놈이나 저다먹게.」  
하고 말했습니다. 굉장이 큰 놈이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지구가겠나.」  
「이 사람이 뗏돼지 하날 못지겠나, 저기있는 지게나 가져오게, 내 지워줄게.」  
강편 영감은 호되게 무거운 뗏돼지를 지고 내려오면서 박편 영감이 신문을 보지 않는다면 자기는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철을 따라 산속에 피는 꽃도 볼 수 없으며 아름다운 뗏새 소리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산속의 꽃과 새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나 다름없지않나  
그리고는 박편 영감의 별쭝거리는 그 웃음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녀석의 웃음을 보면 공연히 마음이 기뻐지니말야  
박편 영감은 자기도 모르게 싱긋 웃고나서 그리고는 생각을 계속하여,  
—정말 그 녀석이 신문을 안 본다면 큰일이야, 그렇게 되면 나는 밤샜 사무실 구석에서 국장의 하품 켜는 꼴과 코맹맹이의 여드름 짜는 꼴만 봐야 할 것 아닌가. 그건 정말 생각만 해도 답답한 일이니 그렇게 된다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해. . .」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비탈길을 내려오는 동안에 지게에 진 뗏돼지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는 그만 화가 난 얼굴이 되어,  
「그놈의 두상 어찌자고 이런 호된 뗏돼지를 잡아 갖고서 남을 또 땀을 매게 하는거야.」  
하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살펴보자

붉은마수  
노리는 곳

by Roy Carol

## 조용한 살인

로이·카로울  
유기영 역



〈승전〉 카리스타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내의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미 서른세살,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젊을 때부터 미인 형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는 훌륭했다. 그저 훌륭하다는 표현이 가장 적격이다. 품위가 있고 침착하고 거기에 요즘은 어머니다운 따사로움이 몸에 붙어서 집안을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어준다. 언제나 카리스타에게는 만족스러운 아내였다. 지금도 물론 그러하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순간에도 아니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순간에도 사랑스럽다. 『그래, 그렇지만 난 오늘 저녁엔 일이 있는데 어떤 거지?』  
『오늘은 쉬지구 내일하세요. 피로해 보이는걸요.』  
『내일로 하자. 내일에는 일이 없으니 약속할 수 있다』 오늘 저녁에는 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  
로오라는 남편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로오라는 남편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내가 남편의 눈치를 알아먹는 것은 쉬운 일이니까. 그 내용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지만—  
『그럼 내일은 약속해요』  
로오라는 웃어 보였다. 그는 남편이 한번 안 된다면 굽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터이다. 방긋 웃어주는 로오라는 미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이 아름다운 로오라 카리스타의 고민은 더욱 커졌다. 내가 만일 실패하면 로오라는 어떻게 되나 가령 내가 목적은 달성했어도 체포 된다면?  
그는 대통령이 하던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행동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부기관으로서가 아니고 보통의 시민이 자기의 목적 즉, 개인적인 목적에서 행동한다. 결과의 책임은 여러분 자신이 져 주셔야한다. 다시 말하면 법의 기대를 가지지 말아주셔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을 어떠한 형식으로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주 경찰은 여러분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체포 된다고 해서 로오라가 돈에 고통을 받지는 않겠지. 생활은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만한 재산은 있으니까. 문제는 내가 없어지면 로오라는 혼자서 외로워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살인범인의 아내 아내의 명이다.  
—여러분은 법률을 파괴하게 됩니다. 살인죄는 각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서관에 다녀와야겠는 걸로래 걸릴 일은 아니니 다녀와서 돌이서 한잔하자 음악이나 들어가며.』  
로오라는 고개만 끄덕하고는 곁에서 키스를 한다. 입술은 차갑다. 그렇다고 너무 차가울 정도는 아니다. 카리스타는 갑자기 정령을 느꼈다. 그래서 한참동안이나 아내를 포옹했다.  
또 대통령의 말이 머리를 엄습해 왔다.  
—여러분의 가족은 희생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애국자로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귀중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

카리스타는 한번 더 로오라에게 키스를 하고 바쁘게 집을 나갔다. 학교운동장을 향해서, 단추도 끼지 않는 그의 옷, 코오트가 바람에 휘날리었다.

침, 그는 로오라에게 말한 그대로 도서관에 들어 갔다. 관원들과 몇사람의 학생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기로 했다. 아리바이를 만들어 두자는 것이다. 만일의 경우에는 도서관에 있었다고 증언할 생각에서다. 조금 있다가 그는 뒷문으로 살짝 빠져나갔다.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았다.

쥬이코프·아만의 아파아트는 거기서 세 번째 버스 정류소에 있었다. 상당히 큰 편의 아파아트였다 그러나 카리스타는 한번도 방문한 적은 없다. 그래도 그는 보고서에 의해서 아만은 혼자 살리라는 것, 방문객도 거의 없고 그가 찾아가는 곳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파아트는 곧 발견해 냈다. 입구는 잠겨 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3층에 올라가서 그의 방문을 노크할 수가 있었다.

대꾸가 없다. 어쩌면 눈치를 채리고 도망쳐 주었는가… 카리스타는 그랬으면 하는 희망을 은근히 가졌으나 그 희망은 곧 깨뜨러지고 말았다. 침대에서 내려서 신발을 신는 소리가 안에서 들려 왔다. 스타프를 끌면서 도어에 가까이 온다. 그리고는 도어가 열렸다. 아만은 아무런 의심도 가지지 않고 도어를 활짝 열었다. 그리고는 방금, 자다가 켜 얼굴을 꾸비고 있다.

『아만 교수』

하고 카리스타는 곧 말을 걸었다.

『저는 대학에 강좌를 가지고 있는 당신의 동료입니다. 영문학을 맡고 있는 카리스타』

아만은 그저 고개를 끄덕인다.

『간단한 얘기가 있는데 1분 정도 시간을 빌릴 수 있겠는지요?』

아만은 갑자기 의심을 품는 모양이었다.

『지금 바쁜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방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용건이고 잠깐만에 끝나는 일입니다.』

결국, 아만은 싫어하면서 길을 열어 주었다. 적당한 구실도 없고 또 상대가 영문학 강사라니 크게 의심할 인 물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방안은 혼자 살이 그대로 난잡스럽다. 청소도 정리도 되어 있지 않고 옷이랑 책이랑 원고지랑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다. 방바닥에는 종이가 지저분하게 팽개친 그대로이다.

카리스타가 방안에 들어서자 아만은 통명스럽게 말했다.

『용건을 말하십시오』

즉석에 대답을 해야 한다.

『기념재단의 기부금 모집 건인데 내가 교수단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꾸며 맞추면서 카리스타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휴기로 사용할만한 물건은 없는가, 저 의자는 어떻게 까. 무겁기는 하겠으나 쓸 수도 있겠구나. 부론즈상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 탁상용 전기 스탠드도 있구나. 살인은 현장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보일려면 휴기는 이 방안에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무슨 기념재단이지요?』

하고 아만이 묻는다.

『드레이크 기념재단입니다.』

카리스타는 생각나는대로 지껄였다.

아슬아슬한 모험, 드레이크 재단은 아무에게도 기부금 같은 것 받는 재단이 아니다. 만일 아만이 이것을 안다면 일은 다 틀린다. 물론 그는 모를 것이다. 기부금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하지? 그건 관계 없다. 그는 거절하기 위해서 이러니 저러니 구실을 꺼낼 것이다. 그런식으로 약간 시간을 끌어 주는 편이 오히려 좋다. 그는 선뜻 손에 잡히는 데로 돈을 꺼내 줄지도 .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조금이라도 남에게 악감정을 사지 않으려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 이니까. 너무 빨리 주는 것도 서둘 시간을 없게 하니 불리하다.

아만은 포켓에 손을 넣어서 찾고 있다. 잡히는 것이 없는가 보다.

『수표를 끊을까요.』

하고 아—만은 서랍을 연다. 카리스타는 기회를 잡으려고 노리고 있다. 아만의 머리는 총알같이 생겨먹었다. 저래서는 두꺼비 대추씨 처럼 좀 채 깨뜨러지지 않는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휴기는 부론즈 동상이 알맞다. 저 것이면 대추씨 처럼 여물다해도 제놈이 터지지 않고는 못배겨 내겠지. 카리스타는 포켓속에서 장갑을 쥔다. 지문을 남겨서는 안 된다. 불안 속에서 그는 노상 생각했다. 내가 과연 살인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상대가 스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나 잔혹하지 않는가 그러나 실행이 지상명령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추상적인 논의가 문제가 아니다. 빨리 실행해라 죽여야 한다 말살해 버려야 할 반역자다!

『여기 있구려』

아만은 다른 책장 속에서 수표대장을 꺼내었다. 그는 책상위에 있는 책들을 밀쳐내고 수표 용지 한 장을 찢어서 책상위에 놓고는 무엇을 이리저리 찾고 있다. 펜을 찾고 있음이 분명하다.

『제것을 쓰시죠.』

하고 카리스타는 안 포렌에서 만년필을 꺼내 주었다. 아만은 잠자코 받아서 쓰기 시작했다. 이처럼 서투른 글씨도 보기 드물다. 대학교수는 고사하고 농군이라도 이보다는 더 잘 쓸 것이다. 펜이 잘 걸린다.

카리스타의 눈은 수표에 붙어있으면서 장갑 낀 손은 브론즈 동상을 잡고 있다. 그리고 서서히 아만의 머리 위로 올라 갔다.

느릿느릿 글자를 쓴다기보다는 그리고 있던 아만의 손은 그래도 자기 서명에 이르러지자 템포가 빨라진다. 그로테스크할만치 굴곡이 많은 자체다 서명이 막 끝날 무렵, 부론즈 동상이 대추씨 머리에 정통으로 내려쳤다.

일격으로 알맞다. 대추씨머리는 보기와는 다르다. 카리스타는 한 번 더 쫓다. 대통령의 말이 영화필름의 녹음판 처럼 그의 머리 속을 스쳐갔다.

—여러분과 같이 교양있는 인사에게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그들에게 제재를 가할 때 주저 아니치 못 할 것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께서는 고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평화를. . . . .

카리스타가 가진 브론즈 동상은 세 번째로 「반역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아침이 되었으나 잠을 잔 것 같지는 않다.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눈알이 붉다. 로오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으나 카리스타는 다른 말로 엄버부릴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몹씨 이상스러운 남편의 태도에 로오라는 걱정이 대단하다. 카리스타는 그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렇자니까 더욱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도 그는 면도를 하고 얼굴을 가다듬었다. 눈알은 들어가고 얼굴은 창백하다. 그는 커피도 들지않고 집을 나섰 다. 그가 앓! 하고 발견한 것은 학교에 가서였다. 만년필을 그대로 두고 오지 않았다.

### 3

9시에는 사형대에 서야한다. 여덟시에 최후의 면회가 허용되어 로오라가 나타났다. 아내와 남편은 살풍경 한 실내에서 마주 섰다. 이번에 한해서 언제나 그들의 사이를 가로 막던 철망이 없다. 저쪽에 제복한 간수가 얼굴을 돌리고 있다. 부부를 위해서. .

로오라는 검은 옷으로 몸을 싸고 있었다. 그렇다고 아주 검은 옷은 아니었다. 여원 얼굴이면서도 남편을 위해서인지 입술연지를 바르고 무리한 웃음을 짓고 있다.

『오늘, 주 지사님을 만났어요』

『그래, 무슨 말이라도.』

카리스타는 맥없이 물었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에게 사실을 말하도록 권해보라 하셨어요. 지금 두 늦지 않아요. 그리구는 전화로 연락하라 하셨어요.』

로오라는 필사적이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의 눈은 하나님께 남편이 사실을 말하기를 애원하고 있다. 카리스타는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는 회색한 벽을 바라본다. 이 벽도 앞으로 한 시간이 못돼 사라지고 만다. 온 세계의 모든 것과 더불어—

그는 또 다른 52명의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그들 가운데서도 몇 사람은 지금 나와 같이 이 살풍경한 방에 갇혀 있을 것인가? 그 가운데 몇사람은 이미 영원한 심연, 바닥이 없는 심연으로 들어가고 말았을까? 그 가운데 누가 한사람, 그 누가 한사람 진상을 말한 자는 없을까? 주지사가 것처럼 알고 파히는 진상을 가령 누가 입 밖에 냈다하더라도 그것이 내 귀에까지 들어오겠는가?

『왜 모두들 내말을 믿지 않는가.』

카리스타는 우정 소리를 크게 해서 말했다.

『하지만』 하고 로오라가 말한다.

『누구라도 당신이 살인할 사람으로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꼭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만 생각해요. 거기에 당신은 아만이란 노인과는 전연 인사도 없는 사이가 아녜요.』

『아나, 잘 알고 있는 사이야』

카리스타는 또 시선을 돌렸다.

부부는 잠잠해졌다. 카리스타는 또 아까 그 생각

## 내가 사랑하는 생활

하사 강무송 (항공본창행정관실)



현대인의 대부분은 조용한 농촌생활보다는 동적인 도시생활을 동경한다. 그러나 나는 온갖 소음을 일으키며 질주하는 차량 포화상태에 이른 인간 속에서 노이로제, 신경쇠약 같은 고급병을 치뤄야 하는 도시생활보다는 아늑한 전원이 전개되는 속에 시큰한 풀내에 섞여 후각을 건드리는 거름내 속에서 어수룩하게 살아가는 농촌생활을 사랑한다.

그 언젠가 전북 J읍을 고향으로든 P병장과 제대를 20여 일 앞두고 나는 대화에 이런 것이 있었다. P병장은 제대를 하면 고향에 돌아가 어머님을 모시고 아내와 더불어 흠속에 묻혀 단란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 나대로의 해석을 한 채 말을 건네었더니, 「P병장왈 누가 따분하게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산답디까? 서울에 가서 취직해서 편하게살지」 농촌에서 피 땀 흘려 농사를 지어 봤자 별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웠다는 사람은 도시에의 애착을 버리지 못해 농촌에 남아 있는 젊은이란 배운 것이 없는 답답한 친구들이라는 설명이었다.

이런 이야기고 보니 나의 생활관이란 현실을 투철하게 투시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오산에 불과한 것이 되고만 셈이다.

그러나 없어도 있는채 아릿한 된장보다 메스꺼운 BUTTER를 좋아하게 마련된 도시인의 생리에 휩쓸리기 전에 배고픈 농촌인과 더불어 생활하고 체험해서 농촌을 재건하고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겠다.

현재 병영생활을 하고 있는 나니까 이것은 내가 지닌 꿈일지도 모른다. 꿈과 현실에는 거리가 있음을 시인 한다. 그러나 나는 매월 군복무를 마치고 귀향하는 농촌출신 후배에게 내가 사랑하는 생활을 이야기 하여 내가 사랑하는 생활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아 지기를 감히 원해 보는 것이다.



# 신병생활의 점경

글 · 그림 이 규 식  
★하사 인쇄소

이 머리에 떠올랐다. 누가 사실을 말한 사람은 없단 말인가? 52명 중에서 누가, 그 누가. 한 사람이라도 말한 자가 있다면 나도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어떻게 하든 알고 싶다. 그것을 일으켜달라!

돌연, 로오라가 말했다.

『데이빗드도 다이나도 당신이 법정에서 한말 하나두 믿지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좋기는 좋으나—』

『게들 이제는 아이가 아니예요. 이 6개월동안에 어른이 되고 말았어요.』

『보고 싶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키워주고 있으니까요.』

『좋아, 당신을 믿어 당신은 믿을 수 있어.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즐겁기는 하지마는.』

간수는 저어쪽 구석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신문을 읽고 있다. 그가 신문은 활짝 펼친 것은 뜻이 있다. 부부 간에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로오라를 믿고 진상을 밝혀주고 싶구나… 그가 그것을 다른사람에 말하지않고 주 지사에게 전화를 걸기나 하지 않는다면—.

카리스타는 아내에게 이 비밀을 밝히고. 싶었다. 그러면 아내에 대해선 짐을 벗을 수 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로오라는 애국자를 남편으로 가졌다는 자랑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로 오라는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고만 있다.

『로오라, 나는 사람을 죽였다. 지금이라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내는 죽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알겠지 그 사내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는 나뿐이었다. 때문에 나는 그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 . . .』

그는 문득 발을 멈추었다. 아내의 눈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 다음 말에 아내는 필사적인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나는 왜 말해서는 안되는가? 나는 왜 이 가련한 나의 아내를 버리고 죽어가야 하는가? 나는 임무를 충 실히 이행했다. 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필사적인 아내의 애원하는 얼굴 얼굴 그 얼굴—

갑자기 간수가 일어선다. 그는 가까이 닥아서자 신문을 접고는 무슨 말들을 하는가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

『로오라 나는 아만을 죽였다. 그 이유는….』

카리스타는 여기서 말을 멈추지 않으면 안되었다. 간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얼굴은 아는 얼굴이었다. 처음 그에게 소집장을 가져왔던 공무원의 신분증을 가졌던 사나이— 지금은 사형수 감방의 간수.

『오늘 석간인데 자네가 읽어볼 만한 기사가 있구려』

하고 간수는 신문을 카리스타 손에 쥐여 주었다. 조그마한 타이틀이 그의 시선을 잡는다.

—대통령은 오늘아침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아메리카 합중국은 최근 6개월간, 한국전쟁 이래의 국제적 위기속에 놓여있었다. 다행이 이 위기는 이제 모면 할 수 있었으나, 이 위기는 오늘에 와서도 그 진상을 공표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또 공고하며 장래에 있어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정책은 모든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음을 자부한다.」 이 수수께끼 같은 발언에 대하여 기자들은 여러가지 질문의 화살을 던졌으나 대통령은 그 이상 설명을 회피하고 화제를 농업정책으로 바꾸어 버렸다…….

로오라는 신문지를 밀치며 남편의 손을 잡는다.

『정말, 무슨 까닭으로 그런짓을 했어요?』

간수가 카리스타를 바라보고 있다. 카리스타는 여성만이 가지는 눈치빠른 이해력으로 자기 말의 참 뜻을 알아줄 것을 바라면서 명백하게 마지막 한마디를 말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

<소화> 돈을 많이 가진 손님을 맞아들인 여관 주인이 그 돈이 탐이 나서 손님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가라고 백반을 많이 섞은 밥을 주었다.

손님이 떠난 후에 주인은 마누라를 시켜서 방에 가 보라고 했더니 다녀 온 마누라는 이렇게 말했다.

『어이구 잊어버리라는 돈은 안 잊어버리고 숙박료만 잊어버리고 갔어요』



내무사열 준비로 사물함을 정리할 랑으로 먼지를 훑쳐내다가, 오래전에 잃었다고 생각했던 노트 세 권을 발견했다.

이 세 권의 노트. 36관짜리 규격의 작은 수첩인 이 노트, 내 머리속엔 오랜 어제의 감회가 되살아올라 한동안 곁장을 펼치지 못한 채 가벼운 현기증까지 느꼈던 것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비밀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다정한 친구를 다시 만난 기쁨 같은 반가움과 설레임의 표정으로 이 노트 세 권을 꼬옥 쓰다듬었고 귀중한 물건을 대하듯 먼지를 깨끗이 털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군복을 입기 위해서 1항교로 떠나던 날부터 시작해서 입대만1년이 되던 다음해 시월까지 적었던 반일기형식의 만화수첩이었던 것이다. 부분 가슴을 안고(불안한 마음도 섞인) 친지들의 멋진 송별을 받고 집을 떠난던 순간의 내모습이랑— 이게 이 책의 제일 첫 장에 그려진 게 내 서툰 만화수첩의 서장. 벌써 햇수로는 4년전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림조각지도 아닌 만화를 잘 그린다는 자랑은 아니다. 잘 그리는 것 아니래도 사실 취미라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림을 좋아했다는 것 숨길 필요도 없는 데 이 동기랄까 원인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짝지가(책상을 함께 한 동무의 경상도 사투리다) 도서엔 천재적 소질이 있어서 담임선생이 노상 옆에서 지도하곤 했었는데 난 그저 옆자리에 앉은 덕분에 보고 따라서 흉내내며 그런게—그만 어쩌다 도내 아동미전에 입선된 게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까? 결국 컨닝해서 당선된 것이다.

그 덕택으로 중학교에 가선 관록도 자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그 많은 신상조사니 환경조사니 또는 개인면담때 장래희망을 「만화가」니「미술가」니 하는 대답은 한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내 저속한 실력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 허지만 틈만 있으면 산이 좋고 바다가 마음에 들어「이젤」을 걸머메고 시외로 쏘다닌건 지금 상상해도 유쾌한 기분, 그 때 그런게 삼십여점이나 고이 간직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게으른 탓으로 일기쓰길 싫어한 내 습관에서 입대전일 노트 네댓 권을 준비한건 틈이 없을 줄 병생활에서 간단한 생활의 기록을 남기자는 맘에서 작성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여하튼 서투른 필치로써 듣고, 보고, 느낀 것, 생각한 것 등 쓰고 단일들을 날짜별로 그리기 시작한 이 그림들을 조각조각 장마다 넘기는 동안 내 가슴엔



## 하늘

오렌지에서 연보라까지

시원으로 달리는 향수가 젖은

눈가

잡힐 듯

돌아서는

끝없는 암시

글·그림 병장 정 해 심  
◇인쇄소

많은 느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생각없는 무감각한 사람이야 있을까마는 난 유달리 느끼기도 잘 하는 감격파축속이다. 그래서인지 어릴땐 매양 패기가 적어 어른들에게 꾸지람만 들어도 찢끔거리고 훌쩍거리고 동네 애들한테서도 웃음꺼리만 되고 그저 『와아』하고 울어버리는 울음보여서 아마 지금까지도 천성이라서 어쩔수없는가 보다. 허기 때문에 이 군대생활에 첫발을 디디서 1여년. 깨알같은 주기에다 천태만형으로 그린 자화상이 좁은 지면을 채웠고, 이 시기에 그린 한컷 한컷이 군대생활에 가장 뚜렷한 기록이 되고 말았다.

사람을 가리켜 『생각하는 갈대』라고한 「파스칼」의 명구는 고교시절인가 교과서에서 읽은 게 처음이지만 이 구절이 지나는 무거운 비중을 무겁게 깨우친건 부끄러운 얘기지만 입대한 후 1년 동안 이다.

이 사색하는 『갈대』인 내가 느낀다는 것으로 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더함을 가져다 주었는지 타산적이기 보담 내향적인 성격에다 어떤 의미에선 덜함도 함께 가져다 주었다면 난 『얼마나 보람없는 생활을 한 것인가』하고 요즘도 종종 마음 에 느껴보지만 결코 넘겨보는 내생각엔 소용만이 아니었다고 자위해 본다.

참 우스운 얘기가 있다.

『생각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도 없이 넌 뭘 생각해?』

하고 묻는 친구가 있다면,



『우선 잡념·공상. (이것까진 그래도 좋다) 나아가선 저어기 구름 위에 뜬 이상? 혹은 인간사? 윤리? 도덕? 더 발전해선 그거?』

『(그거? 뭘꼬? 헛헛. . . . . 다 틀렸어. 다 소용없다 기 보담 문화방송 퀴즈열차타는 기분이다. 집어치워라 헛헛헛』

이런 기이한 자문자답에.

『넌, 뭘 고민하고 있길래 매양 고갤 빠뜨리고 다니니?』

하고 갓 배속받아온 내게 선배가 힐책한 질문

『. . . . .』

난 별대답이 있을 수 없었으며 그저 그런대로 시간을 엄벌무려 넘겼고 기압주는 선배가 있으면 그저 기압을 받는 천진스런 태도에다 마음 한구석엔 난 나대로의 <푸레트 진네만>이 감독한『지상에서 영위로』라는 「스크린」을 상상하는 것이다. 난 정말 이 영화가 마음에 들었었다.

하나하나 세심히 파고든『휴머니즘의 극치』이니 또는『추악한 미육군 이면사』라던가 하는 감독에 대한 찬사 보담도 어두운—초조와 우수에 머문 전우애의 <몽고

메리 크립트>의 동작, 악질표본적인 영창계(버그나인)의 연기, 그리고 악천적인 친구, 인류애의 <H·시나트라>의 샘솟듯 흐르는 대사들. 이렇게 뒤범벅되어 내 뇌리에 점 박혀지고. 내가 겪는 또 다른 지역의 영상이 펼쳐져서, 그러기 때문에 요란한 기상나팔로 시작해서 애조된 취침나팔에 이르기까지 원칙과 군기가 병행하면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융합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내 머리속엔 언제나 켜트마크였었다.

사실 단체생활에서 더욱이 군대라는 특정사회에서 융합될 수 없는 개인주의는 그 한도나 구분이 극히 애매하게 취급되어 가는 예가 어느 시대에서나 유동되는걸 보면 인간심리는 어디까진가는 경사각을 이탈해 버리는가 한다. 통수계통에 따라 계급을 위주로 기장을 해치지 않는 각인의 개성과 단합. 얼마나 갈망하던 생활이던가. 몇 페이지 넘기면 이런것 도 그려져 있다.

영성한, 여원 갈비가 비대한 고참에게 주의받는 장면,

『“스일병” ”나“병장께 용무.』

『?』

. 『외출중이상없읍니다』

『잘치 만났재?』

『그런건 없읍니다』

『후라이 까지마라! 이상유무점열이다. 버섯!』

『. . . . .』

『짜아식. 안들려?』

『. . . . .그건』

『이유가 많다. 빨리』

『그럼. . . . .』

다음엔 기막힌 장면이 연출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웃음속에 장난같은 얘기지만, 시간이 해결해 준 덕분인지 요즘엔 이른바 고참이란 대명사로 어느듯 그들이 즐겨 행하던 위치에서서 되돌아보면 이건 정말 쏘 『희상』인데, 이런 류의 만화가 장을 넘길때 마다 어제가 되살아 올라 쓴 고소를 날리는건 얼마나 의미있는 값어칠까? 나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가 하나.

전방에 서너 사람 친구가 있다. 모두 속칭 뽕뽕군번받은 학생군인인데 편지가 자주 온다.

각각 자기류의 전공분야가 다른 출신들인 아들. 문학을 하겠다는 친구도(이미 테프를 끊었다) 또는 철학을 하겠다는『노틀』도, 또 과학도에 뱃짱이 어지간한 안경쟁이 외교집애. . . 월수통에 달하는 서신 왕래가 있는데 표현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대동개이한 불만들이 사연의 중심이다. 허기야 곱게 자라온 온실의 화초모양 귀여운집 자식들이 아니가? 전부 귀하고 의젓한 남의집 장남이요, 귀염받은 막내둥이들인데, 갓배속받은 특정 구역은 확실히 온실이 아닌 사회다. 생각과는 다르고 얼핏보면 비현실적인 것 같은 모순이 우선 앞선다. 그래서 우선 투정이고 불만이다.

일구절 소개하면,

『우리부대엔 나이론 변소라는게 있다. 육체체구인 내게 꼭 부딪치는 기둥 그놈의 기둥을 언젠가는 꼭 부수어야겠다.』 일종 이유있는 반발이다. 다른이들 반발도 다 이것처럼 비슷비슷한



대사. 내가그의 위치에서 감히 갖지 못했던 이성의 외침. 또 다른 것 하나.

『정말 안 하면 안 하지 시시하게 놀긴 싫다.』

엄마 말이 떠오른다. 고기는 썰어도 도미요, 인간은 죽어도 사내란 말을 이런 식으로 투정 아닌 투정이 나오게 되는 건 무엇때문? 하고 내 생각이 거기까지 지배하지만 나도 신통한 대답은 없다. 어떤 사회에서나 이 기적인 소수의 압제자들이 만든 분위기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좀 먹는것, 말은 쉬워서 술선수범이니, 상경하예를 부르짖지만 원만히 안 되는 게 단체생활이고 또 전체를 이끌기 위해서 본의 아닌 방법이 나오게 되고, 『바로 셋! 뭐 우스워? 야 보이지 않나? 이 계급장이 보이지 않나 말이다. 넌 대학을 나오고 머릿속에 배운 게 많지만 이 상병님 보답은 새카맣다는 걸 알아야 해! 이 갈매긴 장난감인줄 아나? 아무리 나이가 많고 배운 게 많다케도 이등병은 이등병이야! 몇때문에 편할라카노? 너도 매일 콩나물국 목재? 내가 목은 이 콩나물은 길이가 얼마나 긴 줄아나? 니 계산해봐라.』

『.....』

『이 “ㄱ”상병이 자신건 무궁화 타고 경부선 왔다갔다 두번해도 더 된단 말이다. 니가 목은건 기껏해야 여가서 수원도 못돼!』

『병신같이.....압제같이 놀지 말란말이다.』

이러면서 반 웃음속에 벌어지는 우리를 주위의 침경.

어떤때 길거리에서 제대하고 나간 선배들을 만나면 으레 그쪽에서 자기들의 군대생활향수병(?)에서 왕왕 곤란한 질문을 받곤 한다.

『요즘 어때?』

『뭐, 그렇지.....』

『전과 같다는 뜻인가!』

『처천만에.....』 우선 사상이나 군인들의 사고방식도 발전하는데...』

내무생활의 향상책은. 언제나 우리를 반장의 논의대상이 되고, 또한 각 내무반별로 힘쓰고 있음은 재언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지만 거리에서 만난 선배의 대화는 정녕 그들이 당했고 그들이 행했던 어제의 생활을 상상한 과거의 얘기에서 온 질문이다. 그러기에 그의 선입감은 벌써 군대생활의 전면을 악의로서만 했을 뿐이다.

이런 원인은 단 하나, 사회적인 동물로서 너무나 호려진 이기, 개인 또한 압제자들이 내뿜는 독소로 인해 감염된 극소수인에 의한 독존적인 행동으로 발생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말로서만 부르짖을 시대는 벌써 지났다. 혁명의 주참가 군입이요, 가장 이성이 빠른것도 젊음의 우리 세대다. 신병도 고참도 좋지만 행동의 제제가 있기 전에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확실히 파악하고 견지해야 하는 게 오늘 날 과학적인 문명 족이 갖는 군인관인 것이다.

안일과 어제의 기회적인 요령으로 병역을 해엄칠려는 『가련족』이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괜한 허세로서 숭박폭질 하려던 우린 다 같이 반성해야 한다.

『요령종개 3년 마쳤다』의 간판은 역시 그의 인격을 측정할 수 있는 값싼 동물.

대명사를 낙인찍히기 전에 심분 조기 반성으로 해서 좌우되는 인간의 약점을 스스로 속히 찾아내야 한다. 신이 아니나간 실수도 있을 테지만 실수를 빨리 찾아내는 것도 역시 현명한 일이 아닐까?

말이 옆길로 새긴 했지만 Y의 말마따나 군대생활의 90%가 내무생활일진대 정말 각 개인들의 새로운 각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구 벌써 취침나팔이 부는 군)』

차례차례 넘기던 수첩에 제일 마지막 그런 건 일주일분 빵 배급을 받고 마구 삼켜(씹어 넘기지 못하고) 설사를 해서 일야 15회 출격의 기록을 남긴 어설론 자화상. 벌써 삼 년전 일이다.

이젠 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누워서도 생각은 마냥 어쩔 향하는 것이다.



## 위반카드

병장 백만길  
★인쇄소

토요일 오후였다.

7월의 햇살이 몸부림치며 연병장의 모래알을 달구고 있다. 주변하사의 외출중 주의사항이 여니때보다 지루하게 느껴졌다. 이어서 으레껏 있는 외 출전 행사로 복장검사가 시작되었다. 모자를 벗어두고 그속에 주머니 세간을 모조리 꺼내 놓고 바지자락을 처 들어 보이면 이 절차 역사 순조로히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오늘만은 그렇지 않았다. 어쩐지 집합할때 꺼림직하게 생각했던 사제단화가 끝내 말썽을 일으키고 말았다.

「그거 사제단화지? 갈아신고 나가!」

이 정도라면 그 대로 전례에 비추어 관대한 처분이 아닐 수 없었다. 『자! 이제부터 외출이다.』나는 정문을 나섰다. 그리곤 아래위를 한번 훑어보며 만족한 미소를 띄웠다. 잘 다려진 카키복 쓰봉에 선 「레지기」며, 먼지가 미끌어 떨어지는 단화의 끝이 자랑스러웠던 것이다. 『흥! 이 신을 벗어 놓고 그 투박한 편상화를 신고 나가 가시라고. . .』

빠스속에서도 행여나 밟힐까봐 온 신경을 신발에 집중시키고 오늘의「스케들」짜기에 여념이 없었다. 빠스가 서울역에 왔을 때는 등에 땀이 흘러 반소매 뒤통이 축축했다. 시원한「아이스·케키」집의 간판이 나의 발길을 불러들여 나는 바빠 그 곳으로 향하였다. 이때 『실례합니다』하는 굴직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뒤를 돌아보는 순간 푸른「헬메트」와 푸른 바탕의 흰글자「헌병」이라고 쓰여진 완장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 나는 이내 고개를 밑으로 하여 단화를 보았다. 버스안에서 그렇게 조심한 덕분에 아직도 먼지하나 묻지 않고 반짝이고 있었다. 다음 헌병을 보았을 때 그도 나와 같이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보고있었던 모양으로 나와 단화를 번갈아 보는 것이었다. 『내 단화가 부러워서 인가 보다. 아니 그보다 거울같은 단화끝에 자기 얼굴이라도 비춰보고 싶어서이겠지.....』 나는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 생각은 철없는 어린이에게 게서도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죄지는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어색한 웃음과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외출중 좀 봅시다.』

무엇인지 놀르고 있는 듯한 만만치 않은 목소리였다. 나는 태연을 유지하기 위하여 크게 심호흡을 소리없이 하며 외출중을 꺼내 들었지만 가늘게 떨리는 손은 감출 수없었다. 그는 천천히 외출중을 훑어보며 내 단화를 힐끗 보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의 손에 쥐어진 외출중을 보며 어서 달라는듯 초조한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불안은 끝내 나의 침착을 아랑곳 하지 않고 시선을 받아래 신발에 멈추게 하는 것이었다. 『그 단화 사제죠?』

그의 물음은 법정에서의 재판장이 피고를 두고 하는 질문처럼 엄숙한 발음이었다. 나는 아무 대답없이 단화를 다시 내려다 보았다. 여전히 먼지 하나 얹지 않은 그 끝이 정오를 막 지난 햇빛에 아무일 없다는듯 그의 최대의 자랑인 윤을 발산시키고 있었지만 부대 정문을 나설 때와같은 만족한 미소는 거미줄만큼도 나의 입을 스치지 않았다. 『이 신이 편상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런 생각은 좀더 일찍 했었어야 되는 것이었다.

× ×

분명히 주변하사에게서는 외출중만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것 외에「위반카아드」라는 구속 영장같은「카아드」가 외출중과 함께 쥐어져 있는 것이었다. 나는 제일 먼저 주변하사의 얼굴을 생각해 보았다. 다음은 호랑이 같은 내 두 반장, 선임하사, 계장, 그 모든 사람들의 빈틈없는 얼굴이 나의 머리를 스쳐갔다. 「케키」집으로 향하였던 발길은 큰뇌의 지시없이 딴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헌병이 몸시도 원망스러웠다. 『그 헌병만 아니었더라면.....아니 오늘 외출만 안나왔더라면.....그보다 하필 그놈의「아이스·케키」는 왜 먹고 싶어진담!』이놈의 단화를 왜 신고 외출 하였나!단화의 코를 양쪽발로 번갈아가며 뽀아 문질렀지만 결국 그것도 가장 후련하고 적당한 사후대책은 아니었다.

외출 귀영은 평소때보다 두시간이나 빨리 하였다. 외출의 성과는 외출중 외에 가지고 있는 명예의「위반카드」뿐이었다. 정문으로 들어설 때 단화의 끝을 보았지만 이내 시선은 위병소로 향하고 잊지 못할 공포가 전신을 휘감아, 귀영보고 추르기는 발길이 무겁게만 움직여 주었다.

내 뒤를 막 따라 들어오는 금상병의 웃음에 가득 찬 얼굴과 그가 신고 있는 목적해 보이는 편상화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P54에서〉

관심하였으며 여러 가지 위성이 발사 되었지만 우주과학이 실질적으로 인류복지향상과 평화이용에 기여함을 똑똑히 볼 수 있는것은 이번 미국의「텔스타」위성성공이 처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텔스타」위성제작이 민간인 회사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또한 이번「텔스타」의 성공은 국제위성계획의 발전이나 동서양진영의 현안인 외기권의 평화이용문제를 자극한 것으로도 본다.

인공가성발전에 있어서 자유진영간의 기술협조는 그렇게 힘든 문제라고 는 생각되지 않지만 동서간에는 아직도 상당한 장막이 가로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련보다 뒤늦게 출발한 미국의 우주과학이나, 가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오늘이고 보면 소련에서도 우주개발을 공동으로 하자든가, 외기권평화이용문제 등도 활발히 다루게끔 된 바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친 소련의 기상통신위성의 발사도 있기는 하였지만 미국의 계속적이고 과단성있는 전진은 미소간의 우주경쟁면에서나 그 밖에 우주개발문제를 위요한 국제문제해결에 반드시「이니시아티브」를 가져 오도록 하게 될 것이 믿어진다. 끝으로 이번 미국의「텔스타」중계통신위성의 발사성공으로 기실을 착착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범세계적인 전파송수신이 가능성에 비추어 세계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이 유례없이 축소되어 현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매스·미디어」로서도 등장하게 될 때에는 그 영향력이 심대함은 물론이려니와 앞으로의 미소를 비롯한 자유공산 양 진영간의 냉전도 그 양상이 두드러지게 달리 나타나리라는 것은 예기할 수 있을 것이며 우선TV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중계위성의 실용화로 전 세계의「TV 스크린」을 통한「각기의 선전장으로 만들 날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편집후기>

가을과 더불어 <결실의 계절>이 왔다. 산과 들에는 풍성한 열매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 노련한 농부는 수확기를 앞두고 자기의 작품에 최후의 손질을한다. 이달의 특집「우리들의 실천을 저지하는 것」은 그런 농부의 심정으로 년초에 계획했던 우리들의「계획」들을 보다 여물게 하고 알지게 하기 위한 적은 시도다. 「나를 움직인 책들」을 새로 연재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책>만큼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무언가 가슴이 설레는 가을밤 다정다감한 우리의 감정들을 달래며「가난한 가슴들」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배들을 움직인 책이 무엇이며 특히 그 책의 어느 구절이 그랬는가를 알 필요가가 있을 듯하다. 그리고 새로만든 서가에서「나를 움직을 책」을 한번 찾아 봄이 어떨까.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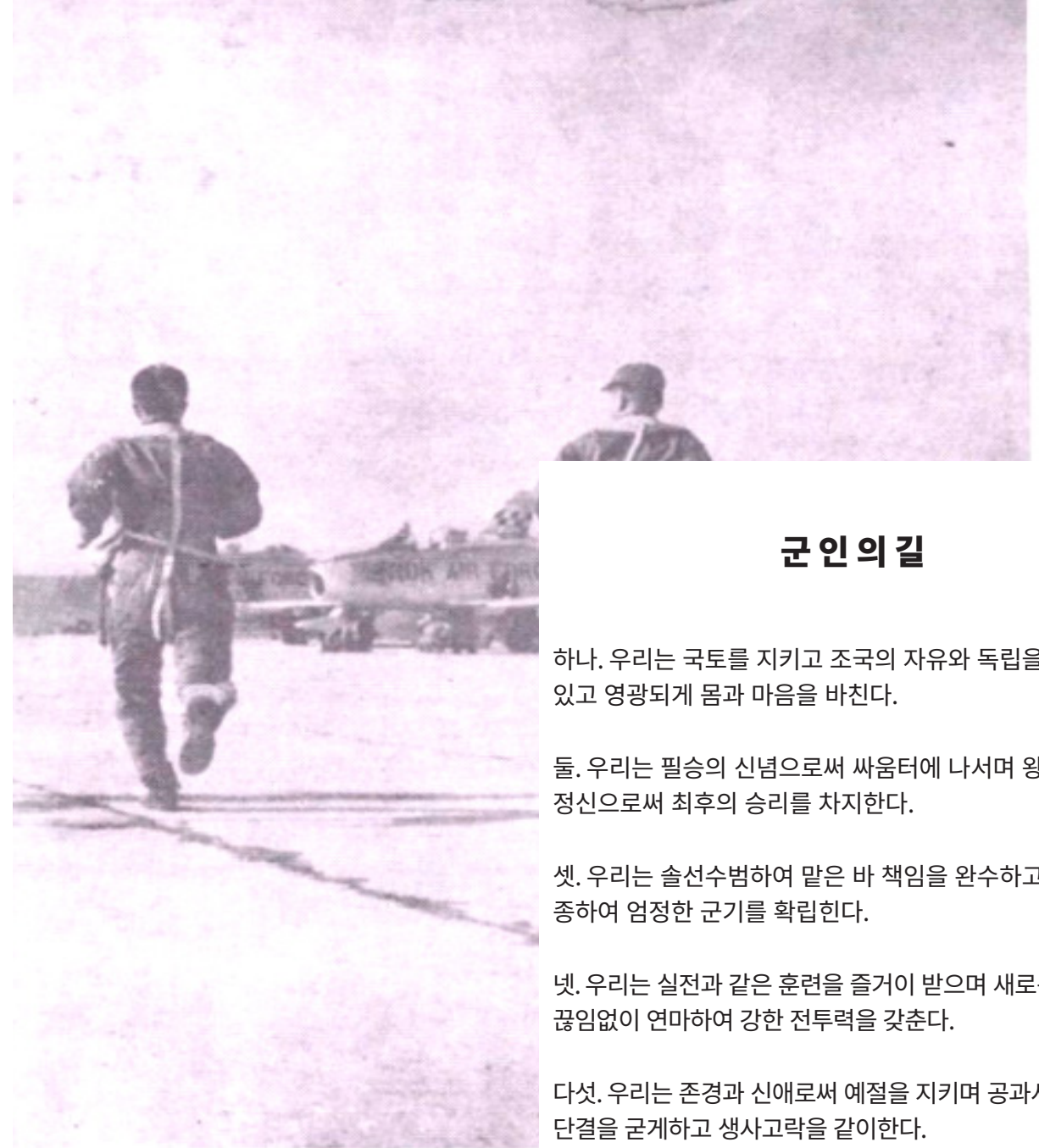
#### 김 내각수반 공본 순시

김현철내각수반이 지난 8월 7일 박국방장관, 김내각사무처장을 대동하고 초도순시차 공군 본부를 방문하였다.



#### 국민항공의 밤 성황

국민의 항공사상을 복돋우고 하늘로 향한 젊은이의 꿈을 한층 부풀게 하는 「국민항공의 밤」이 지난 7월 21일 한강백사장에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 군인의길

하나.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 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

둘. 우리는 필승의 신념으로써 싸움터에 나서며 왕성한 공격 정신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

셋. 우리는 술선수범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한다.

넷.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즐기며 새로운 전기를 끊임없이 연마하여 강한 전투력을 갖춘다.

다섯. 우리는 존경과 신애로써 예절을 지키며 공과사를 가리어 단결을 굳게하고 생사고락을 같이한다.

여섯. 우리는 청백한 품성과 검소한 기풍을 가지며 군용시설을 애용하고 군수물자를 선용한다.

일곱. 우리는 국민의 자제로서 국민을 위하여 자유민의 전우로서 자유민을 위하는 참된 역군이 된다.





# 미 사 일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